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야기

아나톨리아 교회와 문화

조동호 지음

ΠΡΟΣ ΓΑΛΑΤΑΣ

ΠΑΡΑΚΑΛΗΣΕΤΕ ΜΕΤΑΛΛΗΛΟΙΣ ΑΛΛΗΛΗΛΗΝ ΧΡΥΣΤΟΥ ΚΑΙ ΘΕΟΥ ΠΑΤΕΡΟΣ
ΤΟΥ ΗΜΕΙΣ ΠΑΝΤΟΣ ΑΥΤΟΝ ΕΚΚΛΗΣΙΑΝ ΚΑΙ ΟΥΚ ΕΝ
ΕΝΑΝΤΙΟΙΣ ΟΜΑΔΑΙΣ ΟΙΣ ΤΑΙΣ ΕΚΚΛΗΣΙΑΙΣ ΔΙΕΤΗΡΕΙΤΑΙ
ΤΙΣ ΧΑΡΙΣ ΥΜΕΙΝ ΚΑΙ ΕΙΡΗΝΗ ΑΠΟ ΤΟΥ ΠΑΤΕΡΟΣ
ΚΑΙ ΚΥΝΗΛΩΝ ΙΗΣΟΥ ΧΡΥΣΤΟΥ ΤΟΥ ΔΟΝΤΟΣ ΑΥΤΟΝ ΕΙΣ
ΑΜΑΡΤΙΑΝ ΗΜΩΝ ΟΤΙ ΟΡΘΟΞΕΝΤΑΙ ΗΜΑΣ ΕΙΣ
ΔΙΩΝΟΣ ΤΟΥ ΕΒΕΡΕΤΟΥ ΠΟΙΗΝΤΟΥ ΚΑΤ' ΑΓΡΟΝ
ΤΟΥ ΒΥΧΑΠΡΟΝΗΤΩΝ ΩΝ ΑΝΕΣΤΗΝ ΤΑ ΕΝ
ΔΙΩΝΩΝ
ΜΕΤΑΤΙΘΕΙΣΕΡΟΝ ΘΥΛΙΘΙΩΝ ΕΝ ΧΕΣΤΙΝ ΑΣΙ
ΝΕΣΕΙΣΙΝ ΟΙΣ ΤΑΡΑΧΟΝΤΕΣ ΤΩΝ ΚΑΤΑ
ΟΥΡΟΥΣ ΤΟΥΣ ΕΛΙΟΥΣ ΤΟΥ ΧΡΥΣΤΟΥ

그리스도의교회연구소

P46 Galatians

A story of the Epistles
to the Galatians, the Ephesians, the Colossians, and
the Philemon:
ANATOLIAN CHURCHES and CULTURE

DONG HO CHO

Christian Church Studies, 2019
20-10 Beonyeong 8-gil Umsamyun Gyeryongsi,
Choongnam, Korea 32815
Tel(042)841-9697

머리말

주석가들은 전통적으로 옥중서신이란 이름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한 권으로 엮어 펴낸다. 그러나 필자는 전통적인 방식을 떠나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한 권으로 엮어 <고린도전후서 이야기: 고린도교회와 그리스문화, 2015>를 펴냈고, 데살로니가전서와 후서 및 빌립보서를 한 권으로 엮어 <데살로니가서 및 빌립보서 이야기: 마케도니아교회와 비잔틴문화, 2017>를 펴냈으며,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한 권으로 엮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야기: 아나톨리아 교회와 문화>를 펴냈다. 이 자료들은 PDF 파일형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연구소> 홈페이지(<http://kccs.info>)에 실려 있고,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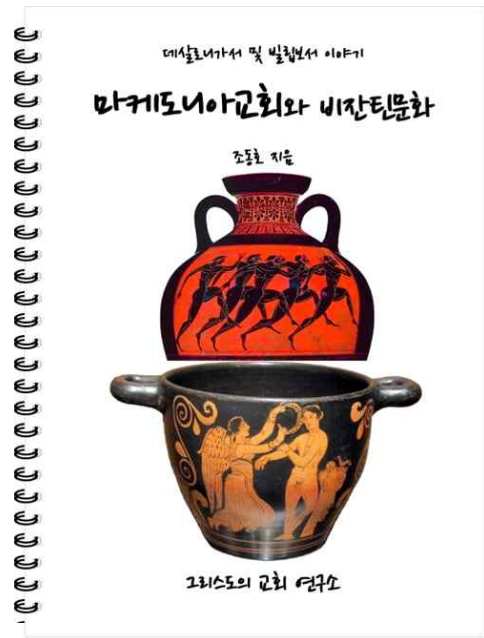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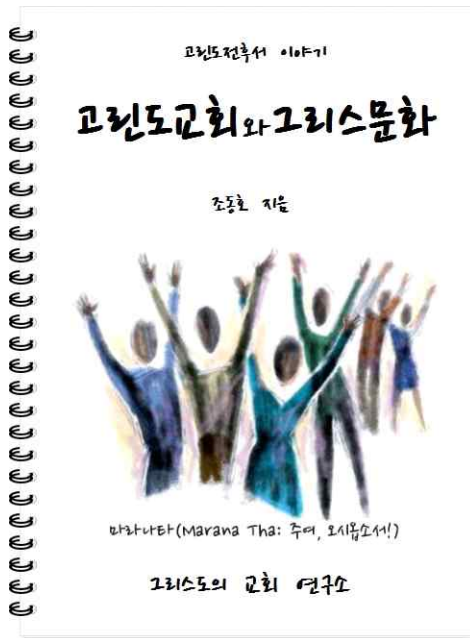
아나톨리아는 ‘태양이 솟는 곳’ (Ανατολή)이란 뜻으로 오늘날의 터키 반도(半島)를 말한다. 이전에는 ‘소아시아’ (Μικρά Ασία)로 불렸고, 한글성경에서는 ‘아시아’로 번역되었다. 바울은 제1차 및 제3차 선교 여행 때 이 지역에 직간접으로 많은 교회들을 세웠다. 이들 교회들이 남 갈라디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지에 있었고,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서머나, 사데, 빌라델비아, 히에라볼리(히에라폴리스, 파묵칼레), 라오디게아, 골로새 등지에 흩어져 있었다.

아나톨리아 문화는 그리스문화나 마케도니아문화와 공통점도 많았지만, 다른 점도 많았다. 필자는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들 지역의 문화, 역사 및 고고학 유물에 관심을 갖고, 자료들을 수집하여 일정한 크기와 최상의 상태로 편집하였고, 해설을 붙였다. 유물들에는 당시에 통용됐던 주화, 프레스코 벽화, 조각, 건축, 도기화, 사진 등이 포함된다. 필자는 이것들을 한 편의 설교에 해당되는 모든 장(章)에 세 개씩 넣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필자는 모든 장(chapter) 끝 매 편의 설교를 삼등분으로 나눠 작성하였고, 각 등분마다 소제목을 붙였으며, 소제목마다 분량을 일정하게 작성하였다.

필자가 시도한 이런 형식의 글쓰기는 일찍이 누구도 시도한 적이 없는 필자만의 독특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 글을 쓰는 것보다 필요한 유물자료를 최상의 것으로 찾고 편집하고 연구하여 해설을 붙이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했다. 필자의 이 모든 노력은 그리스도교 복

음의 본래성과 순수성을 회복하는 일, 곧 신약성서 그리스도교를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재창조하여 활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코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빈다.

2019년 5월 17일
소광(素光) 조동호 목사



차례

머리말 3

갈라디아서 이야기: 하나뿐인 복음

하나뿐인 복음01: 바울의 사도직 논쟁(갈 1:1-5)★15

갈라디아서 15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 16

사도직 논쟁 17

하나뿐인 복음02: 다른 복음은 없다(1)(갈 1:6-10)★19

기로에 선 유대교와 기독교 19

바울의 적대자들 20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21

하나뿐인 복음03: 다른 복음은 없다(2)(갈 1:6-10)★23

영지주의자들의 활동 23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의 충돌 24

에비온파의 활동(1) 25

하나뿐인 복음04: 다른 복음은 없다(3)(갈 1:6-10)★27

에비온파의 활동(2) 27

할레파를 삼가라 28

가장 고상한 지식 29

하나뿐인 복음05: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1)(갈 1:6-10)★31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31

구약성서의 이해의 충돌(1) 32

구약성서의 이해의 충돌(2) 33

하나뿐인 복음06: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2)(갈 1:6-10)★35

교황이 명한 대로(1) 35

교황이 명한 대로(2) 36

국가종교가 명한 대로 37

하나뿐인 복음07: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3)(갈 1:6-10)★39

교리가 명한 대로(1) 39

성경이 명한 대로(1)	40
성경이 명한 대로(2)	41
하나뿐인 복음08: 배운 것과 전한 것(1)(갈 1:11-14)★43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것을 전한 증인(1)	43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것을 전한 증인(2)	44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 넘긴 이유	45
하나뿐인 복음09: 배운 것과 전한 것(2)(갈 1:15-2:10)★47	
1장 15-24절	47
2장 1-9절	48
2장 10절	49
하나뿐인 복음10: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1)(갈 2:11-14)★51	
바울의 베드로 책망	51
베드로의 잘못된 처신	52
베드로의 행위가 외식이었던 이유	53
하나뿐인 복음11: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2)(갈 2:15-16)★55	
“율법의 행위로써”	55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56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	57
하나뿐인 복음12: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3)(갈 2:17-21)★59	
에비온파의 주장대로라면	59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60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61
하나뿐인 복음13: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4)(갈 3:1-5)★63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63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64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65
하나뿐인 복음14: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5)(갈 3:6-14)★67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67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68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69
하나뿐인 복음15: 율법과 약속(갈 3:15-22)★71	
“사람의 언약이라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71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72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73
하나뿐인 복음6: 율법과 믿음(갈 3:23-29)★75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75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76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77
하나뿐인 복음7: 율법과 아들(갈 4:1-7)★79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79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80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81
하나뿐인 복음8: 초등학문과 종 노릇(갈 4:8-11)★83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 하였다.”	83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84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85
하나뿐인 복음9: 복음과 자유(1)(갈 4:12-20)★87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87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88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89
하나뿐인 복음20: 복음과 자유(2)(갈 4:21-31)★91	
1:1-4:20까지의 요약	91
지상 예루살렘 언약과 하늘 예루살렘 언약	92
하갈과 사라	93
하나뿐인 복음21: 복음과 자유(3)(갈 5:1-12)★95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95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96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97
하나뿐인 복음22: 복음과 자유(4)(갈 5:13-15)★99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99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100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01
하나뿐인 복음23: 복음과 자유(5)(갈 5:16-26)★103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03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104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05

하나뿐인 복음24: 예수의 흔적(1)(갈 6:1-5)★107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107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108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109

하나뿐인 복음25: 예수의 흔적(2)(갈 6:6-10)★111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111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112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113

하나뿐인 복음26: 예수의 흔적(3)(갈 6:11-18)★115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115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116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117

에베소서 이야기: 밝혀진 비밀

밝혀진 비밀1: 그리스도 안에서(1)(엡 1:1-14)★121

에베소서	121
쌍둥이 서신	122
“그리스도 안에서”	123

밝혀진 비밀02: 그리스도 안에서(2)(엡 1:15-23)★125

“이로 말미암아”	125
“지혜와 계시의 영”	126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127

밝혀진 비밀03: 그리스도 안에서(3)(엡 2:1-10)★129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129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130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131

밝혀진 비밀04: 그리스도 안에서(4)(엡 2:8-10)★133

구원의 근원과 수단	133
구원의 과정	134
구원의 목적	135

밝혀진 비밀05: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1)(엡 2:11-18)★137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137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138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한 것이다.”	139
밝혀진 비밀06: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2)(엡 2:19-22)★141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141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142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143
밝혀진 비밀07: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3)(엡 3:1-4)★145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145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146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147
밝혀진 비밀08: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4)(엡 3:5-6)★149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149
왜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인가?	150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151
밝혀진 비밀09: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5)(엡 3:7-13)★153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153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154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155
밝혀진 비밀10: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6)(엡 3:14-21)★157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57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58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159
밝혀진 비밀11: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1)(엡 4:1-10)★161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161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162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163
밝혀진 비밀12: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2)(엡 4:11-16)★165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다.”	165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166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67
밝혀진 비밀13: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3)(엡 4:17-32)★169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169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170
“새 사람을 입으라.”	171

밝혀진 비밀4: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4)(엡 5:1-7)★173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173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174
“감사하는 말을 하라.”	175

밝혀진 비밀5: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5)(엡 5:8-18)★177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77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78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79

밝혀진 비밀6: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6)(엡 5:19-21)★181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181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182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83

밝혀진 비밀7: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7)(엡 5:22-33)★185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18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186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187

밝혀진 비밀8: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8)(엡 6:1-4)★189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189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190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191

밝혀진 비밀9: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9)(엡 6:1-4)★193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만든다.	193
뇌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기억한다.	194
좋은 습관은 좋은 기억을 만든다.	195

밝혀진 비밀20: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10)(엡 6:5-9)★197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19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198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199

밝혀진 비밀21: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11)(엡 6:10-20)★201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물음	201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물음	202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203

밝혀진 비밀22: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12)(엡 6:21-24)★205

밝혀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복음의 비밀을 알라. 205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 206
 항상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207

골로새서 이야기: 히든카드

히든카드01: 머리말(골 1:1-2)★211

골로새(Colossae) 211
 성 미카엘 교회(St. Michael Church) 212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 213

히든카드02: 바울이 의존한 능력(1)(골 1:3-23)★215

바울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215
 바울의 기도 216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217

히든카드03: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1)(골 1:24-29)★219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219
 그리스도, 하나님의 히든카드 220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 221

히든카드04: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2)(골 2:1-5)★223

비밀(mysterion)의 의미 223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224
 구약 예언의 성취방법 225

히든카드05: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3)(골 2:6-10)★227

거룩한 예루살렘 성주(城主), 예수 그리스도 227
 철학과 헛된 속임수 228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229

히든카드06: 할례와 침례(골 2:11-15)★231

믿음을 통해서(구원의 수단), 침례를 받을 때(구원의 시간) 231
 할례와 침례의 관계 232
 초기 그리스도교 증언들 233

히든카드07: 율법과 규례들(골 2:16-17)★235

유대교인들의 카샤룻 음식법 235
 유대교인들의 절기축제 236
 유대인들의 안식일 성수 237

히든카드08: 천사송배와 금욕주의(골 2:18-23)★239

유대교인들의 천사송배(1)	239
유대교인들의 천사송배(2)	240
헬라인들의 천사송배	241

히든카드09: 땅의 것과 위의 것(골 3:1-11)★243

“위의 것을 찾으라.”	243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244
“새 사람을 입었다.”	245

히든카드10: 일치와 예배(골 3:12-17)★247

갈등을 만드는 본성은 육체에 있다.	247
일치는 선교의 목표이다.	248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249

히든카드11: 가정의 위계질서(골 3:18-4:1)★251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251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252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253

히든카드12: 기도부탁과 인사(골 4:2-18)★255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255
“세월을 아끼라.”	256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257

빌레몬서 이야기: 위대한 변화

위대한 변화01: 오네시모(1)(몬 1:1-3)★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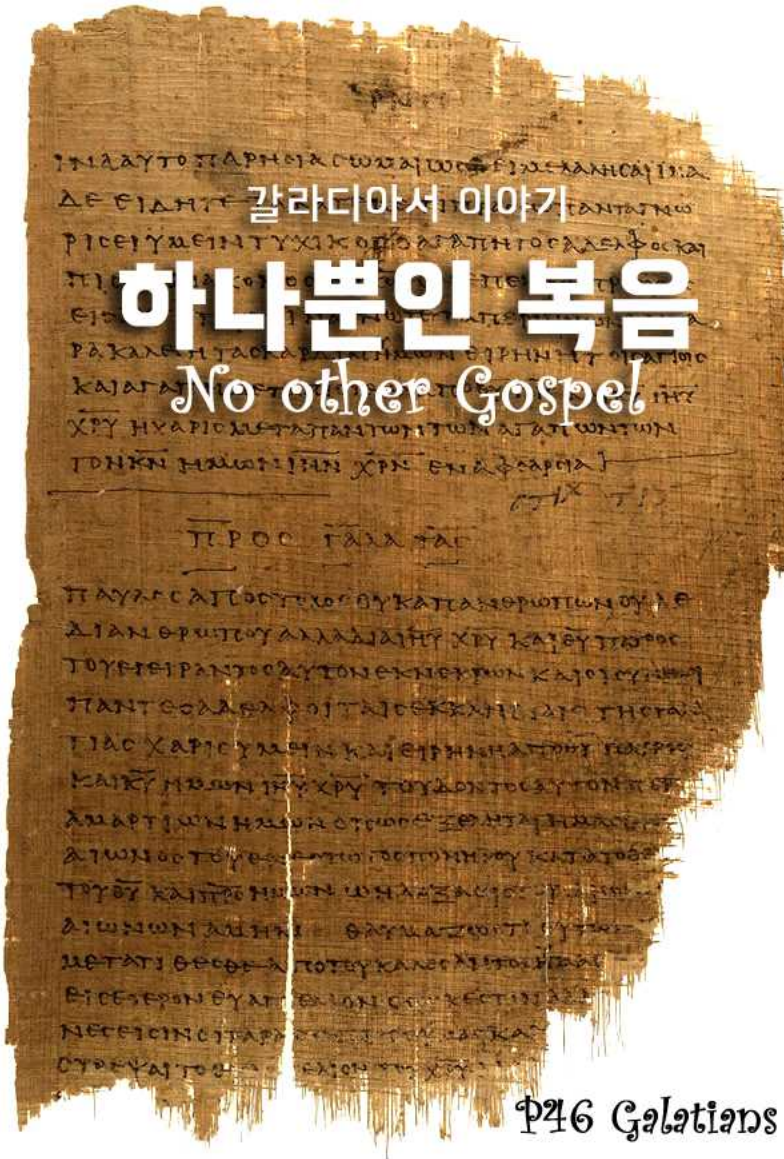
노예 신분	263
해방 노예	264
비잔틴 노예	265

위대한 변화02: 도망노예 오네시모(2)(몬 1:4-7)★267

빌레몬	267
에바브라와 아킵보	268
오네시모	269

위대한 변화03: 도망노예 오네시모(3)(몬 1:8-25)★271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	271
운명의 결정권을 주께 맡긴 그리스도인들	272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변화	273



¶46 Galatians

하나뿐인 복음: 바울의 사도직 논쟁(갈 1:1-5)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제 3차 선교 여행 당시 에베소에서 2년 3개월간 머물고 있던 주후 54년에서 57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

갈라디아 지방에 대해서는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그 하나는 흑해 쪽으로 터키 동북방향에 위치한 북갈라디아로

써 벤티누, 다비움, 안기라와 같은 도시들이 포함된 이 지역의 명칭이 갈라디아였다. 다른 하나는 지중해 쪽으로 터키 중남부에 위치한 남갈라디아로써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를 세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디모데의 고향이며, 바울이 둘에 맞아 구사일생한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도시들이 행정상 갈라디아주에 속하고 있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가 갈라디아라는 지역 명칭을 가진 북갈라디아에 보내졌는지, 행정상 갈라디아주에 속한 남갈라디아에 보내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갈라디아서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선언서라 불리는 책이다. 이 서신은 로마서와 함께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에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서신이다. 루터는 “나는 이 서신과 결혼했다. 이것은 내 아내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좋아했고, 고데(Godet)는 “이 서신은 인류 역사를 새로 시작하는 기원이다. 이 서신은 인간의 영적 해방에 대한 일찍이 없었던 소중한 문서이다.” 라고 말했다.

갈라디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다. 첫째, 1-2장은 바울의 전기적 해설로써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이다. 둘째, 3-4장은 교리적 해설로써 율법의 속박과 이신칭의에 관한 논증이다. 셋째, 5-6장은 윤리적 훈계로써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관한 내용이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언제부터인가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과 방종적 영지주

의자들이 숨어들어 신앙을 왜곡시키고 있었다.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은 기독교인이 된 헬라인들에게 구약의 할례의식이나 유대 절기를 지키도록 강요했고, 방종적 영지주의자들은 구원과 자유의 의미를 왜곡시켜 도덕적 방종에 빠져들게 했으며, 바울의 사도직과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복음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천명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고 잘라 말했다.

본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우대하며,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으리 만치 바울을 사랑하는 교회였다.

바울은 어떤 인물인가?



길에서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보는 바울
셰델(Hartmann Schedel)의 목판
인쇄본, <뉴른베르크 연대기>(Nuremberg
chronicle, 1493, 독일)에 실린 삽화.

첫째,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 바울은 청소년시절 예루살렘에서 힐렐학파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성문토라와 미슈나를 공부한 것으로 추정된다. 힐렐(Hillel)학파는 헬라시대에 삼마이(Shammai)학파와 쌍벽을 이룬 주고트(Zugot, 273 BC에 출범)의 한 학파였다. 힐렐학파는 구전토라를 인정할 뿐 아니라 천사, 부활, 사후세계 등 영적세계를 인정한 학파요, 주후 70년대에 요하난 벤자카이와 가말리엘2세가 야브네에 세운 유대교 학교의 뿌리이기도 하다.

둘째, 다소가 고향인 헬라파 유대인이었다.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었다. 다소는 스토아철학이 유명한 곳이었다. 스토아철학은 이성을 중시하고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통한 ‘초연한 마음의 경지’ 곧 ‘아파테이아’(apatheia)를 추구하였다. 바울은 이곳 다소에서 스토아철학과 헬라인 하나님 경외자들을 접하였고, 천막제조업을 생업으로 익혔다.

셋째, 율법과 규례 및 수사학과 헬라철학을 공부한 유대인이었다. 바울은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실천종교인 유대교를 배웠고, 플라톤의 이데아론과 동굴의 비유의 영향을 받은 알레고리즘과 모형론에도 익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알레고리란 성경의 문자 이면에 감춰진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고 해석하는 영해(靈解)를 말한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 학자 필로는 그의 책 <특별한 법>(De specialibus legibus)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이며, 세상은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다”(1,81)고 하였는데 이것이 알레고리의 한 가지 예이다. 추측하건데, 바울은 구약성경을 알레고리하기보다는 모든 신약성서 저자들이 취했던 방법, 즉 구약의 것을 신약의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로 보는 예표론에 능통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넷째, 그리스도교를 폄박하는 유대인이었다. 바울은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으므로 유대인의 희망(Ha-Tikvah)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바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스테반의 설교에 분노를 참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의 희망과 관련되어 있다. 바울과 스테반은 모두 노예들의 후손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전 722년, 605년, 597년, 586년에 각각 근동지방으로, 주전 312년 프톨레미 라구스에 의해서 알렉산드리아로, 주전 63년 폼페이에 의해서 유럽으로 끌려갔다. 이 같은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그들이 꿈꾸는 세상의 정점이었다. 유대인들은 성전중심의 다윗왕국의 회복을 희망하였고, 그 대업을 성취할 자가 제2모세 즉 메시아였다. 그가 와서 성취할 종말세계를 ‘올람 하바(다가올 세상)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다”(행 7:48)는 스테반의 설교는 성전을 폄훼한 말로써 유대인들에게 결단코 용납될 수 없는 모독이었다.

사도직 논쟁



유대인 회당에서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바울(모자이크)

바울의 개종과 사도직에 관한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실존했었다는 증거이자, 예수님 사건이 초기부터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집중되었었다는 증거이다. 그분의 복음사역과 가르침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사건의 후속

편이다. 십자가와 부활사건이 ‘예슈와가 오실 자 메시아였다’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난 운동의 뿌리와 줄기라면, 그분의 복음사역과 가르침은 나뭇가지와 잎사귀들에 해당된다. 그런 점에서 바울의 개종과 사도직 논쟁은 그리스도교가 실제적 사실에 근거하였음을 시사한다.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아 대적했던 자들은 유대교를 포기하지 못한 예비온과 유대인들이었다. 그들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고, 율법을 실천하는데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시인하고 침례를 받는 자들이 구원

을 받는다는 주장에 반기를 들었다. 그렇게 주장할만한 사도직이 바울에게 없다는 것이 에비온파의 주장이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속한 자가 아니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장 21-22절에 따르면, 사도가 될 자격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 요한의 침례로부터 승천하신 날까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고, 둘째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었다. 첫 번째 것에서 바울은 자격에 미달된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고 하였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분이시다고 주장하였다. 또 바울은 자신의 글들에서 수차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전 1:1, 고후 1:1, 골 1:1, 엡 1:1, 딤후 1:1)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딤펴전 1:1)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 바울은 자신이 부활을 전할 사도가 된 목적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딤펴전 1:1-2)고 하였다. 이 같은 신념을 바탕으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갈 1:11), 주께 받은 것” (고전 11:23)이라고 하였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전 15:2)고 하였다. 바울에게는 개종 후 안디옥교회에 초빙을 받기까지 대략 10여년 정도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의 시간이 있었다.

하나뿐인 복음02: 다른 복음은 없다(I)(갈 1:6-10)

기रो에 선 유대교와 기독교



주후 70년 유대-로마전쟁의 참패로 이스라엘의 모든 정파와 종파들은 소멸되고 오직 바리새파만이 남게 되었다. 로마군에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당시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와 그의 제자들은 전쟁직후 로마의 허가를 받아 옘바 남동쪽 20킬로미터 지점, 지중해 동쪽 6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한 ‘야브네’ (Japheth/Yavne) 혹은 ‘얌니아’ (Jamnia)란 소도시에 율법학교를 세워 성전을 대신할 율법중심의 유대교를 재건하였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생존에 힘을 쏟아부어야 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더 이상 탄압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의 잠재적 위협 요소로 보고 회당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파문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때가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85년경이었다.

한편 유대-로마전쟁의 참패로 인한 예루살렘교회의 폐쇄와 야브네 회의의 그리스도인 파문결정으로 세력이 약화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교회들에 대한 지배권을 잃게 되었다. 주후 30년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곳은 예루살렘이었다.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야고보 장로가 수장이었다. 이방인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유대교에 완전 개종했거나 절반 개종한 하나님 경외 자들이었다. 또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교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예수님의 경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눅 21:20-21)는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 요르단 강 동편의 ‘펠라’와 ‘페트라’로 피신하였다. 이런 이유들로 예루살렘교회는 더 이상 이방인 교회들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유대-로마전쟁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핍박과 유대인 기독교의 간섭에서 벗어나 지금의 기독교가 되는 발판을 제공하였고, 동시에 기독교가 이후 300여 년간 로마당국의 박해를 받는 새로운 위기도 제공하였다.

유대-로마전쟁이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회당의 소속으로 남든지, 아니면 유대인의 민족유산을 다수 포기하고 이방인 교회에 합류하든지 해야 했다. 그러나 이도 저도 아닌 중간에 남은 유대인들에는 ‘나사렛당’(Notzrim)과 ‘에비온파’(Ebionites)가 있었다. 나사렛당은 유대교의 계명들을 준수했지만, 그것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랍비들이 만든 율타리 법들(Gezairoth)의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이들은 유대-로마전쟁에 가담하지 않고 ‘펠라’와 ‘페트라’로 피신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변절자로 낙인찍혔다. 에비온파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이단이었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한 반면 바울의 글들은 무시했으며, 마태복음만을 복음서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또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였다.

바울의 적대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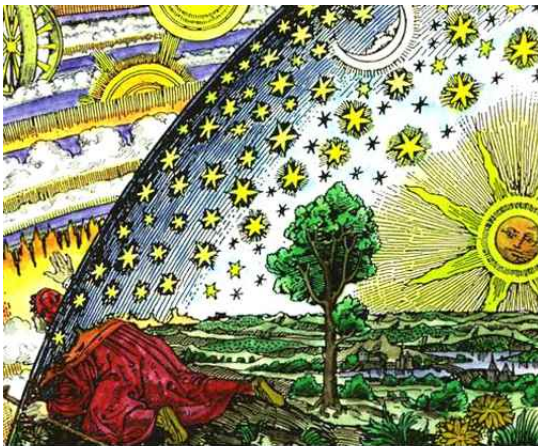
갈라디아지역 교회들에 바울의 적대자들이 나타나 “다른 복음”(갈 1:6,7,9)을 전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갈 1:8,9)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고린도교회에도 바울의 적대자들이 나타났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율법주의자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을 적대자로 부르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로 불렀다. 이들은 바울로 하여금 가슴 아픈 방문을 하게 만들고 눈물로 편지를 쓰게 만든 자들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의 적대자는 고린도전서가 전달되기 전까지는 알려지지 않았던 다른 곳에서 침투한 자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그와 그를 추종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이들은 분명히 “히브리인”(고후 11:22)들로서 “지극히 큰 사도들”(고후 11:5, 12:11)을 빙자한 “거짓 사도”(고후 11:13)들로서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고후 11:4)을 전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히브리파인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대다수가 예수운동을 유대교의 한 분파나 메시아운동 정도로 여겼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유대교인들’ 또는 사람들이 ‘나사렛파’(노쯔림, Notzrim)로 부른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나사렛파의 근본주의적 성격을 띤 그룹이 에비온파이고, 복음주의적 성격을 띤 그룹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헬라파인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다. 에비온파는 이방인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구원론, 즉 하나님의 구원은 민족성별 남녀노소의 차별 없이 또 율법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데서 온다는 바울의 가르침에 반발해서 생긴 조직이었을 수 있다.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 에비온파(Ebionites)는 단일신론자

들로서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는 대신,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혹은 율법의 근본정신을 일깨워준 참교사로 떠받든다. 또 그들은 이 그룹의 지도자로 예수님의 이복형제인 야고보를 꼽는다. 에비온파는 랍비들이 만든 율타리법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그대로와 노아홍수이전처럼 채식을 고집한다. 에비온파는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 유대교의 배신자와 이단자로 보기 때문에 바울서신들을 성서로 받아드리지 않는다. 그들이 신약성서에서 받아드린 책은 히브리어 마태복음뿐이다. 반면에 나사렛파는 예수님의 신성과 동정녀 탄생 등을 믿는다. 따라서 나사렛파는 큰 틀에서 예수님을 섬김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들의 범주에 속하지만, 에비온파는 전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다. 에비온파는 예수님을 따름과 실천의 대상으로 삼지만, 섬김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에비온파는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유대문화와 이방문화들을 정치적으로 혼합한 이방종교에 불과하다고 본다. 에비온파들은 역설적으로 신약성서교회는 구약성서교회가 아니며 신약성서교회와 구약성서교회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영지주의 세계관(목각)

우측은 어둠의 세계이고 좌측은 빛의 세계이다. 해, 달, 별은 빛의 세계로부터 침빛이 지상으로 방출되고 있음을 상징한다. 하단에는 빛의 사자들 통해 영지를 깨달은 한 사람이 어둠을 뚫고 빛의 세계로 여행을 내미는 장면이다. 이를 신적 불꽃이 보향을 찾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바울시대에는 교통과 통신수단이 오늘날과 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려면 추천서가 필요하였다. 신약성서가 아직 없던 때여서 방문자의 가르침이 옳은 것인지를 확인할 마땅한 수단이 없던 때였다. 그런데다가 이 시대에는 떠돌이 사역자들이 많았고, 그들 중에는 이단자인 에비온파와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다.

주후 30년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처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27권의 글이 신약성서로 확정되고, 기독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기까지 360년 정도가 걸렸고, 이 기간에 정통과 이단을 구별할 수단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실천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여러 복음서, 서신서, 행전들이 나왔다. 교회들은 저마다 힘닿는 대로 문서들을 수집하였

주후 30년 오순절 날 예루살렘에 처음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때로부터 27권의 글이 신약성서로 확정되고, 기독교가 로마제국

으나 예배 때 낭독해도 좋을 문서인지를 결정해야했고, 그 잣대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이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1세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인 27권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동방교회는 367년에, 서방교회는 393년과 397년에 각각 이들 27권을 신약성서의 정경으로 확정지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주후 30년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주후 70년까지 팔레스타인 출신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일부는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을 포기하지 못하였고,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일부는 성육신을 부정하고 율법과 물질을 악하게 보는 영지주의를 포기하지 못하였다. 이들 율법주의와 영지주의는 피차 상극으로써 대표적인 기독교 이단들이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아 대적한 자들은 유대교를 포기하지 못한 에비온파 유대인들이었다.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란 문자적으로 가나안땅에서 누리는 안식이다. 유대인들에게 땅은 너무나 절실하고 절박한 것이었다. 그들은 조상대대로 떠돌이였고 노예였다. 땅은 그들이 수천 년간 꿈꿔왔던 희망(Ha-Tikvah)이었고, 다가올 세상(Olam Ha-Ba)이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 되는 까닭도 그가 가나안땅의 희망을 품었던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후로 그들이 가나안땅을 차지하고 주권을 행사한 기간은 1천년이 넘지 않지만, 주권을 빼앗겼거나 속주민으로 살았던 기간은 3천년이 넘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땅에 대한 절박함은 율법준수의 엄격함으로 나타났다. 유대교는 민족해방과 가나안땅회복이 ‘토라’ (모세율법)와 토라보호를 위해서 만든 율타리법인 규례를 철저히 지킬 때 이뤄진다고 믿고 가르치는 민족종교이자 실천종교이다. 유대교는 교리종교가 아니다.

하나뿐인 복음03: 다른 복음은 없다(2)(갈 1:6-10)

영지주의자들의 활동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세상의 영”은 우상에 불과한 그리스신화의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지주의가 말하는 인간에게 영지를 계시한다는 인간보다 더 높은 계급의 신적 존재 즉 ‘빛의 사자들’을 말한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성령님을 말한다. 사람에게는 신적인 방출의 결과로 신적 빛(불꽃, 신성)이 있어서, 인간보다 높은 계급인 ‘빛의 사자들’이 계시하는 영지(gnosis)를 받아 깨달음에 도달하면 신과 합일할 수 있다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고,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동등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골 1:14, 엡 1:7), 하나님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기독교복음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하였다.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2장 10-11절에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고전 2장 13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영에서 나온 사람의 지혜와 성령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시켜 영지주의와 기독교복음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참이 아니고, 불완전한 창조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동굴감옥 같은 어둠의 세계라고 말한다, 인간 역시 불

완전하지만, 그 내면에 신적인 불꽃이 있어서, 빛의 사자들로부터 영지를 받아 깨달으면, 육체의 감옥을 탈출하여 근원적인 빛의 세계에 도달하여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 저급한 신인 구약성서의 조물주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것을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뱀을 지혜와 빛의 사자로 높이고 있다.

기독교는 유대교와 영지주의하고는 전혀 다른 신앙체계를 갖는 신약성서 기독교이다. 유대교, 에비온파, 영지주의자들조차도 자신들이 기독교와 어떻게 다른지, 기독교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해놓고 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단에 쉽게 빠진다. 그러므로 현대교회들이 시급히 개혁되어야 할 것이 신약성서교회의 복원이다.



율법과 복음의 화해를 상징하는 베드로와 바울의 초상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의 충돌

유대인들은 그들의 숙원인 민족해방과 고토회복이 오실 자 메시아에 의해서 이뤄진다고 믿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예슈아)을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운동이 주후 30년 오순절 날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고,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 신앙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러자 유대인공동체가 술렁였고 의견이 갈리기 시작하였다. 대다수는 민족해방도 고토회복도 이뤄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메시아로 믿는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배신행위로 간주하였다. 반면에

소수의 무리였지만, 예수님을 율법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우쳐준 위대한 랍비로 인정하여 그의 가르침과 사상을 따랐는데, 그들이 바로 에비온파였다.

한편 예수님을 율법교사 이상의 특별하신 분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분으로, 지금은 영으로 그들을 돕고 계신 분으로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며, 그분이 머지않아 재림하시면 완벽하고 철저한 메시아왕국이 건설된다고 회개와 회복운동을 펼친 무리가 있었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나사렛파’ (노쯔림)라고 불렀으나 시리아 안디옥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나사렛과 운동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나 그 운동이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틀과 한계를 벗고 세계종교인 기독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동을 건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출신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사렛파는 대부분 바울의 복음주의 기독교에 흡수되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전도를 위해서 사방 각지로 흩어져 순회하는 동안 예루살렘교회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책임아래 있었다. 가이사라의 주교 유세비우스가 남긴 <교회사> 3권 5장에 따르면,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은 주후 66년경 유대-로마전쟁이 시작될 무렵에 계시의 말씀에 따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펠라로 피난하였다. 펠라(Pella)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사마리아 땅과 마주한 베레아 땅으로써 현재의 요르단 북부 요단강 주변에 있었던 도시였다. 베레아는 이방지역이어서 유대-로마전쟁 때 피해를 면한 곳이다. 펠라는 주후 635년 이슬람의 손에 넘어가기까지 기독교가 성행했던 곳이다.

반면에 예수님의 율법해석과 마태복음만을 인정해온 에비온파는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며, 유대교의 신념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고, 차별 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기독교 복음에 적대감을 드러내왔다.

에비온파의 활동(1)



에비온파들이 추종하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교회의 수장이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언급한 먹으로 쓴 추천서를 거론하고, 석비에 쓰인 십계명과 율법조문을 자궁하는 옛 언약의 일군임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은 에비온파에 속한 유대인이다. 신약성서에 에비온파의 활동이 잘 드러나 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어떤 유대인들이 안디옥교회까지 와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1절)고 가르쳤다. 그로 인해서 안디옥교회에 쟁론이 벌어졌다. 이에 안디옥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교회에 보내 사도들의 판결문을 받아오게 하였고, 51년경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행 15:5)고 주장하였다. 이 같이 주장하는 에비온파가 안디옥교

회뿐 아니라, 갈라디아교회와 고린도교회를 들쭉서놓고 있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배경이다.

바울의 선교방법과 전도내용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 났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고 말하였다.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들이 에비온파가 아님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 그들이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수차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보고를 받고 인정하였지만, 바울은 그들의 승인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이 선포한 복음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강조하였다. 예루살렘교회의 지도자들이 에비온파이거나 에비온파를 지지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인들과 동일한 선민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 경외자’ 또는 유대교의 절반 개종자 정도로 받아드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적대자가 예루살렘의 추천서를 운운했지만 실상은 예루살렘교회의 승인서가 아니라 에비온파의 승인서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베드로와 바나바 및 다른 유대인들조차 그들의 공격을 두려워하였다(갈 2:12-13). 이런 점에서 그들의 활동을 저지시킬 수 있었던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다. 바울은 그들을 일컬어 ‘거짓 사도’ 라고 불렀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서에 편향된 기독교 종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들로 인해서 순수하고 복음적인 신약성서교회가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하나뿐인 복음04: 다른 복음은 없다(3)(갈 1:6-10)

에비온파의 활동(2)



현대 유대인 에비온주의자들의 깃발

고린도후서 11장에 언급된 거짓 사도들은 에비온주의자들이다. 그들은 바울의 적대자들이자, 옛 언약의 일꾼들(여호와증인들)로서 새 언약의 일꾼들(그리스도증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토라를 엄격히 준수해야 고토회복과 민족해방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지, 민족성별 빈부귀천 차별 없이 값없이 은혜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증인들 앞에서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하늘 가나안땅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된다는 새 언약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의 팬(fan)이었지, 제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율법교사였지, 그리스도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따름과 실천의 대상이었지, 믿음과 예배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배움의 대상이었지, 헌신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 ‘예슈아’였지,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힐 자가 아니라,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행하여 유대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자였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할 자가 아니라, 빼앗긴 고토와 주권을 회복시킬 자였다. 그들은 “히브리인”(고후 11:22)들이었고, “지극히 큰 사도들”(고후 11:5, 12:11)을 빙자한 “거짓 사도”(고후 11:13)들이었다. 그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고후 11:4)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바울은 그 같은 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갈 1:8,9)고 강한 어조로 경고하였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고후 11:13)고 하였다.

최근에 정리된 유대인 에비온주의자들의 성명서를 보면, 자신들이 펼치는 유대종교운동이 예수님이 펼쳤던 바로 그 운동이고, 기독교는 바울과 다른 이들이 만든 종교이지, 구약성서의 믿음이거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한

것이 아니며, 예수님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방인의 사도임을 자처한 바울은 거짓 교사이며, 유일하고 참된 이방인 선교사들은 에비온주의자들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고, 토라와 할례와 침례를 통해서 참된 언약, 곧 구약에 입문할 것을 촉구한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예수님의 기적과 신성과 부활은 동화일 뿐이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폐기시킬 수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홀로 한 분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성문토라를 엄격히 준수하는 여호와증인(Yahwism)들이다.

할례파를 삼가라



사내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날에 받는 할례(brit milah)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선민 계약의 외적 신체적 표시이며, 가족들은 이 할례의식 때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준다.

가라” 또는 “조심하라”고 한 것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주의 혹은 유대교적 기독교인 ‘에비온파’를 조심하라고 당부한 것이었다.

유대인 남성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계약이 있다는 흔적을 몸에 표시하는 할례이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는 ‘할례의 계약’(Brit Milah)을 통해서 유대인 남성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요, 언약공동체임을 나타내는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된다.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 열 명 이상이 모여서 이 의식을 진행하는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연대책임을 갖기 위한 것이다.

할례의식은 자격자 곧 ‘모헬’(Mohel)이라 불리는 사람이 집안에서 시행한다. 할례 때 아이를 붙잡는 사람을 ‘산텍’(sandek)이라 부르는데, ‘대부’란 뜻이다. ‘산텍’은 보통 할아버지나 가족의 랍비가 맡는다. 전통적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3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한 또 다른 이유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로 불린 “할례파”의 박해를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울이 할례파를 일컬어 “개들,” “행악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라 부르며 “삼

으로 엘리야를 위한 의자가 옆에 놓이는데, 엘리야가 모든 할례의식을 주관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의식 중에 베라코트들이 낭송되고, 축복을 받은 포도주 방울을 아기의 입에 넣어준다. 그리고 아기는 이때 히브리 이름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할례(Milah)는 문자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유대교의 율법과 규례, 곧 613개의 계명(Torah)과 수많은 율타리법들(Oral Torah, Gezairoth)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전통적으로 ‘예슈아’ (Yeshua)를 ‘장차 오실 자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닉 쥬’ (Messianic Jews)들의 율법과 규례에 대한 견해는 ‘나사렛당’ (Notzrim)과 ‘에비온파’ (Ebionites)로 나뉘었다. 나사렛당은 유대교의 계명들을 준수했지만, 그것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지 않았고, 랍비들이 만든 율타리 법들의 구속력을 부정하였다. 반면에 에비온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빌립보서 3장 2-3절에서 “개들,” “행악하는 자들,”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로 불린 “할례파”는 에비온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고상한 지식



엘리야 의자(할례 의식용 의자)
아슈케나짐(독일 및 동유럽계 유대인들)의 회당

에비온파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이단이였다. 그들은 율법을 중시하여 바울의 글들을 무시하였고,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만 받아들였다. 에비온파는 오늘날의 여호와증인들처럼 단일신론자들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부정하였다.

바울은 일찍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신 메시아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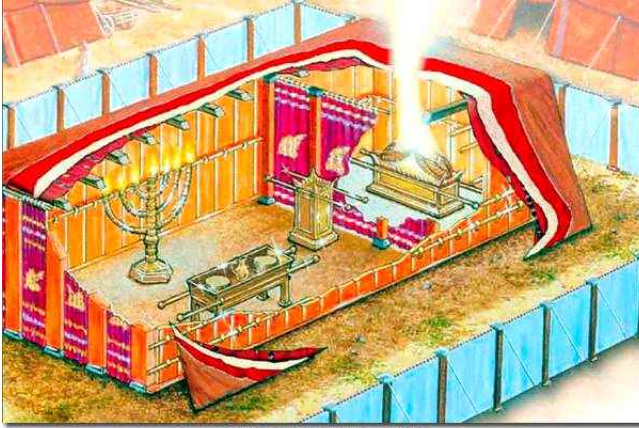
가르침에 상반되는 가르침을 이단으로 못 박은바가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터” 외에 곧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헬라인들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는 자를 이단자 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로 천명하였다. 이들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5절에 언급된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안디옥교회에 와서 “너희가 모세

의 범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고 가르친 “어떤 유대인들” 이었을 것이고, 사도총회 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고 주장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었을 것이다. 또 이들은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언급된 “먹으로 쓴” 추천서를 거론하고, “돌판에 쓴” “율법조문” 을 자궁하는 옛 언약의 일군임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 이었을 것이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언급된 “히브리인” 들로서 “지극히 큰 사도들” 을 빙자한 “거짓 사도” 들로서 “다른 예수” 와 “다른 복음” 을 전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바울의 적대자가 갈라디아지역 교회들에도 나타나 “다른 복음” (갈 1:6,7,9)을 전하고 있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갈 1:8,9)고 강한 어조로 경고한바가 있었다. 또 바울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고후 11:13)고 천명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사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고 역설적인 말로 빌립보인들에게 권면하였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체를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 3:7-9)고 천명하였다.

하나뿐인 복음05: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I)(갈 1:6-10)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

출애굽기 39장에서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는 강조가 10번 반복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교의 핵심사상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들이 613개에 이른다고 믿고 있다. 유대인들은 이 613개의 계명들을 침해하지 않고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지 아니한 수많은 율타리 법들(Gezeiroth)을 만들어 지키고 있다. 유대교인들에게 율법과 규례는 안식의 상징인 팔레스타인 땅과 민족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성서를 신약성서의 모형과 그림자로 이해하는 이유는 참 안식의 상징이 저 하늘 가나안땅이고, 인류의 영생이 걸린 문제는 보이는데 있거나 일시적인데 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영원한데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규례들을 빈틈없이 지켜내려는 유대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서 그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가상한 노력을 높이 사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의 문제점은 공리주의에 입각한 성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하고 무시하는데 있다. 왜곡은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유대교의 가르침과 구별하지 못하는데서 나타난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서로 다른 이유는 구약성서에 대한 이해의 차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인 신약성서 위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구약성서를 신약성서 저자들이 이해했듯이 이해하지 않고, 신약성서 저자들이 해석했듯이 해석하지 않고, 유대교의 랍비들이 하듯이 왜곡하고 있

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때로는 구약의 유대교인지, 신약의 그리스도교인지를 구별하기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무시는 공리주의에 입각한 성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데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신약성서의 가르침대로 다 행하는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서려면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한 후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 때 복을 받게 된다.

구약성서의 이해의 충돌(I)

유대교인들의 장점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신 6:5) 지키려하는데 있다. 613개의 계명들뿐만 아니라, 랍비들이 만든 수많은 율타리 법들까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려한다. 그러나 단점은 하나님의 계명들의 근본취지와 뜻을 모른 채 랍비들의 왜곡된 해석과 전통들을 부지런히 따르는데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내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 문자적인 것에 치우친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 신약성경 저자들이다. 성막과 관련해서 그들이 새롭게 이해한 것은 보이는 지상성막이 보이지 않는 하늘성전의 그림자라는 것, 보이는 지상성막은 일시적이요, 보이지 않는 하늘성전은 영원하다는 것, 또 구약성경성막은 신약성경교회의 예표라는 것, 먼저 나타난 지상성막은 나중에 나타난 신약성경교회의 모형이요 그림자란 것이다.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을 떠돌이와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찾아오셔서 독수리 날개에 업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시내산 기슭에서 언약체결을 하셨으며, 사막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로 먹이셨고, 안식할 가나안땅을 기업으로 주신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민족의 하나님이 라고 믿었다. 이것이 선민사상이고, 유대민족을 매우 특별한 민족으로 만든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강한 민족주의에 바탕을 둔 선민사상은 그들을 허물어뜨려 그들이 모멸하는 이방인의 나라들에서 수천 년을 떠돌이와 노예로 살게 한 목의 가시였다. 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였다. 그래서 타 민족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들이었다. 세상에는 오로지 두 개의 민족, 즉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 선택된 자들만의 하나님이 라는 생각은 오만이다. 선택의 목적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기를 위해

서 그들을 선교사로 뽑았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만을 택한 것이라 오해하고 있다. 이런 오해가 기독교인들에게는 없을까?

신약성경 전체이야기는 세 가지 사건으로 압축된다. 구약성경에 두 가지가 있고, 신약성경에 한 가지가 있다. 이 세 가지 사건들은 다섯 개의 단어로 압축된다. ‘떠돌이,’ ‘노예,’ ‘해방,’ ‘언약,’ ‘선민’ 이 그것들이다. 이것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매우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설명하는 것들이다.

구약성경의 두 가지 사건들은 출애굽사건과 바벨론 유배사건이고, 신약성경의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다. 출애굽사건은 떠돌이와 노예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언약선민이 되는 이 땅의 모든 구원사건들의 원초적 사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의 예표적 사건이다. 유대인들은 출애굽사건을 첫 번째 대구원사건이라고 부른다. 두 번째 사건이 바벨론 유배사건인데, 일부 유대인들의 고토귀환이 70년 만에, 148년 만에, 혹은 173년 만에 세 차례나 이뤄졌지만, 이 두 번째 대구원사건은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고, 여전히 희망하고 있는 사건으로 보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다. 주전 64년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기 직전까지 대략 100년 정도 주권이 회복된 기간이 있기는 했지만, 주후 70년 유대-로마전쟁의 대패로 인해서 비극적 유배사건이 다시 있었고, 그 정황이 참으로 처참하였다.

구약성서의 이해의 충돌(2)

유대인들의 두 번째 대구원사건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 신약성경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 유대인들의 제1, 제2 대구원사건의 원형이자 실체적 사건이었다는 것이 신약성경의 설명이다. 바벨론 유배이후 예언자들의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모세) 등장과 관련한 ‘희망’ (하티크바)의 선포는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본 것이 신약성경 저자들의 입장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희망을 이루기 위한 대구원사건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오심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방식과 희망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과 내용으로’ 하신 것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간의 세속적인 희망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과 내용으로’ 라는 전혀 새로운 이해를 선포한 사건이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준 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라.” 는 말씀과 22-25절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는 말씀이다.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경의 유대인들이 설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구약성경의 유대인들이 설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한 새로운 관계의 예표요 그림자였다는 점이다. 유대인들이 율법(토라 혹은 계명)과 짐승의 피로써 ‘구약’ (옛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선민이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독생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과 피로써 ‘신약’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선민이란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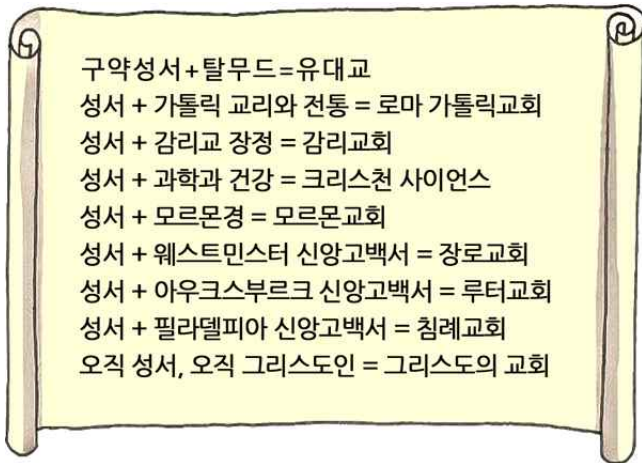
둘째, 구약성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 또는 ‘유대민족의 하나님’ 으로 한정했다면,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든 민족의 하나님’ 또는 ‘열방의 하나님’ 으로 또는 ‘온 인류의 하나님’ 으로 극대화시켰다는 점이다.

셋째, 구약성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대민족과 타민족, 남성과 여성, 신분과 계급으로 나눠 차별하였다면,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빈부귀천민족에 관계없이 인류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요, 아들과 딸들이요, 형제와 자매라는 하나님과의 매우 독특한 관계를 설정하였다.

넷째, 구약성경의 유대인들은 토라의 613개의 계명과 수많은 율타리 법들을 지켜야만 또 할례와 침례를 받고 유대교에 개종해야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구원의 축복을 독점하였지만, 신약성경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약속받고, 보증과 인침의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 그분이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천국생활을 맛보고 누리며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천국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하나뿐인 복음06: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2)(갈 1:6-10)

교황이 명한 대로(1)



가톨릭의 문제점은 성경 보다는 교황청이 명한대로 하는데 있다. 가톨릭도 유대교처럼 하나님을 독점하려 한데서 몇 가지 적폐를 찾을 수 있다.

첫째는 사제들의 하나님 독점이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는 오류를 범했듯이, 가톨릭교회도 사제들이 하

나님을 독점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차단시켰고, 마리아와 성인들을 그 자리에 대신 앉혔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부 성자 하나님께 감히 기도하지 못하고, 마리아나 성인들께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제대(제단)를 더욱 높은 곳에 세웠고, 신자석과의 거리를 더욱 멀게 하였으며, 사제복을 더욱 화려하고 위엄 있게 만들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을 신자들과 멀어지게 하고, 그 사이를 사제들이 꿰차고 앉았다. 이뿐만 아니라, 중세유럽에서 개인들은 그리스도님의 대리자(Christi Vicario/ Vicarius Fili Dei)임을 주장하는 교황 또는 사제들로 인해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 그것은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한곳에만 두고, 사제들이 장악한 채 민족과 성별과 신분과 계급의 담, 곧 이방인의 뜰과 성전영내,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의 뜰, 이스라엘의 뜰과 제사장의 뜰을 담으로 분리, 또 성소와 지성소(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대제사장만의 공간)를 휘장으로 분리함으로써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것과 같다.

둘째는 사제들의 사죄권 행사와 주의 만찬의 독점이다. 사제들이 하나님을 독점함으로써 신자들은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서 신자들은 회개할 기회와 주의 만찬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하였

다.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제들에게 회개하였고, 사제들은 사죄권을 행사하였다. 고해성사의 기회가 평생에 몇 번으로 제한된 때가 있었는데, 이 때문에 신자들은 죽음에 임박하기 전까지 고해성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고해성사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만찬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서 매일의 미사를 통해서 행하여지는 주의 만찬은 사제들만의 것이 되어버린 적이 교회사 속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교황이 명한 대로(2)



The Pope's triple crown, with VICARIN'S FILII DEI, the Roman numerals adding up to 666

셋째는 사제들의 성경과 예배의 독점이다. 가톨릭은 과거 1,400여 년 동안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성경만 허용하였다. 미사언어도 라틴어만 허용하였다. 값싸고 질 좋은 종지와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는 성경이 고가여서 소유하기가 어려웠던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를 몰라서 읽지 못하였다. 조선에 가톨릭이 전래된 역사가 2백 년이 훨씬 더된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라틴어를 몰라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라틴어를 몰라서 예배진행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가톨릭교회에 본격적으로 자국어 성경과 자국어 미사가 허용된 것은 1960년대부터였다. 1960년대 이전에는 신자들이 기껏해야 세례문답과 간단한 교리를 배우는 정도에 그쳤다.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들은 사제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신봉하였고, 또 사제들은 미개한 신자들이 그들이 이전에 빠져있던 이방종교와 문화를 기독교 신앙에 혼합시키는 것을 부분적으로 눈감아 주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자국어 성경을 읽고, 자국어 미사를 갖게 된 것은 불과 6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교황청이 1,400여년 만에 미사 중에 설교와 회중찬양을 복원하였지만, 아직까지도 평신도 기도는 복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모든 미사와 설교문과 기도문을 극도로 통제하고 있어서 예배에서 사제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넷째는 사제들의 성사의 독점이다. 가톨릭에서는 미사 말고도 일곱 가지

성사가 있는데, 사제만이 집례할 수 있다. 침수세례를 약식세례로 변질시킨 것은 십자군을 모병하던 12세기경에 이방인 병사들을 집단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런 가톨릭의 적폐들을 고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 16세기에 단행된 종교개혁운동이었다. 종교개혁운동은 가톨릭교회의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개인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운동이었다. 그것은 마치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은 그리스도님의 십자가 사건이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돌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개인들에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히 10:19) 하였고, “궁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히 4:16) 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히 10:22) “새로운 살길” 을(히 10:20) 열어 주었던 것과 같다.

국가종교가 명한 대로

또 종교개혁운동은 근원으로 돌아가자(Ad Fontes)는 운동이었고, 헬라어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필사본들을 비평하여 대본성경을 만들어 인쇄출판하고, 또 그것들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출판함으로써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되던 시대에 모국어로 성경을 읽거나 특히 예배 중에 모국어로 읽어 주는 성경말씀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준 운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에도 한계는 있었다. 그 한계는 개신교 역시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국가종교 또는 시의회종교였던데 있다. 국가종교 또는 시의회종교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나 츠빙글리, 칼뱅, 루터 등의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교회 사제 출신들이었고, 국가종교의 틀에 갇혀있었으며,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국가들과 시의회들은 주류 이외의 신앙운동들을 모두 사형으로 다스렸다. 이것이 개신교에서조차 적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였다.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와 칼뱅이 유아세례를 반대하고 정교분리를 주장한 재침례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였고, 시의회는 이들을 익사(침례를 조롱할 목적), 화형 등으로 처형하였다. 그러나 평화주의, 무저항주의자들이었던 재침례인들은 그 어떤 저항이나 반항도 하지 않고 순교하였다. 독일에서는 마르틴 루터가 뮌스터신앙공동체를 제압하는데 동조하였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들이 영국교회(성공회)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았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성전 멸망이후 고착된 유대교기도회에 주의 만찬을 첨가하여 성전예배의 의미를 살린 것이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였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신비(성체신학, 화체설)를 추가한 것이 가톨릭미사이고, 주의

만찬에서 그 신비를 빼버린 것이 개신교예배인데, 츙빙글리와 같은 개혁가들이 주의 만찬에서 신비(미신)만 빼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예배내용 그 자체였던 주의 만찬을 연 2-4회로 줄임으로써 개신교예배를 기도회, 경건회, 사경회, 부흥회로 추락시키는 오류를 범하였다. 칼뱅은 이를 시정하려고 시의회에 여러 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독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적폐는 그것이 가톨릭교회에서든 개신교교회들에서든 바울이 그토록 강한 어조로 대응했던 그리스도교의 유대교화에 있어왔다. 이들 유대교화의 대표적인 사례들에는 가톨릭교회의 제사(봉헌)와 사제(제사장) 개념; 제칠 안식일(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준수를 고집하는 안식교회(재림론자 교회)와 ‘예슈아’를 그리스도로 믿으나 세대주의 성경해석법을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Messianic Jews); 단일 신론을 고집하며 예수님의 신성과 성령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여호와증인; 원시교회로의 환원을 주장하지만, 구약성경교회와 계시의 지속성까지 포함시켜 몰몬경, 일부다처제, 사도 직제 등을 주장하는 몰몬교; 구약성경예언의 문자적 해석을 고집하는 세대주의(시대구분론); 피 뿌림과 할례를 모방한 약식세례와 유아세례; 반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인 에비온파(Ebionites) 등이 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교화를 꾀한 에비온파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고후 11:4, 갈 1:6-9),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갈 1:7),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빌 3:18), “저주를 받을” 자들이었다(갈 1:8-9)는 점을 되새겨야 한다.

하나뿐인 복음07: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3)(갈 1:6-10)

교리가 명한 대로(1)



개신교회들의 가장 큰 적폐가 교리우상화였다. 교단마다 제각각 교리서를 만들어 교조화하였다. 그들의 가장 큰 적폐는 유대교와 가톨릭처럼 하나님을 독점하려 들고 성경해석의 권리를 독점하여 그들의 해석을 절대 진리로, 그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그들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바꾸어 절대화하였다.

교단마다 창시자가 있고 창시자의 사상과 가르침을 떠받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칼뱅주의와 웨슬리안주의이다. 그러나 칼뱅주의나 웨슬리안주의와 같은 특정 신학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들 신학자들의 사상과 가르침을 교조화시키고 절대화시키는 데 있다. 교조주의자나 근본주의자들을 보면, 단지 신앙인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별 관계없는 사람의 신념과 행동까지 간섭하고 개입하려 들며, 심지어 사용하는 용어나 복장까지도 제약하려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이들의 집단에서는 교수의 강의를 학생들이 재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 이토록 배타적인 학생들이 도대체 무슨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될 때가 있다.

어느 민족보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어느 민족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어느 민족보다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기독교를 배척했다면, 기독교 집단에서 가장 조직이 크고 가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가톨릭교회가 가르치고 실천하는 일들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면, 개신교 교단들에는 교리나 실천에 심각한 문제가 없을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신교회들은 유대교나 가톨릭교회가 실패한 길을 걷고 있다. 한쪽으로는 선민의식에 빠져있고, 다른 쪽으로는 공리주의적 성공주의

에 빠져서 신약성경의 가르침대로 하지 않고,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이해했던 방식대로 이해하지 않고,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했던 방식대로 해석하지 않고, 유대교의 랍비들이 유대교에 했던 것처럼, 교황청이 기독교에 했던 것처럼 개신교회들도 그리스도교에 하고 있다. 그 결과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적 기독교로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열정과 노력은 가상한데, 예수님의 지적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어 “정의와 공훈과 믿음은 버렸다”(마 23:23). 공리주의적 성공주의와 유대교적 권위주의에 빠져서 신약성경교회의 사도전통을 멋대로 왜곡시키고 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를 말씀을 충실히 따르되, 구약성경유대교적 방식이 아니라, 신약성경기독교적 방식을 따라야 한다.

성경이 명한 대로()



유대교의 적폐를 고치려 했던 것이 기독교였고, 가톨릭의 적폐를 고치려했던 것이 개신교였다. 그러나 개신교의 적폐는 누가 고칠 것인가, 무엇으로 고칠 것인가? 이 물음에 답을 줄 곳은 과연 있는가? 다행히도 200여 년 전, 정확하게는 ‘알렉산더 캠벨’ (Alexander Campbell) 이 27살의 젊은 나이에 화려한 목회경력을 자랑하는

레드스톤 침례회의 목사들 앞에서 1816년 9월 1일에 행한 ‘율법에 관한 설교’ 를 시발로 1823-30년까지 7년간 발간된 <크리스천 침례자>(Christian Baptist)와 1830-70년까지 40년간 발간된 <천년왕국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에 발표된 “옛 질서의 회복” (to restore the ancient order of things)의 글들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의 개신교회는 개혁주의니, 복음주의니 하는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각종 적폐와 분열이 심각하고 상호비방이 난무한 게 현실이다. 자기가 속한 교단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이름이 다르고 조금만 다르게 실천해도 이단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침례가 이단이 되고, 매주 행하는 주의 만찬이 이단이 되고, 신성한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름조

차 이단이 되는 게 현실이다. 유대교나 가톨릭교회와 마찬가지로 개신교회들에서조차 하나님을 독점하려는 적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개신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성경으로 돌아가 진리를 회복하자는데 있다. 그런데 이 좋은 취지와 뜻이 심각한 분열과 유대교적 기독교란 왜곡된 결과로 드러나고 말았다. 더 심각한 것은 개신교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른다는데 있다. 원인을 지적하고 해결방도를 제시하면 의심부터 하고 그 알량한 지식을 꺾으려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몇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약성경교회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이 구약성경을 이해한 방식으로 구약성경을 이해하고, 신약성경이 말한 것을 말하고, 신약성경이 행한 것을 실천하고, 신약성경이 침묵한 것을 자유로 하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한다. 신약성경이 교회명칭을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렀으면 그렇게 부르고, 그 구성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으면 그렇게 부르고, 그들이 침례를 행하였으면 그렇게 행하고, 그들이 매주일 예배 때마다 주의 만찬을 행하였으면 원칙적으로 그렇게 시행하여야 한다. 이 운동, 곧 ‘신약성경교회 운동’ (New Testament Church Movement)은 침례교회 목사 알렉산더 캠벨이 1816년 9월 1일에 행한 ‘율법에 관한 설교’ (The Sermon on the Law)에서 출범되었다.

성경이 명한 대로(2)

둘째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약성경의 핵심사상은 만인사제론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민족의 차별, 남녀노소의 차별, 빈부귀천의 차별, 계급과 신분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일군들이다. 하나님의 집의 한 가족이다. 그리고 그들의 신성한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운동, 곧 ‘오직 그리스도인 운동’ (Christians Only Movement)은 장로교회 목사 발톤 스톤(Barton W. Stone)과 그의 동료 목사들이 1804년 6월 28일에 발표한 ‘스프링필드 장로회의 유언서’ (The Last Will and Testament of the Springfield Presbytery)에서 출범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동시대에 침례교 목회자 엘리야스 스미스(Elias Smith)와 아브너 존스(Abner Jones), 감리교회 목회자 제임스 오켈리(James O’Kelley)와 라이스 해가드(Rice Haggard) 등이 동일한 운동을 펼쳤다.

셋째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실천아래서 지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를 빙자한 분열은 죄악이다. 분열의 가장 큰 원인은 구약성경을 유대인들의 해석방법인 문자적 해석이 아닌,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해석한 신약성경저자들의 예표적 해석과 단순 원리를 적

용하지 못한다. 여기서 단순 원리는 신약성경이 말한 것을 말하고, 신약성경이 침묵한 것을 자유롭게 하며,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약성경이 말한 것은 본질이다. 본질에는 일치해야 한다. 신약성경이 침묵한 것은 비본질이다. 비본질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명한대로’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 운동, 곧 ‘교회일치 운동’(Christians Unity Movement)은 장로교회 목사 토마스 캠벨(Thomas Campbell)이 1809년 9월 7일에 발표한 <선언과 제언>(Declaration and Address of the Christian Association)에서 출범되었다.

이 세 가지 운동, 곧 신약성경교회 운동, 오직 그리스도인 운동, 교회일치 운동은 지상교회의 과제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하나님의 선교이다. 이 무렵 미국에서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신대륙의 개척과 맞물려 ‘자유’(정교분리)와 ‘유용(실용)성’을 화두로 한 후천년왕국시대를 기대하고 있었다. 당시 유럽이 국가종교와 전통에 매어 있었다면, 신대륙에는 신앙의 자유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가 물결치고 있었다. 동시대에 스톤-캠벨운동을 펼쳤던 선각자들은 기독교 본래의 순수성과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천년왕국시대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이 운동을 전령(Christian Messenger)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그들은 이 확신 속에서 천년왕국시대의 선구자(Millennial Harbinger)를 자임하면서 개혁운동, 곧 신약성서교회회복운동 또는 사도전통회복운동을 펼쳤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섭리의 눈으로 보살피 주시고(annuit coeptis: favorable to our undertakings), 새 천년시대의 새 질서(novus ordo seclorum: new order of ages)를 열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이 환원운동가들의 핵심공헌이 바로 죄 사함을 위한 신자의 침수세례(Christian Baptism)의 회복과 간략하고 단순한 매주 주의 만찬 예배의 회복이었다.

하나뿐인 복음08: 배운 것과 전한 것(I)(갈 1:11-14)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것을 전한 증인(I)



원형과 실제로서의 신약교회(복음과 십자가)
비잔틴제국의 주화(10세기말 11세기초): 예수님의 흉안에 십자가 후광을 가슴에 복음서를 새겼고,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이라고 새겼다.

바울은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후 사도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 고 하였다. 또 바울은 자신의 글들에서 수차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고전 1:1, 고후 1:1, 골 1:1, 엡 1:1, 딤후 1:1),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딤펴전 1:1)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또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요,” “주께 받은 것” 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고 하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25절에서 주의 만찬의 전례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고 하였다.

바울에게는 개종 후 안디옥교회에 초빙을 받기까지 대략 10여년 정도 묵상의 시간이 있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거나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들이 있었다는 증언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실려 있다. 사도행전 22장 14-15절은 바울이 개종직후 침례를 받을 당시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행한 설교로써 다음과 같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시오, 자신에게 복음을 가르치신 분도 예수님이시다고 말한다. 물론 여기서 예수님은 지상의 땅을 밟고 거니셨던 분이 아니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

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장 17-21절에 의하면,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경 빠져 예수님이 친히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고 하셨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고 말씀 하셨다.

예수님께 듣고 배운 것을 전한 증인(2)



설교하고 있는 바울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유대 왕 아그립바2세에게 행한 변증으로써, 그가 어떻게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음성을 듣게 되었는지,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이였는지에 관한 것이다.

“[11] ... 그들[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3]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말[아람어]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그리스도교]를 뒷발질하기[박해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15]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바울의 변증에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사도로 택하여 부르셨고, 그 목적이 그리스

도께서 친히 가르치신 것을 전하는 종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이다. 이를 16절은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한 것이라고 적시하였다.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이란 말씀은 바울이 개종 침례를 받은 후 어느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수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 보낸 서신들에서 “배운 것”이란 말과 “전한 것”이란 말을 여러 차례 썼다. 복음의 말씀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와 누가 전하였는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것이 복음의 올바른 계보요 전통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하였다. 요한도, 사도의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자를 일컬어, 거짓선지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하였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회당에 넘긴 이유

이 같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행한 예배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일컬어 이단이라고 하였다. 후대의 교회들이 신약성경 27권의 정경성 여부를 결정할 때에 기록으로 남은 문서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예배전통과 일치하는가를 보고 결정하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셨다. 이 말씀은 교회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 즉 사도전통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신약성경 27권이 주께 받은 것을 사도들이 전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요, 전통이요, 계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유배이후 하루 세 번 바치던 성전제사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루 세 번 모이는 기도회를 발전시켰는데, 그 장소가 회당이었다. 회당은 기도회 장소였을 뿐 아니라 교육과 율법재판이 이뤄지는 유대교 공동체의 중심이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수천 년간 유배지들과 남의 나라들을 떠돌았지만,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지 않고 끝내 살아남아 1948년 5월 14일 나라를 재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회당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회당에는 복수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회당장들이었다. 또한 이들은 회당의 관리와 민원을 해결하는 판관들이었다. 이들은 예배와 교육의 책임은 물론이고, 율법규정에 따라 곤장을 치게 하거나 파문을 시키는 등의 결정권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율법은 613개의 토라계명들뿐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져오다 주후 200년부터 500년 사이에 기록된 탈무드에 담긴 규례와 관습법들까지 포함되었다. 그들이 관리했던 회당이 예배당이자, 학교였고,

지방공회 곧 종교재판소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마 10:17), “너희를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다”(눅 21:12)와 같은 성구들이 회당이 지방공회였음을 말해준다. 사도행전 22장 19절과 26장 10-11절에 의하면 바울은 “...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다” 고 증언하였다.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들은 세 명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판결이나 증인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세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백부장이 자기 종의 병을 낮게 해주려고 가버나움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이들 장로들이 회당장들이었다(눅 7:3). 이들이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는 자들이었고(마 23:6), 아이로는 “회당장들 중 한 명”(막 5:22)이었으며, 예수님, 바울, 바나바 등이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할 수 있었던 것도 각 회당의 회당장들이 이를 허락했기 때문이다(막 1:21, 눅 6:6, 행 13:15, 19:8).

하나뿐인 복음09: 배운 것과 전한 것(2)(갈 1:15-2:10)

1장 15-24절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바리새인의 아들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시 민권자로 출생하여 13세 무렵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여섯 살부터 의무적으로 초등교육을 받았다. 주전 75년 유대지방 대도시들에 학교들을 세우도록 지시한 인물은 시메온 벤 쉐타흐(Simeon ben Shetah, 120-40BC)였다. 그 이전까지는 가장들이 자녀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다. 주후 64년에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조수아 벤 가므라(Joshua ben Gamla)가 마을마다 학교들을 세우게 하고 다섯 살 이상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유다 벤 테마(Judah ben Tema)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다섯 살부터 미크라(Mikra, 성문 토라)를, 열 살부터 미슈나(Mishnah, 구전 토라)를 배웠고, 열세 살부터 계명들(mitzvoth)을 지켰으며, 열다섯 살부터 탈무드(Talmud, 연구방법)를 배웠다. 훗날 탈무드는 미크라와 미슈나를 주석한 랍비들의 글을 모은 책을 일컫게 되었다. 초등교육은 주로 회당에 붙은 ‘헤데르’ (heder, 방)라 불린 별관에서 이뤄졌다. ‘멜라메드’ (melamed) 혹은 ‘멜람메드’ (melammed)라 불린 개인교사가 ‘티노코트’ (tinokot)라 불린 아이들에게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쳤다. 그러나 동유럽에서는 주로 개인교사의 집에 있는 ‘헤데르’에서 이뤄졌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기에는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시기는 주후 30년 오순절사건이 있는 지 3-4년이 지난 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테반 순교가 있었던 때는 주후 34년경이고, 이 무렵 바울은 3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데반 순교이후 사울(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영장을 지참하고 다메섹을 향해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개종하게 되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92km 정도 떨어진 고대 시리아의 수도였다. 유대인이 4만 명, 회당이 30-40개 정도 있었다고 한다. 주후 66년 네로황제 때에는 1만여 명의 유대인들과 그들의 가족 만 팔천여 명이 도륙을 당하기도 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2-33절에서 자신이 다메섹을 탈출할 당시에 다메섹이 아레타스4세(Aretas, 9BC-AD40)의 통치권 아래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다메섹은 주전 64년에 로마의 속주로 편입되었지만, 칼리굴라(AD

37-41)가 황제로 즉위한 주후 37년경부터 나바테아(요르단)의 왕 아레타스4세가 다메섹을 일정기간 통치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바울의 증언들로 볼 때, 바울은 주후 34년경 개종직후 다메섹 인근 아라비아사막에 내려가 일정기간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가진 후(갈 1:17-18), 다메섹에 돌아와 3년 정도 머물고 있던 37년경에 유대인들에게 매수당한 아레타스 왕의 고관이 바울을 체포하려고하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을 받아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도주하였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베드로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는데, 그 기간에 예루살렘교회의 수장 야고보 이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다. 이후 바울은 고향 다소로 돌아가 칩거하였다. 이 사건을 설명하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5-24절이다.

2장 1-9절



일치의 상징
베드로(불침주의자)와 바울(복음주의자)의 동행

바울을 안디옥교회로 불러낸 사람은 바나바였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이때가 대략 주후 44년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후 45년에 유대지방에 기근이 있었는데, 안디옥교회가 바나바와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교회에 부조금을 전달하게 한 때가 46년경이었기 때문이다(행 11:25-30).

바울과 바나바는 부조금 전달을 무사히 마친 직후 마가를 대동하고 제1차 선교여행에 나섰는데 그 시기가 대략 46-48년 사이였다. 바울은 개종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 그 후 14년만인 주후 51년경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안디옥교회를 혼란에 빠뜨린 에비온파 유대인들로 인해서 개최된 사도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건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10절이다.

사도행전 15장 23-29절에 실린 사도총회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사도총회가 결정한 판결문의 가치는 매우 높다. 사도들은 교회의 열쇠를 쥔 설립권과 승인권자들일뿐 아니라,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정통성 여부 곧 옳고 그름을 결정짓는 잣대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10절은 자신의 복음사역을 이 판결문을 통해서 사도총회 때 승인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6절의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는 사도행전 15장 28절,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와 일치한다. 여기서 “유력한 이들” 이란 승인권을 가진 사도들을 말한다. 사도들은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겼고,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데(6-8절), 이 점을 “기둥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자신과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통해서 인정하였다(9절)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누가 사도행전에서 놓치지 않고 강조하고자 했던 점도 바로 이 점이였다. 여기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 는 것은 선교협약을 공고히 하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실천하는 형제임을 인정하였다는 뜻이다.

2장 10절



네시디아 안디옥의 4세기 예배당터

옵티무스(Optimus) 대주교가 섬겼으며, 바울과 바나바가 방문하여 설교했던 유대교 회당이 이 터 아래에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갈라디아 사람들인 가이오와 디모데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갈라디아 교회들도 부조금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지역교회 대표들은 예루살렘까지 부조금을 안전하게 운반할 사람들이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교회 앞에서 이방인교회들의 현황을 보고할 사절들이었다. 바울이 부조금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후 51년경 예루살렘 사도총회 때 안디옥교회의 대표였던 바울, 바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제3차 여행을 마치고 주후 58년 오순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할 때 가난한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 부조금 프로젝트를 진행시켰고(고후 8-9장), 각 지역교회들의 대표자들을 동행시켰다. 이들 가운데

나바, 디도는 예루살렘교회의 기둥이었던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더불어 선 교협약을 맺은 직후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특별히 부탁하였기 때문이다(갈 2:9-10).

둘째, 가난한 예루살렘교회를 돕기 위해 부조금을 모은 것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었다. 이 선물은 유대교의 나사렛파와 이방인 그리스도의 교회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고, 유대교의 나사렛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새 언약 공동체으로 끌어안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갈등의 원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함으로써 또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음으로써 값없이 차별 없이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된다는 바울의 복음주의와 가나안 땅회복과 이스라엘민족해방의 조건이 언약의 말씀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의 율법주의가 충돌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예루살렘교회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 곧 에비온파의 꼬드김 때문에 안디옥교회, 고린도교회, 갈라디아교회 등에 변절자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과격하게 대응했던 바울은 어떤 형식으로든 예루살렘교회와 불편해진 관계를 해소하고자 했다.

다섯째, 바울은 이방인교회들이 예루살렘교회로부터 영적인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롬 15:27).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교회들이 낸 부조금은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영적축복을 되돌려주는 감사의 표시라고 믿었다.

여섯째, 바울은 거액의 부조금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표명하고자 하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엡 4:13) 모두가 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였다.

하나뿐인 복음10: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1)(갈 2:11-14)

바울의 베드로 책망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을 대면하여 책망하였다(갈 2:11-14).

갈라디아서는 주후 54년에서 57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 바울이 이 지역에 교회들을 세운 것은 이 서신을 쓰기 불과 10여 년 전이었다. 나 이로 치면 열 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직은 미성숙한 교회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에비온파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

지 못하였다. 게다가 에비온파는 바울의 사도권과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문제 삼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들로서는 심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그런 그들을 바울은 몇 가지 변증을 통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다.

첫째, 바울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를 대면하여 그의 외식을 책망하였을 만큼 사도권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베드로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에비온파 유대인들을 보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했고, 다른 유대인들도 자리를 피했으며,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자리를 떠나고 말았다. 이런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서 바울은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하기를, “당신은 유대사람인데도 유대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사람더러 유대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라고 하였다.

둘째, 교회의 기둥과 같은 베드로나 야고보라할지라도 그리스도교 복음의 진리에 따라 항상 올바르게 처신할 수 있을 만큼 유대교의 율법주의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셋째, 그리스도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비록 바울 자신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고전 15:8)와 같을지라도, 결코 뒤지지 않고

오히려 앞장서서 선도하고 있다.

이 같은 바울의 변증은 에비온파가 전한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을 갈라디아 교회들은 크게 안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무엇 때문에 에비온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는가? 베드로와 바나바 및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곧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온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했는가? 베드로는 안디옥에 머물고 있었고, 이방인들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다. 12-13절은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고 하였다.

베드로의 잘못된 처신



바사르(고기)와 할라브(우유)를 섞지 않아야 정한(Kosher) 음식이라는 그림이며, 아래 영문은 "우리는 지금도 모시아크(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다. 정한 것만 먹고 정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식탁교제를 꺼려했다. 사도행전 10장 9-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내고자 하실 때, 환상으로 네 발 달린 온갖 짐승들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을 골고루 보여주시고, 잡아먹으라고 하셨다. 그때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한 번도 먹은 일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왜 베드로는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았는가?

둘째, 유대인들에게는 까다롭고 복잡한 정결법(tohorot) 곧 ‘카샤룻’ 음식법, 손 씻기법, 그릇 씻기법 등이 있다.

베드로가 에비온파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첫째, 베드로는 성령님의 지시대로 가이사랴에 주둔한 이달리야 부대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 그리스도교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눴는데, 이때의 일로 인해서 베드로는 이미 한 차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로부터 홍역을 치른 적이 있었다(행 10-11장).

유대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나뉜다. 정한(kosher) 것, 부정한(treyf) 것, 거룩한(kadosh) 것이 그것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한

‘카샤룻’ (Kashrut)은 무슨 음식은 먹을 수 있고, 무슨 음식은 먹을 수 없는지, 그 같은 음식들을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지를 다룬 유대교의 규례이다. 이 ‘카샤룻’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먹기에 합당한 음식과 의식과 의식용에 합당한 물건들을 ‘코쉬’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는 가공식품이 많기 때문에 음식에 무슨 성분이 들었는지, 어떻게 가공됐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랍비들이나 인증단체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제품에 인증마크를 찍어 준다. 코쉬 소비자들은 인증마크를 보고 구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 먹을 수 없는 음식이나 쓰기에 부적당한 것들을 ‘트레이프’ (treify)라 부른다. ‘트레이프’란 문자적으로 ‘찢긴’이란 뜻인데, 다른 동물들에 찢긴 동물들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유래했다(출 22:31, 레 7:24, 겔 4:14).



카샤룻 음식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조리나 설거지 할 때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이 섞이지 않도록 싱크대, 스토브, 전자레인지, 찬장 등을 두 개씩 설치한다(상). 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식사 전에 용기에 물을 받아서 손 안팎이 흠뻑 적시도록 씻는 손 씻기 의식을 행한다(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카샤룻’ 음식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집이나 음식점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또 음식법에 따라 엄격히 만들어진 식료품이 아니면 사지 않는다.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난하거나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잦은 사람들은 ‘카샤룻’ 음식법을 잘 지키지 못한다.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는 물론이고 가난한 자들과의 식탁교제를 꺼리는 이유이다.

베드로의 행위가 외식이었던 이유

베드로의 행위가 외식이었던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베드로는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가이사랴에 이방인교회를 세우고 그들과 식탁교제를 나눈 일로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변증한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 1) 그리스도인은 이방인과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다.
- 2) 이방인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 3)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때 민족성별 빈부귀천을 차별치 않으신다.
- 4)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심판주이시다.
- 5)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 6)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과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던 베드로가 할례자들로부터 비난받을까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한 것은 자신의 앞선 행동과 변증을 뒤집는 처신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였다.

둘째, 그리스도교에서는 ‘미슈나 정결법’ (Mishnah tohorot), 일명 ‘장로들의 유전’ (oral torah) 혹은 ‘게자이로트’ (gezairoth)로 알려진 ‘안식일 법,’ ‘식사 전 손 씻기법,’ ‘카샤룻 음식법,’ ‘그릇 씻기법’ 등이 고침 받아야할 병든 상태 또는 청산되어야할 적폐들이었기 때문이다.

안식일 법은 안식일에 창조적인 일(melachot)을 할 수 없도록 랍비들이 성막제작공정 39가지 범주에서 착안한 인위적인 실천 법들이다. 또 ‘식사 전 손 씻기법’은 제사장들이 성막이나 번제단에 나아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씻었던 성별행위를 본받기 위한 것으로써 말만 손 씻기법이, 실제로는 손 전체를 한 번의 쏟아 붓는 물로 손목부터 손등과 손바닥과 모든 손가락과 손톱에까지 구석구석 손 전체를 적신 후에 두 손을 높이 쳐들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기도문(beracha)을 낭송하는 것이고, 물을 적신 손이 다른 손이나 옷에 닿지 않게 자연 상태에서 말리는 것으로써 위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의식법이다. 또 ‘카샤룻 음식법’과 ‘그릇 씻기법’은 “너는 염소새끼를 어미젖으로 삼지 말라”(출 23:19)는 계명에서 나온 규례들로써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먹거나 어떤 경우에도 섞이지 않게 하는 의식법이다.

하나뿐인 복음: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2)(갈 2:15-16)

“율법의 행위로써”



비시디아 안디옥의 바울기념교회 터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는 말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을 자궁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말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독점하였다. 그래서 타 민족들은 하나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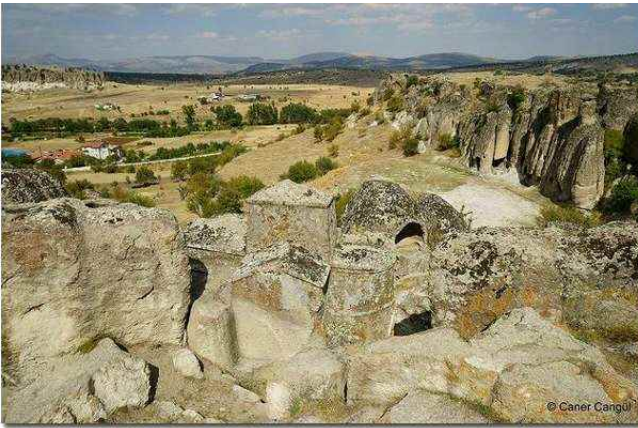
없는 이방 민족들이었다. 세상에는 오로지 두 개의 민족, 즉 유대인과 이방인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모멸하는 이방인의 나라들에서 수천 년을 떠돌이와 노예로 산 것은 깊이 박힌 목의 가시였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한분뿐인 신이시고,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며, 자기 민족을 노예와 떠돌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내용으로 토라를 주시고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이시며, 야훼신앙을 민족종교로 주신 하나님이시고, 가나안땅을 안식할 영토로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될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 선택된 자들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오만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 나라’ (출 19:6) 또는 ‘이방의 빛’ (사 49:6)으로 뽑은 것이었지, 그들 자신만을 위해 뽑은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야훼가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였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에서 “율법의 행위”란 613개의 계명들(mitzvoth)과 그 계명들을 어길 수 없도록 랍비들이 둘러친 규례들(Gezeiroth)을 지키는 행위를 말한다. 유대교는 교리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율법을 실천하는 종교이다. 유대교적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율법과 규례는 반드시 문자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유대교인들에게 율법과 규례는 안식의 상징인 이 지상 가나안땅과 민족의 생사가 걸린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이다. 또 모든 율법과 규례를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유대교 엘리트들이 불치병과 같았던 자기 민족사에 내린 처방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고 한 것은 그리스도교가 추구하는 참 안식의 나라가 이 지상에 있는 가나안땅이 아니라, 저 하늘 가나안땅이고, 인류가 죄로 인한 불치병을 고침 받고 참 안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방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는 복음을 주께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루스드라 지역의 바위교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구원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이루는 방법도 다르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의 행위로써” 그들이 바라는 것을 얻고자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율법의 행위

로써” 는 얻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구약성서를 자기 나라의 출범과 흥망성쇠에 관한 글이라고 믿고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준수하는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서를 전 인류의 흥망성쇠 곧 영적 구원과 삶에 관한 글이라고 믿고 인류구원이란 큰 틀에서 영적으로 예표로 구속사적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구약성서는 지상 가나안땅과 이스라엘에 관한 약속과 성취와 멸망과 회복에 관한 글이고, 또 그들이 원하는 ‘안식’ 은 유배와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 지상 가나안땅, 특히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회복된 성전예배를 드리며 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장차 오실 자 ‘모쉬아크’ (Moshiach)가 해야 할 대업도 유대인들의 ‘그 희망’ (Ha-Tikvah)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성서를 예표적으로 하늘 가나안땅과 영적 이스라엘,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에 관한 약속과 성취에 관한 글이고, 구속사적으로 인류의 멸망과 회복에 관한 글이며, 또 그들이 바라는 ‘안식’ 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부활과 영광의 몸을 입고 하늘 가나안땅, 하늘 예루살렘과 시온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장차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천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Yehshuah)께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삼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어 하늘 우편보좌에 앉으심으로써 인류의 ‘그 희망’을 이미 영적으로 영혼구원을 성취하셨고, 인류의 ‘그 희망’을 문자적으로 육체구원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희망’의 성취를 적은 글이 신약성서이다. 그러므로 신약성서는 유대인들의 ‘그 희망’에 관한 구약성서를 인류의 ‘그 희망’과 ‘그 희망’이 ‘이미’ 성취된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들의 부활로 대단원을 장식하게 될 내용으로 새롭게 해석된 글이다.

따라서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에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그 ‘모쉬아크’ (Moshiach)를 말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Yehshuah)를 말한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모쉬아크’ 곧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싫어한다. 하지만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믿었다(고전 1:18,24).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



이코니움(Iconum, Konya)의 헬레나(St. Helena) 기념교회
 이 교회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모친 헬레나가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가던 중 근처 실레(Sille)에 머물렀던 것을 기념하여 327년에 세워졌다.
 바울이 돌에 맞은 자리 위에 세워졌다고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단언하였다.

유대인들은 예언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율법을 잘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가나안땅과 이스라엘의 명예와 주권을 지켜내는

길이라고 믿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구원이었다.

일부 유대인들은 육체부활도 믿고, ‘다가올 세상’ (Olam Ha-Ba)도 믿는다. 그러나 그 같은 믿음은 구약성서이후시대인 헬라시대 때 시작되어 중세시대 때 발전되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언급되어 있

지만, 대개의 학자들은 이 구절이 헬라시대의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구약성서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스울’(Sheol)은 지옥이 아니고 무의식상태의 지하 무덤을 의미한다.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부활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또 누가 부활하게 될지를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한다. 어떤 유대인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모쉬아크 시대에, 또 다른 유대인들은 모쉬아크 시대가 끝나고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또 어떤 유대인들은 의로운 자들만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다른 유대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가올 세상’에 대한 유대인들의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원과 천국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갖는 견해만큼이나 다양하다. 반면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에덴동산(Gan Eden)에 연결되고, 지옥은 ‘게힌놈’(Gehinnom) 곧 ‘힌놈의 골짜기’에 연결되는데, ‘게힌놈’은 심판의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을 말하며, ‘게힌놈’의 불은 지상의 것보다 60배나 더 뜨겁다는 이야기가 후대에 첨가되었다. 다만 ‘게힌놈’은 가톨릭교회가 주장하는 연옥과 같아서 ‘다가올 세상’이 도래하기 전까지만 존재하며, ‘게힌놈’에서 머무는 기간도 최장 12개월로 한정된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다가올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로써 바울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풀어보았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서로 너무 다르다. 구원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의 행위로써” 그들이 바라는 바를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고자 한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써”는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

하나뿐인 복음12: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3)(갈 2:17-21)

에비온파의 주장대로라면



악타마르 교회의 하치카르(Khachkar, 십자가석)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이고, 구원에 대한 개념도 다르며, 구원을 얻는 방법도 다르고, 지향하는 목적도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고 갈라디아서 2장 15절 이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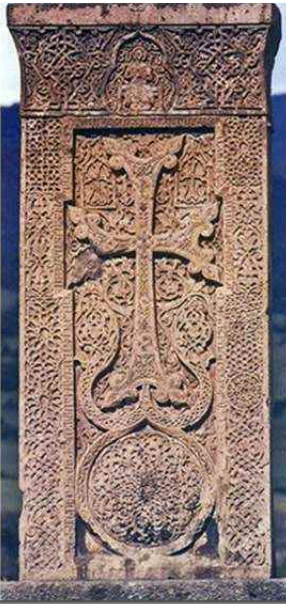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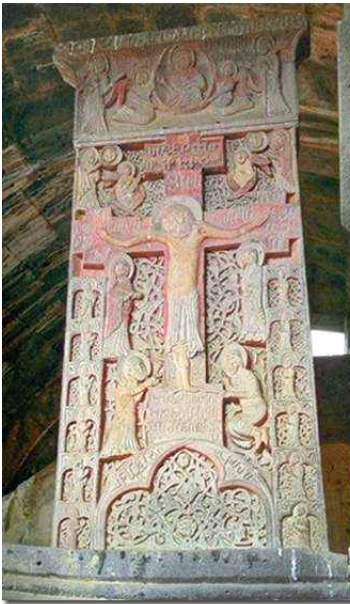
그런 전제하에서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는 에비온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주장에 연결된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성모독죄에 해당된 다거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우상숭배에 해당된다는 것

등이다. 이런 비난은 오늘날에도 에비온파들에 의해서 지속되고 있다. 에비온파 유대인들의 주장대로라면, 갈라디아 교회들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 이 되는 꼴이고, 바울에게 나타나서 복음을 계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량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성모독죄에 빠지게 하고, 우상숭배죄를 범하도록 만든 것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고 단호히 말했다.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는 말씀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으로서 또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하에서 공부한 바리새인으로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처벌하는 일에 앞장섰던 뺏속까지 유대교인이었던 사람으로서, 유대교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극적으로 그리스도교에 개종했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교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빌 3:8) 여긴 자로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고전 4:13) 된 자로서, 만일 에비온파의 주장이 옳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폐하게 된다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19-21절에서 결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된다는 취지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19]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1]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고 피력하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의 하치카르(Khachkars, 십자가석들)

여기서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는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와 같은 뜻이다. “내가” 는 피조물을 말한다. 피조물은 필연적으로 부족한 존재이고, 성경에서 부족한 죄로 간주된다. 그러므로 죄를 모르는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그가 피조물이란 관점에서 그는 죄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씨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칼뱅은 이 씨앗을 원죄로 이해했고, 인간을 타고난 죄인으로 간주하였다. 반대로 유대교에서처럼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인간이 죄인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가” 라는 존재는 죄인이다. 이 죄인은 율법의 규정 때문에 사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는 ‘그리스도 안에서’ 란 뜻이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는 “내가” 로 대표되는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삶은 사망이다.” (롬 6:23)는 율법규정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혀 찢값을 치렀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롬 7:4)는 뜻이다. 이 뜻을 바울은 로마서 5장 6-7절에서 좀 더 명확히 설명하기를,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고 하였다.

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는 침례와도 관련되어 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 했고, 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고 했으며, 5절에서 침례 받은 자를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고 하였다. 이로써 바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침례를 받는 것을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덤에 장사되는 행위로 보았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의 하치카르(Khachkars, 십자가석들)

바울은 율법이 규정한 죄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이유를 19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고 하였다. 20절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는 것” 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 고 하였고, 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가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새 사람으로 부활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그리스도인을 새 사람으로 부활시키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고 하였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다

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고 하였고, 9절에서는 부활하시여 영원한 생명을 찾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2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또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성화의 삶을 점진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신학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회개하고 그 믿음을 고백한 후에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덤에 장사된 후 새 사람으로 부활한(거듭난) 것을 하나님의 무죄 선언 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심이라고 하며, 이를 줄여서 ‘이신칭의’ 또는 ‘초기성화’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신칭의’ 나 ‘초기성화’ 의 목적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 이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고,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신학에서는 ‘점진성화’ 라고 부른다.

‘점진성화’ 란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의 형상과 성품과 영광이 들어나는 것을 말한다. 나는 감춰지고 그리스도가 높임 받는 것을 말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한다(실존).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말한다(존재).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한다(주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롬 14:8) 것을 말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전 10:31)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완전성화’ 는 몸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게 된다.

하나뿐인 복음13: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4)(갈 3:1-5)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화환을 목에 건 황소 부조가 새겨진 제단들(비시디아 안디옥)
참고: 사도행전 14:13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교 회당들이 많았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 갈라디아인들은 그들로부터 바울을 쫓아내는 말들을 자주 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에비온과 유대인들까지 합세하여 바울을 비난하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갈라디아인들이 귀가 얇고 잘 속는다는 점은 이미 10여 년 전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때 드러

난 바가 있다. 사도행전 13-14장을 보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 바울과 바나바 및 그리스도교에 개종한 헬라인들에게 악감을 품고 박해한 것을 볼 수 있고, 디모테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헬라인을 고쳤는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화신(化身)이라며 소란을 피웠고, 심지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까지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바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갈라디아 지역에 거주하는 유력한 헬라인들 특히 귀부인들 가운데는 할례와 침례를 받지 않는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절반 개종자들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서는 회당 출입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많았고, 소수였지만 할례와 침례까지 받은 완전 개종자들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유대교의 상징인 메노라(등잔대)를 기증하거나 회당건축에 큰 힘을 보태기도 하였다. 이런 우세한 상황을 이용하여 유대인들은 바울과 개척교회들을 강력히 저지하였고, 유력한 헬라인들까지 동원하여 탄

압하였다. 게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에비온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의 추천서를 거론하며 바울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1절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따졌다. 이 말의 뜻은 이미 명확히 깨달아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다르고, 구원의 의미나 구원에 이르는 방법도 다르며, 또 구원은 민족성별의 차별 없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그토록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냐는 뜻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비시디아 안디옥의 황소 부조들(Yalvac Museum)

유대교에는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제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없다. 거룩한 영이신 야훼 한 분만 섬기는 일신교이기 때문이다. 구약성서에 “하나님의 신” 또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표현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신”은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계시형태나 심부름꾼인 천사를 지칭할 때에 쓰인다. 따라서 2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에서 “성령”은 유대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뜻하지 않고,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제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말한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령”을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선물)로 잘못 아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령”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을 뜻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이 성령님을 율법의 행위로 받지 않고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그토록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고 물었다.

신약성서에서 모세는 예수님,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인들, 출애굽사건과 광야생활 40년의 사건들은 신약교회에서의 사건들의 예표와 모형으로 설명되고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히브리인들이 구름아래서 갈라진 바다를 마른땅 밟듯이 건넌던 홍해를 영적 죽음과 부활의 상징으로 써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한 후에 옛 사람은 죽어 장사되고 하나

님나라의 시민과 하나님가족의 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받는 그리스도인 침례의 예표와 모형으로 보았고, 히브리인들이 먹고 마셨던 만나와 반석의 물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주님의 만찬의 예표와 모형으로 보았다.

또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 고린도후서 1장 21-22절, 에베소서 1장 13-14절의 말씀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을 인도하였던 구름기둥을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예표로 확신하였다. 언급된 구절들은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인내와 연단만으로 이뤄지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야사막에서 히브리인들을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이었다. 구름기둥은 성령님의 임재의 예표였다. 구름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이 광야사막생활을 마침내 끝내고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 가나안땅을 약속하시고 그 보증과 인침의 표로써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가나안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 결코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화환을 몸에 두른 항소제물과 제단 및 사제들
참고: 사도행전 14:13

이 같은 이유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3]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4]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5]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고 물음

으로써 유대인들의 꾀에 빠져 잊고 있었던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상기시켰다.

여기서 바울은 죄인의 구원이 성령님의 사역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성령님의 구원사역에는, 신학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간접사역과 직접사역으로 나뉜다. 구원을 하나의 과정으로 볼 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그분을 죽은 자가

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서 믿음과 신앙고백은 같은 것이지만 사적으로 믿는 것을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회개와 침례는 같은 것이지만 사적으로 한 회개를 증인들 앞에서 공적으로 회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특별히 침례 때 의사로서의 성령님은 죄로 인한 불치병(사망)을 치료하시고 중생의 씻음과 거듭남(초기성화)을 주시며, 내주 동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 가나안땅에로 인도하시며 보증하시고 인(印)을 치신다. 이것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의 물음 속에 담긴 뜻이다.

죄인이 어떤 시점에 구원(칭의와 초기성화)을 받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구원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3절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는 뜻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믿음과 성령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데는 하나의 과정이 요구된다. 가장 먼저 잉태라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세포가 분열을 시작하여 배반포, 배아, 태아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양수를 터트리고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된다. 믿음과 침례가 잉태와 출산에 비교되는 이유이다. 출산의 고통과 생명의 신비를 생각해 본다면, 왜 바울이 4-5절에서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뿐인 복음4: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5)(갈 3:6-14)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터키 동북(Van Lake) 약타타르 섬에 있는 아르메니아 교회(10세기)

하바드대학교 신학부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홀러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을 교수한 조지 E. 라드(미주침례교 목사)가 ‘역사적 전천년설’을 설명한 글에서 주장하기를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구약성경의 문맥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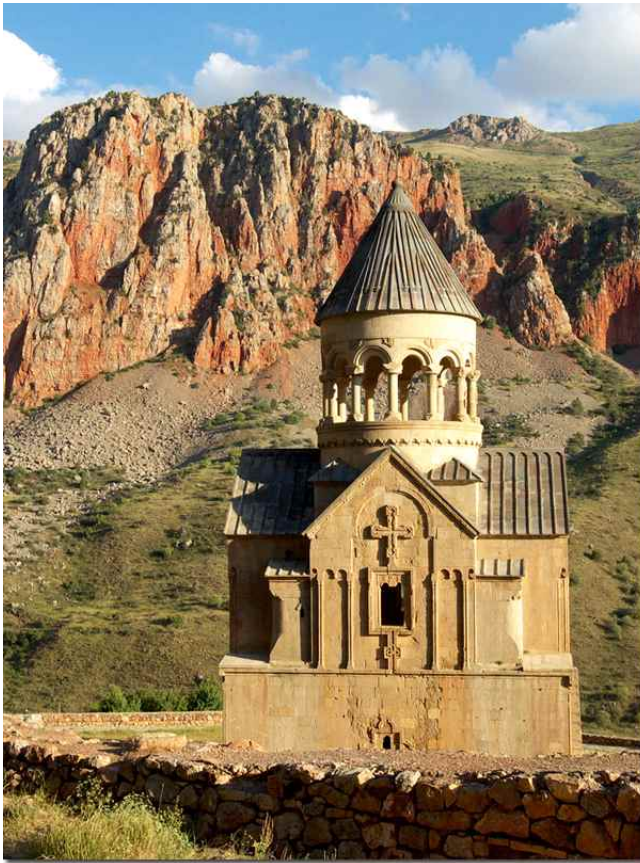
다<마 2:15(호 11:1); 마 8:17, 행 8:30-35(사 53장. 비교 사 11장)>고 했다. 그는 또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문자적으로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신학에서 구약성경의 문자적 해석을 문제 삼는 이유이다<롬 9:25-26, 4:11-16, 2:28-29(호 1:9-10, 2:23); 히 8장(렘 31:3-34)>.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구조주의 모형과 영적으로 해석한 것은 율법과 유대교의 병든 상태 때문이었다. 율법과 유대교의 병든 상태 때문에, 복음과 그리스도교의 건강한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병든 상태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하듯이 문자적으로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시대에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국가에 주어진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그리스도교에 예표로 영적으로 적용하였다. 갈라디아 3장 6-14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8절이 그렇다.

바울은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다.” 고 하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최소 430년에서 645년 전 사람이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물이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할 것은 세 가지이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고, 둘째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며, 셋째는 의롭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가슴에 품었던 희망이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최초로 품었던 ‘그 희망’ (Ha-Tikvah) 을 지금까지 품고 있고, ‘그 희망’ 이란 뜻의 ‘Ha-Tikvah’ 는 시오니즘의 운동가이자 이스라엘의 애국가이기도 하다. ‘그 희망’ 이란 문자적으로 가나안땅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희망에 복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약속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그러나 신약성경 저자들은 아브라함의 ‘그 희망’ 을 저 하늘 가나안땅으로 보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라.”



터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르메니아의 노라뱅크 수도원

둘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가임기를 수십 년이나 넘긴 사라의 태(胎)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실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부활의 믿음을 의롭다고 간주하셨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고 하였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의롭다는 것은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한 것만 먹고, 정한 것만 사용하고,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며, 불러주시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에 아무

도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 고 했다. 여기서 바울이 율법의 행위 그 자체를 폄훼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존하여 의롭게 되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폭 7미터의 깊은 계곡을 뛰어 넘어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8미터 정도까지 멀리 뛸 수 있어야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고 부족한 존재라서 그 같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비록 어떤 사람이 멀리 뛰는 능력이 매우 뛰어나서 6미터를 뛰어넘는 해도 살아남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6미터를 뛰어넘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계곡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6미터를 율법의 행위로 간주할 때, 그 율법의 행위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11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 고 하였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터키 땅인 눈 덮인 아라랏산과

아르메니아 코르비랍(Khor Virap)에 소재한 사도교회 수도원 전경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이 있는데, 본래 이 말씀은 신실한 믿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한 믿음은 유대인들이 추구하는 지상 가나안땅에서 안식을 얻기 위해 부지런히 지키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

님의 아들로 믿는 구원의 믿음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다른 신약성경 저자들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구약성경의 문맥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거나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때가 있었다. 그 같은 입장에서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할 때 믿음을 신실한 믿음에 적용하지 않고, 구원하는 믿음에 적용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히브리서 저자는 동일한 성구를 인용할 때 인내의 믿음에 적용하였다.

유대교는 실천종교이기 때문에 교리를 믿고 영적 또는 근본적 구원에 이르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하여 가나안땅과 이스라엘나라에 대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유지시키는 종교이다. 그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언급한 의인과 믿음은, 바울이 뜻한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명들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을 충실히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반면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한 의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극한의 시련과 박해를 인내하며 성취함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정절을 변심치 않고 끝까지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이 같은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와 가나안땅의 시조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늘 가나안땅의 시조로 삼고 있다(7-9절).

둘째로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와 가나안땅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키는 율법과 규례가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늘 가나안땅을 받는 데는 전혀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10-12절).

셋째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써 얻을 수 없는 죄 사함과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과 땅을 그분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고 말한다. 성령님은 이 약속의 보증과 인침과 선취로써 선물로 주어진다고 말한다(13-14).

하나뿐인 복음15: 율법과 약속(갈 3:15-22)

“사람의 언약이라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아르메니아 기독교인들의 십자가 문양 노라넵크 수도원

갈라디아서 3장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불변성을 강조한 말씀이다.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볼 때, 언약체결 자들은 함께 쫓겨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파기하면 이 짐승처럼 쪼개지고 만다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나 하나

님은, 히브리서 저자가 6장 13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셨다.” 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혼자서 쫓겨 짐승사이로 지나가셨다. 하나님의 약속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이시다.” 는 창세기 15장 4절에 근거하여 바울이 이삭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믿고 한 말씀이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40대 후손으로 소개하였다. 마태가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바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오실 자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를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 희망’의 성취자로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희망’은 저 하늘 가나안땅을 말하는 것이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임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그 희망’을 최초로 품었던 조상이며,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희망’은 문자적으로 가나안땅에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나라를 세우

는 것을 말한다. 그 나라의 크기는, 창세기 15장 18절에 의하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또는 유배 때 밟았던 모든 땅이다. 반면에 마태는 아브라함 이후 14대만인 다윗 때에 절정에 달했던 나라가 또 다른 14대만에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고, 유대인들이 다시 14대를 떠돌이와 노예로 지낸 후에 ‘그 희망’을 성취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나타셨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그 희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그 희망’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마태뿐 아니라, 신약성서를 기록한 모든 저자들의 일치된 주장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



터키 땅인 눈 덮인 아라랏산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아르메니아 크르비라프(Khor Virap)에 소재한 사도교회 수도원의 벽 십자가 문양들

우리는 신약성경 저자들이 구약성경을 해석할 때 자주 구약성경의 문맥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였고, 자주 문자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지어서 유대인들이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실들의 예표와 모형으로써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모세와 여호수아시대에 이뤄졌고, 율법은 출애굽 후 50일째 되는 첫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계명들이며, 그 계명들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유업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에 바울은 19절에서 율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인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하늘 가나안땅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

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고 선언하였다.

18절에서 바울은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다.” 고 하였는데, “유업” 은 자손들이 대를 물려 살아갈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를 말한다. 유대인들은 이 유업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까지” 라고 말씀하신 지상 가나안땅으로 믿어왔으나 바울과 신약성서 저자들은 이 유업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상속할 저 하늘 가나안땅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지상 가나안땅은 “율법에서 난 것” 일지 몰라도 하늘 가나안땅은 “약속에서 난 것” 이며,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고 하였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고 하였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땅에 들어온 후부터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까지를 430년으로 본 것 같다. 바울 이전부터 있었던 설로써 이집트에서의 노예기간을 215년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를 취하고 있는 히브리력은 2019년 1월을 5779년으로 본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터키 동북(Van Lake) 지역 아르메니아 그리스도인들의 약타마르 교회의 외벽 복조(10세기). 상단에 십자가문양이 있고, 하단좌우에 케루빔, 하단중앙에 십자가 문양을 양손으로 붙잡고 있는 천사들, 그 7월에 복음서를 가슴에 안으신 예수님과 또 다른 인물로 새겼다.

바울은 이미 19절에서 율법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만 유효하다고 선언하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하늘 가나안땅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였다(22절). 따라

서 바울은 21절에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 일생을 신약성서기독교 회복운동에 바쳤던 알렉산더 캠벨(Alexander Campbell)은 27세 때인 1816년 9월 1일 레드스톤 침례교 협의회(Redstone Baptist Association)에서 행한 ‘율법에 관한 설교’ 에서 율법은 전 인류에게 의와 생명을 줄 수가 없고, 죄가 되는 행위들을 밝힐 뿐 죄의

악성과 결점을 들춰낼 수가 없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율법은 전 인류를 위한 전 인류에게 적용되는 법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설계되고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다고 피력하였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다.” 에서 성경은 구약성서 ‘타나크’ (Tanakh/Tenach)를 말하지만, 문맥상 ‘토라’를 염두에 둔 말씀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회당기도회 때 읽었던 성구와 찬양했던 시편을 언급하신 것이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54개로 쪼개서 읽었던 ‘토라’ (Torah)와 ‘하프타라’ (Haftarah)를 말하는데, ‘토라’는 모세오경을, ‘하프타라’에는 역대기서가 제외된 역사서들과 예언서들이 포함된다. 매주 3회,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아침기도회 때 읽히는 ‘토라’는 54개로 쪼개져 일 년에 한 차례씩 완독되지만, ‘하프타라’는 해당 주 요일에 읽히는 토라와 관련이 있는 선별된 몇 구절만 읽힌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우선적으로 토라를 뜻한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는 말씀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고 한 로마서 3장 20절에 연결된다. 이스라엘의 4천년 역사 가운데 3천년 정도를 유대인들은 떠돌이로 살았는데, 그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란 것이 구약 예언서와 역사서의 진단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율법은 그들에게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안식을 주지 못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참 안식이 민족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나뿐인 복음16: 율법과 믿음(갈 3:23-29)

“믿음이 온 후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비잔틴시대의 주화(AD 969-1081)

전면에 복음서를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후면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IHSUS X RISTUS BASILEU BASILE)이라고 새겼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25절에서 “[23]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간헐했느니라. [24]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을 얻게 하려 함이라. [25]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고 하였다. 여기서 “초등교사”는 다른 성경들에서 “몽학선생,” “가정교사,” “개인교사,” “후견인,” “감시자” 등으로 번역되었다.

유대지방 대도시들에 학교들이 세워진 것은 주전 75년이였다. 그 이전까지는 가장들이 자녀교육을 책임지고 있었다. 주후 64년에도 대체사장 쥘수아 벤 가므라(Joshua ben Gamla)가 마을마다 학교들을 세우게 하고 다섯 살 이상의 아이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유대인들은 다섯 살부터 성문토라(Mikra)를, 열 살부터 구전토라(Mishnah)를 배웠고, 열세 살부터 계명들(mitzvoth)을 지켰으며, 열다섯 살부터 탈무드(Talmud)를 배웠다. 초등교육은 주로 회당에 붙은 ‘헤데르’(heder, 방)라 불린 ‘방’에서 이뤄졌다. ‘멜람메드’(melammed)라 불린 개인교사가 ‘티노코트’(tinokot)라 불린 사내 아이들에게 토라와 탈무드를 가르쳤다. 그러나 동유럽에서는 주로 개인교사의 집 ‘헤데르’에서 이뤄졌다. ‘헤데르’의 상급학교는 ‘예시바’(yeshiva, 앉음)이다. ‘예시바’가 생기기 전에는 유대교 법정(beth din)에서 세 줄로 앉아 공부하였다.

헬라인들 중에는 학식이 높은 노예를 비싼 가격에 매입하여 사내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감시하는 후견인(paidagogos)으로 삼았다. 이들 교사들의 역할은 사내아이들이 보통 16세 정도에 이르면 정지되었다.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한국 최초의 신학자였던 최병헌(崔炳憲, 1858-1927)이 쓴 <성산유람기>(聖山遊覽記)라는 글에서 원각대사(圓覺大師)에게 이런 말을 한다. “거친 음식과 풀죽(蔬食菜粥)과 기름지고 맛난 음식(膏糧玉食)이 다 같이 음식이로되 귀천(貴賤)과 미악(美惡)이 있나니, 옥식(玉食)을 만나지 못하여서는 초식(草食)을 먹으려니와 옥식(玉食)을 보고도 의심하며 먹지 아니하면 실로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 없는 일이라” (<신학월보> 230쪽).

이와 같이 바울은 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초등교사가 필요 없듯이, 해가 뜬 낮에는 달이 필요 없듯이 또 옥식이 있으면 풀죽을 먹지 않듯이 믿음인 온 후에는 율법이 필요 없다고 피력하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비잔틴시대의 주화(AD 481-491)
전면에 복음서를 들고 계신 예수님을 새겼고, 후면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ISVS XPISTVS BASILEVS BASILE)이라고 새겼다.

이 말씀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시점에 관한 말씀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것과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부터 침례까지는 구원의 과정으로써 잉태로부터 출산까지가 새 생명의 탄생의 과정인 것과 같고,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여 결혼에 골인하기까지가 부부탄생의 과정인 것과 같다. 또 탕자가 회개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아들로 영접되고 깨끗이 씻긴 후에 형인 맏아들의 옷을 입는 것과도 같다. 신약성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맏아들”로 표현하고 있다(롬 8:29, 골 1:15,18, 히 1:6).

침례식은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시간이나 사랑하는 남녀가 혼례식을 거행하는 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출산의 개념은 중생의 시간으로, 혼례식의 개념은 그리스도와와의 연합의 시간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는 때는 출산의 때요, 사랑하는 남녀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시간도 혼례 때인 것처럼 중생의 거듭남과 죄 씻음은 물론이요 의롭다 하심을 입는 공식적인 시간은 침례 때인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물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의 공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27절에서 “[26]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고 하였다.

동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짐은 말할 것도 없다. 디도서 3장 5-7절과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10절의 말씀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의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단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침례 안에서 재판장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대속의 보혈을 친히 흘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며, 의사이신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씻고 부패한 상처를 싸매는 대 수술을 하심으로써 옛 사람을 물속에 장사시키시고 새 생명으로 부활케 하신다. 물론 이 수술 작업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총이요, 조건은 신자의 믿음이다. 침례는 단지 시간상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침례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인간이 침례식을 거행하지만 하나님을 대행할 뿐이다. 따라서 침례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비잔틴시대의 주화(AD 969-1081)
 전면에 복음서를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후면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IC XC NIKA)라고 새겼다.

갈라디아서 3장 28-29절에서 바울은 “[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29]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고 하였

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민족 신분 성별의 차별 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의 땅을 상속 받을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의 혈통과 하늘 가나안땅을 말한 것이지 육신의 혈통과 지상 가나안땅을 말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스라엘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의 예표로 보고 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민족 신분 성별의 차별 없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는 말씀은 당대의 상황에서 볼 때 매우 급진적인 선언이었다.

유대교 회당의 구성원 자격은 13세 이상의 남성들이었다. 이 남성들이 또한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이다. 여성들은 계명들을 지켜야할 의무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다. 아직까지도 유대교정통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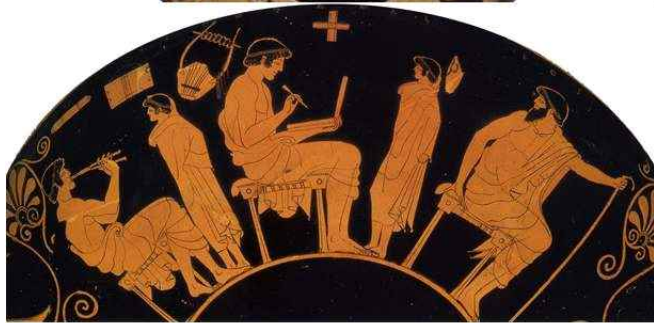
에서는 회당기도회 때 여성들을 별관에 앉힌다. 19세기 이전까지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교육을 받지 못했고, 히브리어를 읽지 못했으며, 히브리어 성서를 낭독할 자격도 없었다. 대개의 여성들은 집안일에만 매달렸다. 그러다가 여성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였다. 전장에 나간 남성들의 공백을 여성들이 채워야 했고, 교사, 스파이, 비서, 안내인, 간호사, 여군 등의 필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런 요구에 맞춰 여성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였고, 남녀평등의 목소리도 점점 높아져갔다.

여성이 정식으로 랍비안수를 받기 시작한 것은 유대교개혁파에서는 1972년, 유대교보수파에서는 1983년부터였다. 하지만 유대교정통파에서는 여전히 꿈도 꾸볼 수 없는 일이다. 반면에 유대교재건파는 유대교개혁파나 보수파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다. 1922년 재건파를 설립한 카프란(Kaplan)은 최초로 12세 여자아이들에게 ‘계명의 딸’ (Bat Mitzvah) 의식을 시행하였다. 지금은 개혁파에서도 여자아이들에게 ‘계명의 딸’ 의식을 시행하지만, 전통적으로 유대교에서는 13세 남자아이들에게만 ‘계명의 아들’ (Bar Mitzvah) 의식을 치러왔다.

이런 정황에서 볼 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바울의 선포가 얼마나 파격적인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또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신”(고전 12:13) 한 몸이라고 선언하였다. 에베소서 3장 8-9절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라고까지 하였다.

하나뿐인 복음17: 율법과 아들(갈 4:1-7)

“유업을 이을 자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학생이 수금(Lyre) 교습과 시 수업을 받고 있는 장면(상)과 플루트(Aulos) 교습과 쓰기 수업을 받는 장면(하)이 대접(Kylix)에 그려져 있다. 우측에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는 사람이 초등교사(paidagogos)이다. 그의 역할은 아이를 교사에게 데려다 주고 데려오며, 아이의 교육 기자재(악기, 석판)를 들여다 주는 것이었다. 또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아이의 행실을 바르게 지도하는 것이었다. 아테네의 두리스(Douris) 작품, 485-480 BC, 베를린 유물박물관.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유업”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지상 가나안땅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하늘 가나안땅을 말한다. “유업을 이을 자”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한다. 그리고 “어렸을 동안”은 율법시대를,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과 규례를 말한다. 또 “아버지가 정

한 때”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때”는 신약성서기독교시대가 출범한 주후 30년 오순절 날을 말한다. 유대인들이 첫 오순절 날 시온산에서 율법을 받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주후 30년 오순절 날 시온산에서 복음을 받았다. 따라서 신약성서기독교시대가 도래한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오히려 율법 위에 있게 되었다. 그것은 마치 아들이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의 종이냐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지만, 장성한 이후에는 유업을 이을 아들로서 또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그들 위에 있게 되는 것과 같다. 바꿔 말하면, 신구약성서는 동일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성서가 신약성서 위에 있지 않고, 신약성서가 구약성서 위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한 예표, 모형, 그림자, 구속사의 영적 방식이 유대인들이 구약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유대민족의 출범, 이동, 흥망성쇠 등의 문자적 방식을 지배한다. 비록 유대인들이 신약성서 저자들의 방식을 강하게 거부하고 적대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약성서 저자들의 방식이 반드시 따라야 할 옳은 방식이다. 복음에 근거한 그리스도교는 율법에 근거한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의 지배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하는 입장에 서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아이를 교사에게 데려다 주고 데려오며, 아이의 교육기자재(악기, 석판)를 들여다 주는 것이었다. 또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고, 아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아이의 행실을 바르게 훈육하고 지도하는 것이었다. 아이가 읽기와 쓰기, 산술과 시문학 또는

악기연주 수업을 받는 동안 지팡이를 짚고 의자에 앉아 수업에 참관하였다. 그의 지팡이는 아이를 보호하거나 훈육하는데 쓰는 도구였다. “후견인”(epitropos)은 ‘보호자’란 뜻으로써 가사와 아이를 책임지는 노예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청지기”는 ‘일군’(oikonomos)이란 뜻으로써 가업과 재산을 관리하는 노예를 지칭하는 말이었다.

바울은 3-5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고 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앞에서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로 묘사한 율법을 다시 “초등학문”에 비유하였고, 하나님이 외아들에게 육신을 입혀 율법 아래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으로 비유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녀들은 노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식구들을 엄하게 지도할 권세와 성적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 로마인들의 아버지의 근본은 제우스였다. 제우스는 부도덕한 호색한이요 독재자였다. 제우스는 인간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쥔 주인이고, 인간은 자기 운명과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았다. 노예에게는 인권도 없고, 그 어떤 결정권도 주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아버지의 근본은 야훼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토브) 아버지, 인자(헤세드)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이시다. 이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빠 하나님’ 개념이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지진 때문에 일어난 불리로 인해 사망한 두 아이(41살 Thrason과 51살 Dexiphanes)와 그 아이들을 돌보았던 초등교사(25세 Hermes)를 기린 석비(120BC, 비두니아 니코메디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소장).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7절에서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그 아들의 영”은 “양자의 영”이란 말로 이해될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하였다. 또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양자가 되는 것과 “몸의 구속”을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따라서 “몸의 구속”은 “유업을 받을 자”와도 동일한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양자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했다. 요한도 일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고...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다. 또 요한은 복음서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고 하였다. 여기서 “유업을 받을 자”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몸의 구속”과 “영생” 곧 하늘 가나안땅의 시민권을 받을 자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직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고 하셨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내 형제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엄청난 선포는 일차적으로 당신의 직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차적으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외아들 예수님을 맡아들로 삼으시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양자로 삼으시는 하나님,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바 아버지”(롬 8:15) 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마 6:9) 하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총의 하나님이시다. 제우스처럼 부도덕하고 독재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거룩하고 신실하며 참으로 인자한 아버지이시다.

하나뿐인 복음18: 초등학문과 중 노릇(갈 4:8-11)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중 노릇 하였다.”



터키 루가오니아의 루스트라 동전
 전면에 아우구스투스의 두상과 그 둘레에 IMPE AVGVSTI(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와 풍요의 뱀을 새겼고, 뒷면에 항제가 항소 한 쌍에 명예와 거래를 지워 성내의 신성한 밭을 일구는 모습을 새겼다.
 상단에 COL IVL FEI GEM(경건한 게르마니쿠스 율리우스의 정착지)이라고 새겼고, 하단에 LVSTRA(루스트라)라고 새겼다.

앞부분에서 바울은 율법을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에 비유하면서 사람들이 율법에 중 노릇했다고 선언했다. 이 선언에 이어서 바울은 4장 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중 노릇 하였다.” 고 말하면서 율법뿐만 아니라 우상

들한테도 중 노릇했다고 선언하였다. 8절에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은 문자적으로 “신들이 아닌 자들”이란 뜻이다.

그리스-로마사회의 문화와 관습은 신화에 기초한 종교와 철학에 깊은 관계가 있었다. 사람들은 3만이 넘는 신들을 받아들였고, 각 가정마다 수호신을 모셨으며, 도시마다 올림포스의 주신들을 위해 웅장한 신전들과 여타의 신들을 위해 사당들을 세웠고,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 (Agnostos Theos)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으며(Pausanias’ Description of Greece in 6 vols, Loeb Classic Library, Vol I, Book I.1.4), 또 “자주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고(Pseudo-Lucian, Philopatris, 9.14), 아고라(광장 또는 시장)에 다양한 신상들을 세웠다. 또 신전들과 사당들에서는 매년 수차례씩 축제가 열렸다. 이들 축제들은 대개가 우상숭배와 음복과 음행이 수반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시험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철학의 숙명론,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긴 에피쿠로스철학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하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권위에 도전하였다.

스토아철학은 자연을 세계의 정신으로 보는 범신론이자, 제우스까지도 운명에 지배된다고 믿었다.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유교의 철정

(七情)에서처럼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에 무감정 무관심할 것과 불교에서처럼 욕심을 버려야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에피쿠로스(주전 342-270년) 철학에서는 쾌락이 삶의 최고의 목표였다. 물론 좋은 의미의 쾌락을 말한다. 고통과 애욕과 공포에서 벗어나 평정지계를 누리는 가장 가치 있는 쾌락을 말한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영혼불멸을 부정하였고, 사후보응에 대해서도 부정하였다. 그러나 신의 존재는 인정하였다. 물질은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생각을 부정하였고, 신의 통치와 섭리도 부정하였다.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터키 루가오니아 루스트라 주화(주후 139-161년)
 전면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얼굴상을 새겼고, 그 둘레에
 CAESAR AVRELIVS(카이사르 아우렐리우스)라 새겼으며,
 뒷면에 로마의 시조, 쌍둥이 로물루스(Romulus)와
 레무스(Remus)가 늑대의 젖을 빨고 있고, 상하에
 COLONIAE LVSTRA(로마 시민의 정착지 루스트라)라고 새겼다.

에피쿠로스 철학은 근대 공리주의의 원조라고 볼 수 있다. 공리주의는 쾌락의 양을 늘리고 고통을 줄이는 것이 선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공리주의는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린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해 보이는데, 그것이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쾌락지상주의, 실용실리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성공, 부, 쾌락이 절대가치가 될 때, 하나님의 뜻, 성경적 가치, 개인의 권리, 인권, 존엄성 등이 무시되는 큰 약점이 있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맥을 잇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유지상주의를 펼쳤다. 개인이 타인의 행복, 즉 공동체를 위한 행복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했다. ‘자기결정권,’ 곧 내 몸의 결정권은 내게 있으니, 내가 자살을 하든, 낙태를 하든, 마약을 하든, 매춘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장기를 떼어 팔든, 대리모를 사고팔든 상관하지 말라는 식이었다. 이런 주장은 낙오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모든 수단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성서는 참 쾌락이란 하늘에만 있고, 부활 후 영생을 누릴 자들에게 주어진다 고 가르친다. 또 고통과 고난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며, 장차 올 영광에 비교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

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고 하였고, 또 디모데전서 4장 7 절에서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고 하였다.

바울은 4장에서만 “종 노릇” 이란 말을 4번 사용하였다. 여기서 “종” 은 노예를 말한다. 로마인들은 노예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자로 정의하였다. 노예들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다. 복종이 강요된 주인의 재산이었다. 그들은 24시간 노동과 폭력과 성적학대에 시달렸다. 그들이 주인에게 받은 얼굴의 낙인과 등의 채찍자국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할 흔적이었다. 노예들에게 그 어떤 도덕심도 수치심도 남겨지지 않았다. 남녀 주인들이 남녀노예들을 애어른 가리지 않고 성 노리개로 마음껏 농락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종 노릇” 이란 그 주인이 우상이든, 돈이든, 명예이든, 권세이든, 무엇이든지간에 그 주인에게 철저히 복종하며 사는 것을 말한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



터키 루가오니아 루스트라 주화(주후 146-176년)
 전면에 파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황후 파우스티나2세의 얼굴을 둘러싸고
 FAVSTIANE AVGVSTAE(파우스티나 아우구스타)라 새겼고,
 뒷면에 파우스티나가 여신 운명(Tyche)을 머리에 올린 상태에서
 오른손에 방향향키와 왼손에 풍요의 뿔을 들고 선 모습을 새겼으며,
 COL IVL LVSTRA(플리우스의 정착지 루스트라)라고 새겼다.

갈라디아서 4장 9-11절에서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닌 바 되었거든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

다.” 고 하였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초등학문” 은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늘 가나안땅의 유업을 얻는 일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신화, 철학, 율법주의, 영지주의, 천사숭배와 점성술이 포함된다. 천사숭배는 어떤 천사들이 인간의 일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지배한다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천사들을 달래고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점성술숭배는 인간의 운명이 별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는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별점을 쳐주는 장사가 널리 유행하였다. 이 같은 것들은 태양빛 찬란한 세계를 전혀 모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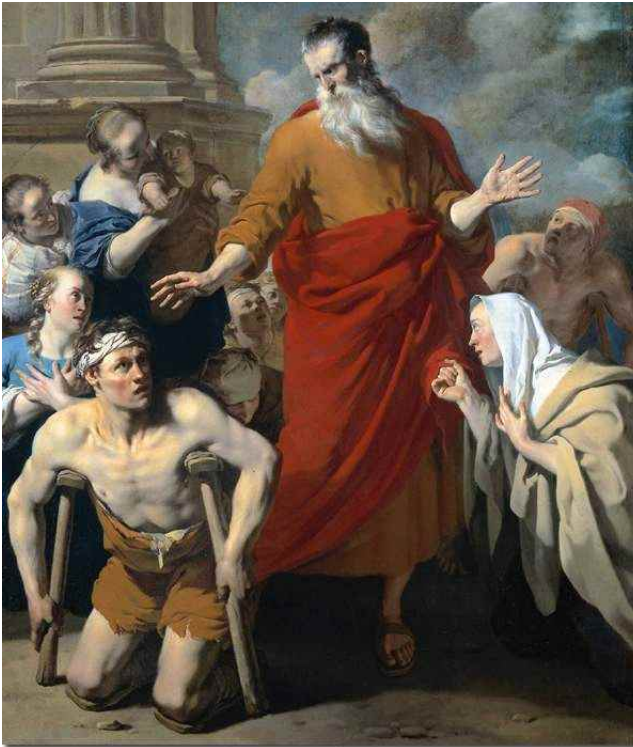
는 동굴 속 세계에 국한된 지식, 겨울을 모르는 여름에 국한된 지식, 기름지고 맛난 음식을 모르는 거친 음식과 풀죽에 국한된 지식, 신세계를 모르는 기존세계에 국한된 학문을 말한다. 이 같은 것들은 예표, 모형, 그림자와 같아서 참된 것, 실체가 드러날 때에는 옛 것이 되고 만다. 그 이유는 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초등교사의 역할이 멈추고, 해가 뜬 낮에는 달이 빛을 잃듯이, 또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풀죽을 먹지 않듯이, 믿음이 온 후에는 율법의 사명이 끝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또 신화, 철학, 율법주의, 영지주의 등은 초등교사(몽학선생)와 같은 것이어서 참 실체로 드러난 복음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었다. 참 실체가 나타난 때에는 그림자나 모형의 사명이 끝나므로 옛것이 되고 만다. 참이요 실체인 새것이 나왔는데도 흠 있고 문제 많은 옛것을 고집하며 새것을 거부한다면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참된 진리를 떠나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 노릇 하려” 하자 그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하여 심히 걱정하였다.

바울은 “종 노릇”의 반대 개념인 “왕 노릇”을 총 6번 정도 사용하였는데, 대개는 그리스도인들의 최후승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로마서 5장 17절에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고 하였고, 21절에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고 하였다.

하나뿐인 복음9: 복음과 자유(I)(갈 4:12-20)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루스트라에서 앉은뱅이를 고치는 바울(뒤자르탱, 1663, 암스테르담) Karel Dujardin, 1791x139cm, Rijksmuseum, Amsterd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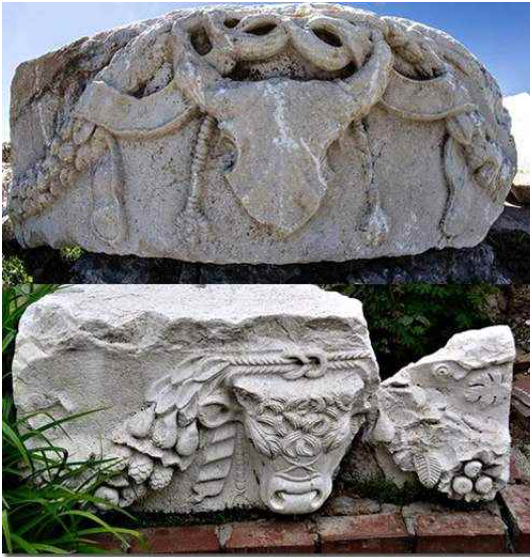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 상반부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고 하였다. 여기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기”위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한다.”(갈 2:14)는 뜻이다. 이것은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였다. 바울의 입장은 분명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란 것이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입장에 강하게 반발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예루살렘교회의 수장 야고보를 따르는 에비온파였다. 그들은 바울이 이런 주장을 강권할만한 권위가 없는 자칭 사도라며 깎아내렸고, 바울과 바나바가 세운 안디옥교회들과 갈라디아교회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세운 고린도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힘썼다. 에비온파의 실력행사는 파괴력이 컸다. 출범한지 몇 년밖에 안된 교회들은 세력이 약했던 반면에 각 지역에 뿌리를 박고 산 역사가 길고 수적으로도 우세했던 유대교인들의 세력은 강했고, 유력한 헬라인들이 유대교에 동조했을 뿐 아니라, 회당들에 출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제거하려고 하였다. 이런 처지에 놓였던 바울은 유대인들과 직접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하여 믿음위에 서

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우렸고, 결과도 좋았다. 시련으로 연단을 받은 교회들은 더욱 단단해졌고, 그로 인해서 교회들에 필요한 서신들이 쓰였으며, 이들 서신들이 수집되어 신약성서의 일부가 되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한 때는 유대인으로서 우월한 율법 주의자로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긴”(빌 3:8-9)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하물며 율법과 전혀 관계없던 헬라인으로서 유대인조차 버린 율법을 좇으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판단하라는 것이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비시디아 안디옥의 황소 부조들(Yalvac Museum)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에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

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하였다.

이 말씀의 배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앓은뱅이를 고쳤던 두 가지 사건들에 있다. 흔히 바울의 고질병을 안질과 간질로 보는 경향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강렬한 빛의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여러 날 실명한바가 있다. 고침은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바울은 “몸에 예수의 흔적”(갈 6:17)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5절에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을 것이다.”고 쓴 것으로 봐서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약함”에 안질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바울은 자주 대필을 통해서 글을 썼는데,

갈라디아서도 누군가를 통해서 기록한 글이다. 대필의 이유가 바울의 눈병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또 바울은 “사탄의 사자” 혹은 “육체의 가시”라는 신체적 결함을 갖고 있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는데, “나를 쳐서”를 간질환자들이 갑자기 땅바닥에 넘어지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역사적으로 한니발, 율리우스 시저,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영웅들이 간질 환자였다. 그래서 생긴 말이 “신(神)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간질병을 준다.”였다. 바울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화환을 목에 걸친 항소들이 부조된 원주기둥(참고: 사도행전 14:13)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언급한바가 있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특히 바울은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유대인들로부터 투석형을 받고 죽었다가 가까스로 깨어난 사건이 있었다(행 14:19). 그로 인해서 바울은 “몸에 예수의 흔적”(갈 6:17)과 간질을 얻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바울이 언급한 “육체의 약함”에 간질이 포함되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잘 아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였고, 버리지도(내치지도, 꾸짖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랬던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16-20절에서 “그러한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

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그리스도라는 태아가 사람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잉태하는 산모의)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참된 말을 하므로 원수가 되었느냐?”는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1:7-8) 유대인들을 추종함으로써 그들과 바울 사이가 깨지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 같은 거짓 교사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점은 이간질을 일삼고 사익을 추구한다는 데 있다. 바울은 열과 성을 다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하지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고 충고하였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그리스도라는 태아가 사람의 모습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잉태하는 산모의) 수고를 한다.”는 자녀를 반듯하게 기르기 위해 애간장을 태우는 어머니의 심정을 갖고자 한다는 뜻이다. 바울은 이미 복음 안에서 그들을 낳기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겪었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도 바울이 당한 고통을 익히 알고 있었다.

하나뿐인 복음20: 복음과 자유(2)(갈 4:21-31)

1:1-4:20까지의 요약



터키 공화국 여성들의 의상 우표

바울은 1장부터 4장 20절까지에서 참된 것이 유한하고 잠정적이며 일시적인 땅의 것에서 나오지 않고 영원하고 항구적이고 완전한 하늘의 것에서 나온다고 강조하였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피조물인 사람에게서

나온 것과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바울은 2장 16절에서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다.”고 하였다. 유대교인들은 “율법의 행위로써” 그들이 바라는 바 유한한 지상 가나안땅을 얻고자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하늘 가나안땅을 얻고자 한다. “율법의 행위로써”는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하늘 가나안땅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써”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복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하고 참된 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바울은 3장 3절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육체와 성령의 차이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1장 1절에서 강조한 피조물과 창조주의 차이를 육체와 성령의 차이로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창세기 15장 6절을 근거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와 가나안땅의 시조로 삼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리스도의 나라와 하늘 가나안땅의 시조로 삼았다.

바울은 3장 23절부터 4장 11절까지에서 사람들이 율법과 초등학문과 우상들한테 중 노릇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늘 가나안땅의 “유업을 이을 자” 곧 아들로, 율법을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 또는 초등학문에 비유하였다. 아들은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만 종처럼 율법아래에 놓이고 이후로는 유업을 이을 아들이기 때문에 주인 노릇한다는 것이다.

지상 예루살렘 언약과 하늘 예루살렘 언약



터키 공화국 여성들의 의상 우표

그러므로 신약성서기독교시대가 도래한 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구약시대의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오히려 율법 위에 있게 되었다. 신약성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약성서가 신약성서 위에 있지 않고, 신약성서가 구약성서 위에 있다. 신약성서는 구약성서의 지배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하는 위치에 서있다. 따라서 신약성서 저자들이 구약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한 예표,

모형, 그림자, 구속사의 영적 방식이 유대교인들이 구약성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문자적 방식을 지배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4장 20절까지에서 율법을 초등교사,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 육체에 비유한데 이어서 4장 21-31절에서 다시 율법을 종의 신분, 종 하갈의 아들, 육체의 아들, 이스마엘과 지상 예루살렘 시내산 언약에 비유하였다. 반면에 믿음을 본처의 신분, 본처 사라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과 하늘 예루살렘 시온산의 언약에 비유하였다.

4장 21절에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을 억지로 율법에 매이게 하는 에비온과 유대인들과 그들의 유혹에 빠진 자들을 말한다. 또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는 “율법을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뜻이다. 우리말 성경들은 이 부분을 “율법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느냐?”로 번역하였다. 유대교인들은 매주 세 번(월목토) 아침기도회 때마다 회당에서 토라를 읽어주기 때문에 일 년에 한번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을 듣게 된다. 따라서 유대교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4장 22절에서 “기록된바”는 창세기 16장과 21장을 말하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는 여종 하갈과 그녀가 낳은 이스마엘과 본처 사라와 그녀가 낳은 이삭을 말한다.

4장 23절에서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는 아브라함이 신체적으로 임신이 가능한 젊은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뜻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신체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노령의 사라에게서 초자연적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뜻이다. 이 이삭은 역시 초자연적으로 태어난 예수님의 예표였다.

하갈과 사라



터키 공화국 여성들의 의상 우표

4장 24-26절에서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써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은 두 여인을 두 언약에 비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종 하갈은 시내

산 언약의 상징으로써 자신과 더불어 종 노릇해야할 운명의 자녀들을 낳을

뿐이다. 여기서 바울은 시내산을 지상 예루살렘과 동일시하였다. 반면에 본처인 사라는 하늘 예루살렘 시온산 언약의 상징으로써 자신과 더불어 하늘 가나안땅의 유업을 이을 자녀들을 낳는다. 바울의 이 비유는 오늘날 유대인들이 부계의 유대혈통과는 상관없이 모계의 유대혈통만으로 유대인자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다.

27절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의 인용으로써 바울은 이 구절을 이사야가 의도한 역사적 의미와는 상관없이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모르는 자,” “홀로 사는 자”를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에 적용하였다. 28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또 29절에서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하였다. “육체를 따라 난 자”인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이삭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은 육체를 따라 난 자들인 유대인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의 예표라고 말한다. 30-31절에서 바울은, 사라가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버렸듯이, 율법의 속박 아래 두려고 미혹하는 율법주의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율법으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놀드 토인비 교수의 <역사의 연구> ‘제4편 문명의 쇠퇴’에 따르면, 유대인들이 천부적 재능으로 유일신사상이란 과도적 단계의 정신적 보물과 탁월성에 도달하였지만, 그것을 절대시하고 우상화함으로써 신이 나사렛 예수의 강림을 통하여 자기들에게 제공한 한층 더 큰 보물을 거절하였고, 그 응보로써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2천년 가까운 세월을, 한때 그들이 괴롭혔던 그리스도교가 국교인 나라들에서, 방랑자처럼 떠돌았다.

하나뿐인 복음2: 복음과 자유(3)(갈 5:1-12)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옥타비아누스 시대의 은화(28 BC)

전면에 열거관을 쓴 악티움 해전의 수호신 아폴로의 두상을, 뒷면에 신관복 차림의 옥타비아누스가 황소 한 쌍에 멍에와 겨리를 지워 성내의 신성한 밭을 일구는 모습으로, 하단에 IMP CAESAR(임페라토르 카이사르)라고 새겼다. 옥타비아누스의 정치선전수단을 엿볼 수 있는 데나리온이다.

갈라디아의 행정구역이었던 비시디아와 디모테와 가이오의 고향 루가오니아에서 발행된 고대 주화들을 보면 황소 한 쌍에 멍에와 겨리를 지워 성내의 신성한 밭을 일구는 로마황제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주화들에 새겨진 황제의 두상과 문구와 부조는 정치선전이나 홍보를 위한 것들이었다.

남 갈라디아 주에서 발행된 주화들에서 신관(사제)복 차림으로 황소 한 쌍에 멍에와 겨리를 지워 고삐를 잡고 성내의 신성한 밭을 일구는 황제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정치선전이나 홍보와 관련되어 있다. 특히 남 갈라디아 주에는 화환을 목에 걸거나 화환을 등에 걸친 황소 부조들이 유난히 많다. 화환이 걸린 황소들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는 좋아보였을지 몰라도 그 황소들은 신들의 제단에 바쳐질 제물들이었다. 황소들이 자신들에게 화환을 걸어주고 예우해준 사람들을 얼마나 고마워했을지는 몰라도 바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죽이고 각을 떠서 불꽃이 날름거리는 제단위에 올려 불살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리가 만무하다. 만일 화려한 화환에 현혹되어 황소들에게 닥칠 운명을 읽지 못한다면, 만약에 살아 있는 신으로 추앙받던 황제들이 겨리의 고삐를 잡고 밭을 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열광한다면, 그 감동과 열광은 황제를 위해서 밭을 가는 황소들이 바로 자신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민중은 항상 황제와 원로원이 부과한 엄중한 법과 과중한 세금과 노동의 멍에를 맨 자들이었다. 민중은 황제들의 노예나 다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고 하셨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에비온파의 미혹에 넘어간 것은 화환을 걸친 황소나 신관(사제)복 차림으로 받을 일구는 황제들의 모습에 현혹된 것과 같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도덕적 삶과 할례와 같은 걸모습에 속아 넘어가 스스로 율법이라는 멍에를 댔지만, 그 멍에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고 하였던 것이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Augustus, 27 BC - AD 14) 시대의 루가오니아의 성 루스트라 동전. 정면에 월계관을 쓴 아우구스투스의 두상을 새겼고, 뒷면에 IMPE AVGVSTI(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홀과 괴비를 손에 쥔 황제가 황소 한 쌍에 멍에와 거리를 지워 성내의 신성한 밭을 일구는 모습을 새겼다. 상단에 COL IVL FEL CEM(경건한 게르마니쿠스 리비우스의 정착지)를 하단에 LVSTRA(루스트라)를 새겼다.

역사가들은 로마제국이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때를 코모두스가 황제에 등극한 때로 본다. <글래디에이터>와 <로마제국의 몰락>은 코모두스의 악정을 재구성한 영화들이다. 코모두스가 사망한 이후 로마는 군인황제시대를 맞게 된다. 영화 <로마제국의 몰락>을 보면, 황제 코모두스가 자

신의 정적 리비우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리비우스 휘하의 모든 군인들에게 금화를 나눠주는 장면이 나온다. 금화의 엄청난 위력 앞에서 리비우스 휘하의 군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지휘관들마저도 무너져버린다. 이런 현실을 인식한 이문열은 <사람의 아들>이란 소설에서 “인간은 지금 당장 효과가 있는 것을 원한다. 현실에 쓸모 있는 것밖에는 바라지 않는다. 그것이 인간이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현실에 필요한 표적을 구하지만, 정작 그들이 겪는 가장 큰 불행은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을 베풀자가 없는 것이다.”라고 했다. 국민을 위한다며 떠벌리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그런 사람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현실이 불행이란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과 일시적인 것에 눈이 멀어지면, 내면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화환에 현혹되어 희생될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황소와 같게 되고, 쟁기질하는 황제의 정치적 퍼포먼스에 현혹되어 멍에를 맨

황소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반면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겨울나무에서 봄의 DNA를 읽어내는 사람이고, 내면적인 것을 읽어내고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능력을 가졌던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인류를 율법의 멍에와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한다. 3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이다.”는 유대교의 ‘계명의 아들’에 연결된다. 유대교에서는 할례 받은 13세 이상의 남성을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자”란 뜻으로 ‘계명의 아들’(Bar Mitzvah)이라고 부른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에서 “율법 안에서”는 유대교인들이 지상 가나안땅을 얻으려 하는 것을 말하고,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써 하늘 가나안땅을 얻는 것을 말한다. 그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인으로서는 하늘 가나안땅을 얻을 수 없고,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아무 유익이 없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2,4절)가 되는 이유이다.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카라칼라 황제(caracalla, AD 198-217) 시대의 비시디아 안디옥 동전 전면에 월계관을 쓴 카라칼라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그 뒷면에 IMP CAES M AVR ANTONINVS AVG(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안토니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대시관 복장 차림을 한 카라칼라 안토니누스가 황소 한 쌍에 멍에와 겨리를 지워 선녀의 신성한 밭을 갈는 모습을 새겼다. 뒷면에 CAE ANTIOCH COL(카이사르의 정착지 안디옥)을 상단에 두 개의 군단기를 하단에 셉티무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통치시대이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만 쓰인 SR(Senatus Romanus의 약자로 추정 됨)을 새겼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히브리인들이 야훼의 말씀에 따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지상 가나안땅을 소망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으로 하늘 가나안땅을 약속받고, 성령님의 보증과 인침과 인도를 받으며 소망하는 그 나라 곧 의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

력이 없으며,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가나안땅을 얻는 데는 할례나 무할례에 무슨 가치가 있지 않고, 독생

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뿐이라는 뜻이다.

7-10절에서 바울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야훼와 모세에게 대항하며 가나안땅을 향한 순례를 지연시키고 공동체를 부패시킨 누룩 같은 무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듯이, 교회를 부패시키는 누룩 같은 자들은 누구이든지간에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들의 권면이 거짓되고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이유는 하나님은 부름을 받은 이들이 가나안땅을 향해서 달음질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11-12절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할례와 율법을 함께 전해왔다면, 십자가의 복음이 촉발시킨 유대인들의 분노와 탄압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바울은 할례와 율법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표피만 잘라가지고 양이 차겠느냐, 통째로 베어 버려야하는 것 아니냐며 힐난하였다. 이쯤 되면 바울이 율법폐기나 할례폐기를 주장한 사람처럼 비취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이스라엘나라와 영토인 지상 가나안땅의 운명이 걸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요, 할례는 그들이 선민의 흔적을 몸에 새긴 것이다. 그것들은 유대인들을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그 같은 사실을 바울이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 가나안땅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에게든 헬라인에게든, 그 같은 것들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들을 지키라고 강요한 것은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본래 유대인들은 절반개종자들에게 할례나 율법준수를 강요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개종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유대인들은 점차 그리스도교가 자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종교라는 것을 깨달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 남을지, 그리스도교에 남을지를 선택해야했다.

하나뿐인 복음22: 복음과 자유(4)(갈 5:13-15)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비시디아 안디옥(아틀라츠 박물관)의 십자가 문양

갈라디아서 5장 13-15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

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고 권하였다. 이 권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3-24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는 말씀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들 말씀은 영지주의자들처럼 자기결정권을 이상시하는 자유지상주의자나 율법과 규례를 절대시하여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율법주의자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자기 권리와 권한을 제한하여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권면이다.

율법과 규례를 절대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이 정한(kosher) 것과 부정한(treyf) 것으로 양분되므로 모세가 전한 율법과 규례에 따라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한 것만 구별해서 먹고 정한 것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율법과 규례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 특히 이방인은 부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과 교제하면 부정하게 되고, 규례에 따라 정결의식을 치러야하므로 그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게 된다.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유대교인들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 이방인이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함께 섞거나 함께 씻거나 함께 조리하거나 함께 보관하거나 함께 먹지 말라는 유대교의 음식법(Kashrut)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안식일법과 손 씻기법 같은 의식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인으로 취급한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거룩하지도 악하지도 않고 중립적이라고 믿는다. 또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사용하는 동기, 목적, 방법에 따라 그것들은 선하게도 되고, 악하게도 되며, 그 책임은 사용자인 인간에게 있다고 믿는다. 인간에게는 자유가 허용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쓰기도 하고 제한하기도 한다. 사랑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절대 자유와 절대 권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으로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며,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사랑으로 서로 중 노릇하라.”



비시디아 안디옥(이탈리아 박물관)의 동 십자가
 비잔틴시대에 패용됐던 것으로서 성유물함에서
 발굴된 것이다. 상단에 성모 마리아(M)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HI THY)로 축경되는 글자를 새겼고,
 중앙에 성모 마리아와 어린 예수님을 새겼으며,
 좌측에 ?, 우측에 베드로를 새겼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저급하고 악하며, 그것을 지은 창조자는 저급한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또 눈에 보이는 세계와 육체는 감옥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도 된다고 생각했다. 또 어떻게 신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될 수 있겠느냐며 성육신을 부정하였다.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며 그 무엇도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불행한 자들을 멸시하고 착취하고 지배하며, 육체와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빛의 세계로 들어갈 지혜(열쇠, 암호)를 비전(秘典)을 통해서 얻고자했다.

같은 맥락에서 19세기의 질적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그의 <자유론>에서 사람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며 자유지상주의를 펼쳤다. 정부는 개인의 자유를 간섭하면서 개인을 보호하려 들거나 다수가 믿는 최선의 삶을 개인에게 강요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이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유일한 행동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같은 주장은 공동체의식이란 미덕, 즉 국가나 이웃에 대한 의무에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야기한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 개인이 타인의 행복, 즉 공동체를 위한 행복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는 오직 내게만 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는 식이다. ‘자기결정권,’ 곧 내 몸의 결정권은 내게 있으니, 내가 자살을 하든, 낙태를 하든, 마약을 하든, 매춘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장기를 떼어 팔든, 대리모를 사고팔든 상관하지 말라는 식이다. 이런 주장은 낙오자를 보호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모든 수단을 거부할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또 이런 주장은 국가나 교회나 회사나 이웃을 위한 헌신이나 희생을 거부한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기” 보다는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자들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에 급속도로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애국심이나 애교심 또는 애사심 같은 것들이 사라진지 이미 십 수 년이고, 오직 자기 또는 자기집단의 이익추구를 위한 투쟁만이 난무한다. 수많은 이익추구집단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의와 인권을 부르짖고, 국민을 입에 올리지만, 그들에게서 애국심이나 애교심 또는 애사심을 찾기란 해변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독재시대에도 넘쳤던 애국심, 애교심, 애사심과 같은 것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자유민주화운동 이후에는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는 경고가 두렵게 느껴진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비시디아 안디옥(아들바스 박물관)의 십자가 문양

바울은 두 종류의 종 노릇을 언급하였는데, 죄의 종 노릇과 사랑의 종 노릇이 그것들이다. 죄의 종 노릇은 피차 멸망하는 길이고, 사랑의 종 노릇은 피차 상생하는 길이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어 자유 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원함으로 “의의 종” (18절), “순종의 종” (16절), “하나님의 종” (22절)이 된다고 하였다. 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

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16절)고도 하였다. 죄는 율법의 종 노릇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죄의 종 노릇이나 율법의 종 노릇은 같다. 또 의의 종 노릇과 하나님의 종 노릇은 감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랑의 종 노

룩과 같다. 그리고 죄에게 종 노릇하는 것은 피차 멸망에 이르는 길이요,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4-15절 “은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고 권하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다. 또 그 일이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방법은 사랑으로 피차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17절에서 사랑의 법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리스도인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신령한 사람들은 서로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피차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된다. 반면에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피차 멸망하게 된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을 한 모범으로 제시하였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꼭 붙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여기셨다. 예수님은 권리와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처럼 섬기는 자가 되셨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인류가 피차 멸망할 수렁에서 벗어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며 세상을 살릴 방법을 깨우쳐주셨다.

하나뿐인 복음23: 복음과 자유(5)(갈 5:16-26)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세례세반에 묘사된 성부 하나님 왕관과 세상을 향하는 손으로 묘사되었다. (성도마사도가톨릭교회, Bloomfield, New Jersey)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랑의 법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그리스도인을 신령한 사람(the spiritual), 쾌락과 자유지상주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을 육신에 속한 사람(the worldly)으로 규정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비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영을 좇는 사람이었다.

갈라디아서 5장 16-1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령한 사람과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

하였다. 바울은 18절에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뜻이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17절) 때문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비밀 곧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의 마음 곧 하나님의 영을 좇는 사람, 믿음지식과 성화가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사람, 자유인이지만 사랑의 법으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사람이다. 반면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영에 다리를 걸친 사람, 믿음지식과 성화가 멈춘 사람,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바울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또 바울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율법주의자와 방탕주의자로 구분하였다. 율법주의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에비온파,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교의 복음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 금욕주의자 등을 말한다. 반면에 방탕주의 그리스도인은 헬라인 영지주의자, 헬라철학과 그리스도교 복음에 양다리를 걸친 사람. 쾌락주의자와 자유지상주의자를 말한다.

바울은 성령의 법을 자율로 율법을 타율로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 노릇 해야 한다”(13절). 자유의 본래적 목적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자유자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율적이다. 반면에 율법은 지키도록 강제하는 규범이고, 조건적이며, 이를 지키려하는 자는 마지못해서 하거나 자기 의를 이루려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타율적이다. 그러나 율법에 의한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고 그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세르케반에 묘사된 성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여린양과 십자가가 근거로 묘사되었다. (성도마사도가톨릭교회, Bloomfield, New Jersey)

자유를 얻기 위한 율법주의자의 선행은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건적이고 계산적이며 동기가 불순하다는 점에서 타율적이다. 그러나 이미 자유를 얻은 복음주의자의 선행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는 말씀에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가 순수하다. 동기가 순수한 것이 자율적이고, 동기가 불순한 것이 타율적이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래적 신앙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 삼거나 하나님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 삼거나 이웃을 섬김

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죄의 성질)의 욕심에 따라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으로 회복한 영적 본래성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래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결국 자유를 잃고 공허한 성공주의의 속박에 묶여 살게 되는 것이다.

언약법의 특징은 “너희가 ...하면, 내가 ~하겠다.”는 데 있다(출 15:26, 19:5; 신 6:25; 왕상 3:14, 9:4, 11:38; 대하 7:17; 슥 3:7).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공리주의나 자유지상주의와 같이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지 못한 결과중심주의 또는 성공주의를 철저히 반대하였다. 칸트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옛 언약법은 가언적이고 조건적이며 계산적이다. 칸트는 율법을 조건적이고 계산적으로 지키는 행위를 결과(공리)라는 타율에 의한 것이고 동기가 불순하다고 보았다. 결과를 따지는 행위, 계산적인 행위는 동기에 문제가 있다. 동기가 순수하지 못한 행위는 결과에 지

배를 받거나 조종당하기 때문에 타율적이다.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구약성서의 예언자들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항상 회개를 촉구했던 것도 떠돌이와 노예의 사슬을 끊고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항상 눈에 보이는 결과와 당장 현실문제에 해답이 되는 것들을 좇다가 망했거나 망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바울은 새 언약법을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성령의 법으로 강조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이 법대로 살고자 하는 이유는 결과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성취된 결과로 인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온 감사 때문이라고 했다. 따라서 칸트의 말을 빌려 표현하자면, 새 언약법은 정언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이다.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위는 성령에 의한 열매들을 맺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므로 구원의 본래 목적인 성령에 의한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세르케반에 묘사된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 임하는 비둘기로 묘사되었다. (성도과 사도가톨릭교회, Bloomfield, New Jersey)

바울은 로마서 7장 5-6절과 21-25절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타율)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열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자율)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조문의 묵은 것(타율)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자율)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타율)이 내 마음의 법(자율)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타율)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자율)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타율)을 섬기노라.”고 하였다. 여기서 “영의 새로운 것,” “하나님의 법,” “내 마음의 법”은, 칸트의 의견을 빌리자면, 순수 실천이성에 지배를 받아 본래적 목적을 따르는 자율이고,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여 본래적 목적인 성령에 의한 열매들을 맺으려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가 순수하지만, “죄의 정욕,” “율법조문의 묵은 것,” “한 다른 법,” “죄의 법”은, 칸트의 의견을 빌

리자면, 본능이 갖는 죄의 성질에 지배되는 타율이고, 아직 받지 못한 것을 받기 위해서 지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동기가 불순하다.

동기가 순수한 것이 자율이고, 동기가 불순한 것이 타율이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본래적 신앙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 삼거나 하나님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 삼거나 이웃을 섬김의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질에 따라 타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회복한 영적 본래성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본래성마저 상실하게 된다. 결국 자유를 잃고 공허한 성공주의의 속박에 묶여 살게 되는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그 같은 일을 육체의 일로 규정하고, 그 같은 것들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했으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하였다.

반면에 바울은 22-26절에서 결과에 상관없이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위는 성령에 의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그 같은 것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꼽았다. 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성령으로 행해야 하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였다.

하나뿐인 복음24: 예수의 흔적(1)(갈 6:1-5)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루가오니아의 성 이고니온의 동전 (Diassarion)
 전면에 월계관을 쓴 베스파시아누스(AD 69-79) 황제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IMP CAESAR VESPASIAN AVG(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COL IVL AVG
 (콜리우스 아우구스투스의 정착지)를 그 옆에 풍요의 벌로 하단에 괴베를 손에
 쥔 황제가 황소 한 쌍에 멍에와 거리를 지워 밭을 일구는 모습을 새겼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강조한 내용을 6장 10절까지로 이어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자유와 권리를 바르게 쓰고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바울은 6장 1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권하였다. 바울은 이미 두 종류의 종 노릇을 언급하였는데, 죄의 종 노릇과 사랑의 종 노릇이 그것들이다. 죄의 종 노릇은 피차 멸망하는 길이지만, 사랑의 종 노릇은 피차 상생하는 길이다. 따라서 비난이나 비판의 자세가 아니라, 온화하고 부드러운 낮은 자세로 범죄한 형제가 바로 서가도록 도울 뿐 아니라, 자신도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도록 조심스런 마음을 가지라는 부탁이다.

계속해서 바울은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권면한다. 여기서 “짐”은 헬리어 ‘바로스’(baros)를 번역한 것으로써 혼자 감당하기에는 지나치게 버거운 짐,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가혹한 일 등을 말한다. 따라서 2절의 “짐을 서로 지라”는 말은 “사람이 만일” 범죄의 결과로 과중한 책임에 허덕일 때, 또는 실패와 좌절로 인해 시험에 들거나 괴로워 몸부림칠 때, 범죄의 유혹이나 위협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뜻이다.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천하라는 뜻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

랑하라.”고 말씀하신바가 있다. 또 마태복음 22장 40절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들” 곧 구약성서의 가르침이 사랑에 있다고 말씀하신바가 있다.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미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뤄졌다.”고 하였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친히 모본을 보이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성취하라는 뜻이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비시디아 안디옥의 동전(AS)

전면에 율게관을 쓴 티투스(AD 69-79) 카이사르의 갑옷 차림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T CAES] IMP PONT(티투스 카이사르 임페라토르 폰티팩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초승달과 ANT COL(안디옥 정착지)라고 새겼고, 손에 균형을 준 신관(사제) 티투스가 향소한 상에 명예와 격리를 지워 신성한 밥을 일구는 모습을 새겼다.

갈라디아서 6장 3-4절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할 것이다.”는 사랑으로 종 노릇하지 않는 자가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자기기만이라는 뜻이다.

‘자랑질’은 교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헬라인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신들로부터 응보(네메시스)를 받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고 저주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자랑거리’는 사랑으로 종 노릇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이다. 그런데 하라는 종 노릇은 하지 않으면서 잘난 자기를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오만을 떠는 행위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주어진 ‘자랑거리’는 섬김으로 남에게 기부되지 않으면, 남에게는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또 ‘자랑질’은 약자를 등치고 지배하려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바울시대에 유대교에 큰 관심을 보였던 큰 무리의 헬라인들과 다수의 귀부인들이 그리스도교에 재차 개종했던 이유는 그리스도교가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는 헌신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일체감이 강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가입하면 의식주 해결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믿음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형제자매로 환대받았다. 게다가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으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며” 깨끗한 삶을 살았다.

반면에 3만이 넘는 신들을 믿었던 헬라인들은 참 신(神)에 대한 갈망이 컸다. 헬라의 신들은 능력을 행하고 죽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상당수가 인간들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었다. 이로 인해서 헬라인들의 상당수가 이 헛된 신들과 공허한 철학에 환멸을 느꼈고, 유대교의 윤리도덕적인 유일신에 큰 반응을 보였다. 큰 무리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조차 ‘하나님 경외자’의 신분으로 유대교회당에서 하루 세 번씩 갖는 기도회에 참석하였다. 게다가 바울이 전한 기독교 복음은 디오니소스 제전이 제공한 본능적 원시적 성적 에너지의 발산과 쾌락이 채워주지 못했던, 또 카비루스신앙과 황제숭배신앙이 채워주지 못했던, 심지어 유대교조차 채워주지 못했던 헬라인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었다. 이런 식으로 바울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였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비티디아 안디옥의 동전

전면에 월계관을 쓴 티투스(AD 69-79) 카이사르의 갑옷 차림 두상을 새겼고, 뒷면에 T CES IMP PONT(티투스 카이사르 임페라토르 폰티팩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초승달과 ANT COL(안디옥 정착지)라고 새겼고, 손에 균기를 줌 신관(사제) 티투스가 항소 한 상에 명예와 권리를 지워 신성한 밤을 일구는 모습을 새겼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에서 “짐”은 헬라어 ‘포르티온’(phortion)을 번역한 말로써 배에 싣는 한 사람의 ‘짐 꾸러미’를 뜻하였다. 따라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맡기신 직무나 책무를 감당하라는 말이다.

또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에 잇대어져 있다. 이 말씀은 공동체의 구성원은 공동체를 위해 서로 짐을 지되, 각자는 자기 일로 남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이다. 바울은 친히 자기의 손으로 일하는 모범을 보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고 하였다.

바울은 이미 앞에서 종의 멍에는 메지 말되 사랑의 멍에는 메라고 권면한 바가 있다. 율법의 멍에는 메지 말되, 자기 십자가는 지라고 권면한 바가 있다. 계속해서 바울은 6장 2-5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고 권면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공동체의 연대책임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15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중 노릇 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권면하였다. 이것은 자기결정권을 이상시하는 자유지상주의자나 율법과 규례를 절대시하여 이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율법주의자로 살지 말고, 사랑으로 자기 권리와 권한을 제한하여 서로 섬기는 자들이 되라는 권면이다. 그리고 6장 2-5절에서는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위해 서로 짐을 지되, 자신의 짐을 공동체에 떠넘기지 말라고 하였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책임지되, 만일 그럴 형편이 못 되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십자가를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눠지라고 권면하였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친히 모본을 보이시고 율법을 성취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중 노릇하는 방식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성취하라고 권하였다.

하나뿐인 복음25: 예수의 흔적(2)(갈 6:6-10)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시리아 안디옥의 중심거리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감독들 혹은 장로들을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언자들과 교

사들이란 설교자들과 성경말씀을 풀어 가르치는 오늘날의 목사들을 말한다. 당대에는 오늘날의 목사의 직무를 수행한 자들이 바로 감독들 혹은 장로들이었다. 당대에는 또 감독과 장로가 호칭만 다른 동일한 한 직책이었다. 바울은 이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였다.

바울보다 한 세대쯤 늦은 주후 100년경에 시리아에서 기록된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 13장 ‘불박이 예언자들과 교사들 공양’ 편에 다음과 같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예언자들과 교사들은 본래 떠돌이 순회사역자들이었으나 참 예언자들과 참 교사들로 인정된 자들을 말하며, 이들이 불박이로 지역교회에 머물기를 원하고 또 교회도 원할 때는 교회가 그들에게 먹고 입고 쓸 것을 제공하라는 가르침이다.

“여러분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참 예언자는 누구나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같은 모양으로 참 교사도 (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꾼이 먹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포도 짜는 화과 탈곡장과 소들과 양들의 소출들 중 만물을 모두 거두어 그 만물을 예언자들에게 드리시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의 대제관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예언자가 없다면 가난한 이들에게 주시오.] 당신이 밀가루 반죽을 할 때에도 만물을 거두어 계명대로 주시오. 같은 모양으로 당신이 포도주나 올리브기름 그릇을 개봉하여도 만물을 거두어 예언자들에게 주시오. 돈과 의복과 모든 재산 중에서 당신 생각대로 만물을 거두어 계명에 따라 주시오.”

15장에서는 감독들과 봉사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여러분은 자신들을 위해 감독들과 봉사자들을 선출하되 주님께 합당하고 온순하고 돈을 좋아하지 않고 진실하며 인정된 사람들을 선출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예언자들과 교사들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무시하지 마시오. 그들은 예언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여러분의 존경을 받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비디시아 안디옥의 고대 수도 유적

바울은 6절에 이어서 7-8절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

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하였다. 이들 구절은 하나님의 특별은혜를 말한 것이 아니고 일반은혜 곧 자연법칙을 말한 것이다.

자연에 법칙이 있다는 것은 질서가 있다는 뜻이다. 자연법칙은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 자연법칙이 진화된다거나 바뀐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자연법칙이 진화하거나 바뀐다면 믿고 신뢰할 법칙이 될 수 없다. 이 바뀌지 않는 우주질서가 예측과 과학을 가능케 한다.

자연법칙 가운데 한 가지가 인과법칙이다. 인과법칙이란 원인 없이는 결과도 없다는 존재의 필연법칙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다. 집이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집을 세웠기 때문이다. 시계가 있는 것은 누군가가 그 시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해와 달과 별이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결과에는 우연은 없다. 저절로 집이 세워지거나 우연히 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과 같다. 우리는 그 최초의 원인자를 일컬어 신(神) 또는 창조주라 부른다. 이 인과법칙을 통해서 창조주 신(神)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일반계시 혹은 자연계시라 부른다. 또 신(神)의 창조와 자연법칙의 혜택을 누구나 선인이든 악인이든 고루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은혜라 부른다. 우리 인간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하나님의 일반은혜 속에서 보낼 뿐 아니라, 자연법칙 혹은 인과법칙 속에서 산다.

사람들은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자

연법칙이요, 인과법칙이다. 콩 심었는데 팔 나는 일 없고, 팔 심었는데 콩 나는 일 없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찌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 하였다.

물질이 있으면 반물질이 있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이것은 물리 법칙인 동시에 관계법칙이다. 열심히 산 사람에게 선한 결과가 주어지고, 좋은 일을 행한 사람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자연법칙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반은혜를 남보다 더 크게 입게 된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적인 법칙에 반대로 행동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고 하였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자.”



비시디아 안디옥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터

바울은 6장 9-10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 지니라.” 고 하였다.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는 말씀으로 반복되었다.

궁핍한 형제들에게 선을 행하거나 착한 일을 하는 일은 심고 거두는 법칙 처럼 반드시 열매가 있는 일이다. 조선 후기의 거상 임상옥은 ‘상즉인 인 즉상(商即人 人即商)’ 이란 명언을 남겼다. 장사란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사람을 남기는 것이 곧 장사란 뜻이다. 사람이 희망이요 재산이란 뜻이다. 임상옥은 계盈배(戒盈杯: 7할 이상 술을 따르면 술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잔)의 가르침을 깨닫고, 가득함을 추구하기보다 욕심을 버리고 베푸는 즐거움을 실천하였으며, 장사를 통해 이윤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믿고 사람에 투자하며 사람을 얻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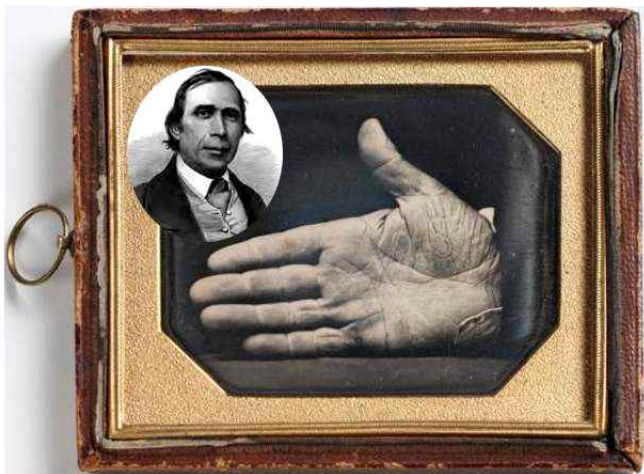
영국 수상을 지낸 처칠이 어렸을 때 강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처칠을 살려 준 사람이 처칠 집의 하인이었다. 처칠의 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에 하인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자 했다. 마침 하인의 아들이 총명해 공부에 소질이 있었다. 처칠의 아버지는 그가 의학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되었는데 그만 폐렴에 걸리고 말았다. 그 당시 폐렴은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이었다. 많은 사람이 걱정했지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때 한 사람이 소식을 듣고 나타나 처칠의 몸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주사했다. 약은 효과가 있어 처칠은 깨끗이 나왔다. 그 항생제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처칠의 집에서 일했던 하인의 아들이었다. 그가 바로 푸른곰팡이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다.

정읍 금산가자 교회의 조덕삼 장로는 자기 집 마부였던 이자익을 장로로 섬기다가 평양신학교에 보내 목사가 되게 하였고, 담임목사로 청빙하여 섬겼다. 바나바의 투자는 바울과 마가를 만들었고, 바울의 투자는 도망노예였던 오네시모를 교회의 감독이 되게 하였으며, 디모데, 디도, 누가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을 만들어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 목회한 두 분의 목사들 가운데 한 분은 3년 동안 단 한 사람밖에 거듭난 성도를 만들지 못했지만, 바로 그 한 사람, 로버트 마펏이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적인 틀을 마련한 최고의 선교사가 되었다. 다른 목사는 한 주 동안의 부흥집회 동안에 단 한 사람밖에 결신자를 얻지 못하였다. 바로 그 한 사람,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대륙을 위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뿐인 복음26: 예수의 흔적(3)(갈 6:11-18)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조나단 워커(Jonathan W. Walker)와 SS(Slave Stealer, 노예 도둑) 낙인이 찍힌 그의 오른손 사진(Daguerreotype by Southworth & Hawes, 1845.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소장). 프랑스인 루이 다게르(Louis Daguerre, 1787-1851)가 개발해 1839년 1월 7일 공표한 은판사진법(Daguerreotype)으로 1845년에 촬영되었다. 선장이었던 워커는 7명의 도망 노예들을 태워 방랑마로 보내려다가 1844년 7월 8일 플로리다 최남단 키즈에서 노예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문서에도 있다. 따라서 “큰 글자”는 장문의 글이란 뜻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바울이 사용한 큰 글씨체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12-13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다.”는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책망,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2:14)와 연결했을 때 이해될 수 있다. 베드로는 안디옥에 머물고 있을 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했는데, 한번은 그들과 함께 먹고 있다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그들로부터 비난받을까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해버렸다. 이 같은 행동은 베드로가 보였던 앞선 행동과 변증들을 뒤집는 처신으로써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외식하게 만들뿐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였다. 그러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에서 “큰 글자로 쓴 것”은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가 대필자에 의해서 기록되었고, 11절부터는 친필로 쓰고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쓴다.”고 하였는데, 이 같은 친필 문안이 고

린도전서, 골로새서, 빌레

므로 12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할례를 주장하는 에비온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한 것이고,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는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로부터의 박해에서 보듯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인 동족으로부터의 비난과 박해를 모면하려고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고든(Gordon) 혹은 피터(Peter)로 알려진 도망 노예로서 1863년 3월에 루이지애나의 한 농장에서 탈출하였다. 고든의 몸에 난 흔적이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면, 예수님과 바울의 몸에 난 흔적은 자의에 의한 것이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는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은 더 이상 무슨 가치나 의미가 없으므로 죽은 것이고, 바울 또한 세상에게 죽은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15절에서 “할례

나 무할례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고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에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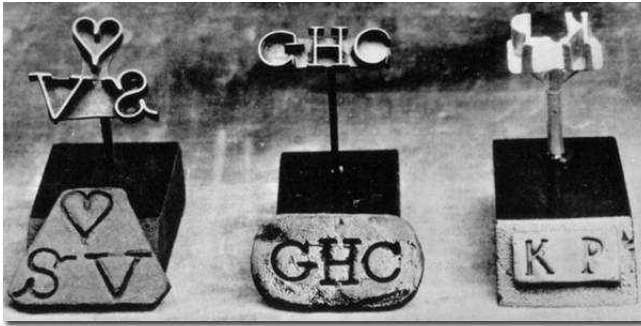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 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뜻한다. 끝으로 바울은 17-18절에서 “이 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편지를 마쳤다.

바울을 괴롭게 한 자들 가운데는 앞에서 언급되었듯이, 모세의 율법에 편향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할례의 흔적은 유일신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랑의 표시였다. 그러나 바울은 구원이 할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구원에 필요한 것은 육체에 새긴 ‘할례의 표’가 아니라, ‘심비(心碑)의 표,’ 곧 ‘예수의 흔적’임을 강조하였다.

학자들은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해석을 내리고 있다. 첫째는 빈번한 박해와 고문으로 인해서 몸에 생긴 흉터를 말한다는 주장, 둘째는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Francis of Assisi)가 갖고 있었다는 ‘성흔’(聖痕)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주장, 셋째는 이교도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헌신을 맹세할 때 몸에 만드는 제의적인 흔적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주장, 넷째,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점차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들 가운데 첫 번째와 네 번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의 몸에 낙인을 찍었던 불인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주 강조하였다. 신학자 케제만은 바울이 즐겨 쓴 ‘그리스도의 노예’란 표현을 그리스도를 향한 “바울의 운명적 사랑”이란 말로 표현하였다. 당시 노예들의 몸에는 이마

에 새긴 ‘도망자’라는 화인(火印: “F”=Fugitivus)을 비롯해서 채찍에 맞아 생긴 흉터들을 갖고 있었다. 바울의 몸에도 그가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살았던 고난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었다. 따라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표현은 바울이 어떤 경우에도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노예처럼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자기인식’ 또는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다.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도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가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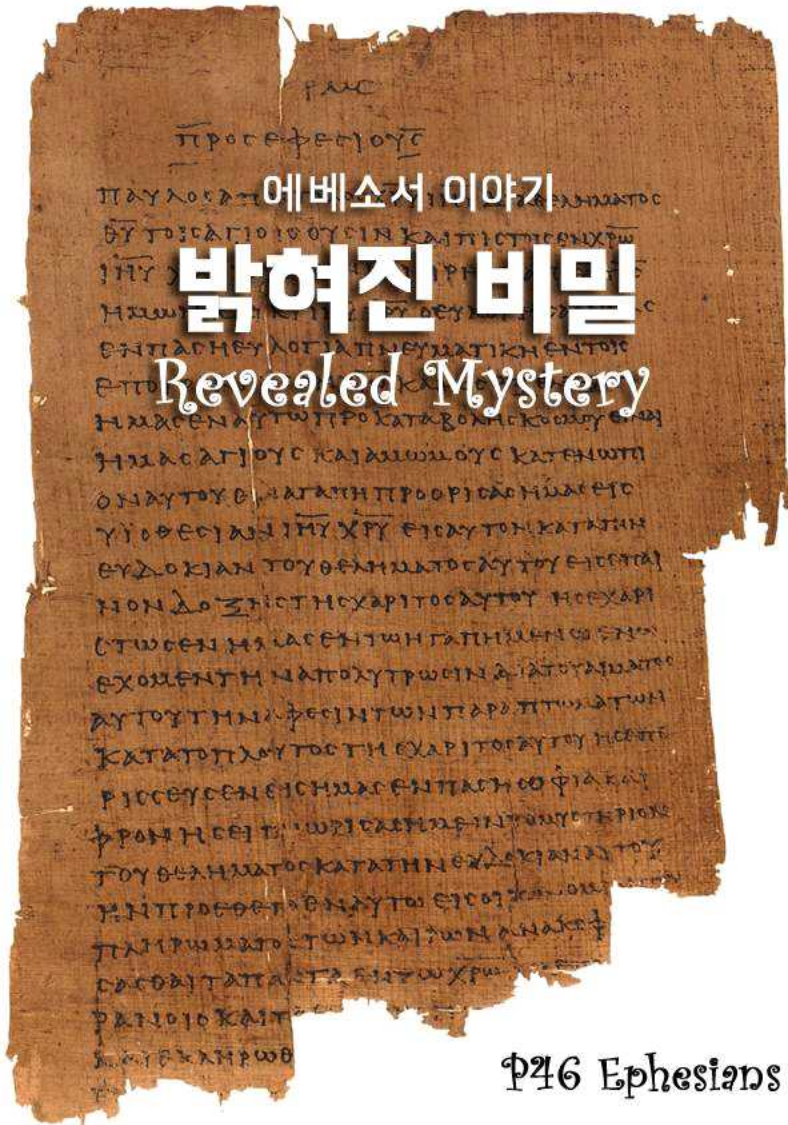
조나단 워커(Jonathan W. Walker)는 1799년 3월 22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해리치(Harwich on Cape Cod)에서 출생하여 17세에 선원이 되었다. 선장 워커는 1844년 6월 22일 플로리다 주 펜서콜라(Pensacola) 농장에서 도망한 7명의 노예들을 배에 태워 바하마의 수도 나사우(Nassau)로 보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워커와 도망노예들은 7월 8일 플로리다 주 최남단에 위치한

키즈(Keys) 제도(諸島)에서 체포되었다. 7명의 노예들은 다시 농장으로 끌려갔고, 위커는 키웨스트(Key West)에 잠시 구금되었다가 7월 18일 펜서콜라로 끌려가 이듬해 5월 20일 석방될 때까지 감금되었다.

검사는 각각의 노예들을 별건으로 기소하였고, 이 때문에 위커는 노예 도둑질 한 건에만 기소당하지 않고, 총 4건에 기소 당하였다. 1844년 11월 16일 위커는 첫 건에 대해서 오른손에 “SS” (Slave Stealer)라고 새긴 낙인 곧 ‘노예 도둑’을 의미하는 글자를 찍는 불인두형과 15일간 투옥(실제로는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및 150불의 벌금형을 받았고, 이듬해인 1845년 5월 8일 나머지 3건의 기소에서 450불의 벌금형을 추가로 받았다. 이에 노예제 폐지 지지자들이 모금운동에 나섰고, 위커를 석방하는데 필요한 돈을 모아 벌금 600불과 변호사비용 300불을 갚음으로써 위커는 5월 20일 풀려날 수 있었다. 이 당시 900불은 큰 액수의 돈이었다(약 3천2백70만원).

고향에 돌아온 위커는 선장을 그만두고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순회강연을 다녔으나 생활형편이 어려워 1852년 위스콘신 주로 이사하였고, 그곳에서 사회개혁가로 변신하여 두 개의 공동체를 세웠으나 실패하자 1864년 미시건 주 머스키건(Muskegon)에 정착하였다. 부인 제인은 1871년에, 조나단 위커는 1878년 4월 30일 사망하였다. 그들은 노턴 공동묘지(Norton cemetery)에 겸손하게 안장되었으나 그를 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금을 마련하여 머스키건 소재 에버그린 공동묘지(Evergreen cemetery)로 이장하고 기념비를 세웠다. 1878년 8월 1일 거행된 기념비제막식에 6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1921년 8월 16일 참배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와 그의 기념비는 공동묘지 입구로 옮겨졌다.

이처럼 선한 일에는 흔적이 남는다. 위커에게는 두 가지 흔적이 남았는데, 한 가지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요, 다른 한 가지는 그의 무덤과 기념비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미시건 주 머스키건에 소재한 에버그린 공동묘지를 찾는다고 한다.



에베소서 이야기
밝혀진 비밀
 Revealed Mystery

P46 Ephesians

밝혀진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I)(엡 1:1-14)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회람서신으로 알려져 있다.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서해안 셀축에 위치하고 있고, 2천 년 전에는 인구 25만 명이 살았던 아시아 최대의 도시였으며, 약 530M의 대리석 도로가 항구로부터 동쪽 2만5천석 극장까지 뻗어 있었고, 도로변으로는 시장이 형성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

심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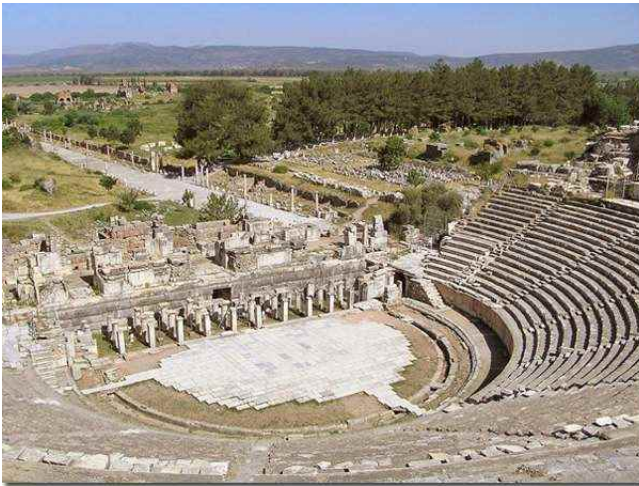
에베소는 로마의 여신 다이아나(Diana) 또는 헬라의 여신 아데미(Artemis)에게 바쳐진 고대 칠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로 일컬어지는 가로 129.5미터, 세로 67미터, 그리고 6층 높이에 달하는 18.2미터 기둥이 127개나 되는 거대한 신전과 ‘아시아 관원’이라 불리는 종교담당 공무원이 있을 만큼 종교적인 도시였다. 아데미 신전은 세 차례 정도 홍수와 화재로 붕괴되었다가 재건축되었으나 주후 268년 고트족의 약탈로 파괴되었다. 파괴된 석재들은 하기아 소피아(이스탄불), 성 요한 성당(에베소) 등 여러 건물들에 재활용됨으로써 주후 401년에 최종적으로 해체되었다.

사도 바울은 이곳을 제3차 선교여행의 전진기지로 삼고 주후 55-58년 사이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2년 3개월 동안 사역하였으며,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면서 전도자를 파송하여 주변 도시들을 복음화시켰다.

에베소서는 전반부 1장부터 3장은 교리적인 부분이고, 후반부 4장부터 6장은 윤리적인 부분으로 되어 있다. 전반부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

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누구의 뜻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의 비밀(Mystery of God) 또는 그리스도의 비밀(Mystery of Christ)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교회론으로 되어 있고, 후반부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교회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야하며,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 버리고 새 생활을 해야 하며, 서로 복종해야 하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쌍둥이 서신



2만5천석 규모의 고대도시 에베소의 대극장
 배우들의 대사가 꼭대기 좌석에까지 들린다고 알려져 일부 여행자들은 무대와 꼭대기 좌석에 나뉘어서 직접 소리를 해본곤 한다.
 은 세공업자 데메트리오와 그의 직공들이 소란을 피웠던 곳이기도 하다.

학자들은 에베소서를 골로새서와 함께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두 서신들에 담긴 비슷한 내용들 때문이다. 이 두 서신들의 특징은 에베소서가 “왜 교회여야 하는가?” 를 말해 주는 것이고, 골로새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가?” 를 말해주는데 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유대교의 역할이 끝나고 그리스도교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면, 유대인들의 역할이나 혜택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다. 로마서 9장 1-5절을 보면, 바울에게는 동족을 위하는 큰 슬픔과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 내 겨레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 고 했고, 4절에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다.” 고 했다.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님조차도 육신적으로는 그들의 혈통을 잇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들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은총이요, 큰 자랑거리였다. 이런 특혜를 누렸던 민족이 일찍이 없었다. 유대인들이 도달했던 높은 영성은 2천 년 전 상황에

서 일찍이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들이 싫어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로 보내셨고, 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리스도교를 ‘올람 하바’ 곧 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셨는가라는 것이다. 바울은 그 이유를 계시를 통해 깨닫고 난 후에 그것을 일컬어 “하나님의 비밀(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신비)” 또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였고, 골로새서에서는 하나님이 보내기를 원하셨던 메시아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 두 서신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왜 다른가를 밝힌 글이다.

바울이 유대교의 골수분자로서 깨달은 사실은 야훼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된다는 것이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어떤 차별 없이 동등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사실을 근거로 야훼께서 메시아로 세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골로새서에서 밝혔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를 에베소서에서 밝혔다.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터

신전은 가로 129.5미터, 세로 67미터, 높이 18.2미터 기둥이 127개나 되는 거대한 크기였다. 호수와 화재를 세 차례에 걸쳐 재건축되었으나 주후 268년 고트족의 약탈로 파괴되었다. 파괴된 석재들은 하기아 소피아(이스탄불), 성 요한 성당(에베소) 등 여러 건물들에 재활용됨으로써 주후 4이년에 최종적으로 해체되었다.

에베소서 1장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아들 안에서” 혹은 “그분 안에서” 란 말이 10번이나 사용되었다.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주시는 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고서는 영적인 복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니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메시아란 사실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믿어야 한다.

바울은 4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 무엇인지를 열거하였다.

첫째; 4절,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

둘째; 5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하셨다.

셋째; 7절,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넷째; 8절,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다섯째; 9절,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하셨다.

여섯째; 11절,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일곱째; 13절,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상속들에 관한 약정서에 직인 찍음으로 주셨다.

여덟째; 14절,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상속들에 관한 약정서의 담보물로 주셨다.

바울은 이 모든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것들이라고 말한다. 이 모든 복들이 하늘에 속한 것들이라고 말한다. 신령한 것들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같은 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지만 유대교인들에게는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이 없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대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다 유한하고 잠정적인 지상의 것들이고,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영원한 것들이 아니다.

밝혀진 비밀02: 그리스도 안에서(2)(엡 1:15-23)

“이로 말미암아”



바울시대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에베소 주화(AD 41-54)
 정면엔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투상을, 뒷면에 TI CLAVD CAES AVG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새겼다.
 뒷면에 이오니아 양식 4개 기둥의 신전 중앙에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를
 좌우에 DIAN - EPHE(다이아나 - 에베소)라고 새겼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열거한바가 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정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죄를 사하셨다. 게다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셨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상속들에 관한 약정서에 인감 찍음과 담보물로 주셨다고 하였다. 따라서 15-16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에서 “이로 말미암아” 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로 말미암아 또는 그 같은 결과로 인하여 라는 뜻이 된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 하였는데,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이 입증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곧 주 예수를 믿는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구원의 결과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옥중에서 그 같은 소식을 전해 듣고,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성도들이 맺은 믿음과 사랑의 열매들로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17-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였다.

바울의 기도는 3만이 넘는 신들 가운데 ‘아데미’ (Artemis) 혹은 ‘다이애나’ (Diana)를 주신으로 믿었던 에베소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었다.

“지혜와 계시의 영”



바울시대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아그리피나의 에베소 주화(AD 41-54) 전면에 월계관으로 머리를 묶은 클라우디우스와 아그리피나의 두상을, 뒷면에 TI CLAVD CAES • AVG AGRI PP AVG VSTA(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아그리피나 아우구스타)라고 새겼다. 뒷면에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와 뒷면에 DIANA EPHESIA를 새겼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바란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17절) 주시기를 바란 것이고, 둘째는 “마음의 눈을 밝혀” (18절) 주시기를 바란 것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과 마음의 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결과로 마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또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인가?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한 것들에서 곧바로 알 수 있다.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 것은 네 가지이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17절);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무엇을 바랄 것인지를 아는 것이며(17절); 셋째는 성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하늘 가나안땅의 상속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아는 것이고(18절); 넷째는 믿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19절). 바울은 20절에서 그 큰 능력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승천케 하시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 것이 사도신경에 담긴 내용정도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정도의 교리를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이고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에베소 주화(AD 128-138)
 전면에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두상을 둘러싸고 HADR IANVS AVG COS III PP(하드리아누스 아우구스투스 집정관 3회, 국부)라고 새겼다.
 뒷면에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와 성스러운 사슴 2마리가 아데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과 둘러싸고 DIANA EPHESIA(다이아나 - 에베소)라고 새겼다.

그렇다고 사도신경이 완벽하거나 죽보가 명확한 신앙고백서는 아니다. 다만 내용이 꼭 짜이고 간결하여 암송하기 좋아 수백 년간 사용되어져왔을 뿐이다.

바울은 20-2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였다. 천지창조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필설로 다 열거할 수 없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였다. 20절에서 그 큰 능력들 가운데 한 가지가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고 승천케 하시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신 것이라고 하였다. 21절에서는 ‘예수’ 라는 이름을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했다. 22절에서는 “또 만물을 그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3절에서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고 하였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그리고 그 몸의 머리 곧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또는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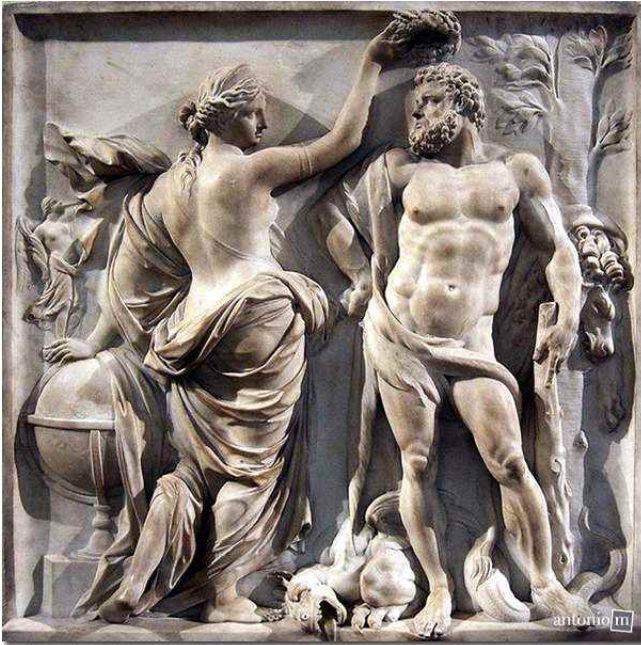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교회라는 몸(공동체)

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교회의 머리(뇌)는 그리스도이시다. 머리(뇌)는 몸 전체가 제구실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통제한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채워져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을 믿는 교리는 신약성서에 담겨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신약성서의 가르침위에 확고히 서는 것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 이다.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며, 장차 상속받게 될 하늘 가나안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알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엡 2:6)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기를 바란 것이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고 하셨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그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바랐다.

밝혀진 비밀03: 그리스도 안에서(3)(엡 2:1-10)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헤라의 ‘진노의 자식’이었던 헤라클레스가 자신에게 운명처럼 부과된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 곧 인생의 가시밭 길을 영웅적으로 마친 후 신들이 머무는 대전제에 올라 헤라로부터 월계관을 받아쓰는 모습. (Martin Desjardins, 1671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헤라가 오른손에 월계관을, 왼손에 지구본 위에 세운 여신 승리를 붙잡고 있고, 헤라클레스가 오른손에 헤라의 라수원인 헤스페리데스의 동산에서 리물 라돈(뱀)을 뚫어내고 정취한 불멸을 주는 황금 사과를 쥐고 있고(Atlas설과 비교), 왼손에 물리브 몽둥이를 쥐고 있으며, 죽은 라돈이 바닥에, 네메아의 사자 가죽이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랐던 사람들이다. 넷째,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다섯째, 그러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다.”

바울은 1장 19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에베소서 2장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큰 능력은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이라고 말한다. 1-3절에서는 이 살리신 행위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상기시킨다. 첫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둘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다. 셋째,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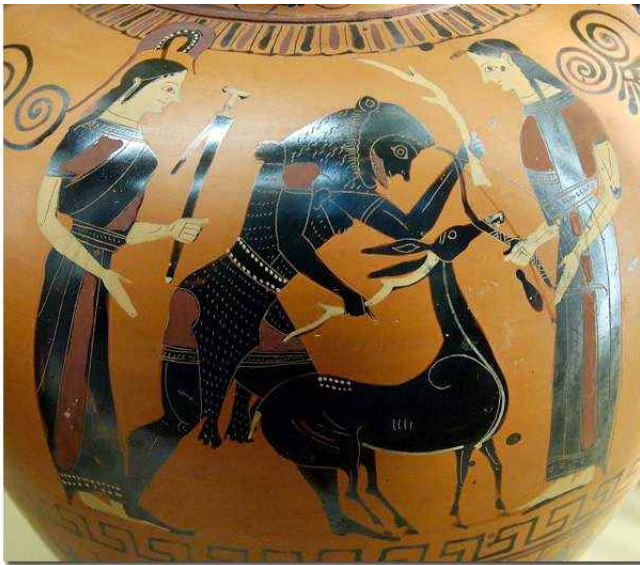
세상풍조란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고 하였다. 또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고 하였다. 여기서 철학이나 신화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들을 말한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들을 일컬어,

바울은 자기시대의 것들, 그것들이 종교든 철학이든 신화든 무엇이든지간에 초등학문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빛으로 말하자면, 별빛이나 달빛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오늘날의 세상풍조로는 무신론사상과 배금사상을 손꼽을 수 있다. 과학과 기술발전이 인류에게 가져다준 그늘이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돈이란 우상을 세워 숭배토록 한 것이 오늘날의 세상풍조이다. 그런데 돈이란 우상은 인간에게 편리함을 줄지언정 절대로 행복을 함께 주지는 않는다. 세상이 갈수록 불안하고 험악해지며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죽으면 그만이다’ 식, ‘돈 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식, ‘재미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식의 세상풍조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몰아내고 돈과 명예와 권세와 향락만을 좇게 만든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모든 범죄와 죄가 바로 여기서 비롯된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헤라클레스가 세 번째 과업 수행으로 케뤼네이아의 암사슴을 생포하는 모습(주전 6세기경). 좌측에 헤라클레스의 수호여신 아테나를 우측에 암사슴의 주인인 아데미(Artemis)를 새겼다. 암사슴은 아데미의 시녀 요정 타위게테이다. 아데미는 제우스로부터 그녀를 보호하려고 청동 발굽과 황금빛 뿔을 가진 사슴으로 변신시켰다고 한다.

들이었는가를 상기시켰다면, 4-7절에서는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기시킨다.

먼저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바울은 1장 19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을 2장 4-7절에서 이어가고 있다. 그것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것이라고 했다.

1-3절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

셋째로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신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긍휼과 그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보좌에 앉히시며,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미래 세대의 사람들도 알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8-9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 자신의 공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주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만 보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이 마치 자기 공로인 것처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것이다.

4절에서 “긍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레오스’(eleos)로써 히브리어 ‘헤세드’(chesed) 곧 ‘인애’에 해당되는 단어이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의 반복적인 적대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긍휼을 베푸신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것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살리시는 근원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것에서 이미 확증되었다. 그러므로 만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자기 공로를 입에 담는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깨닫지 못한 자이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바울은 1장 19절에서 언급한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가” 에 대한 세 번째 설명을 2장 10절에서 이어가고 있다.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고 하였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는 8절의 말씀이 구원의 근원과 구원의 수단을 말한 것이었다면, 10절은 구원의 목적을 설명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의 근원이다. 반면에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통로이자 출발선이다. 그리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며, 구원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열매이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열매가 있을 때, 곧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라는 증거가 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만드신 자 또는 하나님의 작품이 된다. 10절의 말씀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무거운 라뎡(운명)수행에 지친 헤라클레스를 그의 수호신이자 지혜와 용기의 여신인 아테나가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Kylix, c. 470BC).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장차 볼 줄은 것들과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기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을 보증하시고 인치시며 격려하시고 응원하시며 미리 맛보게 하신다고 하였다. 타고난 영웅조차 수호신의 응원과 격려가 필요했다면, 평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겠는가? 히즈윌(HisWill)은 “나의 잔을 채우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고된 삶의 여정 지내며 나도 모르게 닳혀진 나의 마음 내 영혼의 잔을 세상 관심 걱정 하다가 나도 모르게 묵혀진 나의 마음 내 믿음의 잔을 나의 잔을 채우소서. 넘치도록 채우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내 손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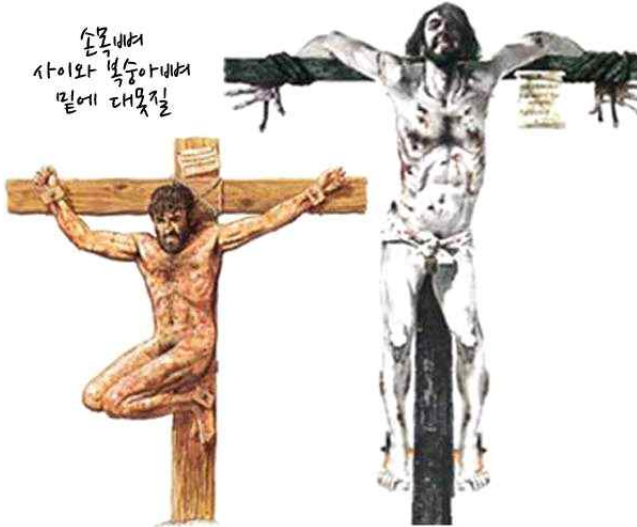
에는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봄이 되면 살아 있는 나무와 죽어 있는 나무가 쉽게 구별된다. 살아있는 나무는 봄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운다. 여름에는 풍성한 가지와 잎으로 열매를 만든다. 가을에는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를 제공한다. 그러나 죽어 있는 나무는 계절에 관계없이 싹을 내지 않고 열매를 만들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무의 상태를 보고 그 나무가 산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를 판가름한다.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인지는 그가 죽임의 일을 하는지, 살림의 일을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목적은 바로 이 빛과 생명의 일을 하라는데 있다.

작품이라면, 우리는 분명 결자일 것이 분명하다.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낡고 더럽고 허물어져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멋지고 아름답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영적인 것이어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 전까지는 육적으로 진노의 자식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그것은 마치 죽은 나무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는 것과 같다. 겨울이 되면 나무마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어 모든 나무가 죽은 것같이 보인다. 그래서 겨울 동안

밝혀진 비밀04: 그리스도 안에서(4)(엡 2:8-10)

구원의 근원과 수단



1968년 예루살렘의 무덤에서 발견된 예수님과 동시대의 20대 남자 요하난 벤-하골(Jehohanan ben Ha-Gkoi)의 유골함의 뼈조각들을 보고 해부학적으로 십자가 처형 방식을 재구성한 것들이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는 8절의 말씀이 구원의 근원과 구원의 수단을 말한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는 10절은 구원의 목적을 말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이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 구원에 이르는 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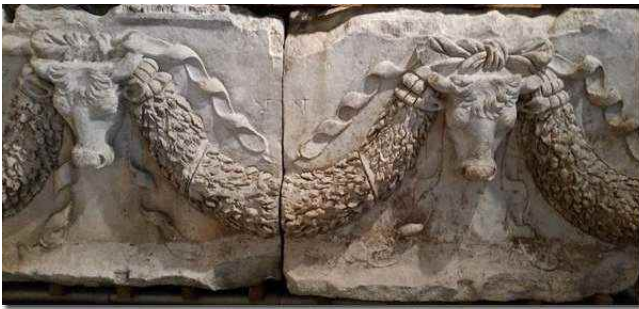
의 근원이다. 반면에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통로이자 출발선이다. 그리고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목적이며, 구원을 받은 자들이 믿는 자라는 것을 입증하는 열매이다.

구원에 대한 개념은 근본적으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르다.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란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다. 구원은 내 나라, 내 조국에서의 안식, 또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영토인 가나안땅의 영원한 존속과 번영을 뜻한다. 그 나라와 땅에 대한 희망을 아브라함이 처음 가졌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여호수아에 의해서 그 희망이 성취되었다. 그 나라와 땅의 존속은 하나님의 ‘헤세드’ (인내)에 의하여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 곧 율법(토라)의 준수로 말미암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헤세드’ 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땅의 근원이요, 율법준수는 이스라엘 나라와 그 땅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수단이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아 그곳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나라와 땅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 곧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는 근원이요, 믿음은 그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아 그 땅에서 영원히 누리는 안식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와 그 땅에서 안식할 수 없듯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게다가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구원은 자력이나 여타의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

구원의 과정



화환을 목에 건 황소들
화환은 제물로 희생될 황소의 목에 걸린다. 이 유물은 1878-1906년 사이에 에베소에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반출되어 빈 미술사 박물관 (Kunsthistorisches Museum Wien)에 전시되어 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후 광야에서 성막시대를 열었다. 광야시대는 히브리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서 가나안땅을 바라보고 행군하는 기간이었다. 히브리인들이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죽음을 피한

첫 유월절 날 이집트를 탈출한 것은 그들이 희망한 구원의 시작이었지 마지막은 아니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야 했고,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고 반석의 샘에서 물을 마셔야 했다. 히브리인들은 첫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계명들을 지키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나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여전히 가나안땅을 향하여 행군하는 자들이었다. 떠돌이와 노예로서 히브리인들이 그토록 희망했던 구원은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비로소 성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와 그 땅은 늘 불안한 상태였다.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나라와 땅을 존속시키는 열쇠였기 때문에 이미 광야시대 때부터 율법을 사랑하고 지키지 못했던 그들로서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가지 못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교가 제시하는 구원은 하나의 과정이다. 바벨론과 땅의 음녀들(계 17:5)로 묘사된 죄악 세상을 탈출하여 침례라는 홍해를 건너 교회라는 광야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곧 하늘 가나안땅을 향해서 행군하는 순례자들이다. 만나와 반석의 샘물로 묘사된 주의 만찬을 매주일 예배 때마다 먹고 마신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

나님의 아들로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며, 믿음을 고백한 후에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천성을 향하여 행군하는 자들이다. 천성을 향하여 행군하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끈질긴 인내와 신실한 믿음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3]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5]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목적



1878-1906년 사이에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반출되어 빈 미술사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에베소의 제단(Kunsthistorisches Museum, Antikensammlung, Vienna, Austria). 여신 니케(승리)가 희생물인 양과 영소를 제단으로 옮기는 모습이 복조되어 있다. 날개를 가진 니케는 승리자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우거나 개선 장군의 전차를 끄는 네 필의 말고삐를 잡기도 하고, 종종 희생물인 향소를 도살하거나 희생물을 제단으로 옮기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살아 있는 나무에는 봄이 찾아오지만, 죽어 있는 나무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는다. 죽어 있는 나무는 계절에 관계없이 싹을 내지 않고 꽃을 피우지 않고 열매를 만들지 않는다. 우리는 나무의 상태를 보고 그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혹은 죽어 있는 나무인지를 안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영

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살아 있기 때문에 선행의 싹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 있는 사람이다. 죽어 있기 때문에 선행의 싹이 없고 꽃이 없고 열매가 없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혹은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판가름한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활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다.

불신자일 때에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 (롬 10:9), 구원

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확신으로 믿음을 키워 가야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청산유수 같은 기도솜씨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뿔낼 수 있는가? 많은 액수의 헌금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뿔낼 수 있는가? 잦은 금식과 기도회의 참석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뿔낼 수 있는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에서 예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고 있다(눅 18:10-14). 바리새인들은 예복을 즐겨 입고, 장터에서 인사 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즐기며,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리나 죄인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20:45-47, 참고: 사 58:1-7).

하나님은 행함이 없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행동을 보인 믿음을 통해서 드리는 산 예배를 기뻐하신다.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삶 속에서 묻어나는 믿음이 나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17절은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고 하였다.

밝혀진 비밀05: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1)(엡 2:11-18)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에베소의 주화(405-390 BC, 테트라드라크마)
 전면에 날개를 펼친 벌, 좌우에 E - Φ를 새겼다.
 뒷면에 아데미의 성스러운 사슴과 대항아자수를 우측에 동치자의 이름
 [EU]KLES을 새겼다. 벌과 사슴은 에베소의 상징이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의 상태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상태를 생각하라는 뜻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과거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현재를 비교해보라는 뜻이다.

바울은 먼저 11-12절에서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곧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에 육체적으로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상기시키고 있다. 그 때의 헬라인들의 상태를 바울은 유대교의 보편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다.

첫째로 헬라인들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었다” (11절). 유대인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뉜다. 민족적으로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행하는 유대민족은 정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지만, 다른 민족들은 부정한 민족들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다.

둘째로 헬라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다(11절). 유대인들은 할례의 흔적을 자랑하는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할례의 흔적은 유일신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랑거리였다. 따라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할례당)인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을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무할례당)라고 불렀다.

셋째로 헬라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 (12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빼앗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과 명예와 영토를 되찾아 줄 모세와 같은 영웅이다.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설사 알았다고 해도,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를 희망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넷째로 헬라인들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다” (12절). 헬라인들은 유대민족의 야훼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다. 따라서 하나

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알지도 못했고, 설사 알았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전혀 없었다.

다섯째로 헬라인들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 (12절). 헬라인들은 3만이 넘는 다신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신화들을 바탕으로 곳곳에 신전들과 신상들이 세워졌지만, 모두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이어서 사람들이 희망하거나 의지할만한 참 신이 없었다. 헬라인들에게는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에 신실한 야훼 하나님이나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대속의 죽음을 자청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같은 참 신이 없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



에베소의 주화(370-360 BC, 테트라드라크마)
 정면면에 날개를 펼친 벌로, 좌우에 E-Φ를 새겼다.
 뒷면에 아데미의 성스러운 사슴과 대추야자수를 우측에 동치자의 이름
 KLEISILEOS를 새겼다. 벌과 사슴은 에베소의 상징이었다.

바울은 두 번째로 13-15절에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를 상기시키고 있다.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신분을 바울은 그리스도교의 보편적 관점에서 말하고 있

다.

첫째로 하나님과 “전에 멀리 있던” 헬라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13절). 그리스도교 이전 세대의 헬라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유대교에 개종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헬라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한 가지는 회당 기도회에 참석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모세의 율법과 규례에 얽매이지 않는,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는, 절반 개종이 있었다. 바울 당시에 헬라인 유대교인 대다수가 이 방법을 취하였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문의 개종자’ 혹은 ‘노아의 자녀’ 라고 부른다. 다른 방법은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계명의 자녀가 되기로 맹세한 후 침례를 받는 방법인데, 남자에게는 할례가 추가된다. 유대인들은 이들을 ‘완전 개종자’ 혹은 ‘의의 개종자’ 라고 부르는데,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는 것을 빼고는 유대인과 동등한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는 민족성별의 차별 없이, 율법과 규례와는 상관없이, 특히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의 새로운 민족으로 만드시고 평화를 이룩하신 그리스도인들의 평화이시다(14-15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 생긴 것은 유대교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과 성전을 독점하는 선민사상 때문이었다. 온 우주에 한분 밖에 없는 하나님을 유대민족만의 하나님으로 묶어버렸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민족의 담(미문), 성별의 담(니카노르문), 신분의 담(성소 문), 계급의 담(지성소 휘장)을 겹겹이 쌓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곧 지성소의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폐쇄시켜버리셨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민족성별 차별 없이 누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히 10:19) 하고, “공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히 4:16) 하려는 것이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한 것이다.”



에베소의 주화(350-340 BC, 테트라드라크마)
 전면엔 날개를 펼친 벌을, 좌우에 Ε - Φ를 새겼다.
 뒷면엔 아데미의 성스러운 사슴과 대추야자수를 우측에 통치자의 이름
 DEMOKRATES를 새겼다. 벌과 사슴은 에베소의 상징이었다.

바울은 세 번째로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히 10:19) 두 민족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개심을 없애고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또 17-19

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과 가깝게 있던 유대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평화의 기쁜 소식이었다. 따라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고 말한다.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선언이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민족색깔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별 없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야훼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가능해졌으며, 그 길이

바로 “새로운 살 길” (히 10:20)이라는 것이다. 인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로써” 한 형제와 자매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이제는 수많은 형제들의 맏형이 되시고, 수많은 자매들의 오빠가 되신다는 것이다. 유일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만민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은총을 입음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축복을 받음에 있어서 남녀차별 신분차별 연령차별 빈부차별 민족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은총과 축복이 선택이란 이름으로 유대인에게는 열려있고, 이방인에게는 닫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율법과 할례라는 이름으로 유대인에게는 열려있고, 이방인에게는 닫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특정인에게는 열려 있고, 나머지에게는 닫혀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은총과 축복이 “그리스도의 피로써” 믿음이라는 한 가지 조건아래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이다.

바울이 선포한 그리스도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누려온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만의 구원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 증표로 할례를 받으며, 언약의 말씀인 율법과 규례를 엄수하는 유대교인일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곧 만유가 하나 되는 대통합국에 시민이 될 수 없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1절에서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Scythian)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고 하였다.

밝혀진 비밀06: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2)(엡 2:19-22)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고대도시 에베소의 켈수스 도서관(celsus Library, AD 117)
262-8년 사이 지진과 고트족의 약탈로 파손되어 폐허로 남았다가
1978년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18절에서 첫 번째로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 곧 죄와 허물로 죽었던 때에 육체적으로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상기시켰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어떤 신분이 되었는데를 상기시켰으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에 못 박히신 것은 두 민족 곧 유대인과 이방인이 적개심을 없애고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하였다.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선언하였다. 계속해서 바울은 19-22절에서 이 두 민족 곧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합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나라(교회)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첫째, 19절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까지 이미 대략 1천 년간 이웃나라들을 떠도는 외국인들이었고, 나그네들이었다. 나라의 주권과 영토의 중요성을 빼어 사무치게 경험한 민족이 유대인들이었다. 나라의 주권과 영토를 빼앗긴 유대민족의 서러움이 묻어있는 구절이 19절이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민족단위의 떠돌이와 노예의 경험이 유대민족만큼 많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나라(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혹시라도 유대인 중심의 공동체가 아닐까, 헬라인인 우리가 서자나 2등 시민으로 취급받지는 않을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돕는 구절이 19절이다. 바울은 이미 유대인의 하나님을 이방인의 하나님으로, 유대인의 구원의 하나님을 이방인의 구원의 하나

님으로 그 지평을 넓혀 설명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차별 없이 하나로 묶는 통합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나라(교회)를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19절에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주어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고 했다. 바울은 이미 수년 전에도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꼭 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라고 선언하였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에베소의 켈수스 도서관(celsus Library, AD 117)과 그 주변 폐허
인구 25만의 에베소 총독(AD 105-107)을 지낸 아버지 티베리우스
폴리우스 켈수스 폴레마에아누스(Tiberius Julius celsus
Polemaeanus)를 기념하여 아들 가이우스 폴리우스 아quila(Gaius
Julius Aquila)가 AD 117년에 완공하였다. 아quila는 화려하게
부조된 아버지 켈수스의 대리석 관을 지하에 안치하였고, 12,000천의
책을 구입하고 유지하는 비용으로 25,000데나리온을 지불했다고 한다.

둘째,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다.” 고 말한다. 그리스도의 나라(교회)를 거룩한 성전에 비교했을 때, 그 건물의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예언자)들이라고 말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말한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통을 교회에 전달한 자들이다. 따라서 예수님은 기초부분에 놓이는 모퉁잇돌이라고 말한다. 모퉁잇돌은 고대 이스라엘의 건축에서 집이 들어설 네 모서리에 놓는 거대한 돌을 말한다. 이 모퉁잇돌들을 근거로 기초가 놓이고 집의 방향과 각도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나라(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통을 전달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세워졌다.

유대교를 성전에 비교했을 때, 그 건물의 기초는 장로들과 선지자들이다. 장로들과 선지자들이란 그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말한다. 장로들과 선지자들은 모세의 후계자들로서 모세의 가르침과 전통을 유대교에 전달한 자들이다. 따라서 모세와 그의 가르침(토라) 곧 율법은 유대교의 기초부분에 놓인 모퉁잇돌에 해당된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첫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첫 기록 토라(가르침, 율법)를 주셨고,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장로들을 통해

서 구전 토라를 주셨다고 믿는다. 이를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출애굽 직후 처음 100년간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 및 장로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로 주전 200년까지 약 1000년간은 선지자들과 학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구약성경(Tenach)에 담겼다고 믿는다. 그리고 주전 200년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학문과 견해에 있어서 쌍벽을 이뤘던 다섯 쌍의 학파들(Zugot)을 통해서, 주후 첫 200년간은 교사들(Tana'im)을 통해서, 주후 200-500년까지는 낭송자들(Amora'im)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이 탈무드(Talmud)에 담겼다고 믿는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통을 전달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은 신약 성경에 담겼다. 신약성경 27권이 정경으로 확정될 당시 정경여부를 결정짓는 잣대는 대상 문서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에 일치하는가 여부였다. 그러므로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다.” 는 그리스도교가 신약성경 위에 세워졌다는 말씀이다. 반면에 유대교는 구약성경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에페소의 켈수스 도서관(celsus Library, AD 117)과 그 주변 폐허
이 도시 어디인가에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날마다 강론했던 두란노 서원이 있었을 것이다(행 19:9).

셋째, 21-22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고 말한다. 이 구절들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온 건물은 이 모퉁잇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잇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가 된다. 개정, 개역, 바른 성경들에서는 21절을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번역하였는데,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건물마다” 라기보다는 “온 건물이” 또는 “건물 전체가” (새번역)라고 해야 한다.

바울은 모퉁잇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이루어져간다고 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전통 위에서, 마치 벽돌 한 장

한 장이 놓여서 건물이 완성되듯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했다. 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다. 이 말씀으로 보아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환원하자면 신약성경 위에 지어져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이 담긴 신약성경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규범이자 표준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신약성경에 그분들의 가르침과 전통들이 빠짐없이 다 기록된 것은 아니다. 초기 그리스도의 교회 당시의 상황에서 강조될 필요성이 있었던 특별한 부분들만 골라진 내용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는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그런데도 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경전인 신약성경의 가르침보다도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성경의 가르침이나 인위적인 교회전통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 이는 분명코 잘못된 것이다.

바울은 계시(갈 1:11-12; 고전 11:23-25; 엡 3:1-6)를 통해서 예수님께 받은 바 교훈만을 가르치면서 사도의 가르침과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고 명하였다.

밝혀진 비밀07: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3)(엡 3:1-4)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상단의 데나리온(32-29 BC) 전면에 옥타비아누스의 얼굴을, 뒷면에 평화의 월계수와 풍요의 벌레 손에 쥔 여신 평화를 새겼고, 좌우에 CAESAR DIVI F(카이사르 신의 아들)이라고 새겼다. 하단의 테트라드라크마(28 BC) 전면에 월계관을 쓴 옥타비아누스의 얼굴과 그 둘레에 IMP CAESAR DIVI F COS VI LIBERTATIS PR VINDEX(임페라토르 카이사르 신의 아들 집정관 6회, 자유와 로마시민의 보호자)를 새겼고, 뒷면에 평화전당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손에 쥔 여신 평화(PAX)와 비밀상자에서 올라오는 건강(치유)을 상징하는 뿔과 월계관을 새겼다. 황제 카이사르가 백성에게 평화와 풍요와 건강(치유)을 가져다 주는 신의 아들임을 홍보한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고 하였다. 바울은 수차레나 감옥살이를 했다. 자주 유대교 회당 유치장에 감금되었고,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갇힌 때를 다섯 번(고후 11:24) 이상 맞았으며, 빌립보와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감옥살이를 하였다. 따라서 옥중서신들의 정확한 기록시기와 장소를 확정하기가 어렵지만, 주후 60-63년 사이와 로마가 가장 유력하다. 바울은 동일한 시기에 쓴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고 했는데, 언급된 “경비대”가 로마황실의 친위대를 말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후 58-60년 사이에 유대지방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갇혔다가 로마로 옮겨 60-63년 사이에 셋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네로의 재판을 기다렸으나 유대인들의 기소포기로 연금에서 풀려난바 있다.

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다.” 고 했는데, 언급된 “경비대”가 로마황실의 친위대를 말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바울은 주후 58-60년 사이에 유대지방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갇혔다가 로마로 옮겨 60-63년 사이에 셋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네로의 재판을 기다렸으나 유대인들의 기소포기로 연금에서 풀려난바 있다.

로마인들에게 황제 카이사르는 신의 아들(Divi filius)이자 신성(Divus) 혹은 신(Deus)이었으며, 주(主, Dominus)요 평화(pax)와 행복(felicita)을 가져다주는 자였다. 또 유대인들은 유일신사상에 목숨 걸며 빼앗긴 나라의 주권과 명예

를 되찾아줄 모세와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를 고대하였다. 이런 준엄한 시기에 감히 바울과 동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만왕의 왕(Basileus Basileon) 만주의 주(Kyrios Kyrion) 평화의 왕(Basileus Eirenes)으로 선포하였다.

주후 64년 7월 18일 로마의 대경기장 일대에서 발화된 화마가 9일간 로마시의 삼분의 일을 삼켜버린 큰 사건이 있었다. 이때 간신 티게리누스의 계책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임을 당하였다. 바울은 이 무렵 소아시아 드로아에서 긴급 체포되는 바람에 겂옷과 책을 챙기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겂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고 한 부탁이 있는데, 이것은 로마의 토굴감옥 맘머티메에 갇혔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긴 부탁이다. 바울은 이 토굴감옥에 갇혔다가 네로의 치세말기인 주후 67년경에 참수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도미티아누스 황제(AD 81-96)의 데나리온, AD 79년경 주조되었다. 전면에 월계관을 쓴 도미티아누스의 연금술과 돌리에 CAESAR DIVI F DOMITIANVS COS VIII(카이사르 신의 아들 도미티아누스 집정관 7회)라고 새겼고, 뒷면에 화환으로 장식된 불꽃이 핀 제단과 돌리에 PRINCEPS IVVENTVTIS(Principi Juventutis) 곧 Prince of Youth(성년의 왕자)라고 새겼다. 주화는 황제들에게 중요한 대국민 홍보수단의 하나였다.

바울은 2-3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다.” 고 하였다. 준엄한 시기에 바울은 자신이 1-2장에서 선포한 내용들이 첫째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에 의한 것이며, 셋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당신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 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1장에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주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온갖 영적인 복을 주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 때문이란 것이다. 바울은 그 영적인 복들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신 것,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게 하신 것, 우리를 하나님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 것,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상속에 관

한 약정서에 인감 찍음으로 주신 것, 성령님을 우리가 받을 상속에 관한 약정서의 담보물로 주신 것이라고 했다.

바울은 2장에서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물음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죄의 삯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이며, 세상풍조를 따라 살았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따라 살았으며, 육신의 정욕 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에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방사람이었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란 소리를 듣던 자들이었으며,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도 없었고, 선민의 약속도 받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황야의 늑대처럼 살아가던 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그분이 흘리신 보혈덕분에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이 없는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고,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도미티아누스 황제(AD 81-96)의 데나리온, AD 80년경 주조되었다. 전면에 월계관을 쓴 도미티아누스의 얼굴과 둘레에 CAESAR DIVI F DOMITIANVS COS VII(카이사르 신의 아들 도미티아누스 집정관 7회)라고 새겼고, 뒷면에 투구가 놓인 옥좌와 둘레에 PRINCEPS IVVENTVTIS(Principi Juventutis) 곧 Prince of Youth(성년의 왕자)라고 새겼다. 주화는 황제들에게 중요한 대국민 홍보수단의 하나였다.

바울은 3장 4절에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고 했다. 따라서 바울은 3장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입게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답을 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이 감춰 놓았던

비밀이었다는 것이다.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을 밝힌 등불이었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속박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병기, 하나님의 히든 카드, 하나님의 슈퍼스타, 구원을 위한 제3의 대안, 세상이란 밭에 감춰진 보화, 세상이란 진흙 속에 묻힌 값진 진주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인류

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다는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이 비밀이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경륜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피조물로서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고 말한다. 그래서 천사도 모르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르고, 선민이었던 유대인들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간직하셨던 당신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셨으며(1:7, 골 1:14),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2:1).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피로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며(골 1:18-20),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1:3-5).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2:19),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후사가 되게 하셨다(1:11).

성서는 이 같은 특별한 지식에 접근한 자가 눈을 뜬 자요, 귀가 열린 자라고 말한다.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들일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알고 간직한 자들이다. 그 보물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는 자들이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쓴 서신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라는 것, 그 내용이 서신에 담겼다는 것, 인류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경륜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밝혀진 비밀08: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4)(엡 3:5-6)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아데미 신전의 원주 유물(325-300 BC, 대영박물관)
 이 세 조각의 사진은 동일한 원주의 앞뒤 옆면으로써 순서대로 배열
 하였다. 좌측부터 날개를 가진 타나투스(죽음의 신), 아드메투스 왕의
 부인 알케스티스, 오른손에 전령사의 상징인 케뤼케이온을 쥔 헤르메스
 프시코포토스(저승사자), 서 있는 여성과 앉아 있는 남성이 복조되었다.
 이 한쌍의 인물들은 페르세포네와 하데스로서 음부(저승)의 신들이다.

바울은 5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고 하였다. 바울은 여기서 계시의 등급 또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의 등급을 암시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전의 대언자들 곧 구약시대의 모세와 장로들과 선지자(예언자)들과

교사들에게 밝히지 아니한 것들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고 말한다. 이를 히브리서 1장 1-2절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고 말한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와 에베소서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가 동일한 뜻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씀한 내용이 신약성서에 담겨있다. 반면에 하나님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구약성서에 담겨있다. 그런데 구약성서에는 하나님이 비밀로 남겨두셨던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반면에 신약성서에는 구약성서에서 밝히지 아니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 여기서 비밀은 몰래 숨겨 놓은 것(secret)을 뜻하지 않고 불가사의한 것(mystery) 곧 사람의 생각으로는 미루어 헤아리기 어려운 것을 뜻한다.

바울은 3장 3-4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그리스도의 비밀 곧

그리스도에 관한 미스터리(mystery)를 깨달았다고 밝혔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바리새인학교 가말리엘 문하의 수제였다. 그가 예수님을 믿는 이웃나라 시리아에 거주하는 유대인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강렬한 빛과 마주친 직후에 하늘로부터 들린 음성을 통해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인상이 미스터리였다. 바울이 계시로 깨닫기 전에는 다른 많은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되는가가 이해하기 어려운 미스터리였다. 왜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비밀인가? 왜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인가?

왜 예수님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미스터리인가?



에베소의 동양의 여신 아테미 신상들, 머리에 성곽을 이고 있고, 가슴에 24개의 젖가슴 혹은 24개의 황소 고환을 매달고 있다.

플라톤의 철학에서 ‘미스터리’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진 교리 이해가 그것을 전수받은 자에게는 깨달아지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말한다. 그것은 상징적인 걸모양에서 참 진리를 구별하는 영적 해석을 말한다. 천기누설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천상의 신성한 것들은 누구나 아는 공개된 지식이 아니고 상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설시킬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미스터리라고 한 것이다.

영지주의에서는 천상세계와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미스터리’로 보았다. 따라서 미스터리란 천상에 속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자가 구세주였던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비밀, 곧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거나 풀수 없는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천사도 모르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르고, 유대인들도 몰랐던 것이며,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리스도였다는 것이다. 역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 주는 분이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

밀이 무엇이였는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인류구원에 관한 복음을 가져오셨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밝혀지기까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사의였는데,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예슈아’ 라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선민도 아니고 외국인이었던 우리 이방인들에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천상에 속한 신령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별한 자들만이 일급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전 세대들에게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존재란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 비밀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맞춤 그리스도를 바라고 원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다렸고, 그 그리스도가 세울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게 할 유대인 국가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간직했던 비밀을 그들은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않고 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묘사한 말리 공화국 우표, 1971 그림처럼 8주 신전이었으나 높이 18.2미터 기둥 127개로 건축되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음에 의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이방인들을 위해서, 성서의 다른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외국인이었던 우리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다. 6절 말씀대로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눠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우리 이방인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란 것이다.

유대나라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란 예언은 바벨론유배이후 선지자들의 입

을 통해서 있어왔던 하나님의 약속이지만(롬 1:2), 이 약속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구약성서를 연구해왔던 유대인들은 정작 알지 못한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도 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까맣게 몰랐던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이란 것이 복음에 대한 바울의 깨달음이었다.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였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빌립과 같은 이방나라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눠받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오늘날 우리의 귀에까지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사도들의 대표자격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10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스라엘 서해안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군단의 백인대장 고넬료의 가정에 이 복음을 전한 것은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지 무려 10여년이 지난 다음이었다.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 지시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전했던 것인데, 베드로가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이 일을 크게 비난하였다고 했다(행 11:2).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도착해서 모인 무리에게 행한 첫 인사말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 것이다” (행 10:28-29)였다. 이런 유대인들의 분위기에서 우리는 왜 기독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읽을 수 있다.

밝혀진 비밀09: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5)(엡 3:7-13)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에베소의 금화(155-140 BC)

전면에 에베소의 여신 아테미(Artemis)의 두상을, 뒷면에 아테미 신상을 좌우에 E - Φ(에베소)라고 새겼다.

지못했는데, 그 이유를 첫째는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그 희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나라’ 곧 하늘나라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에베소서 3장 5-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율리우스 시저가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현실만 본다” 고 했다는데, 이 말대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현실만 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뜻과 경륜을 알지 못한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이 유대인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열방 민족들 곧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보지 못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비밀이 되었지, 사실은 전혀 비밀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교 복음을 만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로 깨달았고, 일단 그것을 깨달은 후에는 자기 자신을 그 비밀을 맡아 전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함 받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고 했고(고전 4:1), 8-9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

앞서 언급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도 11장에서 구약시대에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신실한 유대교인들이 야훼께 약속받은 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을 뿐이지, 이 땅에서는 그것들을 문자적으로 손에 넣

내게 하려 하심이라” 고 했으며, 로마서 16장 25-26절에서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바 되었다.” 고 했고, 골로새서 1장 26-27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고 했다. 또 바울은 골로새교회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골 4:3-4, 엡 6:19) 고 하였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다.”



에베소의 금화(155-140 BC)

전면에 에베소의 여신 아테미(Artemis)의 두상을
뒷면에 아테미 신상을 좌우에 E - Φ(에베소)라고 새겼다.

바울은 10-11절에서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고 하였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에 연결된다. 여기서 “혈과 육”은 육신을 입은 사람을 말한다.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앞절에서 언급된 “마귀의 간계”에 연결된다. 따라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일 수도 있고, 그것이 비록 그리스도교를 폄박하는 육신을 입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할지라도, 그들은 자칭 ‘신의 아들’ (Divi Filius), ‘신성’ (Divus), ‘신’ (Deus), ‘주’ (主, Dominus), ‘만왕의 왕’ (Basileus Basileon), ‘만주의 주’ (Kyrios Kyrion), ‘평화의 왕’ (Basileus Eirenes)이라 주장하였으므로, “마귀의 간계”에 빠진 지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다.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에 따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

게 하려 하셨다.” 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는 물론이요, 지상에 있지만 자칭 ‘주와 하나님’ (Dominus et Deus)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선포되고 있다는 뜻이다. 로마제국의 역사는 물론이요, 모든 나라들에서 나타난 복음의 승리가 이를 입증하였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고 했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권세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라고도 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계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리스도교 시대를 열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학이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교 복음으로 인류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처럼 이상적인 현실세계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들처럼 현실세계를 부정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세계를 끝없이 찾아 해매는 것도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 시대를 열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성서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않고 영적으로 성취되는 것이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에베소의 금화(123-119 BC)
 전면면에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Artemis)의 두상을
 뒷면면에 아데미 신상을 좌우에 E - Φ(에베소)라고 새겼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2-13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고 하

였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몇 개의 구절들에 연결된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점에서 야훼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했다. 첫째, 하나님을 자기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하려고 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자신만의 하나님으로, 그들 조상만의 하나님으로 독점해버렸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율법학자들은 모세의 율법 이외에 안식일

법, 정결법, 음식법, 손씻기법과 같은 많은 율타리법들과 관습법들을 만들어 방어막을 겹겹이 쳤다.

둘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성막이나 성전에 가뒤편 두고 독점하려 했다. 유대교가 성전을 단 한 곳 예루살렘에만 둔 것도 하나님을 독점하고 가두는 처사였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라는 특정 장소에 국한하려 한 것은 성전을 장악하여 백성을 통치하려는 정치적 수단에 불과했을 것이다. 대제사장만이 일 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접근할 수 있게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성전시대에 들어서면, 성소를 둘러싼 뜰과 담이 접근을 겹겹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성소가 들어선 뜰을 제사장의 뜰이라 하여 제사장들만 출입할 수 있었고, 그 바깥뜰을 이스라엘의 뜰이라 하여 13세 이상의 유대인 남성들에게만 허용되었으며, 남성의 뜰 바깥에 유대인여성들에게도 허용되는 여성의 뜰 곧 유대인 광장이 있었다. 이방인들은 여성의 뜰 바깥에 있는 넓은 이방인의 뜰에만 출입이 허용되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영역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성전의 뜰과 뜰을 분리하는 담들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는 일종의 차단막, 곧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휘장과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에게만 일 년에 단 하루 출입이 허용되었다.

신약성경은 그 같은 차별의 담들을 헐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한다. 우리 이방인들조차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히 10:19-20)고 말한다. 민족의 담, 성별의 담, 신분의 담, 계급의 담을 헐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지성소의 법궤) 앞에 담대히” (히 4:16)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고 말한다.

밝혀진 비밀0: 밝혀진 하나님의 비밀(6)(엡 3:14-21)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고대도시 에베소의 상가 도로
이 길을 포장한 돌 밑으로 하수를 배출하는 도랑이 설비되어 있었다.

에베소서 3장 14-19절은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이다. 1장 15-23절에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란 것은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1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십사하는 것이었다.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참으로

우리 모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분의 깊고 넓은 바다와 같은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18-19절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사하는 것이었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려는 것이었다.

성도 곧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는 3장 14-21절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바울의 염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달라는 것이다. 목적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혹은 기둥이 박히고 건물이 세워진 교회가 혹은 그 성도들이 능력을 갖게 해 달라는 것이다. 이 능력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며 높고 깊은가를 깨닫는 능력이며, 지식을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능력이다. 이 능력을 갖게 될 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수준에까지 채워질 수 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되기를 원했던 바울은 3장에서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그 능력을 갖게 해 달라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가를 깨닫는 능력과 그것을 아는 능력을 받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의 수준에까지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였다.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고대도시 에베소의 상가 도로
이 길을 포장한 돌 밑으로 하수를 배출하는 도랑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갖는다는 것, 마음의 눈이 열려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고대 그리스에 유명한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맹인이었던 테이레시아스는 새소리를 듣고, 칼카스는 새가 나는 것을 보고 점을 쳤다고 한다. 칼카스는 트로이에 원정한 그리스군의 예언자로

서 트로이전쟁이 10년간 지속된다는 것, 그리스군의 승리에 아킬레우스와 트로이 목마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인물이었다. 테이레시아스는 나르키소스가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죽게 된다는 것, 오이디푸스에게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는 것, 암피트리온에게 알크메네의 연인이 제우스라는 것을 알려준 자였다.

테이레시아스는 신(아테나 혹은 헤라)으로부터 육신의 눈을 빼앗기고, 마음의 눈을 얻은 자로 알려졌다. 그로 인해서 “신들은 앞문을 닫을 때 반드시 뒷문을 여신다.”는 격언이 생겼다. 또 이 격언은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가 고초를 겪는 헤라클레스에게 한 말로도 알려져 있다. 어느 날 청년 테이레시아스가 아테네의 신의 숲 속을 건다가 목욕하는 한 여성을 잠깐 훑쳐 보았는데 그녀는 다름 아닌 여신 아테나였다. 아테나는 그를 현장에서 붙잡

아 눈을 어루만져 그의 시력을 앗아갔다. 그런데 여신은 봉변을 당한거나 다름없는 테이레시아스가 측은했던지, 그에게 육신의 눈을 잃게 한 대신에 마음의 눈을 열어주었다. 그러자 테이레시아스는 여신 아테나를 이렇게 찬양하였다.

영원한 성처녀시여, 한 손으로는 치시되, 한 손으로는 거두시니 감사합니다. 걸 보는 것을 거두어가고, 속 헤아리는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동자보다 더 큰 눈동자, 육신의 눈동자보다 더 깊은 눈동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처녀 예지자시여, 잃고도 얻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테이레시아스는 육신의 눈보다는 마음의 눈을 더 소중히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 때문에 테이레시아스는 육신의 눈을 잃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육신의 눈 대신에 마음의 눈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해 하였다. “걸 보는 것을 거두어가고, 속 헤아리는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눈동자보다 더 큰 눈동자, 육신의 눈동자보다 더 깊은 마음의 눈동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기를 소망한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영광이 대대로”



에페소의 광장(Agora)

마지막으로 바울은 20-21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고 기원하였다. 바울의 이 기원 혹은 영광송은 몇 개의

성구들을 더 생각나게 한다.

첫째, 바울의 이 기원은 “복 받으시옵소서. 하셈이시여!” 로 시작되는 유대인들의 베라코트를 생각나게 한다.

둘째, 이 기원은 하나님께 바친 영광송으로써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는 1장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

하노라.” 를 생각나게 한다.

셋째,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다.” 를 생각나게 한다.

넷째, “교회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는 하나님께서는 “교회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는 유대교 안에서와 모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 전에 예정하셨지만 옛 언약시대의 모세나 선지자들에게는 감추셨던 비밀을 교회안에서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셨다.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히브리서 1장 1-2절에 따르면, “옛 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 또는 그리스도교 시대 또는 새 언약시대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일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교의 주장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고 강하게 주장했고, 로마서 3장 20-22절에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고 주장하였다.

밝혀진 비밀II: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I)(엡 4:1-10)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에베소의 주화(주전 1세기경)
 정면엔 헤라클레스의 투상을,
 뒷면에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를 초승달 및 별과 함께 새겼다.

바울은 에베소서 1-3장에서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었던 자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랑스런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설명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 수천 년간 아끼고 아껴두셨던 결정

적 한방, 히든카드, 비밀병기, 하나님의 아들, 승리자 J장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삼으시며, 그분의 보혈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지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음으로써 선민인 것을 자궁하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 우상들을 숭배했던 이방인들까지 민족색깔 남녀노소에 차별이 없고, 값이 전혀 없는, 한량없고 공평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또 그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나라의 땅을 상속받을 시민권자가 되고, 장차 올 그 나라의 소유권증서에 인감 찍음과 보증금과 미리 맛봄을 위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금양모피와 같고, 황금사과와 같으며, 발에 감춰진 보물 상자와 같고, 진흙 속에 묻힌 값진 진주와 같은 것들이 담겨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투자해서 갖지 않으면 안 될, 그야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무한가치이다. 다행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무상으로 갖게 되었고,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 같은 사실을 깊이 깨닫고 놓치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얼마 안 되는 현금이나 금붙이만 생겨도 그것들을 어디에 숨길까, 어디에 뒀야 잃어버리지 않게 잘 보관할 수 있을까 라며 전전공공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이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 큰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자” 는 권면을 에베소서 4장에서 시작하였다.

1절에서 “부르심을 받은 일” 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의 자식들이었던 우리가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우리가 범한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바 신앙의 내용을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가족의 식구가 되고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자와 상속자가 되려고 그리스도교에로 개종하는 칙례를 받고, 장차 받을 모든 하나님나라에서의 특권을 보증하시고 인감을 찍으시고 맛보게 하시려고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일을 말하며,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된 일을 말한다.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ekklesia)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뜻한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예수님 시대의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에베소 주화(AD 27) 전면에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두상을 하단에 IMP CAESAR(임페라토르 카이사르)라고 새겼다. 뒷면 제단 상단에 AVGVSTVS(아우구스투스)를 제단 전면에 화환과 아데미의 성스러운 사슴 2마리를 새겼다.

2-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권면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3절 “평안(평화, 평강)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했고, 그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라고 했다. 3절에서 언급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은 1절에서 언급된 “부르심을 받은 일” 에 연결된다. 성령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 진노의 자식들을, 곧 인간과 인간 사이에 피차 원수 되었던 자들을 구원의 축복으로 부르시고,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시고, 우리가 범한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믿는바 신앙의 내용을 고백케 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자와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교에로 개종하게 하시고 교회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려고 칙례를 받게 하시고, 장차 받을 모든 하나님나라에서의 특권을 보증하시고 인감을 찍으시고 맛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한 가족 곧 형제와 자매가 되게 하신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

여 하나님의 가족을 찢거나 갈라놓는 일이 없도록 힘써 노력해야 한다.

4-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는 우리가 왜 하나가 되고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다. 하나 됨은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이자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나라의 시민권자와 상속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의 때는 줄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교회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성도들이 받은 약속과 희망도 하나이고, 그 약속과 희망을 보증하시는 성령님도 한분이시고, 주님도 한분이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도 하나이고, 침례도 하나이고, 하나님도 한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어떤 것도 찢어지거나 갈라질 수 없는 것들이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에베소 주화(AD 81-96)
 전면에 도미티아누스의 두상을 둘러싸고 IMP CAESAR DOMITIANVS
 AVG P M COS VIII(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 도미티아누스 아우구스투스
 대신관 집정관 8회)라고 새겼다. 뒷면에는 로마 군단기들을 새겼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10절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분량에 대해서 바울은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장로)와 교사로 삼으셨다.” 는 말씀에서 이어갔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교회공동체의 지도자들로 세우신 목적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 으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려는데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셨다고 증언

하면서 8-10절에서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 하였다.

8절에서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는 시편 68편 18절의 일부분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셨다.” 를 인용한 것이다. 시편의 이 구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전장에 나가 싸워 승리한 황제가 전쟁포로들을 대동하고 개선하여 옥좌에 오르는 모습과 이웃나라들로부터, 심지어 적국들로부터도, 공물을 받고 통치하는 모습에 빗대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시편구절을 문자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음부(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고, 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며, 이로써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해방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뜻으로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교리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그리스도의 이 같은 사역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막힌 담을 허시고 한 몸으로 통합(화해)시킴으로써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 것이었다.

밝혀진 비밀2: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2)(엡 4:11-16)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다.”



에베소의 대주교 시어도르의 인장(7-8세기)

전면에 에베소에서 생애를 마친 사도 요한을 작은 십자가들 사이에 새겼다. 사도 요한이 왼손에 복음서를 가슴에 안고, 오른손으로 강복하는 모습을 새겼다. 뒷면에는 “시어도르, 에베소의 대주교”라고 새겼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에베소에서 4장 11절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장로)와 교사로 삼으셨다” 고 하였다.

이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는 2장 20절에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고 언급된바와 같이 한 몸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기초이다. 여기서 기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말한다. 교회는 하나뿐이므로 그 교회가 세워진 기초도 하나뿐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자 머리이시며, 기초를 놓는 기준이 되는 네 모퉁이 돌이시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한 더 이상의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고, 또 더 이상의 다른 사도나 선지자가 있을 수 없다. 이는 예수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전한 전통 외에 다른 가르침이나 전통은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 보낸 서신들에서 “배운 것”이란 말과 “전한 것”이란 말을 여러 차례 썼다. 복음의 말씀을 누구한테서 배웠는가와 누가 전하였는가가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께 배워서 사도들이 전한 것이 복음의 올바른 계보요 전통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9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 하였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도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

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하였다. 사도 요한도, 사도의 가르침 이외의 것을 가르치는 자를 일컬어, 거짓선지자요,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하였다.

1세기 그리스도교 상황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었다. 반면에 목사와 교사들은 지역교회에서 뽑혀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들을 말한다. “목사와 교사”로 번역된 헬라이어 ‘poimen’ 과 ‘didaskalos’ 는 양을 치는 목자와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다. 이 두 직책이 오늘날의 목사에게 해당될 수 있으나 종교개혁이전에는 목사라는 직책이 없었으므로 전통적으로는 장로(4세기이후 사제)의 직책이었다.

“그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에베소의 대주교 테오필로스의 인장(8-9세기)

전면에 에베소에서 생애를 마친 사도 요한이 왼손에 복음서를 가슴에 안고 오른손으로 강변하는 모습을 새겼고, “성인 요한이시여, 도우소서.”라고 새겼다. 뒷면에는 “테오필로스, 에베소의 대주교”라고 새겼다. 이 인장은 당대의 성인공경과 성인에게 바치는 기도 관습을 보여주며, 에베소 교회들이 교회개혁자인 바울보다는 성모 마리아를 모신 요한을 수호성인으로 모셨다는 증거이다.

신구약시대 모두 유대교회당에는 설교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회당은 유대인들의 기도회 장소이자, 교육을 펼치는 학교였으며, 종교재판이 열리는 공회였다. 이 회당의 최고 책임자들을 회당장이라 불렀는데, 세 사람이었으며, 모두 장로들이었다.

마을은 회회를 세운 후 양떼의 목자와 감독자로 장로들을 세웠는데, 그 숫자가 셋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언급된 목사와 교사들이었다.

지역교회가 각자의 장로(감독)들의 사목을 전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같은 떠돌이 복음전도자 시대가 끝난 1세기말부터였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교가 392년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고, 성체신학(Mass)의 발전으로 장로들을 사제(제사장)로 호칭하게 되었고, 사제(장로) 밑에 부제(집사), 사제위에 주교(감독), 주교위에 대주교, 그 위에 가톨릭에서는 추기경(Cardinal)과 교황(Pope)의 직제가 생겼으며, 정교회에서는 총대주교(總大主教, Patriarch)가 생겼다. 따라서 목사라는 호칭은 가톨릭교회, 정교회, 성공회, 미국 감리교 등에는 없는 직책이다. 당연히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도 없는 직책이다. 이들 전통교회들에서는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가 없었고, 특히 가톨릭교회에서는 1400여 년간 라틴어 성경과 라틴어 미사만 허용되었으므로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신자들 때문에) 설교자는 물론 대표기도자도 없었다.

마을은 회회를 세운 후

16세기에 이르러 가톨릭교회 사제들이었던 마르틴 루터, 울리히 츠빙글리, 장 칼뱅, 마르틴 부처가 사제(priest)라는 호칭을 버리고 대신에 목자(목사, pastor)를 사용했고, 장 칼뱅과 존 녹스가 평신도 장로대의제도를 개혁주의 교회들에 도입함으로써 생긴 것이 임기 1년의 평신도 선출직 장로들이었다. 이때부터 개신교에서는 목사와 장로가 나뉘게 되었고, 목사가 장로인가 혹은 장로가 아닌가라는 논쟁이 불거졌다. 종교개혁으로 생긴 개신교 역시 모두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가 허락되지 아니한 시의회교회 또는 국가교회체제였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개인에게 신앙의 자유가 허락된 곳은 신대륙 미국이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이었고(행 11:30), 장로 야고보가 그들의 수장이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개척한 교회들에 장로들을 뽑아 지도자로 세웠고(행 14:23), 디모데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며(딤후 4:14),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석별의 정을 나눴다(행 20:17). 이때 바울은 그들을 감독과 목자로 호칭하였다(행 20:28).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언급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은 치리장로(감독)들을 말하고, 권하는 자들은 설교장로들을 말한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다” 고 하였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에베소의 대주교 그레고리의 인상(9세기)

전면에 에베소에서 생애를 마친 사도 요한이 왼손에 복음서를 가슴에 안고 오른손으로 강복하는 모습을 새겼고, “신학자여, 당신의 몸을 도우소서.” 라고 새겼다. 뒷면에는 “그레고리, 에베소의 대주교”라고 새겼다. 이 인상은 당대의 성인경과 성인께 바치는 기도 관습을 보여주며, 에베소 교회들이 교회개혁자인 바울보다는 성모 마리아를 모신 요한을 수호성인으로 모셨다는 증거이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고 교회에 일군들을 세우신 목적을 말한다. 바울은 그 목적을 세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라고 하였다. 여기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는 문자적으로 “성도들의 준비를 향하여” 라는 뜻이다. 이것은 마치 어부가 고기잡이를 나가기 전에 찢어진 그물을 잡고 수선하는 것과 같고, 건축가가 완성도 높은 집을 짓기 위하여 부족한 실력을 연마하는 것과 같아

서 교회의 일꾼들이 성도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 바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의 일꾼들은 코치나 감독과 같아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도록” 훈련시키는 자들인 것이다.

둘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라고 하였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고 하였다. 이것은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것이나 또 일꾼들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나 또 준비된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의 목적에 해당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13-14절에서 설명하였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이다. 또 그것은 우리가 성장을 멈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지지 않는 것이며,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는 것인가? 그리스도께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셨다.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통합하게 하시고, 사람들끼리도 연합시키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셨다. 이 높은 경지의 성숙함, 이 깊은 차원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15-16절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고 했고, 또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역할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듯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 같은 방식으로 사랑으로 공동체를 완성시켜 나간다.” 고 했다.

밝혀진 비밀3: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3)(엡 4:17-32)

“너희는 이방인이...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중앙에 에베소의 여신 아테미와 좌우에 아테미의 성스러운 사슴 두 마리가 아테미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과 상단 둘레에 DIANA EPHESIA라고 새긴 에베소 주화

바울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에 대해서 말하였다. 바울은 17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에베소교회 성도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한다.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유물들, 조각상, 부조(relief), 프레스코화(fresco), 주화(coin), 도기화(red-figure, black-figure) 등을 살펴볼 때, 그리스로마신화들이 당대

의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녹아들어 있었는지를 볼 수 있다. 그들은 3만이 넘는 신들을 믿었고, 올림포스의 주신들만 해도 12신이나 되었다. 주신인 제우스(유피테르)의 경우 천하에 둘도 없는 난봉꾼이었다. 이성간 간통, 동성간 간통, 수단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아폴론만 해도 자신은 늘 동애자들이 선호할만한, 요즘의 십대 아이돌형상처럼, 미소년으로 조각이 되었고, 실제로도 히아킨토스(히아신스)를 사랑했던 동성애자이기도 했다. 그들이 섬기는 또는 그들의 삶이 투영된 신들의 형편이 이렇다보니 당대의 그리스로마인들은, 디오니소스(바쿠스)제전의 오르지(orgy)에서 보듯이, 성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었다. 근친상간, 동성애, 매춘이 성행했고, 여성들도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라면 남편이나 연인 갈아타기를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로마시대에는 노예의 숫자가 전체인구 6천만 명 가운데 15퍼센트인 9백만 명에 달했는데, 이들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이들 노예들은 조선시대의 노비와는 다르게 대부분이 전쟁 때 사로잡힌 포로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의사, 변호사, 교사와 같은 고급인력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의 몸값 또한 매우 높았다. 그러나 그들은 주인이 겁탈하면 겁탈당하고, 때

리면 맞고, 굼기면 굼고, 가두면 갇혀야했던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불행한 사람들이었다. 매춘이 성행했던 이 당시 몸을 파는 여성의 대다수는 노예들이었는데, 주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사람들 곧 참 신 야훼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의 삶은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었던 것만큼이나 그들의 삶도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었다. 이것이 바울이 17-19절에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고 권면한 배경이다. 바울은 그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았고, 무지와 완고함으로 살았으며, 지각이 어둡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으며, 수치심을 잃었고, 방탕한 삶에 자신들을 내맡겼으며, 탐욕과 모든 더러운 일들을 행하였다고 진술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중앙에 에베소스의 여신 아테미스를
둘러싸고 DIANA EPHESIA라고 새긴 에베소 주화

반면에 바울은 20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고 했다. 참 신이신 야훼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당대의 사람들이 섬기던 3만이 넘는 거짓 신들과는 근본이 다르다는 것을 배웠다. 헬라의 신들은 능력을 행하고 죽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상당수가 인간들보다 훨씬 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었다. 그 때문에 다수의 헬라인들은 참 신(神)에 대한 갈망이 컸다. 그들은 헛된 신들에 환멸을 느꼈고, 유대교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유

일신 야훼 하나님에 큰 반응을 보였다. 큰 무리의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조차 ‘하나님 경외자’ (문의 개종자)의 신분으로 회당기도회에 참석하였다. 게다가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교 복음은 디오니소스(바쿠스)제전이 제공한 본능적 원시적 성적 에너지의 발산과 쾌락이 채워주지 못했던, 또 카비루스신앙과 황제숭배신앙이 채워주지 못했던, 심지어 유대교조차 채워주지 못했던 헬라인들의 영적 목마름을 해소시켜주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21절에서 “예수 안에 진리가 있다.” 고 했다. 이 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하는 진리이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진리로 하나님을 알며, 예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새 생명을 얻는다. 따라서 성도들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빌 4:9)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

바울은 또 22-24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 했다. 이것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합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미 앞서 쓴 서신들에서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한바가 있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9-26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고 권면하였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오니아식 4개 기둥의 신전 중앙에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를 좌우에 DIANA를 하단에 EPHESIA라고 새긴 에베소 주화

그러면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25-32절이다.

첫째, 거짓을 버려야 한다. 둘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셋째,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질 때까지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말아야 한다. 넷째,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도둑질하던 사람은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빈곤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생기도록 수고하

여 제 손으로 떳떳하게 벌어야한다. 여섯째,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한다. 일곱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약정서에 도장 찍으시고 보증하시는 분이므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여덟째,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려야한다. 아홉째, 서로에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용서하신 것같이 서로 용서해야한다.

아들이 없는 어느 임금이 대궐 밖을 암행하다가 다리 밑에서 잠자는 거지 아이를 보고 데리고 와서 양자를 삼았다. 거지 아이는 임금의 호의로 왕자가 되었다. 저녁이 되자 새 왕자는 대궐 밖으로 나가려 했다. 신하들이 만류하자 그는 “나는 본래 거지라서 내 잠자리는 다리 밑에 있다.” 고 말했다. 새 왕자는 아침이 되자 또다시 대궐 밖 강가로 나가려 했다. 신하들이 만류하자 그는 “나는 본래 거지라서 내가 세수할 곳은 저 강가다.” 고 말했다. 그가 이처럼 행동한 것은 그가 아직 왕자신분이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왕자다. 그러니 왕자답게 살자.’ 는 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신분이 바꿨다는 인식이 분명할 때 생활방식이 바뀔 수 있다. 인식이 바뀌야 행동이 바뀔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들이다. 하나님의 명품 자녀들이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들이요 공주들이다. 왕자에게는 왕자에 어울리는 옷맵시가 있고, 말씨가 있으며, 걸음걸이가 있다. 공주에게는 공주에 어울리는 옷맵시가 있고, 말씨가 있으며, 걸음걸이가 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면, 삶이 바뀔 수 없고, 운명이 바뀔 수가 없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 하였다.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들이다(2:10).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한다.”

밝혀진 비밀4: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4)(엡 5:1-7)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침례탕(에베소의 성 요한 기념교회 경내)

에베소서 5장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진노의 자식에서 명품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에 관한 말씀이다. 바울의 권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기초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방식과 삶의 방식의 표준(잣대)이다.

첫째,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1절에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고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

의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하나님의 인격성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셨고 또 그렇게 대우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인간이 조종당하는 기계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래서 인간에게만은 다른 동물들이 갖지 못한 이성과 인성을 주셨다. 이런 것들은 본래 하나님만의 특권이었는데, 그것들을 기꺼이 인간에게 나눠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권을 스스로 제한하시고 포기하시면서 그것들을 인간과 공유하기를 원하셨다. 이성과 인성을 가진 인간들이 끊임없이 배신하고 도전하고 모독할 것을 아시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하셨다. 이런 하나님의 나눔의 정신, 희생의 정신, 하나님의 고품격의 인격성을 본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인간들에게 빚어진 일들은 비극적이었다. 마치 나이 어린 초보운전자가 혼자서 갖 뺨 아버지의 새 차를 몰고 나가 크게 사고를

내어 차도 망가뜨리고, 사람도 다치게 한 것처럼 만신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운전자 부모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사고를 수습하고 다친 사람들을 치료받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망쳐놓은 일들,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좌충우돌하여 망가진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으신다. 책임을 저주신다. 인간의 비극을 당신의 비극으로 끌어안으신다. 인간의 불행을 당신의 불행으로 끌어안으신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친히 하나님께서 치르신다. 그 대신 우리 자녀들에게는 병든 곳을 고치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다. 이런 큰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도 요한의 무덤(에베소의 성 요한 기념교회 경내)

둘째,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고 하였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이다. 그러

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순종과 헌신과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다. 본래 하나님의 신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를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신 후에는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약자들의 편을 드셨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셨다.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을 쓰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제물이 되셨다.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를 위해 외아들의 신분을 포기하고 맏아들이 되셨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외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이다.

셋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합당한 일을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3절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다.” 고 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 되기를 힘쓰는 것,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는 것, 모든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 이방인처럼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썩어 없어질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을 입는 것, 거짓을 버리는 것,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하는 것, 화를 내더라도 죄는 짓지 않는 것, 악마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것, 많이 벌어서 궁핍한 자들을 돕는 것,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않고, 덕을 세우며, 은혜를 끼치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과 모든 악의를 버리는 것,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것, 음행과 모든 더러운 행위와 탐욕을 그 이름조차 입에 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일들이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가의 무덤 근처(에베소)

넷째, 감사에 찬 말을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고 하였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감사는 마치

우측 대리석 기둥에 십자가와 누가의 상징인 항소가 복조되어 있다.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의 물과 같다는 말들을 한다. 소싯적에는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었고, 두레박을 이용해서 물을 길러 마셨다. 그러다가 생긴 것이 펌프였다. 펌프의 경우, 자주 사용하다보면, 고무과킹이 쉽게 닳아져 펌프에 물이 고여 있지 못하고 밑으로 빠져버리는 일이 자주 생긴다. 그래서 다음 펌프질을 위해서 물통을 펌프 곁에 놓아두고 물을 담아둔다. 물 빠진 펌프에 부어줄 한 바가지의 물이 없다면 샘에 아무리 많은 물이 고여 있어도 물을 길러 먹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한 바가지의 물만 있다면, 그 물로 인해서 찰찰 넘치는 물을 품어 올릴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찬 한마디 말은 넘쳐나는 복들을 길어 올

넷째, 감사에 찬 말을 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4절에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고 하였다.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감사는 마치

릴 수 있는 바로 그 한 바가지의 물과 같은 힘을 지닌다.

감사에 찬 말은 황금알을 낳는 투자금과 같다. 석상에 불과했던 갈라테이아가 피그말리온의 경건한 믿음과 감사에 찬 말 덕분에 아름다운 여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감사에 찬 말이 갖는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거룩한 뜻이다. 그러므로 헛된 말을 하지도 말고, 헛된 말에 속지도 말고, 또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라는 것이다.

바울은 5절에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고 했는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와 갈라디아서에서도 동일한 경고를 한바가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고 하였다. 또 바울은 6-7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 하였다.

밝혀진 비밀5: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5)(엡 5:8-18)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항제 기아고우페스(Giagoupes) 가족의 인상, 12세기
 전면에 MHP-ΘV(하나님의 모친)이라 새긴 글자 사이에 그리스도상이
 매달린 목걸이를 한 채 양손을 들어 강복하는 동정녀 마리아를 새겼다.
 뒷면에는 +Θ(EOTO)KE BOHΘEI TW CW ΔOVΛW
 ΓI AΓOVΠH(하나님의 모친이시여, 당신의 중, 기아고우페스를
 도우소서.)라고 새겼다. 성모흡수와 성모께 바치는 기도 관습을 보여준다.

에베소서 5장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진노의 자식에서 명품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에 관한 말씀으로써 8-18절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에 관한 말씀이다.

다섯째, 빛의 자녀답게 사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8-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고 하였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다. 깊은 동굴 속 어둠의 세계에서 족쇄로 표현된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일, 죽임의 생각과 죽임의 일에 묶인 삶을 살던 자가 지혜의 도움을 받아 족쇄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찬란한 빛의 세계로 빠져나온 다음에도 만약에 그가 동굴 속에서의 폐쇄적 사고와 행동패턴을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고 했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고 하였다.

빛의 자녀가 해야 할 일은 빛의 생각과 빛의 일, 살림의 생각과 살림의 일, 기적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말과 창조적인 일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도 빛의 생각과 빛의 일이었고 살림의 생각과 살림의 일이었으며 기적을 만드는 창조적인 말과 창조적인 일이었다. 화초를 키워보면, 남향과 양지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남향과 양지가 식물의 성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양지로 이끌어내는 일, 그것이 빛의 일이고 살림의 일

이고 기적을 만드는 일이다. 어둠에서 빠져나온 우리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생각이고 일이다. 소외된 이웃에게,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을 옥죄는 족쇄를 풀어주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끄집어내주는 일이 빛의 자녀들의 일이고 살림의 일이고 기적을 만드는 일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10-14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다.” 고 하였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에베소의 성모 마리아의 유적지
주후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성모 마리아는 사도 요한과 함께 에베소로 이주하여 죽을 때까지 이 집에서 머물렀다고 전한다.

여섯째, 지혜롭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15-18절에서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했다. 이 말씀은 빛의 자녀답게 빛의 생각과 빛의 일, 살림의 생각과 살림의 일, 기적을 만드는 창조적인 말과 창조적인 일을 둘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 조심스럽게 행하고 어둠의 생각과 어둠의 일을 하지 말라는 권면이다.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시간을 확보하라.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다.”는 뜻이다. 여기서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kairos)로써 ‘정해진 시간’ 또는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주어진 시간을 잘 쓰라’ 또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뜻이다. 그 이유를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고 하였다. 여기서 “때가 악하다.”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정해진 시간의 긴급성 곧 임박한 종말을 뜻한다. 둘째는 지금은 정한 시간까지 일

시적으로 어둠(음부)의 권세가 지배하는 시기란 뜻이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고 하였다.

일곱째, 성령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 하였다. 이 말씀은 성령님에 의해서 가득 채워지라는 뜻이다. 꽃꽂이용 스펀지가 물에 충분히 젖어 있어 꽃의 수명을 연장하듯이, 충전용 배터리가 전력이 충만하여 힘차게 기계를 돌리듯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 하라는 말씀이다.

성령 충만의 경험은 반복적이다. 출생은 한 번뿐이지만 생일은 반복되듯이, 성령세례는 구원 받을 때 은혜의 선물로 단 한 번만 받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다. 거듭남은 한 번뿐이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다. 성령 충만은 온돌방에 불을 넣듯이, 화분에 물을 주듯이,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반복적이다. 말라비틀어진 스펀지처럼 메마른 영혼이 돼서는 안 된다. 방전된 배터리처럼 무력한 영혼이 돼서는 안 된다. 시든 초목처럼 메마른 영혼이 돼서는 안 된다. 냉랭한 온돌방처럼 차가운 영혼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불을 반복해서 지펴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생수가 반복해서 넘쳐흐르게 해야 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고대 에베소의 주택 벽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대로 성령님을 소멸치 않는 것이다. 성령님을 소멸하는 것은 방문을 열어 놓아 온기를 빼는 것과 같다. 물 꼭지를 열어 놓아 식수를 흘리는 것과 같다. 자동차의 미등

을 켜놓아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 가슴에 냉기가 돌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슴을 메마르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이 방전된 배터리처럼 힘없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의 불을 지펴 냉가슴을 데워야 한다. 메마른 가슴에 성령님의 생수를 채워야 한다. 성령님의 능력을 충전하여 힘차게 살아가야 한다. 방을 따뜻하게 데우듯이, 통에 물을 채우듯이, 배터리를 충전시키듯이, 메마른 화분에 물을 주듯이, 끊임없이 기도

와 찬양으로 보충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은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는 보증금이며 인감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를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롬 8:26),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롬 8:27),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말을 지어 주신다(롬 8:28). 우리가 성령님의 이와 같은 일들을 거절할 때, 구원은 점차 멀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성령님은 근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 조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좇아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23절은 우리가 성령님을 좇아 행하면, 성령님을 거슬리는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한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좇아 살아야 한다. 탱크에 기름이 채워져 있어야 기계를 돌릴 수 있듯이 성령님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려고 하면 실패하고 만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림의 일, 빛의 일을 하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일을 행하는 것, 감사가 넘치는 말들을 하는 것,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것,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 등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 부지런히 기도하고 찬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령 충만하면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

밝혀진 비밀6: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6)(엡 5:19-21)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고대 그리스의 현악기 키타라를 연주하는 도자기 그림

에베소서 5장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진노의 자식에서 명품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에 관한 말씀으로써 19-21절은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에 관한 말씀이다.

여덟째,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19절 상반에서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고 하였다.

시편은 히브리어 성서의 성문서(Ketuvim) 가운데 첫 번째에 배열된 다섯권의 찬양시집이다. 유대인들은 성전예배와 회당기도회 때는 물론이고 일상에서 겪는 희로애락을 표현하고자 할 때 시편을 찬양한다.

시편은 성전예배 때에 불렀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미문 안쪽 성전 영내의 여성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로 오르는 15계단을 오를 때 혹은 그 계단에 도달한 찬양대가 부른 노래)인 시편 120-134편이 대표적이다. 탈무드는 시편이 주 단위로 나뉘어져 성전에서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시편은 회당기도회 때에 불린다. 아침기도회(Shacharit) 때 ‘페수케이 드 지프라’ (Pesukei d’Zimra, ‘노래 구절들’)란 이름으로 시편들과 시편에서 선별된 구절들이 불린다. 매일의 아침기도회 끝에는 ‘아쉬레이’ (Ashrei, 시편 145편)가 불리고, 안식일과 축일 아침기도회 직후에 바치는 추가 의식인 ‘무사프’ (Musaf) 끝에도 시편들과 찬양들이 불린다. 또 금요일 저녁기도회(Kabbalat Shabbat)는 찬양들(예: Lecha Dodi), 시편들, 베라코트(“복 받으시옵소서”로 시작되는 기도문들)로 시작되는데, 이때 시편 95-99, 29, 92-93편이 불린다. 안식일 기도회 때 토라읽기를 위해 법궤에서 토라두루마

리를 꺼낸 직후 회중석을 돌아다니는 행진이 있는데 이때 시편 34편과 99편의 구절들이 불리고, 토라읽기를 마친 후 토라두루마리를 법궤로 가져갈 때 시편 29편이 불린다.

시편은 매일 혹은 축일 때에도 불린다. 안식일과 축일 때 식사 후 베라카(Birkat Hamazon, 음식의 축복)를 낭송하기 전에 시편 126편이 불리고, 평일에는 시편 137편이 불린다. 특히 축일 때는 할렐(Hallel)을 구성하는 시편 113-118(136)편이 불린다. 이밖에도 유대인들은 고통당할 때, 병들었을 때, 위안과 영감을 받는 원천으로써 시편을 찬양한다. 놀림과 궁핍을 당할 때 시편 12편이 불리고, 마음이 상하여 근심에 쌓일 때 시편 102편이 불린다. 반대로 창조세계에 대한 기쁨과 경이로움을 표현하고자 할 때 시편 8편과 19편이 불린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수금(Lyra)과 플룻(Aulos) 연주

아홉째,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19절 하반에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고 하였다.

쌍둥이 서신으로 알려진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은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 때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불렸음을 보여준다. 에베소서 5장 19절은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고 하였고, 골로새서 3장 16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고 하였다. 특히 에베소서 5장 19절에 담긴 “서로 화답하며”는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 때 시편이 낭송되거나 교독되었음을 보여준다. 또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란 구절은 유대인들이 회당기도회 때 읽었던 성구와 찬양했던 시편에 관련이 있다.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54개로 쪼개 읽었던 ‘토라’(Torah)와 ‘하프타라’(Haftarah)를 말한다. ‘토라’는 모세오경을, ‘하프타라’에는 역대기서가 제외된 역사서들과 예언서들이 포함된다. 주

3회 곧 안식일, 월요일, 목요일 아침기도회 때 읽히는 토라는 54개로 쪼개져 일 년에 한 차례 완독되지만, 하프타라는 해당 주 요일에 읽히는 토라와 관련이 있는 선별된 구절들만 읽힌다. 예수님께서 토라와 하프타라와 함께 시편까지 언급하셨던 것은 유대인들이 성전예배와 회당기도회 때 시편을 낭송했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은 구약성서 전체는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매주 읽는 토라와 하프타라 및 기도회와 축일 때 부른 시편들만큼은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누가복음에 시편까지 언급된 것은 초기 그리스도교 예배 때 시편이 불렀던 정황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반면에 에베소서 5장과 골로새서 3장에 언급된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에는 악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예루살렘 멸망이후 유대교 특히 정통파에서는 안식일에 악기 사용을 금하고 있다. 미사 때 악기를 사용해온 가톨릭교회에서조차 토마스 아퀴나스(1225-74)를 비롯하여 다수의 신학자들이 미사 때 오르간 사용에 반대하였다. 희랍정교회와 러시아정교회에서도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북미주 개혁주의 장로교회들과 스코틀랜드의 일부 개혁교회들에서도 예배 때 악기 사용을 금한다. 칼뱅과 녹스 전통의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서>에 의하면, 예배용 찬송으로 시편에 고유한 운율을 사용하여 불렀고, 악기의 사용은 금하였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고대 그리스 악기들

열째,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20-21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고 하였다.

16세기 종교개혁가들 가운데 독일교회 마르틴 루터를 제외한 개혁주의 교회들의 울리히 츠빙글리, 하인리히 불링거, 장 칼뱅, 녹스 등이 공적 예배에서 오르간이나 악기 사용에 반대하였다.

1800년대 중후반 미국교회들에서 예배 때 오르간을 사용해도 좋은가라는 논쟁이 불거졌을 때 보수성향이 강한 미국 남부지역들, 특히 텍사스 주와 테네시 주 등에 1만개 이상의 크고 작은 그리스도의 교회들(the Churches of Christ)에서는 공적 예배에서 악기를 사용하지 않던 개혁주의 노선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에 장로교회들, 침례교회들, 그리스도인의 교회들(the Christian Churches)에서는 오히려 오르간 사용을 받아들였다.

바젤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마친 츠빙글리는 1506년 20세에 가톨릭교회 사제가 되었고, 1518년까지 교구 사제를 지냈다. 이후 츠빙글리는 개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대성당의 아이콘들과 사제복을 없앴고, 오르간을 성당 마당으로 끌어내 부숴버렸다. 츠빙글리는 19-20절의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를 이어지는 구절,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의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개혁주의 전통으로 자리를 잡았고, 재세례파도 동일한 견해를 견지하였다. 예를 들어 츠빙글리의 후계자인 하인리히 불링거(Heinrich Bullinger, 1504-1575)는 “교회에 있는 오르간은 특별히 오래된 전통이 아니다. 그들이 사도시대의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성당에 있는 오르간들은 올해 1517[1527?]년 12월 9일에 모두 부수어졌다. 이후로 누구도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이나 오르간 연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환원 운동의 뿌리>(백종구, 서요한 공역, 51, 55).

성희찬 목사는 ‘공예배에서 악기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글에서 칼뱅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기 위해 탭버린이나 여러 악기를 사용한 것은 참된 예배의 한 요소로서 그림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예배 시의 악기는 오직 구약시대 즉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봉사하는 시대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신약시대의 예배에서 이러한 음악 악기를 다시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나타난 빛을 다시 어둡게 하고 여기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이라고 하였다.”고 했다.

밝혀진 비밀7: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7)(엡 5:22-33)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화덕(불씨)을 지키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여신 헤스티아(Estia, 그리스 우포, 1986년). 로마에서는 베스타(Vesta)로 불렸다. 헬라어로 헤스티아는 집, 가정, 신전을 뜻하며, 동사 헤스티아오(estiao)는 성찬을 베푼다. 대접하다, 즐겁게 하다는 뜻을 갖는다.

에베소서 5장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진노의 자식에서 명품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에 관한 말씀으로써 22-33절은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에 관한 말씀이다. 이들은 아내와 남편에 관한 권면으로써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에 연결된다. 여기서 복종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듯이 강요되거나 한 방향 복종이 아니라 쌍방향 복종으로써 지배개념 상하개념의 복종이 아니라 봉사개념 평등개념의 복종을 말한다.

열한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22-24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고 하였다. 바울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아내의 복종은 마음에서 우러난 감사와 자발적 섬김을 말하고, 그 출발이 가정을 세우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남편의 헌신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는 자기 몸을 희생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구성원들을 살리신 구주이시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집을 헬라어로 헤스티아(Estia)라고 하는데, 이 말의 동사 헤스티아오(estiao)는 성찬을 베푼다. 대접하다. 즐겁게 하다는 뜻이다. 그리스신화

에서 헤스티아는 화덕(불씨)을 지키고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여신이다. 로마에서는 베스타(Vesta)로 불렸다. 성냥이나 라이터가 없던 시대에는 어느 지역에서나 불씨를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많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집안 밖의 공적 행사 때 최고신인 제우스보다 그의 누나인 헤스티아에게 먼저 제물을 바쳤다고 한다. 가정 파괴범으로 볼 수 있는 제우스보다는 가정과 화덕을 지키는 헤스티아를 더 소중한 신으로 여겼던 것이다. 헤스티아는 정절과 평화를 지키는 신이기도 하다. 헤스티아는 아테나, 아르테미스와 함께 동정을 지킨 신으로서 분쟁과 다툼을 끊어버리는 평화주의자이기도 하다. 가정주부로 말하자면, 현모양처인 셈이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북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가이우스 볼루니우스(Gaius volumnius)와 그의 아내의 무덤 비석(AD 1-50, 독일 베를린의 Altes 박물관 소장)

열둘째,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25-28절에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이 말씀은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고 한 말씀에 연결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있음을 말한다. 바울의 권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기초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방식과 삶의 방식의 표준(잣대)이다. 이는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영웅전>을 쓴 플루타르크(Plutarch, AD 45-120)의 결혼과 부부생활에 관한 견해에 비춰볼 때 얼마나 파격적인가를 알 수 있다. 플루타르크는 남편을 부인의 결정권자와 통치자로 부각하

열둘째,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25-28절에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이 말씀은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고 한 말씀에 연결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은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있음을 말한다. 바울의 권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기초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방식과 삶의 방식의 표준(잣대)이다. 이는 바울과 동시대를 살았던 <영웅전>을 쓴 플루타르크(Plutarch, AD 45-120)의 결혼과 부부생활에 관한 견해에 비춰볼 때 얼마나 파격적인가를 알 수 있다. 플루타르크는 남편을 부인의 결정권자와 통치자로 부각하

였고, 부인은 남편에게 상냥하고 순종적이어야 하며, 부부생활에서 부인이 여주인처럼 남편을 주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충고하였다.

로마시대에 여성들은 결혼하거나 누군가의 이윤을 위해 성적갈취를 당할 운명이었다. 수입이 짝짤한 매춘의 유혹은 노예주인은 물론이고, 가난한 자유인 여성과 가정에게도 뿌리치기 어려운 것이었다. 남녀 매춘부 대부분은 생사여탈권을 쥔 노예주인과 가정에 의해서 강요되었다. 그 당시 매춘은 세금을 내는 합법적인 행위였다. 그러나 매춘부들은 주인이나 포주들에게 수입의 대부분을 빼앗겼고, 더러는 악랄한 착취와 학대를 견디지 못해 유명을 달리했지만, 더러는 돈을 모아 해방노예가 되거나 포주가 되기도 했다. 1세기 말엽 폼페이시민 1퍼센트는 매춘부였다고 한다. 이 시대에 남자들은 정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지만, 남자들끼리의 관계를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겼고, 매춘부를 찾는 행위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아내들에게는 정절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었고, 남편에게 충실했어야 했다.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



에트루리아의 도시국가였던 이탈리아 중부 라치오(Lazio) 지방에서 발굴된 석관에 복조된 부부(주전 4-3세기경, Etruscan 박물관)

열셋째, 부부가 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것이다. 바울은 29-33절에서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고 하였다. 이 말씀의 뜻은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지극정성으로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핀다는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고 하였다. 이 말씀의 뜻은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이 지극정성으로 자기 몸을 가꾸고 보살핀다는

것이다.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는 뜻인데, 이는 앞뒤 구절 곧 29절과 31절 모두에 연결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이란 말에는 ‘하나’ 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29절과의 연결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헌신적으로 가꾸시고 보살피신다는 뜻이 되고, 자연스럽게 가장은 가정(교회)의 구성원들을 가꾸고 보살피는 자란 뜻이 된다. 31절과의 연결에서는 우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 결혼하여 그 둘이 한 몸(육체)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라는 것에 연결되고, 4장 3-6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에도 연결된다. 바울은 이를 일컬어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이드라인(표준)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방식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는 방식을 부부관계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뜻이다. 이 본보기에 따라서 바울은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고 하였다.

밝혀진 비밀8: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8)(엡 6:1-4)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로마인 가족 석비(AD 2-3세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 박물관 소장)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고 하였다.

“주 안에서” 라고 한 것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을 말한다. 예수님은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라고 하셨다. 따라서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4절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진노의 자식에서 명품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나라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에 관한 말씀으로써 열네 번째와 열다섯 번째에 관한 말씀이다.

열넷째,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1-3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에 연결된다. 또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를 인용한 것이다 또 이 계명은 인간관계의 첫 계명이다. 십계명 가운데 1-4계명은 하나님관계의 계명들이고, 5-10계명은 인간관계의 계명들이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평화로운 가족의 모습이 복조된 고대 로마인 석비

열다섯째, 아버들은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4절에서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제2의 경전으로 취급

하는 탈무드에도 “자녀에게 겁을 주지 마라, 벌을 주든지 용서하든지 하라”(Semahot 2:6)는 내용이 있다. 또 “어머니들은 모름지기 그의 자녀들에게 토라를 가르쳐야 한다”(Exodus Rabbah 28:2)는 구절도 있다. 또 “집안에 화(anger)가 있는 것은 과일 안에 부패가 있는 것과 똑같다”(Talmud Sotah 3b)는 말도 있다.

그리스 로마시대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녀들은 노예와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식구들을 엄하게 지도할 권세와 성적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 그리스 로마인들의 아버지의 근본은 제우스였는데, 제우스는 부도덕한 호색한이요 독재자였다. 반면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의 근본은 야훼이신데, 야훼는 좋으신(토브) 하나님, 인자(헤세드)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에게 아버지는 식구들의 제사장이요 랍비이며 하나님의 계명(토라)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신앙인이다. 유대인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식탁은 제단이다. 그런 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다.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을 바탕에 깔고 이방인들 아버지들에게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였다.

유대인의 가정은 예배하고 기도문을 낭송하는 성소이자, 배움이 있는 도서관이다. 그들은 쉘마(Shema)와 쉘모네 에스레이(Shemoneh Esrei)를 비롯해서 일상의 계명을 이행하거나 특별한 때를 포함하여 하루에 100개 이상의 기도문(berakhot)을 낭송한다.

유대인의 가정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강론하고, 모범을 보이며,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성소이다. 기도시간에 트필린(tefilin)이라 불리는 작은 말씀상자를 만들어 끈으로 그들의 손과 이마에 붙들어 매고, 메주자(meuzah)라 불리는 칼집형태의 말씀상자를 집안 문설주에 부착해 놓고 집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마다 세 번씩 입을 맞추며, 하나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기도용 보자기(tallit)와 겔옷에 옷술(tzitzit)을 매단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테나인 가족이 그려진 적화도기 암포라의 앞뒷면
완전무장한 군인이 전장터로 떠나기 전에 가족과 석방의 정을 나누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악수를 하는 남자는 이 군인의 부친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들에게 헌주할 제주병과 잔을 들고 선 여자는 이 군인의 모친이었거나 아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신성시한다. 안식일마다 식탁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매년 돌아오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비롯하여 꽤 많은 축일들을 반드시 지킨다. 유대인들의 자녀들은 이 축일들을 통해서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깨우치며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다.

아이는 유대인들에게 축복의 선물이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원죄개념을 거부한다. 유대인들의 가족 간의 끈끈한 유대감은 그들의 이름에서 나타난다. 히브리어 이름의 표준 형태는 아이의 이름 다음에 아버지 이름을 붙여 ‘~의 아들’ 혹은 ‘~의 딸’ 이라고 짓는다. 심지어 독일, 폴란드, 러시아계의 유대인들 곧 아쉬케나지 유대인들은 최근 작고한 친척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으로 준다.

할례의 계약(Brit Milah)은 아버지와 아들의 연대, 가족 간의 연대, 더 나아가서 유대민족을 연대시킨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계약의 외적 신체적 표시이며, 할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표시이다.

유대인들은 말배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믿기 때문에 아들의 대속(pidyon ha-ben)이란 구속의식을 출생한지 31일이 되는 날에 행한다. 이 모

든 의식들이 다 아버지와 아들의 연대, 가족 간의 연대, 더 나아가서 유대 민족을 연대시키는 것들이다.

유대인의 자녀들은 적정한 나이가 되면 613개의 계명들(Mitzvot)과 수많은 율타리법들(Gezairot)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남자아이는 13세, 여자아이는 12세가 되면 각각 ‘발 미츠바’ (Bar Mitzvah)와 ‘발 미츠바’ (Bat Mitzvah)라 부른다. 남자아이의 경우 13세가 되면 회당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토라 곧 모세오경을 봉독할 수 있다. ‘민얀’ (minyan)이라 부르는 기도회가 열릴 수 있는 최소인원에도 포함되며, 종교법정에서의 증언이나 결혼의 권리도 갖는다. 특히 13번째 생일을 보낸 남자아이는 회당 예배 때에 그 주간의 토라읽기 곧 성경읽기를 수행한다. 아버지는 이때에 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의 짐을 벗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berakah)을 낭송한다.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13세 이전까지의 아이들은 계명을 지킬 의무를 갖지 않는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도 13세까지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자녀가 13세 이상이 되면 체벌을 가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는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유대인들의 가정교육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밝혀진 비밀9: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9)(엡 6:1-4)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만든다.



그리스도인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애찬(agape feast)에 참여한 모습
(성 칼리스토 카타콤, 2-3세기, 로마)

인간의 뇌는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서 새로운 정보를 분류하기도 하고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을 해마가 한다. 그래서 해마를 기억의 제조공장이라고 부른다. 해마는 대뇌 피질 속에 있는 신

경세포 다발로 길이가 5cm, 지름이 1cm 크기로 성인의 새끼손가락만 하다.

해마(Hippocampus)에서 만들어진 기억은 시냅스(synapse)에 저장된다. 시냅스는 대뇌피질 속에 있는 거미줄(네트워크)처럼 뻗어있는 약 140-150억 개의 신경세포들을 이어주는 부위로써 최고 100조 개에 이른다.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뇌는 스스로 혼란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사물을 보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독단적인 기관이다. 따라서 해마로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이 시냅스에 저장되지 않고 버려진다. 역사책이 역사가의 경향과 의도에 따라 엄격히 선별된 이야기들의 기록인 것처럼, 뇌에 저장된 기억도 사람의 경향과 감정에 따라 엄격히 선별된 것들이다. 똑 같은 일과 말을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았더라도 나중에 그 일과 말로 인해 다투게 되는 이유가 저장된 기억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기억제조공장인 해마가 기억장치인 시냅스에 정보를 보내더라도 그것을 걸러내는 일은 편도체가 한다. 편도체는 해마체 바로 옆에 붙여 있는 감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해마체와 편도체는 서로 긴밀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기억장치인 시냅스에 정보를 보내는데, 생존에 필수적인 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되고, 좋아하는 것들도 선택적으로 기억된다. 사람들이 좋은 추억보다 나쁜 추억들을 더 많이 기억해 내고 회상하는 이유는 나쁜 추억이 기억에 미치는 생존문제와 감정에 더 많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뇌는 이치에 맞지 않으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래서 해마가 손상되어 기억이 희미해지면 없어진 기억을 조리에 맞게 만들어

내고,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게 된다. 이런 뇌의 성질 때문에 우리는 평상시 대화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인간의 뇌는 일단 하나의 일을 결정하고 나면 계속 그렇게 믿고 싶어 하는 성질이 있다. 따라서 자신이 미리 단정 지어서 말한 것을 그대로 믿어버린다. 좋은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 나쁜 말을 하면 그대로 된다. 말이 씨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뇌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뇌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기억한다.



19세기 로마인 여성 프레스코(빌 4:2 참고)

뇌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기억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부모는 자식에게 잘해준 것만을 기억하고, 자식은 부모가 나쁘게 한 것만을 기억한다. 부모들은 젊은 시절에 자녀들에게 썼던 나쁜 말씨와 불친절한 태도를 대부분 뇌의 기억장치에 저장시키지 않은 대신에 자녀들에게 잘해준 일들을 많

이 기억시켜 놓고 있다. 반대로 자식들의 뇌 속에는 부모가 저장한 기억들과는 반대의 것들인 나쁜 기억들을 많이 담고 있다. 기억이 만들어질 당시에 서로가 느낀 생존의식과 감정이 달랐기 때문이다.

뇌는 생존에 필수적인 정보를 우선적으로 기억하지만, 좋아하는 것들도 기억장치에 저장한다. 따라서 뇌는 끔찍하고 두렵고 위험했던 순간들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기억장치에 담아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들이 서로 상반된 추억들을 떠올리는 이유는 뇌의 기억장치가 그런 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그렇게 추억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뇌의 기억장치 속에는 회상되지 못한 수많은 기억들이, 마치 골방에 처박힌 잠동사니들처럼, 쓸쓸이 처박혀 있다. 그 잊힌 기억들을, 다시 말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잘해 주지 못한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반성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고,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좋은 추억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

갈등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기억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가감 없이 반박하지 않고 깎아내리지 않고 비참하게 만들지 않고 인정해 주는데 있다. 상대방이 자기감정이 받아드려지고 있고, 배려받고 있고, 존경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도록 진심으로 경청해 주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좋았던 추억, 행복했던 기억들을 끄집어낸다. 그리고 아름답고 행복했던 기억들은 사랑과 애정을 불러일으킨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식으로서의 기억에는 나쁜 추억이 많다. 때를 맞고 컸다거나 구박당으로 컸다거나 부모의 화풀이 대상이었다는 등의 기억들이 많다. 그래서 지난날의 이야기를 하다보면, 맞고 자란 이야기, 구박당한 이야기 등이 많다. 지난날 가난하고 고달프게 살았던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줄 만큼의 물질도 마음도 시간의 여유조차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좋은 습관은 좋은 기억을 만든다.



에베소의 켈수스 도서관에 세워졌던 여신들(오스트리아 빈의 에베소 박물관 소장, 주후 115년경). 좌측부터 Arete(도덕적 미덕), Episteme(학문, 과학적 지식), Sophia(지혜)

상당수의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애증의 관계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있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부모님과 자주 트러블을 일으킨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따뜻하게 해주고픈 마음이 있지만, 자식들의 효도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자주 하시게 된다.

그러나 서운한 감정은 부모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항상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서운한 감정의 폭발이 트러블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서운한 감정을 폭발시키기보다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너그러움과 아량을 베풀어야 한다. 책망은 사람을 고치기보다는 더 나쁘게 만들고, 두 번 볼 것을 한 번 보게 만들고, 열 번 잘할 것을 다섯 번만하게 만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감사와 칭찬이야말로 존경과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부모자식 간의 트러블은 서로에게 거는 기대와 무관하지 않다. 부모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는 식으로 자식들을 대하기가 싫고, 자식들은 부모님이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기 싫다.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형편이 닿지 못해서 못해 준 것이지 마음이 없어서 안 해준 것이 아니다. 부모님들이 딸들보다 아들들에게 특별대우를 했던 것은 형편이 어렵다보니 늙어서 몸을 의탁할 자가 아들이라고 생각돼서 잘 해 줄 수밖에 없었던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걸었던 기대가 양에 차지 않았더라도 항상 행복했던 기억들만을 되살려내야 한다. 좋은 습관은 좋은 기억을 만든다. 반대로 좋은 기억은 좋은 습관을 만든다. 따라서 좋았던 추억을 되살려내는 습관을 만들면, 나빴던 순간들보다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 나쁜 대우를 받았던 순간들보다 사랑받았던 순간들에 길들여지게 된다. 부모도 자식들에게 거는 기대치를 한껏 낮추고 그 서운한 마음을 줄여야 한다. 그래야 더 큰 존경과 사랑과 효도를 받으실 수 있다. 기대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줄이면 줄일수록 사랑과 효성은 더 커진다.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종종 기억장치인 디스크를 정리해주거나 조각난 파일들을 한 곳에 모아 준다. 마찬가지로 기억장치인 인간의 뇌도 기억을 정리시키고 조각난 기억들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이 구석 저 구석에 묻혀 있어서 한 번도 회상되지 못한 좋은 추억들을 자주 끄집어냄으로써 뇌로 하여금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들에 길들여지게 해야 한다.

밝혀진 비밀20: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10)(엡 6:5-9)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노예(유모)가 여주인에게서 아이를 받아드는 모습을 그린 적화(red-figure) 암포라(450BC, 그리스 아테네)

에베소서 6장 5-9절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에 관한 말씀으로써 열여섯 번째와 열일곱 번째에 관한 말씀이다.

열여섯째,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이다. 바울은 5-8절에서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냐 자유인이나 주께로

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고 하였다.

노예들은 자기 운명에 대한 결정권이 없었다. 소나 돼지처럼 노예시장에서 팔려나갔고, 주인이 때리면 무조건 맞아야 했고, 수시로 지하 감옥에 갇혔고, 수시로 겁탈 당하였다. 그들의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노예들이 로마시민권자들보다 많은 전체인구의 15퍼센트를 차지하는 900여만 명이나 되었으나 아무도 그들을 인간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 그들 대부분은 전쟁노예들이었다. 더러는 노예의 자식들, 강도나 해적에게 납치되어 노예상인에게 팔린 자들, 빚을 갚지 못해서 계약서를 쓰고 스스로 된 노예들도 있었다. 여기에는 빚을 탕감 받거나 굶주림을 면하려는 아버지들이 팔아넘긴 자식들도 있었다.

노예들은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다. 복종이 강요된 주인의 재산이었다. 그들은 24시간 노동과 폭력과 성적학대에 시달렸다. 그들이 주인에게 받은 얼굴의 낙인과 등의 채찍자국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할 흔적이었다. 노예

들에겐 그 어떤 도덕심이나 수치심도 남겨지지 않았다. 남녀 주인들이 남녀 노예들을 애어른 가리지 않고 성 노리개로 마음껏 농락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이들에게, 육체의 신분은 비록 노예일지라도 그들이 행한 선행은 반드시 주님께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고 하였다. 또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고도 하였다. 이 점에 있어서는 상전들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상전들에게 노예들을 위협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모든 인간의 상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였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테나인의 적화도기 펠리케(5c BC, 시칠리아 젤라) 노예 소년이 심포지움(술파티)을 위해 가구를 운반하는 모습을 그렸다(옥스퍼드대학의 애슈몰린 박물관 소장).

그리스도인들은 세상나라에서의 노예나 주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사신 자녀들이다. 이에 근거해서 바울은 도망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사랑하는 형제와 사랑받는 형제라고 호칭하였다. 노예나 주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는 한 몸이기 때문이다(고전 12:13, 갈 3:28, 골 3:11).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 가운데 아브라함 릭스(Abraham Ricks)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앨라배마 주 콜버트 카운티에 대농장(1만 에이커, 노예 300명)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에게 한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은 그 노예에게 저녁과 토요일 오후에 작은 목화밭을 경작하여 자유의 몸이 되기 직전에 자신이 소유한 땅 가운데 53

에이커를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게 해주었고, 성경을 읽도록 글도 가르쳐 주었다. 그 노예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땅을 300에이커(36만7257평)로 불렀다. 그 많은 노예들 가운데 그가 특별히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기쁜 마음으로 주인 섬기기를 주께 하듯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 노예는 주인의 성을 따라 조지 릭스(George Ricks, 1838-1908)라 불렀

는데, 앨라배마 주에서 자기 땅을 소유한 첫 번째 흑인이었다. 노예에서 대농장주로 변한 조지는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 목사가 되었고, 자신의 땅을 기부하여 교회를 세웠으며, 흑인노예들이 문힐 공동묘지를 제공하였고, 노새를 타고 여행하면서 몇 곳에 흑인들을 위한 교회들을 더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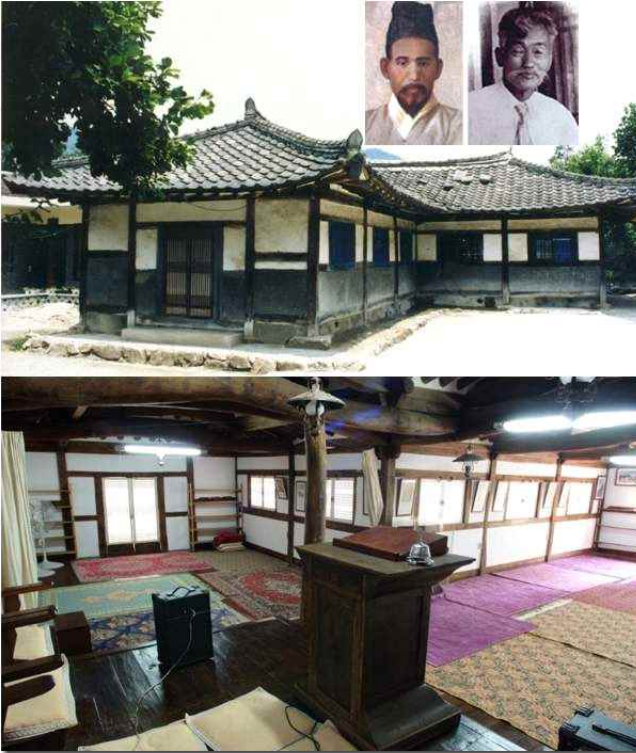
영국 수상을 지낸 처칠이 어렸을 때 강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다. 그때 처칠을 살려 준 사람이 처칠 집의 하인이었다. 처칠의 아버지는 고마운 마음에 하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마침 하인의 아들이 총명해 공부에 소질이 있었다. 처칠의 아버지는 그가 의학공부를 하도록 도와주었다. 하인이 특별히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기쁜 마음으로 주인 섬기기를 주께 하듯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되었는데 그만 폐렴에 걸리고 말았다. 그 당시 폐렴은 치료약이 없는 불치병이었다. 많은 사람이 걱정했지만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다. 그때 한 사람이 소식을 듣고 나타나 처칠의 몸에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주사했다. 약은 효과가 있어 처칠은 깨끗이 나았다. 그 항생제를 가져온 사람이 바로 처칠의 집에서 일했던 하인의 아들이었다. 그가 바로 푸른곰팡이로 페니실린을 발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다.

“상전들아... 위협을 그치라.”

열일곱째, 상전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다. 바울은 9절에서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라.” 고 하였다.

김제 금산에 가면 1908년에 건축된 27평짜리 금산7자 예배당이 있다. 이 예배당은 전북 문화재 자료 136호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1905년 10월 11일 집주인 조덕삼과 머슴(마부) 이자익이 예수님을 믿고 한낱한시에 세례를 받았다.

2년 후 1907년에는 두 사람이 함께 교회의 영수(집사급 지도자)로 임명되었고,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 해인 1909년에 장로를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되었다. 그때 교인들과 마을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영수가 먼저 장로가 되리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 뜻밖이었다. 마을의 지주였던 조덕삼 영수는 떨어지고 그의 마부 이자익 영수가 장로로 뽑혔기 때문이다. 반상의 신분을 철저히 따지던 시대에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날 것이 뻔했다. 이에 조덕삼 영수는 그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였다. “이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김제 금산에 있는 그 교회와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조덕삼과 이자익은 주인과 머슴 관계로서 이 교회의 창립멤버였다.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장로와 담임목사 관계로 발전하였다. 이 예배
 당에서는 강대상이 남성도석을 바라보게 놓였고, 여성도석과 강대상
 사이에 커튼을 달아 남성도석과 여성도석이 서로 보지 못하게 하였다.
 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든 인간의 상전은 하나님이시
 고,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
 었을 것이다.

대단합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의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
 회를 섬기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금산교회 교인
 들은 조덕삼 영수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조덕삼은 자신보다 아홉
 살이나 어리고, 자기 집의
 종인 이자익이 초대 장로
 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기꺼이 장로로 받들
 었으며, 이자익이 평양신
 학교를 졸업하고 1915년
 금산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해 내려왔을 때에도
 그를 당회장 목사로 정중
 히 모셨다. 조덕삼 영수는
 주일대사와 국회부의장을
 지낸 조세형의 할아버지
 이시다. 조덕삼이 이자익

밝혀진 비밀2: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II)(엡 6:10-20)

1장 1절부터 6장 9절까지의 물음



검투사들의 무덤 비석들(에베소 박물관, 터키 셀주크)

에베소서 6장 10-18절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상에 관한 말씀으로써 그리스도의 군병에 관한 말씀이다. 에베소서 전체에서 바울은 중요한 물음들을 연속적으로 묻고 있다.

첫째 물음은, 우리가 누구였는가라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악한 영의 통치아래 살았던 사람들이었다.

둘째 물음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에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숨씨로 멋지게 개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이다 그리고 이런 큰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우리의 능력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란 것이다. 결론은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품이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물음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하는가라는 것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싸우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으로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아내들은 불순종함으로 남편들과 싸우지 말고,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함부로 대함으로 싸우지 말고, 오히려 제 몸처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불복종함으로 부모와 싸우지 말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함으로 자녀들

과 싸우지 말고, 종들은 눈가림으로 주인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성실함으로 주인을 섬기고, 주인들도 종들에게 협박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피차에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체의 신분과 처지는 바뀌지 않고 그대로지만, 하나 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당신의 몸을 버리신 것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물음



트라키아인의 호신경과 투구(수전 4세기)
(카잔루크 박물관, 불가리아 Kazanlak)



넷째 물음은,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할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다(11-12절). 우리가 싸워야할 대상은 혈과 육 곧 부인도 남편도 아니고, 자녀도 부모도 아니며, 노예도 주인도 아니란 것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의 간계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란 것이다.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자는 것이다.

다섯째 물음은, 그러면 싸움을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10-13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악한 날이 닥칠 때 능히 물리친 후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비로 전신을 무장하라는 것이다.

여섯째 물음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으로 무장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다(14-17절).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막이를 하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채비로 신발을 신고, 믿음으로 방패를 삼으라는 것이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영들과 그 영들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구원으로 투구를 삼아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칼을 삼으라는 것이다. 여기서 무장은 무적을 자랑하는 로마군인의 무장을 비유로 든 것이다. 진리로 탄띠를 차고, 정의로 방탄복을 입고, 평화의 복음으로 군화를 신고, 믿음으로 방패를 들고, 구원으로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아 무장하라는 것이다.

일곱째 물음은, 그러면 어떤 전술로 싸울 것인가라는 것이다(18-20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전술을 쓰라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며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위하여 간구하라는 것이다. 또 일선에 나가 싸우고 있는 사령관인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바울이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포로로 갇혀 있지만, 복음을 위해 싸우는 전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다.

여덟째 물음은, 왜 우리가 진리로 탄띠를 차고, 정의로 방탄복을 입고, 평화의 복음으로 군화를 신고, 믿음으로 방패를 들고, 구원으로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아 무장하고, 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전술삼아 싸워야 하는가이다. 그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를 충사령관으로 모신 하나님나라의 군사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성 검투사들의 부조(주후 1-2세기경, 대영 박물관)
 할리카르낙소스(현 터키 보드룸)에서 발견되었으며, 상단에 그들은 해방되었다(απελευθροσων)라고 새겼고, 하단에 검투사들의 이름 아마존(Amazon, 좌측)과 아킬리아(Achillia, 우측)를 새겼다.
 이 부조는 아마존과 아킬리아가 시합을 맺진 무승부로 마쳤거나 그 결과로 검투사막사에서 완전히 해방(missio)되었음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은 그리스도의 군사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후 295년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속주에 키 150센티미터, 나이 22세의 세무 공무원 막시밀리아누스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군인출신이었기 때문에 병영세습제로 인해서 로마군에 입영을 해야 하는 청년이었다. 그는 신체검사장인 병영에 나가 합격 통지를 받았지만, 끝내 입대를 거부하다가 참수되었다. 그가 로마군의 입대를 거부한 것은 자신은 이 세상군대의 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군대의 병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막시밀리아누스는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의 병사배지를 지닌 주님의 병사가 된 이상 다른 군대의 병사가 되어 다른 주를 섬길 수 없다고 믿었다.

다산 정약용의 만형인 정약현에게 황사영이란 사위가 있었다. 황사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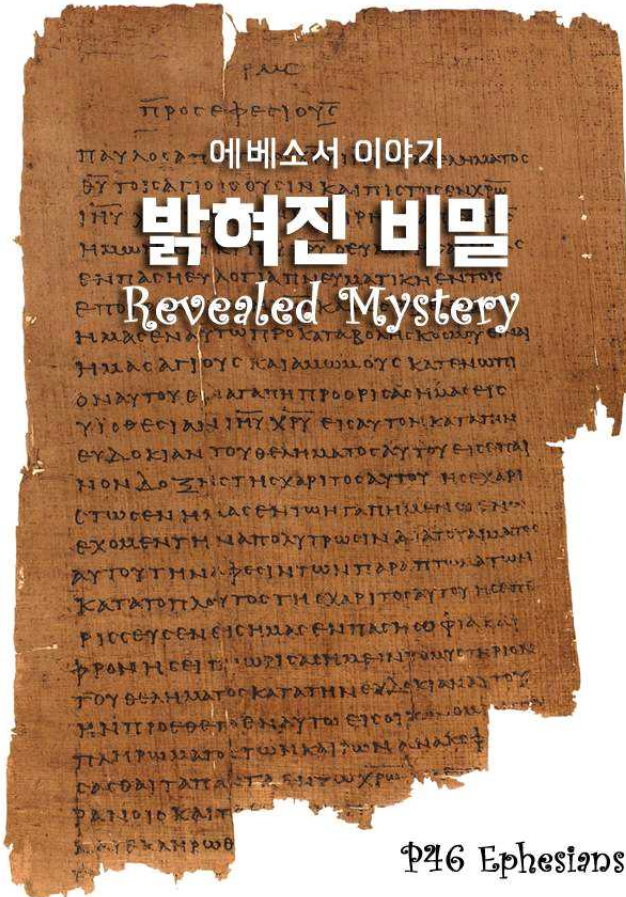
다산 정약용의 만형인 정약현에게 황사영이란 사위가 있었다. 황사영은

16세 때에 진사시에 장원급제하여 정조 대왕이 친히 탐전(임금의 의자)으로 불러 손목을 잡고 “네가 20세가 되거든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네게 벼슬을 주고 나라의 큰 소임을 맡기겠노라”고 한 약속을 받았지만, 정약종의 제자가 되어 그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후에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실 제일 높은 임금을 알았으니 그분의 신하가 되는 것이 군자의 마땅한 도리이다” 라고 했다. 신하의 입장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므로 나라의 주인이신 임금을 포기하고 천지의 임금이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말이었다. 황사영은 이 정신무장 때문에 27세의 나이로 1801년 11월 5일 사지가 찢겨 죽는 고통에도 비굴하지 않았다.

다산 정약용의 셋째 형인 정약종의 아들 가운데 정하상이 있었다. 그는 1839년 9월 22일 참수되기 전에 쓴 <상재상서>(上宰相書)에서 “집안의 아버지가 가장 중하나 집안의 아버지보다 높은 이가 나라의 임금이요, 나라 안에서 임금이 가장 중하나 나라의 임금보다 더 높은 이는 천지의 큰 임금입니다. 집안의 아버지의 명을 듣고 나라 임금의 명령을 듣지 아니 하면 그 죄가 무겁습니다. 나라 임금의 명령을 듣고 천지대군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그 죄는 더욱 커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주를 받들어 섬김이 임금의 명령을 일부러 어기려는 것이 아니요 부득이 한데서 오는 것인데 이것을 들어, 무군무부(無君無夫), 곧 부모와 임금을 업신여긴다 함이 옳은 말이옵니까?” 라고 변증하였다. 이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병사들이었다.

밝혀진 비밀22: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들(12)(엡 6:21-24)

밝혀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복음의 비밀을 알라.



에베소서 6장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앞부분 1-9절은 그리스도인의 주종관계에 연결된 권면이다. 1-4절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5-9절은 종과 주인 또는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에 연결된 권면이다. 여기서 바울은 부드럽지만 강한 형제애와 평등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뒷부분 10-20절은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대상과 무장에 연결된 권면이다. 그리고 나머지 21-24절은 작별 인사이다.

고대사회의 통념에서 보면, 남편과 부인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는 모두 주종 관계이다. 모든 고대사회에

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유럽의 그리스와 로마사회, 그리고 근동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는 남편이 부인의 주인이었고, 부모는 자녀의 소유주였으며, 주인은 노예의 소유주였다. 따라서 부인의 목숨은 남편에게, 자녀의 목숨은 부모에게, 노예의 목숨은 주인에게 달려있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에베소서 5장과 6장의 권면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엄격한 주종관계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관계, 평등관계로 바꿔놓고 있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다. 바울의 권면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기초한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방식과 삶의 방식의 표준(잣대)이다. 따라서 바

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하나님 안에서” 민족성별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다고 말한다. 높이 계신 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분뿐이시고, 나머지는 그분 앞에서 모두 평등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사회적 신분과 처지에 관계없이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는 어떠한 차별도 개입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민족색깔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며 형제자매라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6-28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냐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고 말씀하였다.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



말씀의 검을 손에 쥔 바울(웨스트민스터 원 안에 ESTOTE ERGO IMITATORES DEI SICUT FILII CARISSIMI(여러분은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 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엡 5:1)라고 새겼다.

그러므로 바울은 부조리하고 불의한 사회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개혁을 부르짖거나 혁명을 선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각자의 신분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존중하라고 말씀하였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을 보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혹은 신분)대로]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은총의 선물을 따라서 그리고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처지(혹은 신분)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세운 원칙입니다.” [공동번역]라고 말씀하였다.

바울이 개혁이나 혁명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무력시위나 폭력에 의하지 않고, 사고(思考)전환을 통한 사회변혁을 꾀하였기

때문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천 년 전 로마제국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자매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동일한 가족이요, 약속의 유업을 이룰 자들이라고 믿었다. 그러한 생각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을 바꿔놓았고, 습관을 바꿔놓았고, 인격을 바꿔놓았고,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리스도교는 요란한 혁명을 피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부드럽지만 강한 형제애와 평등사상으로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대제국 로마를 그리스도교 왕국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등사상은 바로 이 그리스도교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놀라운 힘에 대해서 영국인 역사가 에릭 도즈(Eric R. Dodds)는 그의 책, <불안시대 속에서의 이교도와 그리스도교도>(Pagan and Christian in an Age of Anxie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에서 네 가지 이유를 지적하였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에는 남녀노소빈부귀천의 어떠한 차별도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했다. 무력사용이 아닌, 이 단순한 사상하나로 전 로마인들과 제국의 속주민들의 행동과 습관과 인격과 운명을 바꿔놓았던 것이다.

항상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발 콘크리아의 유대 데나리온(AD 132-135)
 전면에 포도송이와 가지를 새겼고, 둘레에 시온이라고 새겼다.
 뒷면에 수금(Lyre)과 둘레에 예루살렘에 자유를 이라고 새겼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밝혀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라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존재방식과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는 것이며, 셋째는 항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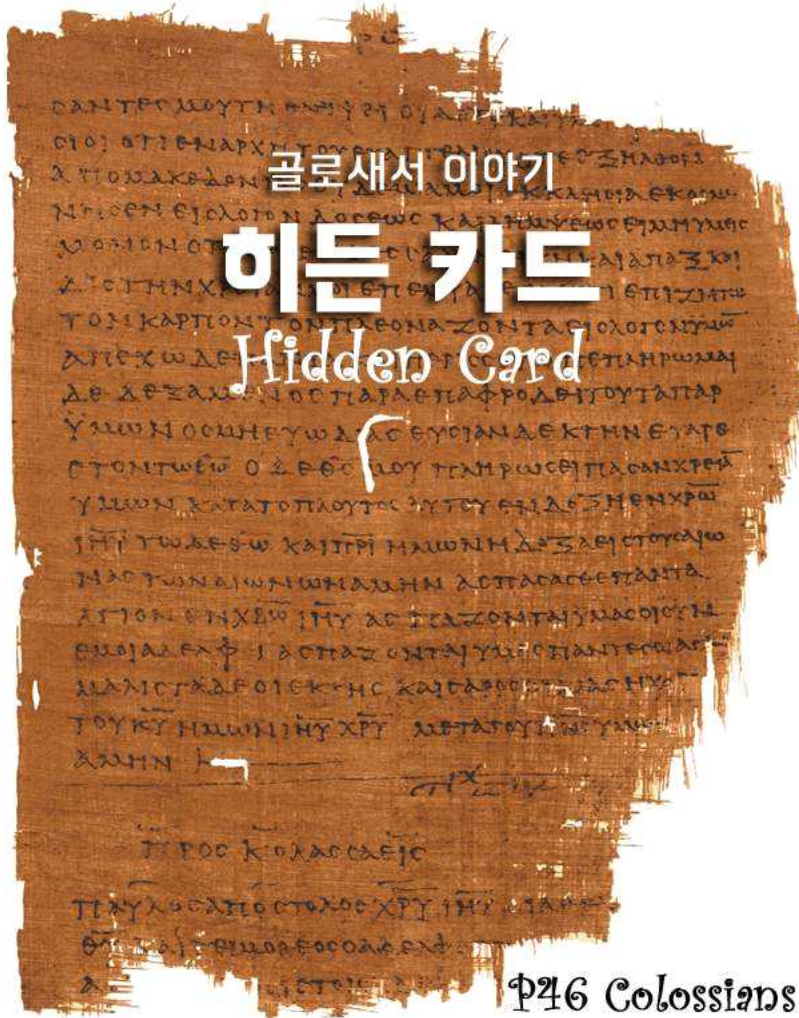
기도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는 것이다. 진리로 탄띠를 차고, 정의로 방탄복을 입고, 평화의 복음으로 군화를 신고, 믿음으로 방패를 들고, 구원으로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을 삼아 무장하고, 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전술삼아 생활전선에서 분투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늘 곁에서 도우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것이며 마침내는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1-24절에서 끝인사를 보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21-22절은 골로새서 4장 7-8절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인사말이다. 두기고(Thyichicus)는 행운이란 뜻을 갖고 있으며, 바울의 동역자로서 에베소교회 출신이다(행 20:4). 바울은 그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천거하였다. 그가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최사슬에 매인 바울의 전후사정을 자세히 알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라고 하였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두 번 복을 빌었다. 23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함께하기를 빌었고, 24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빌었다. 필자 또한 이 에베소서 강해를 읽고 공부한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빈다.



히든카드이: 머리말(골 1:1-2)

골로새(Colossae)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주후 60년에서 63년 사이에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이다.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빌었다.

골로새에 빌레몬의 집이 있었고, 그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다. 오네시모(Onesimus)와 아킵보(Archippus)도 이 교회 출신이었다(4:9, 17). 바울 일행이 제3차 선교 여행지인 에베소에 2년 3개월간 머무는 동안 에바브로(Epaphras)가 이곳에 교회를 세웠다.

골로새에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는 에게해 연안 에베소에서 메안데르(Maeander) 강의 지류인 튀쿠스(Lycus) 강을 따라 동쪽으로 193km 떨어진 카드무스 산(Mt. Cadmus, 현재 명은 Mt. Honaz National Park, 2,528m) 북쪽 산자락에 위치해 있었다. 서쪽으로 13km 지점에 라오디게아(Laodicea, 4:13), 21km 지점에 야외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Hierapolis-Pamukkale, 4:13)가 삼각 형태로 위치해 있었다. 골로새는 페르시아제국과 헬라제국시대에 에게해 연안 도시들인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에서 동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어진 군사와 교역 도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요충지였다. 주전 5세기경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골로새를 ‘브루기아의 큰 도시’라고 불렀고, 주전 4세기경의 역사가 크세노폰은 ‘인구가 조밀하며 풍부한 부를 누리고 있는 도시’라고 표현하였다. 골로새는 양모생산지였고, 골로새에서 생산된 양모는 콜로시누스(Colossinus)로 불렸다. 이런 정황으로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이들 지역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로마시대에는 주요 도로의 위치가 변경된 데다가 네로 통치시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 파괴된 후 골로새만 복구되지 못했으며, 작은 마을로 존재하다가 비잔틴시대인 7-8세기경 아랍인들의(Saracen) 침략으로 버려진 마을이 되었다. 주민들이 아랍인들의 공격에 대

비하여 지대가 높은 카드무스 산기슭 코내(Chonae) 곧 오늘날의 호나즈(Honaz)로 옮겼기 때문이다. 호나즈는 골로새에서 남쪽으로 4km 정도 떨어진 호나즈(2,528m) 국립공원 산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프랑스의 루이 7세(Louis VII)가 이끌던 제2차 십자군이 1148년 1월 6일에 발발한 카드무스 산 전투에서 룸의 셀주크(Seljuks of Rum)에 패함으로써 완전히 무슬림 지역이 되었다.

룸 셀주크는 튀르크계 왕조 국가로 11세기 말부터 1308년까지 아나톨리아 대부분을 지배했다. 본래 수도는 니케아(Nicaea)였지만, 1097년 제1차 십자군에게 니케아를 빼앗긴 뒤로는 이고니온(Iconium, 현재명 Konya)에 수도를 두었다. 그러나 14세기 초부터는 몽골 제국에 종속되었다.

성 미카엘 교회(St. Michael Church)



골로새 폐허

골로새는 에게해 서안 에베소에서 메안데르(Maeander) 강의 지류인 류쿠스(Lycus) 강을 따라 동쪽으로 19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서쪽으로 13km 지점에 라오디게아, 21km 지점에 야외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Hierapolis-Pamukkale)가 위치해 있다. 골로새에 빌레몬의 집이 있었고, 그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다.

아와 히에라폴리스는 재건되었으나 주후 96년에 기록된 계시록에 골로새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골로새는 재건되지 못하고 작은 마을로 남아 그 명성을 잃었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골로새는 아직까지 한 번도 발굴된 적이 없고, 옛 골로새가 묻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언덕(tell)에 안내 간판만 있을 뿐이다.

반면에 히에라폴리스에서 멀지 않은 케레토포스(Cheretopos, 코내라는 주장도 있다.)에는 미카엘 천사를 기념하여 4세기에 라오디게아 사람이 지은 성 미카엘 교회가 있었다. 에베소에 거주하던 사도 요한이 이곳까지 내려와

4세기 초에 교회사를 쓴 유세비우스(Eusebius)는 네로 통치 10년째(주후 64년경)에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를 황폐시킨 큰 지진이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 증언을 근거로 볼 때 바울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써 보낸 직후에 골로새를 파괴시킨 지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도 네로 통치 7년째에 라오디게아가 지진으로 파괴되었다고 기록하였다. 지진 후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는 재

복음을 전한 후 떠나면서 거룩한 물이 흐르는 샘이 생길 것인데 미카엘이 그 물로 큰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전한다. 그 후에 병을 고치는 거룩한 물이 흐르는 샘이 생겼고, 사람들이 몰려와 이 물로 병을 고쳤다고 전한다. 한편 인근 라오디게아에 부유한 헬라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말을 못하는 병어리 딸이 있었다. 그도 이 샘의 물로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친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가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샘가에 성 미카엘 예배당을 지어 바쳤다.

한편 아킵보(Archippus)라는 주의 종이 성 미카엘 교회를 섬겼는데,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아킵보와 그리스도인들을 혐오하여 제거할 목적으로 산에서 흘러내리는 두 물줄기를 하나로 합류시켜 큰 물줄기를 만들었고, 그 물줄기가 곧 바로 교회를 향해서 흐르도록 만들었다. 이에 아킵보는 미카엘에게 이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미카엘이 교회 근처에 나타나서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크게 갈라지게 하였으며,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갈라진 바위틈으로 빨려들게 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했다고 한다. 성 미카엘 교회는 858년 대주교좌 교회로 발전되었으나 12세기 말에 셀주크의 침략으로 파괴되었다.

골로새서의 기록 목적



골로새 폐허

골로새는 에게해 서안 에베소에서 메안데르(Maeander) 강의 지류인 류쿠스(Lycus) 강을 따라 동쪽으로 193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서쪽으로 13km 지점에 라오디게아, 21km 지점에 야외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Hierapolis-Pamukkale)가 위치해 있다. 골로새에 발레몬의 집이 있었고, 그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모였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전 반부 1-2장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1:15), 만물의 창조주(1:16),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1:17), 교회의 머리와 근본 및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부활하신 분(1:18),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시는 유일한 중보자(1:20) 또한 하나님의 충만한 신성을 몸 에 지닌 분(2:9)으로 소개

하였다. 바울은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의 허구성을 밝히고, 그리스도의 완전

하신 충족성을 피력했다. 후반부 3-4장에서는 땅엿 것을 생각지 말고 위엿 것을 구하며, 성화와 사랑의 띠를 매며,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며,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였다.

골로새 교회는 세 가지 위협에 처해 있었다.

첫째, 초등학문의 위협이 있었다. 초등학문의 위협은 주로 천사숭배나 점성술에 있었다. 천사숭배는 어떤 천사들이 인간의 일 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지배한다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천사들을 달래고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지식을 얻고자 했다. 점성술은 인간의 운명이 출생과 얽혀 있는 별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는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별점을 쳐주는 장사가 널리 유행했다. 이런 형태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지위를 위협하는 요소였다.

둘째, 율법주의의 위협이 있었다. 유대교에서는 엄격한 카샤룻(Kashrut) 음식 규정과 손 씻기 및 안식일 법 등을 규정하였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다. 초기 교회를 가장 크게 위협한 이단이 바로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였다.

셋째, 영지주의의 위협이 있었다. 물질과 육체를 악하게 보고 성육신을 부정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금욕을, 다른 일부는 방탕을 일삼았기 때문에 초기 교회를 크게 위협하는 이단이였다.

바울은 골로새교회에 침투한 이들 이단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 이 편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히든카드는 국면전환이나 전세를 역전시킬 목적으로 준비한 전략인데, 상대방에게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하나님께도 히든카드가 있었고 또 그 카드를 사용하셨다고 적고 있다.

히든카드02: 바울이 의존한 능력(I)(골 1:3-23)

바울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



콘스탄티누스 대제(AD 272-337)의 라바룸 주화(AD 337) 전면에 월계관을 장식한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CONSTANTINVS MAX AVG)라고 썼다. 뒷면에 뱀을 찍어 누른 라바룸(LABARUM)을 새겼고, 좌우에 '대중의 희망 콘스탄티누스'(SPES PVBLICA CONS)라고 썼다. 라바룸 상단에 '그리스도'(XPISTOS)의 첫 두 글자 키(X)와 로(P)를 겹쳐서 장식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꿈에서 IN HOC SIGNO VINCES(이 표식으로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는 음성을 듣고, 이 라바룸을 312년 10월 28일 밀비우스 다리 전투 때 처음 사용하여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강한 소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의나 자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라는 뜻이다. 자신들을 불러 일을 맡기신 분이 유일하신 야훼 하나님 이시라는 명확한 인식이 바울 사역에 기초를 이루

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구절이다.

2-3절에서 바울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은 투철한 사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며” 교회들을 위한 염려로 날마다 짓눌려 일했던(고후 11:27-28) 것은 오로지 투철한 사명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4-8절은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바친 감사의 조건들이다.

첫째, 골로새 성도들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 때문이었다.

둘째, 골로새 성도들이 교인들에게 베푸는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다.

셋째, 골로새 성도들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쌓아 둔 축복들을 소망한데서 비롯된 때문이었다.

넷째, 골로새 성도들은 이 소망에 대해서 진리 곧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섯째,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그러하듯이,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섯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여 섬기는 주의 종 에바브라(Epaphras)의 신실함 때문이었다.

일곱째,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의 삶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기 때문이었다. 골로새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늘의 소망과 베푸는 사랑으로 성령 안에서 최후 승리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울의 기도



베트라니오 로마황제의 주화(AD 350)

전면에 월계관을 쓰고, 동체갑옷을 입은 베트라니오(Vetranio, AD 350)를 새겼고, 둘레에 우리의 주 베트라니오 경건하고 다복한 아우구스투스(DN VETRANIO PF AVG)라고 썼으며, 뒷면에 손에 권자와 홀을 쥐는 베트라니오에게 여신 승리(Nike)가 월계관을 씌우는 장면을 새겼고, 둘레에 “이 포식(XP)으로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HOC SIGNO VICTOR ERIS)라고 새겼다. 이 글귀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꿈에 하늘에 나타난 크리스토품(XP)을 본 직후 들은 음성이다.

2천 킬로미터가 넘고, 실제 여행거리는 이 보다 몇 배나 더 멀었다. 이 지리적 문제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알려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쓰인 장소로 에베소가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한다. 만일 이들 옥중서신들이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면, 기록시기가 5년 정도 앞당겨져 로마서보다 몇 달 더 빠른 주후 57년경이 될 수 있다. 에베소는 빌립보까지 7백여 킬로미터, 골로새까지는 190여 킬로미터 떨어진 에게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다. 다만 에베소서에서 쓰였을 가능성이 적고, 에베소에서 투옥되었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 이밖에도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 도시인 가이사랴가 거론되는데, 바울은 이곳에서 58-60년 사이에 2년간 투옥됐다가 로마로 옮겨 60-63년 사이에 2년 정도 셋집에 연금된 상태에서 네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가이사랴에서 에베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1천7백여 킬로미터에 이른다.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던 날로부터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였다. 편지로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 밖에는 바울에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다. 로마의 셋집에 구금되어 네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때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로마에서 골로새까지의 거리는

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 주십사” 하는 것이었다(9절). 목적은 성도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란” 것이었다. 또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란 것이었다(10-12절).

바울은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서에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성도들에게 주십사하였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십사하는 것이었다(엡 1:15-23). 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이 뿌리를 박고 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달라는 것이었다(엡 3:14-21).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마그네티우스 로마황제의 주화(MAGNENTIUS, AD 350-353)
 전면에 동체갑옷을 입은 마그네티우스를 새겼고, 우리 주 마그네티우스
 경건하고 다복한 아우구스투스(DN MAGNENTIUS PF AVG)라고
 썼으며, 뒷면에 키로(chi-Rho)를 새겼고, 그 사이에 알파(A)와
 오메가(W)를 둘러싸고 우리의 고귀하신 아우구스투스와 카이사르의 강건
 (SALVS DD NN AVG ET CAES)이라고 썼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신분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그분과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현재의 신분에 갖게 하셨는가를 설명하였다.

첫째,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고, 성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내신 하나님께서 성도들

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13절).

둘째, 성도들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14절).

셋째,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15절).

넷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만이시다(15절).

다섯째, 하늘과 땅의 만물과 영과 육의 세계, 그 속의 모든 권세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16절).

여섯째,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된다(17절).

일곱째,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이다(18절).

여덟째, 예수님은 근원이시고, 부활한 자들의 맏이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시다(18절).

아홉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물게 하셨다(19절).

열째,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만물을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다(20절).

열한째, 하나님은 전에 자기와 원수였던 진노의 자식들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는 거룩하고 흠 없고 나무랄 데 없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21-22절).

그러므로 바울은 23절에서 성도들에게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하였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고 있고,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도 1장 1-3절에서 자기 시대를 “옛적에”에 대조되는 종말론적인 메시아시대로, 예수님을 “선지자들”에 대조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물의 상속자”로서 하늘과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신 분, 세계창조의 중재자 또는 참여자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체”로 하나님 “본체의 형상”으로, “또한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평화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일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자들 그 이상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롬 8:37).

히든카드03: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I)(골 1:24-29)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비잔틴시대의 주화(요한 1세, AD 969-976)
 전면에 복음서를 들고 계신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IHSVS XPISTVS BASILEV BASILE)이라고 새겼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 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고 하였다. 여기서 바울이 “받는 괴로움”의 성격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과는 어떤 관계인가?

첫째,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이었다. 바울이 투옥당한 것은 복음전과 때문이었는데, 이를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곧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바울이 받는 괴로움이 직접적으로 골로새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그들을 대신해서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 간접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골로새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영적으로 누리는 축복들이 바울의 선교사역과 수고의 열매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한” 것이었다. 바울이 투옥당한 것은 복음전과 때문이었는데, 이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받은 고난이 부족했다거나 채워야할 고난이 더 남아있다는 뜻이 아니라, 큰 틀에서 볼 때 간접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지만, 가나안땅에 입성하기까지 그들이 40년간 채워야할 고난들이 매우 많았던 것과 같다. 여기서 40년을 물 향아리로 보고 고난을 향아리를 채워야할 물로 본다면, 성도들이 흑암의 세계를 벗어나 침례를 받고 교회에 입문한 이후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기간을 물 향아리로 보고,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향아리를 채워야할 물로 본다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할 고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스도께

서 당하신 고난은 완전하고 충만하여 단 한번으로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고” (히 10:10), 성도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히 10:14)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요 19:30) 것이었지만, 그분이 머리되고 몸 된 교회와 성도가 채워야 할 고난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이었듯이, 교회와 성도가 겪는 고난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에 채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 그리스도를 위해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전파와 교회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였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히든카드



비잔틴시대의 주화(미카엘 4세, AD 1034-41)
 전면에 왼손으로 복음서를 안고, 오른손으로 감복하시는 예수님을 새겼고,
 좌측에 예수(IC)를, 오른쪽에 그리스도(XC)를 새겼으며,
 뒷면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IC XC NIKA)라고 새겼다.

바울은 25절에서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고 하였다. 여기서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의 성격은 무엇이고 골로새교회와는 어떤 관계인가?

첫째, 바울이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골로새교회와 성도를 위한 것이었다.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께서 골로새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바울이 직접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큰 틀에서 볼 때 간접적으로 그렇다는 뜻이다. 골로새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에바브라였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배웠고, 바울의 감독아래 있는 일꾼이었으며, 골로새 성도들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1:7).

둘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사명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라는 것이었다.”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행하였다.

셋째, 바울은 자신이 남김없이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26-27절에서 설명하였다. 이 두 구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게는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놓고 쓰지 않은 히든카드가 있었는데, 그 카드 곧 비밀이 무엇인지를 자신에게 알게 해주셨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밝히 말하게 하셨다고 했다. 따라서 이제는 성도들이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이뿐 아니라,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셨다.” 고 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고 하였다.

여기서 “영광의 소망”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했던 희망(Ha-Tikvah) 곧 그리스도(Moshiach)의 출현과 그가 세울 ‘다가올 세상’ (Olam Ha-Ba)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것처럼 육체적이고 유한하며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하며 완전하고 무한한 것임을 말한다.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신 것은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민족주의적인 아니라, 전 세계인 모두를 아우르는 세계주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민족성별의 차별이 없는 인류구원을 위한 히든카드였다. 그것이 히든카드였던 이유는 그 사실을 구약성서시대에는 모세에게 율법을 전한 천사도, 율법을 백성에게 전한 모세도,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던 선지자들도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것이 구약성서와 신약성서가 담고 있는 계시의 차이점이다. 이것이 구약성서가 달빛에 해당되고, 신약성서가 햇빛에 해당되는 이유이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



콘스탄틴 9세 모노마코스(콘스탄티노플, 1042-1055)
 전면에 복음서를 안고 계신 그리스도를, 뒷면에 공기와 보주(globus cruciger, 십자가를 세운 구형체)를 들고 있는 콘스탄틴 모노마코스
 (Constantine IX Monomachus, AD 1000-1055)를 새겼다.

바울은 28절에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고 하였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을 말하였다.

첫째, 복음전파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셨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복음전파는 “각 사람을 권하는” 것이다.

셋째, 복음전파는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다.

넷째, 복음전파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29절에서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고 하였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서 4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피력한바가 있다.

첫째, 이 목적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엡 4:7).

둘째, 이 목적수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엡 4:11-12절).

셋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이다(엡 4:12).

넷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려는 것이다(엡 4:13).

다섯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엡 4:14).

여섯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려는” 것이다(엡 4:15).

일곱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목적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려는 것이다(엡 4:22-24).

히든카드04: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2)(골 2:1-5)

비밀(mysterion)의 의미



브루기아의 라오디게아 주화(테트라드라크마, ca 133/88-67 BC) 전면면에 뱀이 기어 나오는 달걀이 열린 비밀상자(cista mystica)를 새겼고, 둘레를 포도덩굴로 장식하였다. 뒷면에 두 마리의 뱀 사이에 환상자를 새겼고, 그 위에 통치자의 이름 ΑΡΧΙΕΠΙΣΚΟΠΟΣ ΚΑΙ ΠΟΛΙΤΗΣ ΤΗΣ ΛΑΟΔΙΣΣΕΑΣ를 그 밑 오른쪽에 지역명인 라오디게아(ΛΑΟ)를 오른쪽에 헤르메스의 날개달린 지팡이(caduceus)를 새겼다. 이 주화(AR cistophoric Tetradrachm)는 소아시아와 브루기아 도에서 발행되었고, 비밀상자의 뱀은 오시리스, 디오니소스(바쿠스)를 혹은 그 신들의 남관을 혹은 부활과 치유를, 포도덩굴은 디오니소스를 상징한다. 이들 지역에 디오니소스(바쿠스) 숭배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다.” 고 하였다.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13km 지점에 있는 곳이었다. 바울은 이들 두 지역의 교회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에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게 하려고” 힘썼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서 “비밀”은 헬라어 ‘뮈스테리온’(mysterion)의 번역이다.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미스터리였는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불가사의였는가?

플라톤 철학과 영지주의에 나타난 ‘미스터리’ 개념을 살펴보면, 미스터리에 대한 당대 헬라인들의 생각을 대략 알 수 있다. 플라톤 철학에서 ‘미스터리’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감춰진 교리 이해가 그것을 전수받는 자에게는 깨달아지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말한다. 그것은 상징적인 걸모양에서 참 진리를 구별하는 알레고리 해석을 말한다. 천기누설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천상의 신성한 것들은 누구나 아는 공개된 지식이 아니고 상징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을 누설시킬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것을 미스터리라고 한 것이다.

영지주의에서는 천상세계와 인간의 기원과 인간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미스터리’로 보았다. 따라서 미스터리는 천상에 속한 것이고, 그것을 우

리 인간에게 가져오는 자가 구세주였던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비밀, 곧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거나 풀 수 없는 미스터리를 간직하고 계셨는데, 그 사실을 천사도 모르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모르고, 선민이었던 유대인들도 몰랐던 것인데,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것이다. 그러니까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 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 곧 그분의 뜻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인류구원에 관한 복음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비투기아의 라오디게아 주화(테트라드라크마, ca 133/88-67 BC) 전면면에 뱀이 기어 나오는 덩개가 열린 비밀상자(Cista mystica)를 새겼고, 둘레를 포도덩굴로 장식하였다. 뒷면에 두 마리의 뱀 사이에 활과 활상자를 새겼고, 그 위에 동치자의 이름 Diodoros (ΔΙΟΔΟΡΟΥ)를 그 오른쪽에 꺾고, 그 밑에 헤르메스의 날개달린 지팡이(caduceus)를 새겼다. 이 주화(AR Cistophoric Tetradrachm)는 소아시아와 비투기아 도에서 발행되었고, 비밀상자의 뱀은 오시리스, 디오니소스(바쿠스)를 혹은 그 신들의 남근을 혹은 부활과 치유를, 포도덩굴은 디오니소스를 상징한다. 이들 지역에 디오니소스(바쿠스) 숭배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이 사도들을 통해서 밝혀지기까지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불가사의였는데,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선민도 아니고 외국인이었던 이방인들에게 밝혀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천상에 속한 특별(신령)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특별(신령)한 사 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3-5절에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고 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 비밀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세속적 욕망을 위해서 맞춤 그리스도를 원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약속을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등장을 기다렸고, 그 그리스도가 세울 나라가 유대인들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게 할 유대인 국가라고 믿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간직했던 비밀을 그들은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

치지 않고 있다.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와 영토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났듯이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계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리스도교 시대를 여는 것이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스도교 시대를 여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학이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교 복음으로 인류에게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여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처럼 이상적 현실 세계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헬라인들처럼 현실 세계를 부정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세계를 끝없이 찾아 해매는 것도 아닌 성령님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교 시대를 여는 것이다.

구약 예언의 성취방법



브루기아의 라오디게아 주화(테트라드라크마, ca 133/88-67 BC) 전면에 뱀이 기어 나오는 달걀이 열린 비밀상자(cista mystica)를 새겼고, 둘레를 포도넝쿨로 장식하였다. 뒷면에 두 마리의 뱀 사이에 활과 활상자를 새겼고, 그 위에 동치자의 이름 kratippos(ΚΡΑΤΙΠΠΟΥ)를 그 밑 오른쪽에 지역명 라오디게아(ΛΑΟ)를 오른쪽에 헤르메스의 날개달린 지팡이(caduceus)를 새겼다. 이 주화(AR Cistophoric Tetradrachm)는 소아시아와 브루기아 도에서 발행되었고, 비밀상자의 뱀은 오시리스, 디오니소스(바쿠스)를 혹은 그 신들의 남근을 혹은 부활과 치유를 포도넝쿨은 디오니소스를 상징한다. 이들 지역에 디오니소스(바쿠스) 숭배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면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인데, 살아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 여기서 영적으로 이뤄지는 동시에, 죽어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기대로 되는 것이 아

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발적이고 솔선적인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넷째, 그리스도는 구약성서에 예언된 문자적 방식으로 성취되지 않았다. 유대인들은 구약예언의 성취, 곧 유대왕국과 성전예배의 재등장을 문자적으로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

이런 단순한 몇 가지 복음적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

도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불가사의란 뜻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이다.

둘째,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란 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불가사의란 뜻이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곧 극형에 처해진 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불가사의란 뜻이다.

셋째, 하나님께서 결정적 순간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등장시킨 것과 본문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감취놓으신 것이 불가사의란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간직하셨던 당신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 사함을 얻게 하셨으며(1:14, 엡 1:7),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엡 2:1).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피로써 인류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며(1:18-20),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엡 1:3-5).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요 손님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엡 2:19),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고, 후사가 되게 하셨다(엡 1:11).

히든카드05: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3)(골 2:6-10)

거룩한 예루살렘 성주(城主), 예수 그리스도



비투기아의 콜로새 주화(AD 117-138)

전면에 태양신 헬리오스를 새겼고, 뒷면에 콜로새(KOLOCHION)라고 썼다. 뒷면에 아르테미스의 사슴을 새겼고, 뒷면에 콜로새의 통치자, ΙΑΛΕ ΚΛΑΣΛΚΕ(?)의 이름을 썼다. 콜로새에서는 태양신, 디오니소스(바쿠스), 아르테미스, 키벨레(cybele) 등을 숭배했다. 키벨레는 비투기아 지방에서 숭배받았던 대리모신이자 죽음과 재생의 여신이었다.

바울은 콜로새서 2장 9-10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고 하였다. 이 말씀은 비록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그리스도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히든카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슈퍼스타, 하나님의 대장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승리자, 구세주이시다는 뜻이다. 또 이 충만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군(主君)으로 모신 성도는 그분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충만해졌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6-7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고 권면하였다. 이 말씀은 그분이 계신 거룩한 예루살렘 성내에 살라. 그분이 계신 성내에서 자리를 잡으라. 그분이 계신 성내에서 성장하라. 이미 배운 성내 주민의 믿음(교리) 위에 굳게 서라. 받은바 구원에 항상 감사하라고 권했다.

또 바울은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 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고 경고하였다. 이 말씀은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이 그리스도를 믿는 교리에 상반될 수 있다는 경고이다. 그 같은 영적 무기로 그리스도께서 주군으로 계신 거룩한 백성을 가로채고 사로잡으려는 자들에게 포로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라는 경고이다.

그러면 바울이 주의하라고 경고한 철학, 헛된 속임수(이단사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은 무엇이었는가? 당대의 그리스-로마사회의 문화와

관습은 신화에 기초한 종교와 철학에 깊은 관계가 있었다. 사람들은 3만이 넘는 신들을 받아들였고, 신전이나 사당에 모셔져 예배를 받았던 신들도 수없이 많았다. 또 각 신전과 사당들에서는 매년 수차례씩 축제가 열렸다. 이들 축제들은 대개가 우상숭배와 음복과 음행이 수반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혹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이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철학의 숙명론,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긴 에피쿠로스철학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토라준수를 강조하는 에비온주의가 교회에 침투하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권위에 도전하였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



브루기아의 라오디게아 주화(133 BC 이후)
전면에 월계관으로 장식한 라오디게(Laodice) 혹은 아프로디테(Aphrodite)를 새겼고, 뒷면에 지역 명칭인 라오디게(ΛΑΟΔΙΚΕΩΝ)와 헤르메스의 케뤼케이온(caduceus) 및 풍요의 뿔(cornucopiae)을 새겼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긴 유대인 에비온파들과 “미련한 것”으로 여긴 영지주의자들을 언급한바가 있다. 유대인 에비온파들은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무시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었다. 하나님을 지으신 세계는 보기에 좋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만물의 절반이 부정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한(kosher) 것과 부정한(treyf) 것을 구별한다. 율법과 규례에 따라 부정한 것을 엄금(嚴禁)하고, 정한 것만 먹고 사용한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와 창녀, 특히 이방인은 부정하므로 그들과 교제하면 부정하게 된다. 따라서 그들은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쾌락주의에 편향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저급하고 악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것을 지은 창조자는 저급한 신(神)이다. 눈에 보이는 세계와 육체는 감옥이며 악한 것이기 때문에 남용해도 된다. 하물며 어떻게 신이 악한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육체와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빛의 세계로 들어갈 지혜(열쇠, 암호)를 명상과 비전(秘典)을 통해서 찾고자했다. 그들은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되며, 불행은 숙명이고(스토아 철학), 쾌락은 최고의 선이다(에피쿠로스 철학). 따라서 불행한 자들을 멸시하고 착취하며 지배해도 좋다고 생각했다. 이들의 후예가 오늘날의 공리주의자들과

자유지상주의자들이다. 그들은 그 무엇도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바울시대를 지배한 철학 사상들에는 주전 4세기 초반에 제논과 에피쿠로스가 시작한 스토아철학과 에피쿠로스철학이 있었다. 스토아철학이 이성을 중시하여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통한 초연한 마음의 경지 곧 아파테이아(apatheia)를 추구했다면, 에피쿠로스철학은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쾌락 곧 아타락시아(ataraxia)를 추구하였다. 이런 점에서 스토아철학은 금욕주의 영지주의자들의 원조가 되었고, 에피쿠로스철학은 향락주의 영지주의자들의 원조가 되었다.

스토아철학은 자연을 세계의 정신으로 보는 범신론이자, 제우스까지도 운명에 지배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당대의 사람들은 예언을 받거나 점을 쳐서 운명을 알고자 했고, 불운을 행운으로 바꾸고자 했다. 또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추구하면서 희로애락과 생로병사에 무감정 무관심으로 대처했고, 욕심을 버려 마음의 평정을 얻고자 했다. 반면에 에피쿠로스 철학은 영혼불멸과 사후보응을 부정하였다. 신의 존재는 인정하였으나 물질 또한 영원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신의 창조와 통치와 섭리를 모두 부정하였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비루기아의 히에라폴리스 주화(AD 193-211)
 전면에 어깨에 곤봉을 짊어고 있는 헤라클레스를 새겼다.
 뒷면에 후기에이아(Hygieia)가 복신 아스클레피오스(Asklepios)를
 바라보며 뱀에게 먹이를 주고 있고, 아스클레피오스는 한 마리의 뱀이
 기어오르는 지팡이를 의지해 서 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의술, 의술의
 신이고, 후기에이아는 보건, 위생의 여신이다.

바울 당대의 사람들은 이미 여러 형태의 신화와 숭배신앙을 갖고 있었다.

첫째,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너희가 낱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며 초등학교문의 문제점을 지적한바가 있다. 따라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교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전혀 쓸모없는 신화, 철학,

율법주의, 영지주의, 천사숭배와 점성술을 말한다. 특히 천사숭배는 어떤 천사들이 인간의 일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지배한다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천사들을 달래고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둘째, 점성술숭배는 인간의 운명이 별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는데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별점을 쳐주는 장사가 널리 유행하였다.

셋째, 오시리스(Osiris)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지상 세계에 풍요와 안정을 가

저다주는 신으로서 사람들은 신화와 제의를 통해 오시리스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지하계의 왕이 된 오시리스처럼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다.

넷째, 샤오쉬안트(Saoshyant)는 조로아스터교의 구세주로서 종말 때 죽은 자들의 뼈를 일으켜 세워 육체를 입혀서 낙원과 지옥에 있던 영혼에 결합시키는 자이다. 사람들은 지옥에 있던 영혼들도 육체부활 후에는 낙원에서 살게 된다고 믿었다. 이 샤오쉬안트가 미륵신앙에도 영향을 주었다.

다섯째, 디오니소스(바쿠스)는 포도나무와 포도주, 제의적 광기와 무아지경, 죽음과 부활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여섯째, 헤라클레스 숭배와 연관된 카비루스(Cabirus)는 권리박탈자들을 변호하다가 자신의 두 형제에게 살해된 자로서 사람들은 그가 생전에 기적을 행하였고, 은밀히 환생하여 사람들을 돕고 있으며, 장차 재림하여 하층민들에게 정의와 평화, 독립과 영광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었다.

일곱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카비루스 숭배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황제 숭배가 도입되었고, 사람들은 카비루스가 카이사르의 몸으로 환생했다고 믿기에 이르렀다. 이후 황제 숭배는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교 복음으로 디오니소스(바쿠스)제전이 제공한 본능적 원시적 성적 에너지의 발산과 쾌락이 채워주지 못했던, 또 카비루스 숭배와 황제 숭배가 채워주지 못했던, 심지어 유대교조차 채워주지 못했던 영적 목마름에서 벗어났으나 그 즉시 카이사르와 그리스도 가운데 한 분을 선택해야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히든카드06: 할례와 침례(골 2:11-15)

믿음을 통해서(구원의 수단), 침례를 받을 때(구원의 시간)



새로 구입한 부정한 식기를 침례탕(Mikvah)이나 자연수(강, 호수, 바다)에 담갔다가 꺼냄으로써 정(kosher)하게 하는 유대교인들의 침례 의식(Tevilat Keilim). 이처럼 유대교인들의 침례는, 유대교 개종자에게 요구되는 침례뿐 아니라 율법과 규례가 정한 모든 침례 곧 새로 구입한 식기류와 개개인의 부정(treyf)을 정(kosher)하게 되돌려놓는 의미를 갖는 반복적인 의식이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할례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비유하였다. 따라서 “육의 몸(죄의 본성)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와 동일한 말씀이다.

12절에서 “너희가 침례로”(en to baptismo)는 “너희가 침례 가운데서” 또는 “너희가 침례 받을 때”라는 뜻이다. 따라서 “너희가 침례로”는 시간을 의미한다. 침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뜻이다. 성도들이 침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매장되고 나서 그분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였다는 말씀은 로마서 6장 3-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와 동일한 말씀이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침례가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와 동일한 말씀이다.

13절에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

13절에서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

도다.” 와 동일한 말씀이다. 따라서 골로새서 2장 13-15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구원의 수단),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후, 침례를 받을 때(구원의 시간)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 있는 빛 문서를 지워 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못 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는 뜻이다.

할례와 침례의 관계



예수님(Yehshuah)을 그리스도(Moshiach)로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교(Messianic Jews)의 랍비가 유대인 개종자에게 베풀고 있는 침례.

유아세레나 약식세례를 변호하는 이들은 침례의 모형을 할례나 피 뿌림에서 찾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침례의 모형을 할례가 아니라 이집트 탈출

1세대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데서 찾는다. 더불어 주의 만찬의 모형도 만나와 반석의 물에서 찾는다. 광야가 교회의 모형이고, 구름기둥이 성령님의 모형이며, 요단강 건너 가나안땅이 죽음 너머의 하늘 가나안땅의 모형이기 때문이다(고전 10:1-4). 더러는 침례의 모형을 성전의 물두멍에서, 주의 만찬의 모형을 성소의 진설병(매주 바꿈)에서 찾는다.

유아세례와 약식세례를 변호하는 이들은 세례의 모형을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날에 받는 할례의식에서 찾는다. 할례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외적 표시를 몸에 지니기 위해서 음경의 표피를 자르는 의식을 말한다. 반면에 침례는 그 어떤 외적 표시도 몸에 남기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13세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된다. 침례는 남녀 모두에게 시행되지만 할례는 남자아이에게만 시행된다. 침례는 나이에 상관없지만, 할례는 태어난 지 팔 일째 날에만 시행한다. 단 이방인 남자가 유대교에 개종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시행한다. 유대인들은 할례와 별도로 침례도 행한다. 침례에는 개종침례와 정결침례가 있는데 남녀의 차별이 없다. 할례와 이방인 개종침례는 토라와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 받지만, 침례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죄로 인해서 죽고 매장되며 부활하기 위해서 받는다. 할례는 문자적으로 지상 가나안땅을 기점으로 얻기 위한 것이지만, 침례는 영적으로 하늘 가나안땅을 기

업으로 얻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인 침례는 세례 요한의 회개침례, 옛세네파의 정결침례, 유대교의 개종침례와 정결침례와도 구별된다. 유대교에서의 침례는 미슈나 구전이 정한 정결례(Tohoroth)이지 회개를 위한 침례가 아니다. 새로 구입한 부정한 식기를 침례탕(Mikvah)이나 자연수(강, 호수, 바다 등)에 담갔다가 꺼냄으로써 정(kosher)하게 하는 유대교인들의 침례의식(Tevilat Keilim)이다. 이처럼 유대교인들의 침례는, 유대교 개종자에게 요구되는 침례뿐 아니라 율법과 규례가 정한 모든 침례 곧 새로 구입한 식기류와 개개인의 부정(treyf)을 정(kosher)하게 되돌려놓는 의미를 갖는 반복적인 의식이다.

2019년 3월에 유대교인들의 정결침례와 이방인들의 개종침례를 위해서 서울 남산 인근에도 침례탕이 생겼다. 유대인들은 출산이나 월경, 배우자와의 잠자리 뒤에도 침례탕에 들어가 부정(treyf)을 정(kosher)하게 해야 한다. 그 래야만 회당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다. 침례탕의 물은 빗물이나 강물처럼 살아 있는 물이어야 한다. 남산에 설비된 유대인 침례탕은 빗물을 사용한다고 한다.

초기 그리스도교 증언들



좌측은 예루살렘 근교인 예인 케렘(침례 요한의 고향)에서 발견된 약 2000년 전의 것으로 보이는 고대의 의식용 침례탕이고, 우측은 2019년 3월 서울 남산 인근에 설치된 유대교 의식용 침례탕(Mikvah)의 모습.

약식세례가 합법화된 것은 1311년 라벤나 공의회에서였다. 적어도 12세기까지는 침수세례만 베풀어졌다. 비잔틴교회들의 유적으로는 십자가형(에베소) 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팔각형 침례탕(빌립보)

들이 남아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해서 만든 1,000여개의 동굴교회들이 몰려있는 터키 카파도키아에도 침례탕들이 남아 있다. 약식세례가 시행된 것은 십자군 전쟁 때이다. 당시 몰려온 많은 군인들에게 한꺼번에 침례를 베풀면서 생겨난 편법이다. <그리스도교 대사전>(대한기독교서회, 1972)에도 “초기 교회에 있어서 적어도 12세기경까지 세례는 ‘침례’가 보통이었다. 그 후 머리에 물을 적시거나 물을 뿌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발전했다. 그 이유로는 병자와 유아를 침수시키기 어렵다는 데서였다.”는 설명을 실고 있다. 초대교회 때의 침례는 몸을 세 번 물속에 담그는 방식이었다. 헬라이어 바티조(baptizo) 또는 바티스마(baptisma)를 우슬초로 피를 적셔 뿌리거나, 염색하거나, 발목 깊이의 물에 들어가는 행위로서 ‘침수’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을 시행해온 국교(AD 392) 이전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말이다.

<디다케>(AD 100년경): “살아 있는 물로 baptisma 주시오. 만약 살아 있는 물이 없으면, 다른 물로 baptisma 주시오. 찬 물로 할 수 없으면, 더운 물로 하시오.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세 번 부으시오.”

<사도전승>(AD 215년경): baptisma 받을 사람이 물에 내려가면 …고백할 때마다 그를 침수시키기를 세 번 할 것이다.”

테르툴리아누스(AD 225년 사망): “우리는 물속에 침수되었다”(On Baptism 7).

예루살렘의 키릴로스(AD 386년 사망): “물속에 뛰어들어 baptisma를 받는 자는 물로 전신을 덮는다”(Catechetical Lectures XVII: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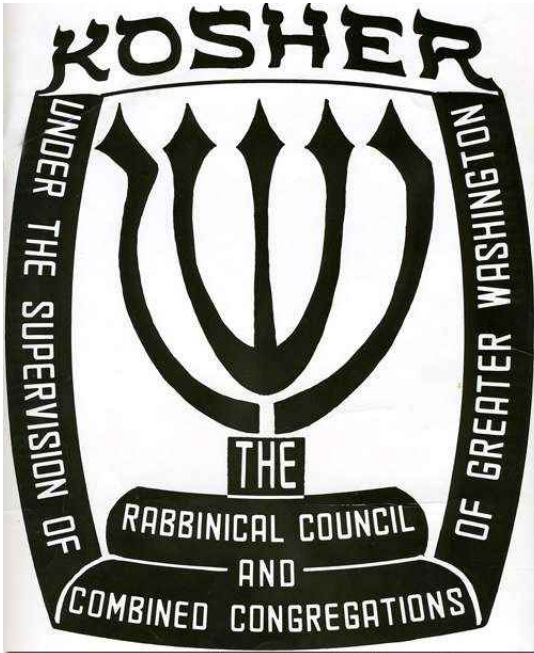
암브로시우스(AD 397년 사망): “당신이 담그고 일어날 때”(On the Sacraments III.i.1,2).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AD 407년 사망): “그가 세 차례 머리를 담그고 일으켜 세운다”(Baptismal Instructions II:26). “어떤 무덤에서처럼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머리들을 물속에 가라앉힐 때, 옛 사람은 장사된다. 그리고 그가 수면 아래로 잠기듯이, 그는 몸 전체가 확실하게 감춰진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들을 들 때, 새 사람으로 다시 나타난다”(Homilies on John XXV:2, on John 3:5).

골로새서 2장 12절은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침례를 구원의 시간으로 말한다.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서 2장 8-10절은 은혜를 구원의 근원으로, 믿음을 구원의 수단으로, 선행을 구원의 목적으로 말한다.

히든카드07: 율법과 규례들(골 2:16-17)

유대교인들의 카샤룻 음식법



워싱턴 DC 유대교 총회 및 랍비 협의회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유대교 음식법 카샤룻(Kashrut) 마크(1966년). 마크 상단에 Kosher(정한)을 중앙에 메모라를 새겼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17절에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 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식법인 카샤룻(kashrut)과 절기축제들 그리고 안식일 법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보인다. 골로새 교회에 출입하는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 헬라인들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것들을 이유로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고 했고, 이런 것들은 모두 “장래 일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는 그리스도 이시다고 밝혔다.

카샤룻의 핵심은 첫째로 정한(kosher) 것과 부정한(treyf)을 엄격히 구별하여 먹거나 사용하는 데 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정한 것만 먹거나 사용하는 것이 거룩한(kodesh) 삶이다. 잘라냄 또는 분리함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데쉬(kodesh)는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뜻한다. 구약성서에 이 말이 830회 이상 쓰였다고 한다.

카샤룻의 핵심은 둘째로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이 섞이지 않게 하고, 엄격히 구별하여 먹고 사용하는 데 있다. 만일 이 두 제품이 섞인다면 그 즉시 부정한 음식이 된다. 따라서 고기에 치즈나 우유를 섞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일 고기제품과 우유제품을 모두 먹어야 할 경우라면, 최소 3시간에서 6시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 먹어야 한다.

카샤룻의 핵심은 셋째로 고기제품에 사용된 식기와 조리기구와 우유제품에 사용된 식기와 조리기구가 어떤 경우에도 섞이지 않게 철저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설거지하며 보관해야 한다. 따라서 카샤롯 음식법을 지키는 유대교인들은 식기와 조리기구(스토브, 전자레인지) 및 싱크와 찬장까지 별도로 구비해놓고 전용으로 사용한다.

유대교인들은 식기류를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한다. 요즘에는 육류용(빨강), 유제품용(파랑), 그 밖의 식품용(초록)이 색깔로 구별될 뿐 아니라 용기에 글씨를 박아 출시한다. 색 구별이 없는 식기류에는 스티커를 붙인다. 이처럼 모든 식기류에 육류용, 유제품용, 그 밖의 식품용이란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위를 유지해야 정(淨)한 그릇으로 남는다. 만일 육류를 조리했거나 육류를 담았던 그릇에 유제품을 조리하거나 유제품을 담으면, 그 그릇은 육류용 지위에서 유제품용 지위로 바뀐 것이 되고, 그로 인해서 부정(不淨)한 그릇이 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유대교인들의 절기축제



유대인들의 하누카(수전절) 축제 마지막 날인 제8일째날 촛불
유대인들의 모든 축제는 종교적이며, 민족의 생사와 관련되어 있다.

유대인들의 절기축제는 모두 다 음력으로 지키며 민족과 야훼신앙에 관련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신년은 우리 민족의 추석명절이 낀 티쉬리(Tishri) 월에 시작된다. 유대인들은 설날을 ‘로쉬 하샤나’ (Rosh Hashanah)라 부르는데, 이 날을 지난해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는 날과 양각나팔을 부는 날로 삼는다.

다.

유대인들은 대 속죄일을 ‘욘 키푸르’ (Yom Kippur)라고 부르는데, 설날인 ‘로쉬 하샤나’로부터 열흘째 날에 지킨다. 이 날은 그 해의 생명책이 인봉되는 심판의 날이며, 죄 사함을 받고 또 죄를 용서하는 속죄일이고, 하나님과 이웃과 더불어 해원(解冤)하는 상생(相生)의 날이며, 설날부터 시작된 열흘간의 회개의 기도를 완결시키는 날이다. 이 날은 24시간을 금식하며, 예배로 거룩하고 엄숙하게 보낸다. 양각나팔로 속죄일의 시작과 끝을 알린다.

대 속죄일이 끝난 5일 후 보름날부터 8일간 ‘숙콧’ (Sukkot)이라 부르는 초막절(추수감사절)을 지킨다.

초막절이 끝나는 제8일째 날 곧 22-23일 이틀간 ‘심חת 토라’ (Simhat Torah, 토라 속에서의 기쁨)라 불리는 토라축제를 갖는다. 유대인들은 일 년에 한차례씩 토라(모세오경)를 완독하게 되는데, 이날이 바로 그 날인 것이다. 이날 토라읽기를 다 마치면 토라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회당주변을 행진하면서 충만한 기쁨으로 마음껏 노래하고, 토라와 더불어 회당에서 춤도 추고, 와인도 마시며 축하한다.

이밖에도 유대인들은 매월 월삭(Rosh Chodesh)을 지킨다. 이날 유대인 여성들에게는 일을 멈추고 하루 동안 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또 주전 164년 마카비 전쟁에서 헬라제국 셀류키드 왕조의 박해자 안디옥쿠스 4세를 이기고 예루살렘을 탈환하여 성전을 봉헌했던 날을 기념하는 ‘하누카’ (Hanukkah)가 성탄절 시기에 맞물려 있는데 8일 밤 동안 불을 밝히는 행사를 갖는다. 또 모르드개와 유대인들이 하만의 음모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여 관련 성구들을 읽는 ‘부림절’ (Purim)이 있고, 너무나 잘 아는 ‘유월절’ (Pesah)과 무교절이 있으며, ‘오순절’ (Shavuot)이 있다. 오순절은 유월절 안식일 다음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 이날은 맥추절이기도 하고, 특히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토라’ (Torah) 곧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들 축일들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교와 가장 관련이 깊은 축일이 유월절과 오순절이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날이고, 오순절은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창립된 날이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성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 20:8)는 계명은 제4계명인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범주를 창조행위에 국한 한다. 태초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제 칠일 안식일에 쉬셨는데(창 2:2), 안식일에 창조를 멈추신 것은 천지만물이 다 완성되었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라고 한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멈추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안식일에 모든 창조행위(Melacha)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창조행위를 39가지의 범주로 규정한다. 성경은 무엇이 인간의 창조행위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광야시대에 성막(Mishkan)을 짓도록 한 출애굽기 31-35장의 명령을 통해서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다. 성막건축은 그 자체가 세계의 축소판이며, 창조행태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본 것이다.

유대교의 핵심 주제는 안식이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의 장소는 가나안땅이다.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 떠돌이와 노예로 살았다.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땅은 기나긴 떠돌이와 노예의 삶을 끝내고 취할 안식의 땅이다. 유대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유대인 여성들은 집안에 초콜을 받힌다. 독신 여성은 한 개를 기혼 여성은 두 개 혹은 가족의 숫자만큼 받힌다. 불을 받힌 후 두 눈을 가린 채 기도문(베라카)을 낭송한다. 그리고 초콜은 다음날 저녁 안식일이 종결될 때까지 그 자리에 둔 채 옮기지 않는다.

인들이 매우 엄격히 지키는 제 칠일 안식일도 안식의 땅을 다시 빼앗기지 않거나 복구시키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와 관련되어 있고, 하루 세 번하는 기도회들도 그 같은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유대인들의 안식개념은 지나치게 민족적이고, 배타적이며, 땅 중심적이다. 또 그것은 지나치게 현세적이고 물질적이다.

유대인들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안식개념을 내세

적이고 영적인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 그리스도교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은 지상 가나안땅에서의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땅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쉼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는 육체노동을 마치고 잠시 쉬는 일시적인 유대교적 안식개념을 버리고, 무덤(흑암, 혼돈, 죽음)의 상황을 박차고 일어나는 부활정신, 부활신앙, 부활의 삶을 안식의 개념으로 취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는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강조하는 제 칠일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지키고 있다. 제 칠일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일요일 안식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진정한 쉼을 주는 참 안식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안식은 일하지 않는다는 육체의 쉼보다는 참 평안을 누린다, 해방을 만끽한다, 자유를 누린다는 것과 같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쉼을 의미한다.

히든카드08: 천사숭배와 금욕주의(골 2:18-23)

유대교인들의 천사숭배(1)



터키 아나톨리아의 고대 카리아(caria)의 수도 카우노스(Kaunos, c. 410-390 BC)의 주화. 전면에 날개가 있는 여신이 무릎을 꿇은 채 손에 카두케우스와 화환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새겼고, 뒷면에 헬라어로 D와 G를 새겼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8-19절에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므로 자란다.” 고 하였다. 18절에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는 “너희의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는 뜻이다. 또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는 거짓 교사들이 천사들에 대한 환상을 봤다는 주장을 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는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이 마치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처럼 과장하며 그렇지 못한 자들에 비해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영적 교만을 갖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19절에서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는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갔다는 뜻이다.

이들 천사를 숭배하는 거짓교사들은 과연 누구였을까? 율법주의자 유대인들과 영지주의자 헬라인들 모두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히브리서 1장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천사까지 언급하고,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강조하였는데 그 이유가 어찌면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천사숭배가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대언자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한 족장들과 모세와 선지자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토라를 모세에게 전달하셨다(히 2:2, 행 7:38, 53, 갈 3:19). 그러므로 모세보다 월등히 더 뛰어난 대언자가 천사들이다. 이로 보건데 고대 때부터 유대인들 사이에서 천사들을 숭배하는 신앙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세파르딕 랍비요 의사였던 마이모니데스(Maimonides, AD 1135-1204)는 구

약성서에 등장하는 영적 존재들을 천사들로 보고 10등급으로 나눴는데, 그들이 “네 생물” (Chayot Ha-Kodesh, 겔 1:5,8), “바퀴들 속에 있는 그룹영들” (Ophanim, 겔 1:20-21, 10:17), “용사” (Erelim, 사 33:7), “불속에서 번쩍이는 금불이 같은 것” (Chashmalim, 겔 1:4), “스랍들” (Seraphim, 사 6장), “천사들” (Malachim), “신들” (Elohim), “신들의 아들들” (Bene Elohim, 창 6:2), “그룹들” (Cherubim, 창 3:24), 그리고 “사람” 모습의 천사(Ishim, 창 18:2, 단 10:5)이다. 네 생물들은 하나님의 지성소를 수호하는 어전천사들이자, 의전 천사들이며, 하나님의 전차들이자,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다.

유대교인들의 천사숭배(2)



인도-헬라 왕 메난데르 2세(Menander II, 90-85 BC)의 주화
 전면에 의인 메난데르 2세의 두상을, 뒷면에 의인 메난데르 왕의
 (BASILEOS DIKAIΟΥ MENANDROU)라고 새겼고, 뒷면에 여신
 승리가 화환과 올리브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을, 뒷면에 Kharoshthi
 폰 메난데르, 다르마의(Dharma, 달마, 법)의 추종자라고 새겼다.

유대인들의 기도서 <싯두르>에 의하면, 유대교 정통주의자들 혹은 보수주의자들은 안식일 저녁기도회(금요일)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혹은 안식일 저녁식사(금요일) 식탁에서 수호천사(섬기는 천사)들에게 기도문을 낭송 하는 것이 관례이다. “섬기는 천사시여, 당신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가장 높은 곳의 천사들이시여, 만왕의 왕으로부터, 거룩하신 분이시여 복 받으소서.” 또 상당수 유대인들은 잠들기 전에 네 분의 대천사들께 기도문을 낭송한다. “저의 오른쪽에서 미카엘이, 저의 왼쪽에서 가브리엘이, 저의 전면에서 우리엘이, 저의 뒤편에서 라파엘이, 저의 머리위에서 하나님의 쉼키나가 지켜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구약외경 <에녹1서>에는 이들을 포함한 일곱 대천사들이 언급되고 있다.

또 유대인들은 초막절축제 직후 토라 완독을 축하하는 ‘심핫 토라’ 때 회당에서 모든 남자아이들에게 혹은 모든 아이들에게 토라를 읽게 하고, 전회중은 그들을 위해서 창세기 48장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옵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를 낭송하여 축복한다.

튀쿠스 계곡에 위치한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 미카엘 천사를 숭배하기 시작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히에

라폴리스에서 멀지 않은 케레토포스(Cheretopos, 코나라는 주장도 있다.)에는 미카엘 천사를 기념하여 4세기에 라오디게아 사람이 지은 성 미카엘 교회(St. Michael Church)가 있었다. 에베소에 거주하던 사도 요한이 이곳까지 내려와 복음을 전한 후 떠나면서 거룩한 물이 흐르는 샘이 생길 것인데 미카엘이 그 물로 큰 능력을 행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전한다. 그 후에 병을 고치는 거룩한 물이 흐르는 샘이 생겼고, 사람들이 몰려와 이 물로 병을 고쳤다고 전한다. 한편 인근 라오디게아에 부유한 헬라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말을 못하는 병어리 딸이 있었다. 그도 이 샘의 물로 자신의 딸의 병을 고친 즉시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가족이 모두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이 샘가에 성 미카엘 예배당을 지어 바쳤다.

주후 363년에 개최된 라오디게아 회의의 결정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버리고 결길로 나가 천사들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이 은밀한 우상숭배에 종사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요, 우상 숭배로 타락한 자이니만큼 정죄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신조 xxv). 1세기 후 테오도렛(Theodoret)도 본문을 주석하면서, “사도 바울이 탄핵한 이 병폐가 브루기아와 비시디아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고 서술하였다.

헬라인들의 천사숭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AD 69-79)의 주화
 전면에 로마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두상을, 뒷면에 임페라토르 카이사르 베스파시아누스 아우구스투스(IMP CAES VESPAS AVG)라고 새겼다. 뒷면에 여신 평화가 화환과 올리브가지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뒷면에 아우구스투스의 평화(PACI AVGVSTAE)라고 새겼다.

바울은 20-23절에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고 하였다. 이 구절들에서 바울은 천사숭배, 금욕주의, 율법주의, 영지주의를 포괄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여겨진다.

바울 당대는 플라톤의 이데아론, 금욕을 강조하는 스토아철학의 숙명론, 쾌락을 최고선으로 여긴 에피쿠로스철학 모두에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와 또

토라와 규례와 가난을 강조한 에비온주의가 교회에 침투하여 사도들의 가르침과 권위에 도전하던 때였다. 바울시대를 지배한 스토아철학은 이성을 중시하여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통한 초연한 마음의 경지 곧 아파테이아(apatheia)를 추구하고, 에피쿠로스철학은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쾌락 곧 아타락시아(ataraxia)를 추구하였다. 이런 점에서 스토아철학은 금욕주의 영지주의자들의 원조가 되었고, 에피쿠로스철학은 향락주의 영지주의자들의 원조가 되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너희가 낱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며 초등학문의 문제점을 지적한바가 있다. 따라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전혀 쓸모없는 신화, 철학, 율법주의, 영지주의, 천사숭배와 점성술 등을 말한다. 특히 천사숭배는 어떤 천사들이 인간의 일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지배한다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천사들을 달래고 회유하기 위해서 그들의 존재와 활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에게 영지(gnosis)를 계시하는 인간보다 더 높은 계급의 신적 존재 즉 빛의 사자들을 믿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참이 아니고, 불완전한 창조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동굴감옥 같은 어둠의 세계라고 생각했다, 인간 역시 불완전하지만, 그 내면에 신적인 불꽃이 있어서, 인간보다 높은 계급인 빛의 사자들로부터 영지를 받아 깨달으면, 육체감옥을 탈출하여 근원적인 빛의 세계에 도달하여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또 저급한 신인 구약성서의 조물주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것을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뱀을 지혜와 빛의 사자로 높였다.

히든카드09: 땅의 것과 위의 것(골 3:1-11)

“위의 것을 찾으라.”



비투기아의 콜로새 주화(AD 117-138)

전면에 여성 시민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콜로새의 시민(ΔΗΜΟΣ ΚΟΛΟΧΗΝΩΝ)이라고 썼다. 뒷면에 Klaudia Eugenetoriana에게 헌정(ΚΛΑΥΔΙΑ ΕΥΓΕΝΕΤΟΡΙΑΝΗ ΑΝΕΘΗ)이라고 썼고, 물이 흐르는 단지 7월에 갈대를 잡고 비스듬히 앉은 강의 여신을 새겼다.

이러한 주화는 당시 로마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며, 특히 콜로새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이 주화는 콜로새의 영광을 상징하며, 특히 콜로새의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나타내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

1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은 사단(죄)의 노예살이를 했던 영적 이집트를 떠나 홍해라는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뜻이다. 또 “위의 것을 찾으라.”는 홍해라는 침례를 통해서 광야라는 교회생활을 시작했다면, 하늘 가나안땅이라는 “위의 것”에 방향을 고정하고 전진하라는 뜻이다.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떠나온 이집트로 상징되는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위에 있는 하늘 가나안땅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할 곳은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땅,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 영원한 안식처이기 때문이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앞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뒤따라 “휘장 안” 곧 지성소 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갈 소망성취 곧 영원한 하늘 피난처에 정착시켜줄 “영혼의 닻”이다(히 6:19-20).

3절 “너희가 죽었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을 상징하는 침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영적으

로 죽었음을 의미한다.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졌음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침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났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같은 신령한 체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함으로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감춰진 신비라는 뜻이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후 삼 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것과 같다. 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중에 나타나리라.”는 주께서 재림하실 때 이 감춰진 신비가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라는 뜻이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비투기아의 골로새 주화(AD 181-192)

전면에 시민의 두상을 새겼고, 둘레에 골로새의 시민(ΔΗΜΟΣ ΚΟΛΟΧΗΝΩΝ)이라고 썼다. 뒷면에 네 톨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탄 태양신 헬리오스(아폴로)가 햇볼과 지구를 들고 선 모습을 새겼고, 둘레에 ΑΠΟΛΛΩΝΙΟΣ ΒΑΣΙΛΕΥΣ ΤΩΝ ΔΙΟΚΡΑΤΩΝ ΑΝΕΘΗΚΕΝ 라고 썼다. 골로새에서는 태양신, 디오니소스(바쿠스), 아르테미스, 키벨레(cybele) 등을 숭배했다. 이 주화는 태양신 아폴로(헬리오스) 혹은 통치자 아폴로니아오스에게 헌정된 것일 수 있다. 골로새는 반자치 도시였기 때문에 주화를 주조할 수 있었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에서 “땅에 있는 지체”는 땅의 본성, 썩어질 본성, 육체의 본성 혹은 본능을 말한다. 그리고 “죽이라”는 자기부정의 금욕주의를 추구했던 스토아철학으로 볼 때, 억제하라. 죽은 자처럼 다루라. 무시하라는 뜻이다. 3절에서 “너희가 죽었다”고 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침례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옛 본성을 죽인 자들

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기로 약속을 받았으며, 그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전진한다는 뜻이다. 마치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땅을 향해서 광야를 행진한 것과 같다. 따라서 3절에서 “너희가 죽었다”는 침례 곧 홍해 건넌에 해당되고, 5절에서 육체의 본성을 죽이라는 광야행진에 해당된다. 그리고 요단강은 육체의 본성(본능)이 문자적으로 사망하는 육체의 죽음에 해당된다. 따라서 3절에서 “너희가 죽었다”는 육체가 문자적으로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롬 6:4)는 뜻이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이다(롬 6:2,11).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미 죄 값을 받았다는 뜻이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도 문자적으로 다시 살았다가 아

나라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늘 가나안땅을 상속받기로 약속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 했고, 로마서 6장 12-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6-7장과 동일한 맥락에서 골로새서 3장 5-9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라.”고 하였다.

“새 사람을 입었다.”



보루기아의 히에라폴리스 주화(AD 198-268)
 전면에 태양신(Apollo, Helios)을 새겼고, 둘레에 통치자의 이름 라이르베노스(Lairbenos)를 새겼다. 뒷면에 보전, 위생의 여신 하이기에이아(Hygieia)가 의자에 앉아 병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과 후드를 쓴 건강회복의 신 텔레스포루스(Telesphorus)가 뒤에 서서 하이기에이아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작게 새겼고, 둘레에 히에라폴리스(Hierapoleiton)이라고 새겼다.

바울은 10-11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스키티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다.”고 하였다. 바울은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 3-4장에서도 이와 동일한 권면을 하였다.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고, 3장 5-6절에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하였으며, 4장 6절에서 “하나

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고 하였다.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마치 오랫동안 노숙생활을 하던 자가 목욕탕에서 말끔히 씻고, 이용원에서 이발과 면도를 하고, 옷 가게에서 새 옷을 사서 입은 것처럼, 옛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말한다(롬 13:14). 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뜻이다(엡 4:24).

여기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고, 회개하고, 침례 가운데서 새 사람(거듭남, 중생, 새로운 본성)을 곧 초기성화를 입었다는 뜻이다. 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는 초기성화를 이룬 후 지속적으로 점진성화를 이루는 자라는 뜻이다. 초기성화의 모형과 그림자는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건넌 후 광야에 진입한 것이고, 점진성화의 모형과 그림자는 행군을 시작하여 약속의 땅에 다가간 광야순례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뜻인 생명과 축복을 홍해라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시점이 초기성화이고, 하늘 가나안땅 예루살렘 지성소 보좌 앞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기까지의 신앙순례가 점진성화이다. 그리고 11절은 이 구원의 축복이 민족색깔 성별신분의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말씀이다.

히든카드10: 일치와 예배(골 3:12-17)

갈등을 만드는 본성은 육체에 있다.



칼키데케 연맹(432-348BC)의 올린투스(355-352BC). 전면에 올린투스(Olynthus)를, 뒷면에 키타라(기타, cithara)를 새겼고, 둘레에 칼키데온(chalcideon)이라고 새겼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1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고 권면하였다. 이 말씀은 성도들의 일치를 당부한 말씀으로 볼 수 있다. 일치는 그리스도교 선교의 목표이다. 인간들은 피조물로서 에덴동산에 머물 때 얼마간 하나님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피조물은 선악의 여부를 떠나서 존재 그 자체가 불완전하고 부족해서 죄와 허물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을 타고 났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고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만드는 본성이 그의 육체에 있다. 그 본성이 본능인데, 본능은 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상황에 길들여진다.

뇌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필요하다면 거짓말도 만든다. 뇌는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기억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상대방에게 잘해준 것과 상대방이 자기에게 나쁘게 한 것을 주로 기억장치에 저장한다.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에게 잘 해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뇌가 생존에 필수적인 정보를 우선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이다. 또 뇌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장치에 저장한다. 따라서 뇌는 끔찍하고 두렵고 위험했던 순간들과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들도 기억장치에 담아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상반된 추억들을 떠올리는 이유는 뇌의 기억장치가 그런 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이 아니라, 각자가 그렇게 추억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뇌의 기억장치 속에는 회상되지 못한 수많은 기억들이, 마치 골방에 처박힌 잡동사니들처럼, 쓸쓸이 처박혀 있다. 그 잊힌 기억들을, 다시 말해서, 자신이 상대방에게 나쁘게 한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하고, 또 상대방이 자기에게 배

픈 좋은 추억들을 끄집어내서 감사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인간관계가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

이 같은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것을 자주 회상하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고 권면하였다. 게다가 상대방이 자기에게 베푼 추억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감사할 기회를 갖는 좋은 습관을 키운다면, 인간관계는 크게 개선될 것이다. 뇌는 길들어지기 때문에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키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일치는 선교의 목표이다.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퀸투스 카에피오 브루투스, 428C)의 데나리온
전면엔 자유의 여신 리베르타스(Libertas)를 새겼고, 뒷면 둘레에
카에피오 브루투스 출독(CAEPIO BRVTVS PRO COS)이라고 새겼으며,
중앙에 수금(Lyre)을 좌우에 채와 리본을 장식한 올리브가지를 새겼다.

바울은 14-15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 권면하였다.

토마스 캠벨이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장로교 목사가 교회들이 여러 교파들로 쪼개지는 현상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1809년 <선언과 제언>이라는 책을 펴내 펼친 운동이 교회일치운동이었다. 일치는 선교의 목표이다. 하나님과 일치해야할 우리 인간이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막힌 담을 쌓게 되었고, 형제들이 일치하지 못하고 수치와 불안과 의심과 미움과 비방과 중상과 모략과 살인으로 피차에 원수가 되었다. 이 같은 원한을 풀고 화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담들을 허무셨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히브리서는 이 막힌 담을 일컬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였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것은 이 막힌 담을 허무신 것이라고 했다. 이 점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9-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다.” 고 하였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져 지성소 하나님

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토마스 캠벨을 비롯해서 일치를 추구했던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성도들은 일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성서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을 침묵하자.” 는데 합의를 보았다. 또 “본질에 일치하고 비본질에 자유(견해)를 허용하며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자.” 는데 합의를 보았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를 제대로 이해한 슬로건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을 자유(견해)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금지로 볼 것인지를 놓고 대립하였고, 본질이라는 그릇에 담아야 할 것과 담지 말아야 할 것을 놓고도 대립하였으며, 무엇이 비본질인지, 어디까지가 비본질인지를 놓고도 대립하였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 알량한 교리와 신념 때문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고한 사도의 권면을 외면해왔다. 이로써 “성서가 말하는 것을 말하고, 성서가 침묵하는 것을 침묵하자.” 는 외침도, “본질에 일치하고 비본질에 자유(견해)를 허용하며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하자.” 는 외침까지도 공허한 메아리로 남게 되었다.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시몬 발 코르바의 예루살렘 데나리온(AD 134-135). 전면에 시몬(Shimon)이라고 새겼고, 들레에 아몬드 열매로 화환을 새겼다. 뒷면 중앙에 수금(Lyre)을, 들레에 이스라엘에 자유를 이라고 새겼다

바울은 16-17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

16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는 장로(오늘날의 목사)의 두 가지 기능을 말한다. 그것들은 케뤼그마와 디다케 곧 선포와 교육이다. 여기서 선포는 권면이요, 권면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예언이며 설교이다. 예언운동은 회개운동과 회복운동을 포함한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한 권면이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토라(모세오경)를 판단기준으로 한 회개운동을 펼쳤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근거로 회복운동을 펼

쳤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초기 예루살렘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고 했는데, “사도의 가르침” 이 본문 16절의 “가르치며 권면하고” 에 해당된다.

16-17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언급된 예배의 네 가지 골격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에 해당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는 “기도하기를 힘썼다.” 에 해당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에 해당된다.

‘장로교회의 예배회복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한국장로교신학회가 2011년 3월 5일에 개최한 제17회 학술발표회에서 주승중 주안장로교회 목사(당시 장신대 교수)는 종교개혁가 칼뱅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실린 ‘말씀 선포와 가르침,’ ‘주의 만찬,’ ‘공중 기도와 찬양,’ ‘교제와 구제’ 를 그리스도교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네 가지 골격으로 꼽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011년 3월 7일자 <국민일보>). 또 주승중 목사는 한국 장로교회들의 예배에서 ‘성경을 떠난 설교,’ ‘주의 만찬의 상실,’ ‘뿌리 없는 기도와 찬송,’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 ‘성령에 둔감한 예배’ 를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성경을 인용하는가하면,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면만 전달함으로써 성경말씀의 전체 맥락과는 동떨어진 설교가 범람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 기복주의 신앙과 인기에 영합하는 설교들로 인해서 성도들의 삶에 바람직한 변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2011년 3월 8일자 <기독신문>).

히든카드II: 가정의 위계질서(골 3:18-4:1)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Septimius Severus, AD 193-211)의 금화 주화 202년에 주조되었다. 전면에 율게관을 쓰고 갑옷 차림을 한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를 둘러싸고 세베루스 피우스 아우구스투스 대신관 호민관 집정관 3회(SEVER P AVG P M TR P X COS III)라고 새겼다. 뒷면 중앙에 부인 줄리아 돤나(Julia Domna)를 왼쪽에 율게관을 쓴 카라칼라(caracalla)를 오른쪽에 게타(Geta)를 둘러싸고 행복 시대(FELICITAS SAECVLI)라고 새겨 홍보하였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8-19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사도 바울은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였을까? 많은 이들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이고 아내 순서나 창조질서로 보더라도, 또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이 같은 신념 때문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차별, 신분의 차별, 민족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신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써 이 같은 모든 담들을 허무셨다는 것이 신약성서 저자들의 신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위계질서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다. 모세가 율법에서 명한 이혼증서가 가부장사회에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함부로 내쫓지 못하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고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사회적 약자였던 당대의 아내들을 남편들로부터 보호받고 사랑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당대에는 부인이 남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이다.

바울시대의 여성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법적으로 사람이 아니었다. 노예가 주인에게 예속되듯이,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예속되었다. 여성에게 임신과 집안 일 맡고는 법적 지위란 것이 없었다. 여자는 투표권도 없었고, 교육도 받지 못했다. 이혼이 흔했지만 여성에게 불리한 것이었다. 폭력은 자연스런 일상이었다. 가장은 부인과 어린 딸

을 매춘부로 내몰기까지 했다. 폭력적인 남편에게 아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참금을 되돌려 받고 이혼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혼녀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직업은 거의 없었다. 가난은 여성들을 매춘부의 길로 내몰았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며 하나님의 위임권세를 주장하였다. 여기서 권세란 옳고 그름을 규정하고, 비행을 처벌함으로써 옳은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따라서 바울은 가정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아내의 남편이자 자녀들의 아버지인 가장에게 부여된 권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에시아 인페리오르(MOESIA INFERIOR, Marcianopolis) 주화
 모에시아는 로마의 변방으로서 현재의 세르비아와 불가리아 지방에 있었다. 이 지역의 주화들은 전면엔 부부, 부자, 모자가 얼굴을 맞댄 모습을 띠고 있다. 위의 주화 전면엔 마크리누스(Macrinus, AD 217-218)와 그의 아들 디아두메니아누스(Diadumenianus)를 새겼고, 뒷면에 활을 쏘는 아폴론과 나무를 감고 오르는 뱀을 새겼다. 아래의 주화 전면엔 고르디안 3세(Gordian III, AD 238-244)와 그의 부인 트란quil리나(Tranquillina)를 새겼고, 뒷면에 오른손에 배의 키와 왼손에 풍요의 뿔을 쥔 행운의 여신 튀케(Tych)를 새겼다.

신학자 하비 콕스는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2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숭배하지 말라고 명하신 것은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 한분뿐이시며, 피조물인 인간들은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깨우친 말씀으로 인식하였다. 권세가 인간의 것이 아닌란 뜻이다. 인간에게는 애초부터 권세가 없다는 뜻이다. 어느 누구도 권세를 타고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간세상의 권세는 모두가 하나님의 위임권세요 잠정적이다.

권세의 가장 작은 단위는 가정이다. 하나님께서는 부(父)와 모(母), 특히

부(父)에게 가정을 치리할 권세를 주셨다. 중요한 것은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가정에 위임된 권세 또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권세란 것이다. 바울은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4절까지에서 남편과 부인,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

며 복종해야 할 것인가를 권면하였고, 골로새서 3장 18-21절에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고 권면하였다. 가톨릭교회의 기도서에서 보듯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한가지로” 존재하신다. 남편은 아내를 통하여 아내와 함께 아내 안에서 자녀들과 한가지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삼위일체식 존재방식이다.

신학자 몰트만은 국가든, 교회든, 가정이든 권세를 수직적 위계질서로 보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순환관계로 볼 것을 권했다. 수직적 위계질서가 독재자 황제, 교황, 아버지를 만들고, 또 황제들은 “신의 아들,” “신(神)과 주(主)”를 참칭하며 백성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노예로 삼았다. 교황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주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섬기지 않고 지배하였고, 아버지도 부인과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괴롭게 하고 노엽게 하며 낙심시켰다. 바울은 다스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들로서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권면하였다. 그 권세가 자신들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의 실현을 위해서 위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종들이...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바울은 22-25절과 4장 1절에서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이다.” 고 권면하였다.

바울은 신분차별을 허용치 않았지만, 사회제도를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다. 바울은 사회개혁이나 혁명의 성패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민족색깔 성별신분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되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뤄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당대의 노예제도를 정치적으로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종들에게는 주인에게 복종하고 책임을 다할 것을 권면하였고, 그리스도인 주인들에게는 종들을 형제처럼 여기라고 권면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도 노예도 동일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요 형제자매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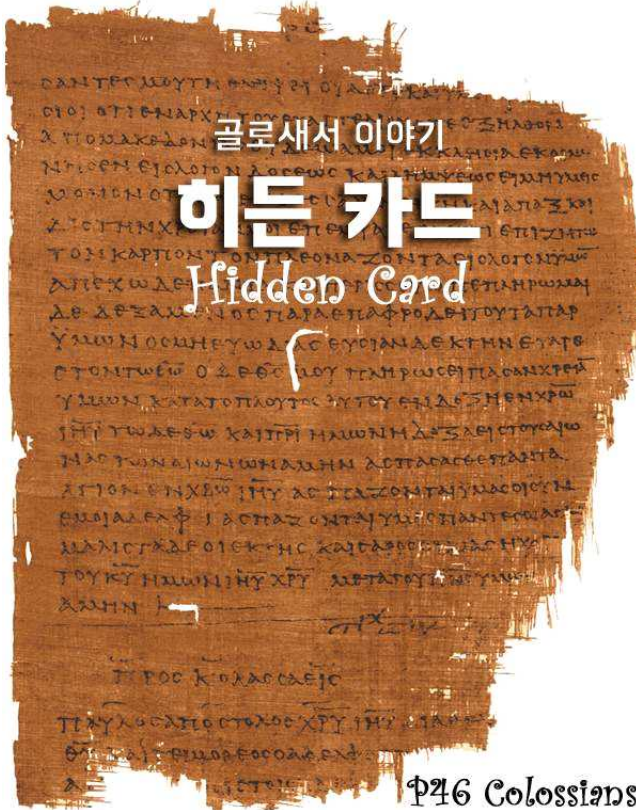
미국과 영국의 노예제도 반대자들이 1838년에 발행한 토크들
 위의 토크 전면에 외사슬에 묶인 남자 노예를, 둘레에 “나는 남자가
 아니고 형제가 아냐”라고 새겼다. 뒷면에 흑백화해를 상징하는
 악수하는 손을, 둘레에 “노예제도와 억압이 전 세계에서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새겼다. 아래 토크 전면에 외사슬에 묶인 여자 노예를,
 둘레에 “나는 여자가 아니고 자매가 아냐”라고 새겼다. 뒷면에
 “자유, 1838”이라 쓴 월계관을, 둘레에 “미합중국”이라고 새겼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
 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
 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18-20절
 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대
 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였다. 여기
 까지만 보면, 바울의 이
 권면이 선악과 행불행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가르친 스토아 철학과 크
 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21-24절
 에서 바울은 그가 왜 그
 토록 매물찬 권면을 했는
 가를 부언하였다. 그리스
 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심
 을 입은 자들은, 비록 그
 들이 이 세상나라에서는

노예일지라도, 더 좋은 하나님나라에서는 자유시민이요, 하나님의 식구이기
 때문에 염려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
 심을 입은 자들은, 비록 그들이 이 세상나라에서는 자유인일지라도, 더 좋
 은 하나님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하였
 다.

히든카드2: 기도부탁과 인사(골 4:2-18)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4 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예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하였다.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예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는 “꾸준히 기도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다. 유대교인들은 하루 세

번 기도회를 가지며 100개 정도의 기도문을 낭송한다. 그들이 갖는 기도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러졌던 하루 세 차례의 제사예배를 대신한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예배가 중단되었으므로 제사예배를 대신해서 하루 세 번 쉼모네 에스레이 기도문을 낭송한다. 기도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사하는 속죄제와 속건제뿐 아니라 감사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원래 제사는 제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인데, 제 몸을 드러 제단에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제물로 대신하였다. 제단에 오른 제물에 안수를 하고 예배자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희생시켰던 것이다. 이것이 대속의 개념이다. 따라서 허물의 사죄를 위한 것이든 감사와 화목을 위한 것이든 제물을 바친다는 개념은 제 몸을 바친다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제물을 바치는 대신에 기도를 바친다는 점에서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바울은 3-4절에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눠받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거리낌 없이 만방에 전할 수 있게, 또 복음전파로 인해서 영어의 몸이 된 바울 자신이 석방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바울은 4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고 하였다.

“세월을 아끼라.”



신약성서 시대의 전도자들이 왕래했던 로마제국 시대에 만들어진 에그나티아 도로(Via Egnatia)

바울은 5-6절에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외인”은 불신자를 말하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말한다(1:9-10). 그러므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라는 말은 부정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경거망동하지 말고 불신자들에게 비

난을 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권면이다. 반면에 6절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는 긍정적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매력과 감명과 설득력을 갖도록 처신하라는 권면이다.

세계는 지금 무신론사상의 발흥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신론자들은 달리화에 새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In God We Trust)는 문구를 삭제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국기에 대한 맹세문’(Pledge of Allegiance)에 담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문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각종 무신론 관련 서적들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국제무신론자협회 회원도 배나 늘었다고 한다.

국내에서는 반기독교시민운동연합이란 단체가 ‘악서 바이블 어린이 금서제정 운동 일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줄여서 ‘반기련’이라 불리는 이 단체는 2003년 11월에 반기독교운동을 목표로 출발하였고, 회원을 1만 명 정도

확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성경을 금서로 지정하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과 궤변을 엮어 놓은 허구이고, 저주와 악담을 뭉쳐 놓은 무서운 내용의 책이며, 포르노 따위의 음담패설이 난무하는 악서”라면서 “어린이들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는 어린이들 주위에서 성경을 철저히 차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찍이 독립운동과 계몽운동, 교육운동과 민주화운동 등에 크게 기여했던 그리스도교가 이렇게까지 폄하되고 욕을 먹는 데에는 반기련의 악의적 태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책임도 그에 못지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세월을 아끼라.”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말씀에 연결된다. 여기서 “세월”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kairos)로써 정해진 시간, 결정적인 시기, 시간이 제공하는 기회 또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특별한 기회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주어진 시간을 잘 쓰라 또는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성서시대에 서기관이 파피루스에 글쓰는 모습을 재연한 사진

아시아 사람으로서 주후 58년 봄에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드로아까지 동행하였고(행 20:4-5), 바울의 말년에는 에베소교회에 파송되었다(딤후 4:12).

9절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라.”고 하였다. 오네시모(Onesimus)는 주인 빌레몬(Philemon)에게서 도망한 노예로서 바울은 그를 향해서 “간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불렀다(몬 1:10).

10-11절에서 “나와 함께 간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7-18절은 인사말이다.

7-8절에서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 주리니...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쌍둥이 서신인 에베소서 6장 21-22절에도 나온다. 두기고(Tychicus)는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고 하였다.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Aristarchus), 바나바의 조카 마가(Mark), 유스도 예수(Justus Jesus)는 유대인들이었다. 아리스다고는 에베소 소요 때 가이오와 함께 폭도들에게 붙잡혀 극장에 끌려갔다가 풀려났고(행 19:29), 바울과 누가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하였으며, 2년 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이송될 때 누가와 함께 배에 올랐으나 로마까지 동행했는지, 무라에서 하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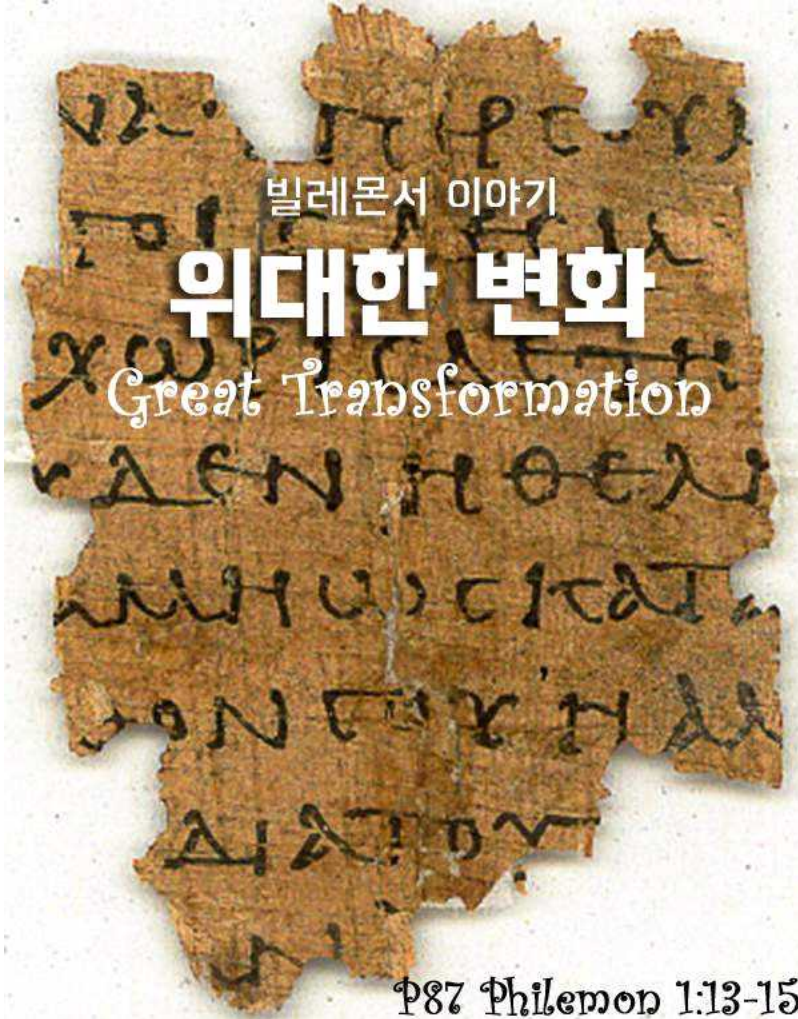
12-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고 하였다. 에바브라(Epaphras)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Hierapolis),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개척한 인물이다.

14절에서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고 하였다. 에바브라(Epaphras), 누가(Luke), 데마(Demas)는 헬라인이었다. 데마는 바울이 로마의 토굴감옥 맘머티메에 갇혔을 때 바울 곁에 남아 시중들지 않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인물이다(딤후 4:10).

15-18절에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늬바(Nympha)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킵보(Archippus)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하였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이다.”라는 축복문구로 서신을 끝냈다. 초기 교회들은 모두가 가정교회들이었다. 뤼쿠스(Lycus) 계곡의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의 교회들도 가정교회들이었다. 라오디게아교회는 늬바의 집에서 모였고, 골로새교회는 빌레몬(Philemon)의 집에서 모였다. 아킵보는 빌레몬의 아들이거나 골로새교회의 사역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초대교부들이 라오디게아서를 단 차례도 인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초대교회의 글들은 교회들이 돌러가며 예배 때 읽는 회람용이었고, 각 교회마다 예배 때 읽을 목적으로 힘닿는 대로 많은 필사본들을 소장하였다. 기도회 때 성경을 읽는 관행은 유대교 회당의 오랜 전통이었다. 그리스도교 역시 예배 때 읽을 그리스도교만의 성경이 필요했다. 교회마다 제각각 판단에 따라 소장한 글들을 예배 때 읽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했다.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367년 아타나시우스가 지금의 27권을 독서목록으로 제안했고, 서방교회에서는 393년 히포와

397년 카르타고 공회의에서 현재의 27권을 정경으로 확정지었다. 정경여부의 잣대는 사도성 곧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이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이 담겼는지를 보고 현재의 27권을 정경으로 결정하였다. 그리스도교가 신약성경 교회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빌레몬서 이야기

위대한 변화

Great Transformation

P87 Philemon 1:13-15

위대한 변화이: 오네시모(I)(문 1:1-3)

노예 신분



‘위대한 사냥’이란 모자이크에서 장대와 회초리를 손에 쥔 관리가 노예를 내리치는 모습. 이 모자이크는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탈리아 시칠리아 엔나 피아자 아르메리나(Piazza Armerina, Sicilia, Italy)에 소재한 4세기의 거대한 저택 카살레의 빌라 로마나(Villa Romana del casale)에 있는 50여 개의 모든 방과 회랑에 화려하게 장식된 모자이크들의 한 조각이다.

빌레몬서는 주후 61-63년경 로마의 셋집에서 바울이 도망노예 오네시모를 위해서 주인 빌레몬과 그 가족 및 그 집에서 모인 골로새교회에 보낸 서신이다.

노예들은 법적으로 인간이 아닌 사고파는 물건이었다. 따라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노예에게는 자신의 운명조차 결정할 권리가 없었다. 노예들은 몸에 노예표식을 지니고 있었고, 소유권이 없었

으며, 결혼할 수 없었다. 노예들은 재량권이 없었으므로 무조건 복종해야 했다. 노예들은 주인이 때리면 맞고 겁탈하면 겁탈 당하였다. 노예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였다. 노예들은 주인의 집안 별도의 공간에서 기거하였고, 자유민들과 뒤섞여 일하였다.

노예들은 대부분이 전쟁노예들이었다. 따라서 노예들의 국적이나 종족도 다양했다. 헬라어가 통용되던 다문화시대였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다. 일부 노예들은 해적들에게 납치당해 팔렸거나 부모에게 팔렸거나 빚을 갚지 못해 노예가 되었거나 노예 부모한테서 태어난 자들이었다.

로마시대에는 노예의 숫자가 전체인구 6천만 명 가운데 15퍼센트인 9백만 명에 달했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자유민 5명당 노예가 3명꼴이었다. 보통의 가정에서는 1-2명의 노예를 소유했지만, 카에칠리우스(Caecilius) 같은 상인은 10여명 이상, 부유한 사람들은 수백 명까지 소유했는데, 로마에 살았던 페다니우스 세쿤두스(Pedanius Secundus)는 4백여 명을 소유했었다. 그는 자신의 노예들 가운데 한 명에게 살해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나머지 노예들이 모두 처형당하였다.

도시 노예들은 농장, 목장, 광산,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예들보다 육체노동에 덜 시달렸다. 일부는 검투사로 팔리기도 했다. 반면에 도시 노예들은 능력에 따라 요리사, 정원사, 시중, 몽학교사(paidagogos), 가정교사, 의사, 사업장노동자, 비서, 악기연주자, 배우, 희극가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들은 주인이나 자유민들과의 접촉이 잦았고, 거리를 자유롭게 활보하였으며, 시장, 신전, 극장, 원형경기장 출입도 할 수 있었다. 로마나 이탈리아를 방문한 외국인들은 가난한 자유민과 노예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였다.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에게서 보듯이 살림을 잘 맡아 관리하거나 가게수입을 늘려주는 노예들은 주인으로부터 식구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해방 노예



“신령한 신들을 위해 에파프로디토, 황제의 해방노예”라고 쓴 비문 (에피그라피코 박물관, Museo Epigrafico of Rome)
D(is) M(anibus) EPAPHRODITUS AVG(usti) LIB(ertis) 바울시대의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해방노예로서 네로의 비서관이었으나 네로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도미티아누스로부터 처형당하였다.

할 의무들이 있었다. 해방노예들은 매년 일정한 날수만큼 전 주인을 위해서 봉사해야 했고, 후원도 해야 했다. 해방노예들은 전 주인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 사용하곤 했다. 예를 들어 유대총독이었던 펠릭스(Felix)는 자신의 이름에 전 주인의 이름 루치우스 카에칠리우스(Lucius Caecilius)를 붙여 루치우스 카에칠리우스 펠릭스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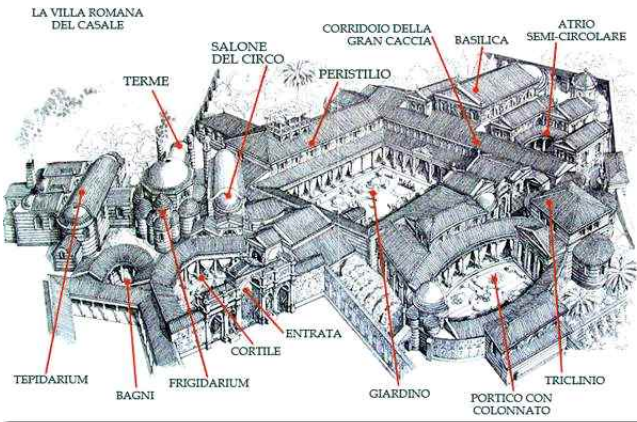
총독 벨릭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의 집에 그의 형제 팔라스(Pallas)와 함께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해방노예였다. 팔라스가 클라

모든 노예들이 죽을 때까지 노예로 남지는 않았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에까지 오른 것에서 보듯이 노예들 중에는 보상으로 자유가 주어졌다. 대개는 주인이 죽으면 유언에 따라 해방노예(libertus)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30세 이내나 100명 이상은 법으로 금지되었다.

해방노예들이라고 자유민의 권리를 다 누렸던 것은 아니다. 해방노예들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없었고, 군고위직에 오를 수 없었다. 해방노예들은 여전히 전 주인에게 해야

우디우스와 절친했었다고 한다. 역사가 타키투스(Tacitus)는 벨릭스가 잔인하고 음탕하며 노예근성이 있었다고 전한다. 그는 세 여인과 결혼하였는데, 한 여인은 안토니아 클레오파트라(Anthonia Cleopatra)의 손녀였고, 또 한 여인은 헤롯 아그립바 1세의 딸 드루실라(Drusilla)였다. 드루실라는 15세 때 에메사(Emesa)의 왕 아지주스(Azizus)와 결혼했다가 그를 버리고 16세 때 벨릭스와 결혼하였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을 때 그녀의 나이는 20여세였다. 벨릭스는 가끔씩 바울을 불러내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뇌물을 바란 때문이었다. 그러나 율리아(Julia)법은 돈을 받고 죄수를 풀어주는 것을 금하였다. 이를 위반하면 관직에서 쫓겨나 추방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였다. 이밖에도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비서 3인방이 모두 해방노예들이었다. 또 로마의 에피그라피코 박물관(Museo Epigrafico)에 소장된 비문들 가운데 에바브로디도의 것이 있다. 이 비문의 주인공은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에파프로디투스’(에바브로디도)로서 주후 20-25년 사이에 출생하여 95년경에 처형당하였다. 그는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해방노예(Augusti libertus)로서 황제 네로의 비서관이었으나 네로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황제 도미티아누스로부터 처형당하였다.

비잔틴 노예



카사알레의 빌라 로마나(La Villa Romana del Casale) 이탈리아 시칠리아에 있는 피아자 아르메리나(Piazza Armerina, Sicilia, Italy)에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4세기에 지어진 거대한 저택, '카사알레의 빌라 로마나'가 있다.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저택은 50여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방과 회랑이 모자이크와 프레스코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 거대한 저택을 짓고 관리하고 농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저택의 주인은 아마 수백 또는 수천 명의 노예들을 거느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방노예들도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지배계층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였다. 그들은 주인을 대신해서 가사와 공무 및 회계업무를 책임졌다. 주인은 자기 재산을 굴리고 부를 창출하여 여유로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자신의 수족인 해방노예의 능력에 의존해야 했다. 이로 인해서 능력이 남다른 노예나 해방노예들은 막중한 일을 책임 떠맡거나 부를 쌓을 수 있었다. 해방노예는 옛 주인을 후원자로 모셨는데, 후원자

(patron)란 아버지(pater)란 뜻에서 나왔다. 해방노예의 책무역시 아들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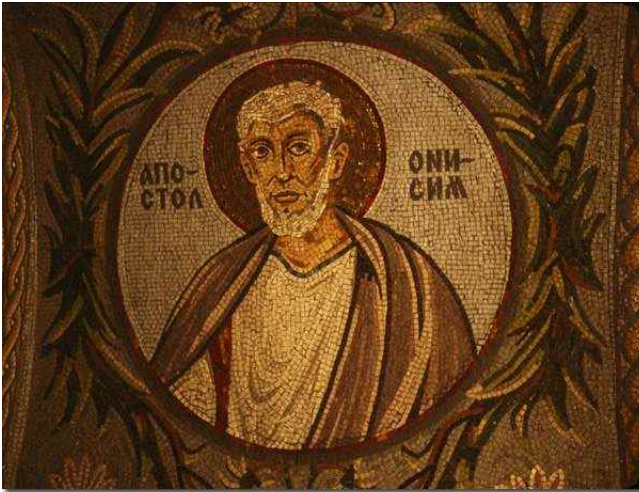
무에 준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해방노예는 신분상승을 이룬 후에도 자신이 몸담았던 노예공동체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노예와 자유인의 세계를 편하게 오간 역동적 존재였다.

로마제국시대에 대지주들은 수백 명에서 수천 명까지 노예들을 거느렸다. 소멜라니아(Melania the younger, c. 383-439)의 경우 한꺼번에 그녀의 노예 8천명을 해방시켰다고 전한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엔나 피아짜 아르메리나(Piazza Armerina, Sicilia, Italy)에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4세기에 지어진 거대한 저택 ‘카살레의 빌라 로마나’(Villa Romana del Casale)가 있다. 거대한 토지를 소유한 지주가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저택은 50여개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방과 회랑이 모자이크와 프레스코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이 거대한 저택을 짓고 관리하고 농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은 대부분 노예들이었을 것이다. 이 저택의 주인은 수백 또 수천 명의 노예들을 거느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삼은 비잔틴제국에서조차 노예를 소유하는 것이 합법이었다. 심지어 사춘기 전후의 소년노예들이 거세되어 인기리에 거래될 정도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영향으로 6세기경부터는 노예들의 숫자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봉건제도의 도입으로 10세기경에는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하던 사물노예(slave-object) 개념이 노예를 사람으로 보는 신민노예(slave-subject)로 바뀌게 되고, 농민이 봉건 지주에게 예속되어 지주의 땅을 경작하고 부역(賦役)과 공납(貢納)의 의무를 지닌 농노제도가 노예제도를 대신하게 되었다. 노예제도는 여전히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지만,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악폐로 여기게 된 것은 그리스도교 때문이었다.

위대한 변화02: 도망노예 오네시모(2)(몬 1:4-7)

빌레몬



오네시모(Onesimus)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세인트 페트카 교회
(St. Petka chapel, Belgrade)

오네시모의 머리 양쪽에 'Apostol onisim'이라고 썼다.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고 하였고,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빈다.” 고 인사말을 썼다. 또 바울은 23-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한다.” 고 하였고,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하기를 빈다.” 고 끝내는 말을 썼다. 이들 인사말과 끝내는 말로 볼 때, 또 4-7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는 말씀으로 볼 때도 바울의 일행과 빌레몬의 가족의 사이가 꽤 오래된 매우 친밀한 관계인 것을 알 수 있다.

빌레몬(Philemon)이란 이름은 빌레몬서에 단 한 번만 나온다. 그 뜻은 ‘애정이 있는’ 이란 뜻이다. 빌레몬의 노예 오네시모(Onesimus)는 ‘유익한’ 이란 뜻이다. 빌레몬은 압비아(Apphia)의 남편이고 아킵보(Archippus)의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란 말은 헬라어 어의로 볼 때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인 바울” 이란 말이다. 13절에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라는 말이 없었다면, 이 구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바울은 1-2절에서 디모데와 함께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압비아와 우리와

아버지였다. 이 가족은 에바브라와 더불어 골로새 사람이다(몬 1:2, 골 4:9). 빌레몬이 몇 명의 노예를 거느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오네시모가 그의 노예였고, 그가 성도들을 환대하고 구제했으며, 자기 집을 집회소로 제공한 것으로 볼 때, 또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재력가였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빌레몬이 상업을 위해서 골로새에서 193km 떨어진 에베소를 왕래하면서 두란노서원에서 가르쳤던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골로새에서 생산된 양모는 콜로시누스(Colossinus)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상품이었다. 빌레몬이 이 양모생산과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에바브라와 아킴보



오네시모의 순교 장면을 묘사한 그림(c. AD 1000)
 이 그림은 비잔틴 황제 바질 2세 때 동방정교회 기도서로 팔사된 바질 2세의 성인 축일문에 실린 그림이다. 오네시모는 동방정교회들에서 '비잔티움의 오네시모' 또는 '거룩한 사도 오네시모'라고 불렸다.

19-22절에서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고 한 것으로 볼 때, 빌레몬은 에베소에 체류하는 동안 상당부분 바울과 그 일행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뿐 아니라,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매우 각별한 스승과 제자 사이였음을 충분히 짐작케 한다. 빌레몬이 골로새교회의 감독이 되어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는 전설이 있으나 빌레몬서는 61-63년 사이에 기록되었고, 네로박해는 64년에 일어났으며, 바울이 체포된 것을 제외하고는 박해가 로마 시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설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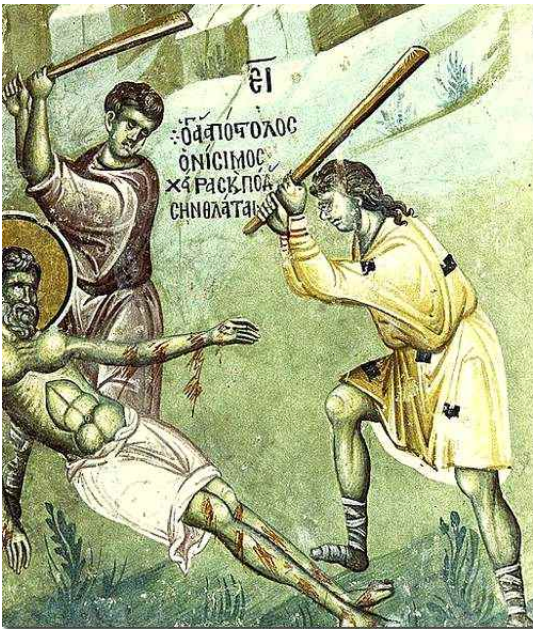
에바브라(Epaphras)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Hierapolis), 골로새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들을 개척한 바울의 제자였다(골 4:12-13).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배웠고, 바울의 감독아래 있는 일꾼이었다(골 1:7). 빌레몬과도 특별

한 사이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빌레몬서를 쓸 당시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수감된 상태에 있었고(23절), 마가, 아리스다고(Aristarchus), 데마(Demas), 누가(Luke)는 수감된 바울의 지시를 받으며 사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4절).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2-1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고 하였다. 에바브라(Epaphras)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Hierapolis), 골로새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개척한 순회목회자였다.

아킵보(Archippus)는 빌레몬과 압비아 부부의 아들로 추정되며,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이 “아킵보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고 말한 것을 볼 때, 골로새교회의 목회자(장로)나 집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네시모



오네시모의 순교 장면을 묘사한 그림

오네시모는 에베소의 주교, 베로이아(Beroia)의 주교, 비잔티움의 주교로도 알려졌고, 트라야누스 황제 때 로마의 통치자 테르틸루스(Tertillus)에게 AD 109년에 순교 당했다는 주장이 있다.

오네시모(Onesimus, 유용한)는 잡혀서 팔려온 노예였기 때문에 그가 속한 민족이나 출신지를 알 수 없다. 동방정교회들에서는 ‘비잔티움의 오네시모’ (Onesimus of Byzantium) 또는 ‘거룩한 사도 오네시모’ 라고 불렀다. 그는 또 97년 혹은 107년에 순교한 안디옥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Ignatius)가 에베소교회의 감독으로 언급한 오네시모와 동일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설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트라야누스 황제 때 로마의 통치자 테르틸루스(Tertillus)에게 109년에 순교 당하였다. 오네시모는 평민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도망노예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도망노예에서 형제로, 형제에서 감독, 감독에서 순교자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였다.

서 형제로, 형제에서 감독, 감독에서 순교자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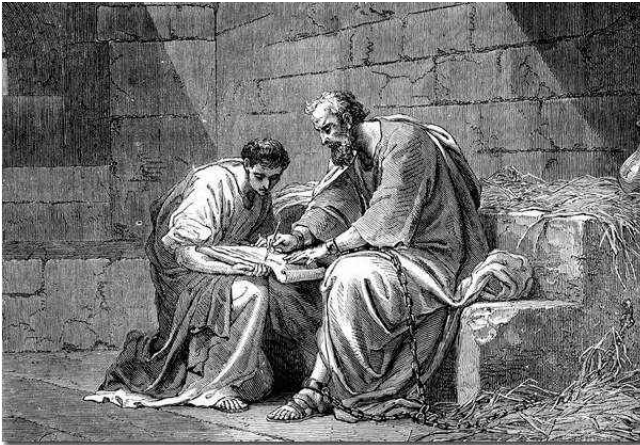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는 97년 혹은 107년에 로마로 붙잡혀 가면서 일곱 편의 서신을 썼다.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그들의 감독에 대해서 부탁의 말을 하였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만한 자격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의 감독이 된 그분은 축복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그나티우스가 언급한 그분은 바로 오네시모였다. 오네시모는 디모테의 뒤를 이어 에베소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고 전한다. 도망자 노예가 에베소 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복음의 신비이다. 그리스도교가 신비의 종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교가 변화의 종교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디모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속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섬김을 받은 교회이며, 요한이 말년에 섬긴 교회이기도하다. 만일 오네시모가 에베소교회의 감독이었고, 109년에 순교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70년경에 에베소로 이주하여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살다가 96년에 사망한 사도 요한과 한 시대를 같은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헌신한 풍운아가 된다. 에베소 교회는 지중해 연안의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통틀어 다섯 명의 최고 감독직 가운데 한 석을 차지한 교회였다. 오네시모가 이 교회의 감독이었다는 기록은 실로 엄청난 변신이 아닐 수 없다. 동물처럼 취급받았던 천한 노예 도망자가 감독 중의 감독인 다섯 명의 총감독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실로 위대한 변신이 아닐 수 없다.

위대한 변화03: 도망노예 오네시모(3)(문 1:8-25)

오네시모를 위한 바울의 간청



바울이 갇힌 로마의 셋집에서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교육을 받는 상상도 당시 환갑을 넘기고 있었다. 당대의 기대수명은 50세에 못 미쳤다. 많은 아이들이 열 살 이전에 죽었고, 인구의 절반은 20세 무렵에 죽었다. 따라서 바울은 9-10절에서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고 적고 있다. 8-9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하노라.” 고 하였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로마로 도망쳤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이 경영하는 가업의 재무를 맡았던 충명한 노예였다는 추정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10-19절에서 그를 일컬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이라고 했고(10절),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다.” 고 했으며(11절), “그는 내 심복이다.” 고 했다(12절). 또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 싶다.” (13절)고 했고,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고 했으며(16절),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를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고 했다(17절). 게다가 바울은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겠다.” 고 했다(18-19절). 바울이 오네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흑암에 빛을, 혼돈에 질서를, 죽음에 생명을 가져다 주는 위대한 복음이다. 신약성서 곳곳에 복음의 위대함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레몬서이다.

수감되어 있던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쓸 당시 환갑을 넘기고 있었

모를 이토록 아낀 점과 그가 훗날 에베소교회의 감독이 된 것을 보아 그가 충분히 신실하고 충명한 노예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네시모의 위대한 변신으로 볼 때, 그가 주인인 빌레몬에게 입힌 손해도 고의가 아니라 실수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고, 빌레몬도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사제지간에 가까웠다. 바울은 빌레몬을 동역자로 칭했고, 형제로도 칭하였다. 20-22절에서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네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므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고 하였다.

운명의 결정권을 주께 맡긴 그리스도인들



로마 노예의 목에 매던 철 목줄과 청동 인식표 (로마 국립박물관 디오클레치아노 유장, AD 4세기) 인식표에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를 붙잡아 나의 주인 존니누스에게 돌려보내면, 금화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FVGITENEME CVMREVOCV VERISIME DM ZONINOACCIPIS SOLIDVM /Fugī, tene me. cum revoc(a)veris me d(omino) m(eo) zonino, accipis solidum>라고 새겼다. 노예로서는 자신의 목에 매던 목줄을 끊거나 풀 수가 없어서 매달고 다녀야 했다. 매달았던 철 목줄과 청동 인식표가 전시되어 있다. 인식표에는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를 붙잡아 나의 주인 존니누스에게 돌려보내면, 당신은 금화를

바울과 오네시모는 자신들의 운명의 결정권을 그리스도께 맡긴 일꾼들이었다. 로마인은 노예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는 자로 정의하였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칭하였다. 당대에 노예는 소 돼지와 같은 주인의 재산목록의 하나였다. 로마제국은 해방 노예들에게는 일반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였지만, 노예들에게는 아무런 인권도 권리도 보장하지 않았다. 주인은 노예를 채찍질하거나 투옥시키거나 불구로 만들거나 죽일 수가 있었다. 또 노예는 동물처럼 노예시장에서 매매되었고, 몸에는 노예표식을 지녀야 했다. 로마 국립 박물관 디오클레치아노 유장(Museo Nazionale Romano-Terme di Diocleziano)에 는 주후 4세기경에 노예의 목에 매달았던 철 목줄과 청동 인식표가 전시되어 있다. 인식표에는 “나는 도망자입니다. 나를 붙잡아 나의 주인 존니누스에게 돌려보내면, 당신은 금화를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FVGITENEME CVMREVOCV VERISME ~DM ~ ZONINOACCIPIS SOLIDVM ‡, Fugi, tene me. Cum revoc(a)veris me d(omino) m(eo) Zonino, accipis solidum)라는 글이 새겨져있다. 노예로서는 자신의 목에 매인 이 목줄을 풀거나 끊을 수가 없었다. 노예가 도망쳤다가 붙잡히면 도망자(fugitivus)란 단어의 첫자인 F자를 불에 달군 인두로 이마에 찍힌 후 채찍에 맞거나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는 표현을 썼는데, 노예의 몸에 새겨진 주인의 흔적이거나 인식표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둔 말씀이다. 바울이 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란 표현이 자기인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란 그 어떤 경우에도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는 노예처럼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었기에 빌레몬의 도망노예(fugitivus)였던 오네시모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복음으로 변화시켜 오네시모 또한 자신의 운명의 결정권을 그리스도께 맡기는 신실한 일꾼으로 삼을 수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16절에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노예로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와 동역자로 영접할 것을 간청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이고, 자신들의 운명의 결정권을 그리스도께 맡긴 “전에는... 무익했으나 이제는... 유익한” (11절)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변화



튀니지 두가(Dougga)의 모자이크(AD 2세기경)
4명의 노예가 악마의 눈을 돌리치기 위한 호신구를 목에 걸고 있고, 물과 수건, 나뭇가지와 꽃바구니, 포도주로 연회장의 손님들을 섬기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짧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을 터득할 수 있다.

첫째, 바울은 흑암 같은 곳에서 빛을 잃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오네시모에게 참된 빛을 찾아 주었다.

둘째,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혼돈한 삶 속에서 방황하던 오네시모에게 안정된 삶의 목표를 주었다. 그는 쓸모없는 사람에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오네시모(유익한)라는 자신의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셋째, 오네시모는 죽음과 같은 노예의 삶에서 생명 있는 형제의 삶에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네시모는 천한 노예에서 사랑 받는 형제

로 다시 태어났다.

넷째, 오네시모는 천한 노예에서 위대한 감독으로 높은 신분의 상승을 맞보기도 했다.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던 쓸모없던 노예 출신 오네시모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에베소교회의 위대한 감독이 되었다.

다섯째,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었다. 참된 자유와 해방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임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에 걸맞은 새롭고 변화된 삶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노예 신분의 변화 없이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주인이라 할지라도 노예처럼 비참한 삶이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노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인도 노예가 되며, 노예도 형제가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다.

오네시모의 위대한 변신은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변신들 중의 한 사건에 불과하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후에 변화된 위대한 삶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성경 자체가 진리를 발견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체험기란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 받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다. 성경은 66권으로 마감이 된지 이미 2000년이 흘렀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변화된 삶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크든 작든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야기 또는 예수님 믿고 성공한 삶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하늘 가나안땅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보좌 앞으로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신다.